육아정책연구

Korean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제11권 제2호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육 아 정 책 연 구

제11권 제2호 2017. 9.

차 례

영유아기 아동의 알레르기질환과 가족관계적 스트레스의 종단적 관계:
생물행동적 가족모델을 기반으로
/ 이정임·양혜정 ····· 1

원장과 원감의 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 참여 경험의 의미 분석
/ 송미온 ····· 29

기혼 보육교사의 직무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일-가정 갈등과 동료 갈등의 매개효과
/ 이지영·김성원·김진원 ····· 57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영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의 매개효과 검증
/ 홍예지·박영아·안수빈·이순형·이강이 ····· 87

순환학습모델에 기반한 유아 식생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 장숙현·김지현 ····· 115

육 아 정 책 연 구

제11권 제2호 2017. 9.

차 례

일본 신(新)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의 문제점과 시사점 고찰
/ 이규림 ····· 149

유아의 학교준비도 영향요인 분석
/ 김진미·홍세영 ····· 169

충청북도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상태변화와 평가인증점수
/ 유재언 ····· 195

미취학 아동의 보육 및 교육시설 입지환경에 대한 연구: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 황세원·김효진·최정선 ····· 219

■ 본 학술지에 실린 논문의 내용은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닙니다.

육아정책연구
제11권 제2호(2017. 9.) 1~27

영유아기 아동의 알레르기질환과 가족관계적 스트레스의 종단적 관계: 생물행동적 가족모델을 기반으로

이정임[1)] 양혜정[2)]

요 약

본 연구는 생물행동적 가족모델(Biobehavioral Family Model; Wood et al., 2008)을 근거로 영유아기 자녀의 알레르기질환(천식, 알레르기비염, 아토피피부염) 진단여부에 따라 가족관계적 스트레스(부모의 부부갈등과 양육스트레스)의 변화추이에 차이가 있는지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에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변인들이 알레르기질환의 진단여부를 예측하는지 확인하였다. 한국아동패널 1차년도(2008년)부터 6차년도(2013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위계적 선형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아가 여아에 비해, 그리고 간접흡연에 노출된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알레르기질환을 진단 받을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둘째, 알레르기질환 집단(N=842) 어머니들은 비 알레르기질환 집단(N=666) 어머니들에 비해 아동의 출생초기부터 유의하게 높은 부부갈등과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아동이 4~5세가 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셋째, 알레르기질환 집단 아버지들은 비 알레르기질환 집단 아버지들에 비해 부부갈등 수준은 차이가 없었던 반면, 양육스트레스는 아동이 3세에서 5세까지 줄곧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갈등과 양육스트레스 등 가족관계적 스트레스가 자녀의 심리적 건강을 넘어 신체적 건강과도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알레르기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가족의 정서적 환경을 고려한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정책적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한국아동패널, 생물행동적 가족모델, 알레르기질환, 가족관계적 스트레스, 영유아기, 종단적

1) 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박사과정
2) 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조교수

Ⅰ. 서론

최근 의·약학의 급격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소아청소년의 알레르기질환은 세계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어 관련 전문가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홍수종·안강모·이수영 외, 2008; Andersson, Hansen, & Larsen et al., 2016; Wood, Miller, & Lehman, 2015).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에서 2015년까지의 건강보험 지급자료에 따르면 12세 이하에서 알레르기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비율이 아토피피부염 48.6%, 천식 35.0%, 알레르기비염 30.3%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6). 이는 아동기의 가장 흔한 만성질환이 알레르기질환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Im, Park, & Oh et al., 2014; Jee, Kim, & Kim et al., 2009; Morts, Lauritsen, & Bindslev-Jensen et al., 2001; Van Den Nieuwenhof, Schermer, & Bosch et al., 2010).

알레르기질환은 일반적으로 생후 2개월경에 아토피피부염으로 시작되어 3세경부터 천식과 알레르기비염이 차례로 발생하며, 소아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알레르기 행진'의 경과를 보인다(남승연·윤혜선·김우경, 2005; 이혜숙·이재천·홍성철 외, 2012; 질병관리본부, 2014; Wang, Wen, & Chiang et al., 2016). 즉 아동기 알레르기질환은 단순히 아동기 건강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성인기 만성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알레르기 증상이 발현되기 시작하는 영유아기 초부터 효율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예방 및 관리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

알레르기질환은 산업화로 인한 대기오염과 주거환경의 변화, 유전적·면역학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정확한 원인과 기전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김동일·양현종·박용민 외, 2008; 류동수·이주석, 2015; 선동신, 2010; 한지영·박현숙, 2016; Andersson et al., 2016; Marshall, 2004). 예를 들어, 모유수유, 간접흡연, 애완동물 여부는 알레르기질환의 위험요인이라는 연구결과와 알레르기질환과 관련이 없다는 연구가 공존할 뿐만 아니라, 세부질환(천식, 알레르기비염, 아토피피부염)에 따라 위험요인이 서로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남승연 외, 2005; 신지원·김우경·윤혜선, 2009; 이은섭·방지석·오연정 외, 2015 이혜숙 외, 2012; 장주영·김효빈·이소연 외, 2006; 홍수종 외, 2008).

최근 연구에서는 알레르기질환 관련 유전자에 대한 증거를 밝혀냈고(Wills-Karp & Ewart, 2004; Wood, Lim, & Miller et al., 2008), 환경적 요인이 유전자의 발현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알레르기질환의 진행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Miller

& Chen, 2006; Mrazek, 2003; Wood et al., 2008).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한 검사 및 치료법이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레르기질환의 유병률은 최근 40년간 3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선동신, 2010; Marshall, 2004). 이는 유전적 요인과 물리적 환경요인만으로는 알레르기질환의 기원을 설명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Wang et al., 2016; Wright, Rodriguez, & Cohen, 1998).

근래에는 알레르기질환의 심리사회적 요인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King & Wilson(1991)은 아토피피부염 환자들이 전날 경험한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피부상태 변화 사이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고하였다. 또한 Helmbold, Gaisbauer, & Kupfer et al.(2000)이 아토피피부염 환자를 대상으로 종단적 사례분석을 실시한 결과, 증상이 심한 환자군에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선천적 면역세포인 호산구 농도가 낮았으며, 호산구 수가 적을수록 질병활성화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에서도 일상적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는 청소년일수록 알레르기질환 진단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김보라, 2009; 김재희, 2015; 이화진, 2016). 특히 영유아기 아동의 경우, 알레르기질환과 관련된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는 대부분 부적절한 가족환경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영유아기 아동에게 가족, 특히 부모는 가장 중요한 사회정서적 환경으로(Im et al., 2014), 아동은 이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이 미약한 상태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가족환경 내에서 보내기 때문이다. 관련 선행연구에 따르면, 천식이 있는 아동의 부모는 건강한 아동의 부모보다 온정적 정서 수준이 낮았으며(Macuka & Vulić-Prtorić, 2007), 어머니의 낮은 애착안정성 점수는 자녀의 아토피피부염이나 알레르기비염의 심각성과 관련이 있었다(Im et al., 2014).

일부 연구자들은 가족관계적 스트레스가 천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를 과소평가함으로써 치료에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Wood et al., 2015). 가족의 부정적 상호작용은 천식의 발생 시기, 진행과정, 불량한 예후에 모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linnert, Kaugars, & Strand et al., 2008; Wood et al., 2008; 2015; Yamamoto & Nagano, 2015). 예를 들면, 가족갈등과 가족 간 분노감 표현이 높을수록 천식 환아들의 입원일 수가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Chen, Bloomberg, & Fisher et al., 2003). 또한 알레르기질환 요인을 가진 영유아를 연구한 결과, 생후 6개월 내의 가족고통(부적절한 배우자 지지, 모의 우울증)과 만성적 양육 스트레스는 2~3세경의 알레르기성 면역 프로파일의 여러 지표 및 천식의 발병 시기와 관련이 있었다(Klinnert et al., 2008; Mrazek, Klinnert, & Mrazek et al., 1999; Wood et al., 2015; Wright, Finn, & Contreras et al., 2004). 특히 Milam, McConnell,

& Yao et al.(2008)은 가족력이 있음에도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낮은 경우 자녀들이 천식의 초기증상을 보이지 않은 반면, 가족력이 없음에도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천식증상을 나타낼 수 있음을 보고하면서, 건강한 가족기능은 유전적 소인이 있는 아동의 천식 위험을 완충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가족관계적 스트레스로 인한 가족의 부정적 정서분위기가 아동의 정서적 스트레스를 예측하며, 결과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 등 심리생물학적 경로를 거쳐 질병활성화와 관련되는 반면, 긍정적 가족정서분위기는 질병의 위험요인으로부터 보호해 준다고 제안한 생물행동적 가족모델(Wood, Miller, & Lim et al., 2006; Wood et al., 2008; 2015)을 지지하고 있다. 생물행동적 가족모델(Biobehavioral Family Model)은 생물심리사회 모델을 바탕으로, 가족정서분위기(family emotional climate), 부모관계의 질(parents' relationship quality), 부모-자녀 관계의 안전성(parent-child relational security), 생물행동적 반응성(biobehavioral reactivity)의 네 가지 연속체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연속체는 서로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면서 질병의 활성화에 기여하거나, 질병의 발현 및 악화를 완충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본다(Lim, Wood, & Miller et al., 2011; Wood et al., 2006; 2008; 2015).

생물행동적 가족모델을 구성하는 네 가지 연속체 중 먼저 '가족정서분위기'는 가족구성원간의 부정적(적대성 등 비난형 감정표현), 긍정적(따뜻함, 애정, 칭찬, 지지 등) 정서교류의 균형과 강도로 표현되며, 가족의 정서와 스트레스 조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Wood et al., 2008; 2015). '부모관계의 질'은 부부의 친밀한 관계나 갈등적인 관계패턴으로(Wood et al., 2008; 2015), 가족전체의 정서분위기와 아동의 정서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Davies, Harold, & Goeke-Morey et al., 2002; Wood et al., 2008). '부모-자녀 관계의 안전성'은 양육의 질에 따라 부모-자녀 사이에 형성되는 애착의 안정성을 반영한다. 이는 자녀의 정서조절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아동의 질병과 스트레스 생활사건의 영향을 조절한다(Hofer, 1994; Wood et al., 2008; 2015). 마지막으로, '생물행동적 반응성'은 이 모델의 핵심으로 가족정서분위기나 가족관계를 통해 경험하는 스트레스 반응을 질병의 진행과정에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Wood et al., 2008; 2015). 이 모델을 근거로 가족의 상호작용을 실험한 연구들은 부정적 가족정서분위기, 부부갈등, 불안정한 부모-자녀 관계, 부정적 양육, 부모의 우울은 아동의 불안과 우울을 예측하며, 천식의 질병활성화와 관련된다는 결과를 밝혀왔다(Lim, Wood, & Miller, 2008; Lim et al., 2011; Wood et al., 2006, 2008, 2015).

최근 국내에서도 아동기 알레르기질환을 양육태도, 어머니의 정신건강, 모-자 상호

작용 등 가족관련 변인과 함께 연구하기 시작했다(김동희·조성은·염혜영, 2010; 이영찬·김성완·신승엽 외, 2008; 정승원·장은영·신미용 외, 2005; 최은정·이미지·윤현진 외, 2016; 최지은·이경숙·박진아 외, 2015). 그러나 대부분 알레르기질환이 환아와 가족에게 미치는 심리사회적 영향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가족관계적 스트레스가 생물학적 경로를 거쳐 알레르기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물행동적 가족모델의 설명과는 방향성이 다르다. 예외적으로 선동신(2010)은 대학병원에서 알레르기질환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환아 및 그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통해 알레르기질환과 관련된 스트레스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체의 78.9%가 가족관계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이들 중 절반은 상담을 받은 후 알레르기 증상의 호전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알레르기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를 받더라도 높은 가족관계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을 경우 증상 호전이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족관계적 스트레스는 알레르기질환의 활성화는 물론 예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의 신체적 건강문제는 개인적이고 의학적이며 생물학적인 차원에서만 주로 논의해 왔다(김진영, 2007). 가족요인을 고려한 연구에서도 대부분 알레르기질환으로 인해 아동과 가족이 겪는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밝히는데 주된 관심을 보여 왔으며, 알레르기질환 중 특정 질병을 지닌 소아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횡단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김경희, 2001; 유일영·김동희, 2004; 정승원 외, 2005; 조복희·오세영·정자용 외, 2008; 최은정 외, 2016; 최지은 외, 2015). 즉 부부불화 등 가족관계적 스트레스 요인이 알레르기질환과 관련될 수 있는지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진한 상태이다. 게다가 알레르기 행진의 출발 지점부터 영유아 가족의 정서적 환경요인을 종단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물행동적 가족모델과 선행연구를 근거로 자녀의 출생 이후 5세까지 알레르기질환 진단 경험 여부에 따라 가족관계적 스트레스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의 1차년도(2008년)에서 6차년도(2013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보다 광범위한 알레르기질환과의 관련성을 탐색하기 위해 대표적인 3대 알레르기질환(천식, 알레르기비염, 아토피피부염)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생물행동적 가족모델의 구성요소 중 가족정서분위기와 부모관계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부갈등과 부모-자녀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양육스트레스를 가족관계적 스트레스 변인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질환의 위험 또는 보호요인으로 보고되었지만 여전히 연구마다 불일치된 결과를 보이고 있는 알레르기질환 관련 변인과 인구사회학적 변인(김보라, 2009; 이소연, 2009; 이화진, 2016; 전민희, 2016;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2011; 홍수종 외, 2008)이 알레르기질환 진단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가족관계적 스트레스가 아동의 심리내적, 행동적 문제를 넘어 신체적 질병의 발현 및 악화와 관련될 수 있는지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아동기 알레르기질환의 보다 효과적인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을 넘어 아동의 정서적 양육환경 즉 가족관계적 스트레스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 등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한 본 연구의 주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인구사회학적 변인(아동의 성별, 거주지역, 부모학력, 가구소득)과 알레르기질환 관련 변인(모유수유, 애완동물, 간접흡연)은 알레르기질환(천식, 알레르기비염, 아토피피부염)의 진단을 예측하는가?

[연구문제 2] 알레르기질환 진단 여부에 따라 가족관계적 스트레스(부모의 부부갈등과 양육스트레스)의 변화 추이에 차이가 있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한국아동패널연구에서 수집한 1차년도(2008년)에서 6차년도(2013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2008년도에 출생한 총 2,150 신생아가구를 대상으로 1차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2016년 현재 8차 조사를 마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6차년도에 추가적으로 수집된 건강 관련 질문지 자료와 2차에서 6차년도까지 수집된 천식과 아토피피부염 진단 여부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알레르기질환 집단(N=842)'과 '비 알레르기질환 집단(N=666)'으로 분류된 총 1,508가구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생후 5년간 천식, 알레르기비염, 아토피피부염 중 어느 하나라도 진단받은 적이 있는 집단을 '알레르기질환 집단'으로 정의하였고, 천식, 알레르기비염, 아토피피부염 뿐만 아니라 그 외 알레르기성 눈병, 식품 알레르기 등의 관련 질환 진단 경험이 전혀 없는 집단을 '비 알레르기질환 집단'으로 정의하였다. 알레르기질환 집단 내에서는 천식, 알레르기비염, 아토피피부염 중 한 가지 질환만 진단받은 경우가 563명(66.9%)로 가장 많았고, 두 가지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가 247명(29.3%), 세 가지 질환 모두 진단 받은 경우가 32명(3.8%)이었다. 1차년도에 아동의 평

균월령은 5.5개월(*SD*=1.2개월)이었고 2차년도에는 14.1개월(*SD*=1.1개월)이었으며, 이후 평균 12개월 정도의 간격으로 조사가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1차년도에 아동의 연령을 0세, 2차년도에서 6차년도까지를 1세에서 5세로 간주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알레르기질환 관련 특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 연구참여자의 특성

단위: *N*(%)

변인	구분	알레르기 집단 (*N*=842)	비 알레르기 집단 (*N*=666)	변인	구분	알레르기 집단 (*N*=842)	비 알레르기 집단 (*N*=666)
아동의 성별	남자	468(55.6)	308(46.2)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이하	13(1.5)	19(2.9)
	여자	374(44.4)	358(53.8)		101-200만원	213(25.3)	1581(23.7)
거주 지역	대도시	334(39.7)	245(36.8)		201-300만원	291(34.6)	209(31.4)
	중소도시	342(40.6)	279(41.9)		301-400만원	152(18.1)	138(20.7)
	읍면지역	165(19.6)	142(21.3)		401-500만원	94(11.2)	67(10.1)
	무응답	1(0.1)	0(0.0)		501-600만원	29(3.4)	28(4.2)
아버지 교육 수준	중졸이하	9(1.0)	11(1.7)		601-700만원	12(1.4)	16(2.4)
	고졸	214(25.4)	179(26.9)		701만원 이상	13(1.5)	12(1.9)
	전문대졸	179(21.3)	140(21.0)		무응답	25(3.0)	19(2.9)
	대졸	304(36.1)	236(35.4)	모유 수유 여부	예(4주 이상)	699(83.0)	549(82.8)
	대학원졸	80(9.5)	63(9.5)		아니오	124(14.7)	100(14.9)
	무응답	56(6.7)	37(5.6)		무응답	19(2.3)	17(2.6)
어머니 교육 수준	중졸이하	5(0.6)	5(0.8)	애완 동물 여부	예(개, 고양이 사육)	33(3.9)	38(4.7)
	고졸	236(28.0)	201(30.2)		아니오	783(93.0)	625(93.4)
	전문대졸	247(29.3)	197(29.6)		무응답	26(3.1)	3(0.5)
	대졸	295(35.0)	203(30.5)	간접 흡연 여부	예(1주에 1회 이상)	428(50.8)	287(43.1)
	대학원졸	36(4.3)	37(5.6)		아니오	387(46.0)	376(56.5)
	무응답	23(2.7)	23(3.5)		무응답	27(3.2)	3(0.5)

2. 측정도구

가. 인구사회학적 특성

아동의 연령, 성별, 거주지역, 부모의 교육수준, 월평균 가구소득 등 연구참여 아동과 가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나. 알레르기질환 진단 여부

한국아동패널연구 6차년도에 한국판 ISAAC(International Study of Asthma and Allergies in Childhood) 질문지(Choi, Ju, & Kim et al., 1998)를 통해 조사된 생후 5년간 천식, 알레르기비염,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성 눈병, 식품 알레르기 진단 여부 자료와 추가적으로 2차년도에서 6차년도까지 조사된 천식과 아토피피부염 진단 여부 자료를 활용하였다.

다. 모유수유 여부

1차년도에 수집된 현재 모유수유 여부와 중단 시기 자료를 바탕으로 모유수유를 아예 하지 않았거나 4주 이내에 중단한 경우와 4주 이상 지속한 경우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라. 애완동물 여부

6차년도에 수집된 임신 때부터 생후 12개월 내에 집에서 개나 고양이를 키운 적인 있는지에 관한 문항을 통해 조사하였다.

마. 간접흡연 여부

6차년도에 수집된 아동이 현재 주변에서 담배냄새를 맡는 일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있는 지 여부를 묻는 문항을 통해 조사하였다.

바. 부부갈등

Markman, Stanley, & Blumberg(2001)의 부부갈등 척도를 정현숙(2004)이 수정 및 번안한 척도를 재수정하여 사용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된 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갈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1차년도에서 5차년도까지 자료가 수집되었으며, *Cronbach's α*는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 .89~.91과 .91~.92였다.

사. 양육스트레스

김기현과 강희정(1997)이 개발한 척도로 부모역할 수행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과 부모가 인지하는 디스트레스를 반영하는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자료는 1차년도에서 6차년도까지, 아버지의 자료는 4차년도에서 6차년도까지 수집되었다. *Cronbach's a*는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 .84~.86과 .84~.87이었다.

3. 통계분석방법

먼저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알레르기질환 관련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고, 이들 변인들이 알레르기질환 진단 여부를 예측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생후 4~5년간 가족스트레스 변인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추정하고, 그 변화추이에 있어서 알레르기질환 진단 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 Raudenbush & Bryk, 2002)을 사용하였다.

위계적 선형모형은 1수준에서 개인별 반복측정치로부터 변화의 함수를 추정하고, 2수준에서는 변화에 있어서의 개인차를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 종속변인은 가족관계적 스트레스의 초기치(아동 0세 때 측정치)와 변화율(아동의 0세에서 4~5세까지의 변화추이)이며, 독립변인은 이러한 종속변인에 개인차를 야기할 것으로 가정된 알레르기질환 진단 여부이다. 또한 종속변인인 가족스트레스 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된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통제변인으로 고려하였다. 위계적 선형모형 검증 1단계에서는 가족스트레스 변인의 변화추이를 알아보기 위해 초기치와 변화율의 전체 평균과 개인차를 포함하는 무조건적 선형모형을 검증하였고, 2단계에서는 이러한 변화추이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이 추가된 조건적 선형모형을 검증하였다.

종속변인의 결측치는 아버지 부부갈등 5.5%, 아버지 양육스트레스 8.9%였으며, 그 외 변인들은 0.6% 미만이었다. 위계적 선형모형은 최대우도추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하여 무선적 결측치의 영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장점이 있다(Raudenbush & Bryk, 2002). 통계분석은 IBM SPSS 21을 사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알레르기질환 진단의 예측

인구사회학적 변인 및 알레르기질환 관련 변인이 알레르기질환 진단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 알레르기질환 진단을 예측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변인	B	SE	*p*	OR	95% CI
아동의 성별	0.375	0.104	<0.001	1.454	1.186~1.784
거주지역	0.083	0.070	0.231	1.087	0.948~1.246
부학력	0.026	0.051	0.618	1.026	0.928~1.135
모학력	0.059	0.056	0.295	1.061	0.950~1.185
가구소득	-0.040	0.036	0.273	0.961	0.895~1.032
모유수유	0.026	0.146	0.856	1.027	0.771~1.367
애완동물	-0.366	0.244	0.133	0.693	0.430~1.118
간접흡연	0.371	0.105	<0.001	1.449	1.179~1.781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아가 여아에 비해 알레르기질환을 진단받을 확률이 1.4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Odd Ratio=1.454, $p < .001$). 또한 간접흡연에 노출된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알레르기질환 진단을 받을 확률이 1.45배 높았다(Odd Ratio=1.449, $p < .001$). 한편 거주지역, 부모학력, 가구소득, 모유수유, 애완동물 여부는 알레르기질환 진단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2. 가족관계적 스트레스의 변화추이를 추정하는 위계적 선형모형

가. 무조건적 선형모형 검증

먼저 연구참여 가정의 가족스트레스 변인들의 변화추이를 추정하기 위하여 무조건적 선형모형을 검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각각의 종속변인에 대하여 선형적 변화모형과 비선형적(이차식) 변화모형을 추정한 후, 우도비검정(likelihood ratio test)을 통해 모형적합도가 보다 우수한 모형을 선택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의 부부갈등과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선형적 변화추이를 따랐고, 아버지의 부부갈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비선형적 변화추이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어머니의 부부갈등에 대한 지각은 출산 초기 측정한 초기치는 평균 15.9점이었으며, 자녀가 4세가 될 때까지 매년 평균 0.3점씩 유의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p < .001$). 반면, 아버지 부부갈등의 초기치 평균은 14.9점으로 어머니에 비해 1점정도 낮았으며, 자녀 3세까지 유의한 증가를 보이다가($p < .001$) 3세에서 4세 사이에는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비선형적 변화추이를 보였다($p < .00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아동

의 출생 후 첫 2년 동안 유의하게 증가하다가($p < .001$) 2세에서 3세 사이에는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었고, 그 이후 유의하게 감소되는 비선형적 변화추이를 보였다($p < .001$). 아동이 3세에서 5세까지 자료가 수집된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평균 24.8점 정도로 유의한 변화 없이 유지되어, 같은 기간 평균 28점에서 1점정도 유의한 감소를 보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차이를 보였다.

〈표 3〉 무조건적 선형모형 결과

변인			추정치	표준오차	*t*/*Z*
모 부부갈등	고정효과	초기치 평균	15.896	0.144	110.074***
		선형적 변화율 평균	0.312	0.036	8.698***
	무선효과	초기치 분산	22.904	0.999	22.925***
		변화율 분산	0.534	0.065	8.268***
	초기치와 변화율의 공분산(상관)		-0.002(-0.032)		
부 부부갈등	고정효과	초기치 평균	14.931	0.149	100.359***
		선형적 변화율 평균	1.185	0.120	9.850***
		이차식 변화율 평균	-0.176	0.028	-6.257***
	무선효과	초기치 분산	16.955	0.802	21.146***
		변화율 분산	0.355	0.063	5.664***
	초기치와 변화율의 공분산(상관)		-0.009(-0.170)		
모 양육 스트레스	고정효과	초기치 평균	27.258	0.159	170.984***
		선형적 변화율 평균	0.580	0.118	4.905***
		이차식 변화율 평균	-0.111	0.028	-4.016***
	무선효과	초기치 분산	23.305	1.048	22.244***
		변화율 분산	0.707	0.077	9.207***
	초기치와 변화율의 공분산(상관)		-0.003(-0.041)		
부 양육 스트레스	고정효과	초기치 평균	24.783	0.153	162.230***
		선형적 변화율 평균	-0.009	0.007	1.350
	무선효과	초기치 분산	18.216	0.966	18.861***
		변화율 분산	0.004	0.002	1.740
	초기치와 변화율의 공분산(상관)		-0.0005(-0.208)		

*** $p < .001$

한편, 이들 가족스트레스 변인의 초기치와 변화율의 분산이 아버지 양육스트레스의 변화율만 제외하고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p < .001$), 이는 부모의 부부갈등과 양육스트레스 수준에 있어서 아동의 출생 초기 측정치나 이후 아동의 성장에 따른 변화 정도에 있어 모두 유의한 개인차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조건적 선형모형 검증

알레르기질환 진단 여부에 따라 부모의 부부갈등 및 양육스트레스 수준의 변화추이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조건적 선형모형을 추정하였다. 예측변인인 알레르기질환 진단 여부 외에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통제변인으로 고려하였다. 모형의 간명성을 위하여 사전에 단순회귀분석을 통해 가족스트레스 변인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부모의 학력과 가구소득을 통제변인으로 포함하였다. 부모의 부부갈등을 예측하는 조건적 선형모형 결과는 <표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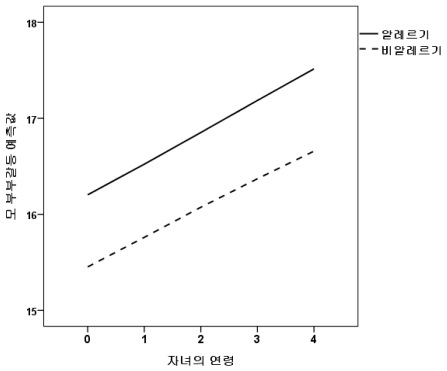
〈표 4〉 부부갈등 변화추이를 예측하는 알레르기질환 여부의 고정효과

결과변인	예측변인		추정치	표준오차	*t*	*p*
모 부부갈등	초기치	절편	19.555	0.832	23.509	< .001
		모학력	−0.660	0.163	−4.061	< .001
		가구소득	−0.210	0.105	−1.998	.046
		알레르기질환	0.748	0.292	2.557	.011
	변화율	기울기	−0.039	0.210	−0.186	.852
		모학력	0.039	0.041	0.948	.343
		가구소득	0.041	0.026	1.574	.116
		알레르기질환	0.030	0.073	0.415	.678
부 부부갈등	초기치	절편	17.485	0.750	23.328	< .001
		부학력	−0.508	0.139	−3.653	< .001
		가구소득	−0.004	0.101	−0.035	.972
		알레르기질환	0.245	0.280	0.876	.381
	변화율	기울기	0.909	0.234	3.889	< .001
		기울기(2차식)	−0.170	0.029	−5.964	< .001
		부학력	0.056	0.0382	1.490	.137
		가구소득	−0.017	0.028	−0.606	.544
		알레르기질환	0.016	0.076	0.213	.8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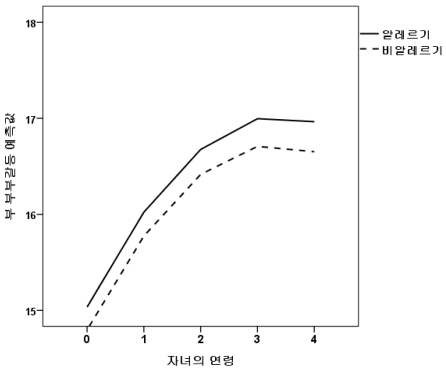
먼저 어머니의 부부갈등 수준의 초기치는 알레르기질환 진단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11). 즉 아동의 출생초기에 알레르기질환 집단 어머니들이 비 알레르기집단 어머니들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부부갈등 수준을 보고하였다. 또한 어머니 부부갈등 수준의 변화율은 알레르기질환 진단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p = .678), 이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기에 나타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아동이 4세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됨을 의미한다. 즉 알레르기질

환을 진단받은 아동의 어머니가 그렇지 않은 아동의 어머니에 비해 아동의 생후 4년간 줄곧 더 높은 수준의 부부갈등을 보고했다는 것이다.

한편, 아버지의 부부갈등 수준의 초기치(p = .381)나 변화율(p = .832)은 알레르기질환 진단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은 아동의 출생초기에서 3세까지 유의한 증가를 보이다가(p < .001) 이후 4세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비선형적 변화를 나타냈으며(p < .001), 이러한 변화추이는 알레르기질환 집단과 비 알레르기집단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



〔그림 1〕 알레르기질환 여부에 따른 모 부부갈등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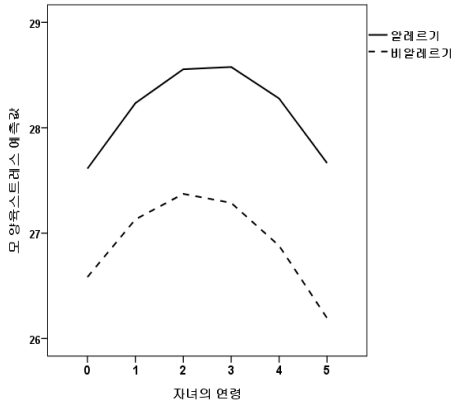
〔그림 2〕 알레르기질환 여부에 따른 부 부부갈등 변화추이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예측하는 조건적 선형모형 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의 초기치는 알레르기질환 진단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1). 즉 아동의 출생초기에 알레르기질환 집단 어머니들이 비 알레르기 집단 어머니들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보고하였다. 또한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변화율은 알레르기질환 진단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p = .135), 이는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기에 나타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아동이 4세가 될 때까지 변함없이 유지됨을 의미한다. 즉 알레르기질환을 진단받은 아동의 어머니가 그렇지 않은 아동의 어머니에 비해 아동의 생후 5년간 줄곧 더 높은 수준의 양육스트레스를 보였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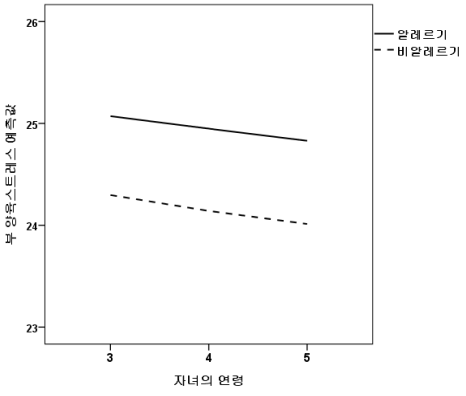
한편, 자녀가 3세 때인 아버지 양육스트레스 초기치는 알레르기질환 진단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 = .015), 이후 5세까지 변화율에는 알레르기질환 진단 여부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p = .903). 이는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버지 양육스트레스의 유의한 집단 간 차이가 아동 3세에서 5세까지 변함없이 유지됨을 의미한다.

〈표 5〉 양육스트레스 변화추이를 예측하는 알레르기질환 여부의 고정효과

결과변인	예측변인		추정치	표준오차	*t*	*p*
모 양육 스트레스	초기치	절편	30.093	0.835	36.031	< .001
		모학력	−0.501	0.163	−3.072	.002
		가구소득	−0.273	0.105	−2.592	.010
		알레르기질환	1.013	0.293	3.453	.001
	변화율	기울기(선형)	0.066	0.016	4.015	< .001
		기울기(2차식)	−0.001	0.0001	−8.961	< .001
		모학력	−0.001	0.003	−0.431	.666
		가구소득	−0.001	0.002	−0.332	.740
		알레르기질환	0.008	0.005	1.497	.135
부 양육 스트레스	초기치	절편	27.853	0.836	33.310	< .001
		부학력	−0.465	0.155	−2.993	.003
		가구소득	−0.322	0.113	−2.846	.004
		알레르기질환	0.761	0.312	2.438	.015
	변화율	기울기	0.033	0.038	0.867	.386
		부학력	−0.006	0.007	−0.872	.383
		가구소득	−0.003	0.005	−0.675	.500
		알레르기질환	0.002	0.014	0.122	.903



[그림 3] 알레르기질환 여부에 따른 모 양육스트레스 변화추이



[그림 4] 알레르기질환 여부에 따른 부 양육스트레스 변화추이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생물행동적 가족모델(Wood et al., 2006; 2008; 2015)을 근거로 아동의 알레르기질환 발현과 가족관계적 스트레스간의 관련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생후 5년 내에 천식, 알레르기비염, 또는 아토피피부염을 진단받은 아동과 알레르기질환 경험이 전혀 없는 아동집단을 비교하였다. 알레르기질환 진단 여부에 따라 아동의 출생초기 부모의 부부갈등과 양육스트레스 수준 그리고 생후 4~5년간 이들 변인의 변화추이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출생 후 5년간 천식, 알레르기비염, 아토피피부염 중 하나라도 진단받은 적이 있는 자녀는 전체의 55.8%(842명)로 나타났다. 이는 이혜숙 외(2012)의 연구에서 나타난 2~6세 영유아의 알레르기질환 진단율 53.0%(천식 11.4%, 알레르기비염 10.6%, 아토피피부염 31.0%)와 매우 유사한 결과로 우리나라 영유아들은 2명 중 1명 이상이 알레르기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통 0~1세 때 아토피피부염 증상이 심할수록 4~5세경부터 천식 또는 알레르기비염의 발생률이 높아지며,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6; 질병관리본부, 2014). 또한 이 시기에 발생한 천식은 호전되더라도 기도과민성이 내재되어 성인이 되었을 때 재발하는 특성이 있다(질병관리본부, 2014). 따라서 0~5세경 알레르기질환의 다양한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제거 또는 조절하는 개입은 영유아기 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의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질병으로 인한 고통 경감과 가족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알레르기질환의 위험인자로 알려진 변인들이 알레르기질환의 진단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지 확인한 결과, 성별과 간접흡연은 알레르기질환의 진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아가 여아에 비해, 그리고 간접흡연에 노출된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알레르기질환을 진단받을 확률이 각각 1.4배 높았다. 이는 아토피피부염(김보라 2009; 박용민, 2011; 홍수종 외, 2008)과 천식(이혜숙 외, 2012)이 여아에게 더 호발한다는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였지만, 전반적으로 알레르기비염과 천식의 유병률은 남아가 여아보다 더 높다는 선행연구와는 일관된 결과였다(김영호·서주희·권지원 외, 2015; 이화진, 2016; 홍수종·권지원·최윤경, 2014). 또한 대다수의 연구들은 간접흡연이 천식의 위험요인임을 밝히고 있어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김지영·김희라·김형진 외, 2003; 이혜숙 외, 2012; 한지영·박현숙, 2016; 홍

수종 외, 2008; Klinnert et al., 2008). 따라서 알레르기 행진이 시작되기 전부터 자녀가 간접흡연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금연교육을 포함한 부모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남아의 경우 간접흡연뿐 아니라 다른 위험인자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알레르기질환 진단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부모의 학력, 모유수유, 애완동물 요인은 선행연구 결과들과 불일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남승연 외, 2005; 신지원 외, 2009; 이은섭 외, 2015; 이혜숙 외, 2012; 홍수종 외, 2008). 이는 알레르기질환의 원인 규명을 위한 기존 연구들이 질환의 세부 유형 및 범위, 조사지역, 조사 시기, 대상자의 연령 등이 다양하기 때문으로 보이며(박용민, 2011; 홍수종 외, 2008), 유전적 소인을 제외하면 알레르기질환의 명백한 원인으로 어느 한 요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을 뒷받침한다(김동일 외, 2008; 김보라, 2009).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대상자의 저연령(0~5세), 세 가지 주요 알레르기질환을 한 변인으로 통합한 점, 모집단의 특성을 잘 반영한 대단위 종단연구라는 맥락하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또한 기존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위험요인 간에 또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추가요인과 상호작용하면서 알레르기질환의 발현과 증상악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특성과 상호작용 요인을 밝힐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알레르기질환 진단여부에 따른 가족관계적 스트레스 변화추이의 차이에 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동이 생후 4~5년 동안 경험한 부모의 부부갈등 수준이 알레르기질환 집단과 비 알레르기질환 집단 간에 차이가 나는지 검증한 결과,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 수준과 변화추이는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어머니의 부부갈등 수준은 알레르기질환 진단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알레르기질환 집단 어머니들은 비 알레르기질환 집단 어머니들에 비해 아동의 출생 초기부터 유의하게 높은 수준의 부부갈등을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렇게 초기부터 높은 수준의 부부갈등을 경험한 어머니는 아동이 4세가 될 때까지 변함없이 높은 수준의 부부갈등을 유지하였다. 이는 알레르기질환 진단 이전인 생애초기부터 두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부부갈등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어머니 밑에서 자란 영유아기 자녀가 그렇지 않은 자녀에 비해 알레르기질환을 진단받을 가능성이 더 클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부부갈등과 자녀의 알레르기질환 사이의 기제에 대해서는 부부갈등이 자녀의 생리학적 조절장애에 영향을 주며, 생리학적 조절장애는 우울, 불안 등의 내재화 증상 및 신체적 질병들과 관련된다는 연구

결과들을 통해(El-sheikh, 2005; Lim et al., 2011) 추론해 볼 수 있다.

한편 어머니의 부부갈등만 자녀의 알레르기질환과 관련되어 있고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은 자녀의 알레르기질환과 관련되지 않은 결과는 자녀양육에 있어 어머니가 아버지에 비해 더 오랜 시간과 다양한 영역에 관여하고 있으며, 특히 정서적 교류를 통한 친밀감 형성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한인숙·양혜정, 2015). 종합적으로, 이러한 결과는 부부갈등이 자녀의 심리적, 행동적 문제뿐 아니라(이민식·오경자, 2000; 임수진·최승미·채규만, 2008; 한인숙·양혜정, 2015; Emery & O'Leary, 1982) 알레르기질환과도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부부갈등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신체적 건강 영역까지 확장한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증가추세에 있는 소아청소년 알레르기질환의 예방 및 치료 전략을 위한 새로운 방향성 즉 자녀에게 알레르기질환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부모의 부부관계 질을 평가하고 부부갈등을 완화 또는 예방할 수 있는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이 기존 알레르기질환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과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질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자녀출생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자녀 2~3세에 최고조에 달했으며,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자녀의 신체적, 심리적 발달단계에 따라 양육의 특성이 달라지는 점에 근거하여 해석할 수 있다. 즉 아동은 3세 이후부터 대상항상성과 의사소통능력이 발달하면서 자신의 기본적 욕구를 표현하고, 어머니와 떨어져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게 된다(최경숙, 2008; Hamilton, 1999/2013). 이에 따라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밀착 양육의 정도가 완화되면서 양육스트레스가 감소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녀가 알레르기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있는 어머니들은 그렇지 않은 어머니들에 비해 자녀 출산초기부터 유의하게 높은 수준의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였으며, 이러한 두 집단 간의 차이는 아동이 5세가 될 때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어머니 밑에서 성장한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알레르기질환을 진단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이는 부모가 인식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기초선이 아동의 증가된 천식지표(ECP 분비와 IL-4 생산)와 관련이 있고, 양육스트레스는 아토피피부염과 천식 성향이 있는 유아의 사이토카인과 관련되며(Wright et al., 2004), 아동기 천식의 발생시기와 불량한 예후에 기여한다(Yamamoto & Nagano, 2015)는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한편 아동이 3~5세 사이에만 측정되었던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비해 평균 3점 이상 낮아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맞벌

이 여부와 상관없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김유나와 박애리(201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아직까지 양육의 주체적인 역할은 어머니가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인생계부양자 모델은 받아들이지만 이인양육자 모델은 수용하는데 불편감을 느끼면서 여전히 가사와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유계숙, 2012)을 개선시키기 위해, 부모들의 육아휴직 의무제를 도입하여 어머니의 높은 양육부담과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아버지와 함께 나눌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양육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공동분담, 공동책임이라는 것을 정책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가치를 함께 존중하는 기업문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도 자녀의 알레르기질환 진단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알레르기질환이 있는 아동의 아버지가 그렇지 않은 아동의 아버지에 비해 줄곧 유의하게 높은 양육스트레스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자녀 3세 이후에 측정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알레르기질환 집단 간 차이가 자녀 출생초기부터 존재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위의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결과와는 다르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 즉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아버지의 자녀가 알레르기질환을 진단받을 가능성이 더 높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알레르기질환을 진단받은 아동의 아버지들이 그렇지 않은 아버지들에 비해 더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한 것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어머니에 비해 외부 스트레스 요인에 취약한 아버지는(연은모·윤해옥·최효식, 2015) 알레르기질환으로 고통 받는 자녀를 지켜보는 것 자체로 스트레스 수준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

결과를 종합해보면, 아동이 생후 5년 내에 알레르기질환을 진단받은 가정에서 그렇지 않은 가정에 비해 아동의 출생초기와 이후 4~5년간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높은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부정적 가족정서분위기를 만들고(Wood et al., 2008), 부모의 양육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일 수 있다(김종한, 2013; 이희정, 2015). 이러한 환경에서 아동은 부모로부터 적절한 정서적 지원과 돌봄을 받기 어렵고, 이러한 역기능적인 가족과정이 지속될 경우 비난, 적대, 불안, 무반응 등 부정적 정서와 지속된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을 경험할 수 있다(El-Sheikh, 1994; Gottman & Katz, 1989; Wood et al., 2008). 이런 경험으로 인해 정서적, 생리적 조절능력이 저하되면 면역계 이상을 초래할 수 있고(Lacker, Gudleski, & Blanchard et al., 2003) 알레르기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즉 아동의 질환은 구체적인 부적응적 가족환경과 심리적, 생리적 반응을 통해 유

지되거나 악화될 수 있다는 생물행동적 가족모델의 관점에서 볼 때(Wood et al., 2006; 2008; 2015), 본 연구 결과는 생물행동적 가족모델의 일부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존의 생물행동적 가족모델을 근거로 알레르기질환과 관련된 가족환경요인을 탐색한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천식만을 대상으로 하였다(Lim et al., 2011; Wood et al., 2006; 2008; 2015). 하지만 본 연구는 5세 이하 아동의 대표적인 3대 알레르기질환을 반영하여 이와 공통적으로 관련된 가족환경요인의 분석을 통해 가족관계적 스트레스가 천식뿐만 아니라 알레르기질환 전반과 관련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음으로써 생물행동적 가족모델의 적용을 확장한 것이다. 더욱이 국내에서 대표성을 지닌 대규모 종단자료를 통해 가족환경요인과 아동의 알레르기질환 발현 간의 관련성에 대한 새로운 경험적 자료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는 2007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공중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시도단위의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2008년 환경성질환 저감 대책을 마련하였고, 2016년 현재 전국적으로 1,823개의 아토피천식안심학교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6). 아토피천식안심학교는 대부분 의학에 근거한 질병과 증상관리 교육, 그리고 편백나무 교실, 진드기 제거, 스파시설 마련 등 물리적 환경 조성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6). 그러나 알레르기질환의 환경적 요인으로서 가족관계적 스트레스와 관련된 가족기반 교육이나 프로그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아동 건강과 관련된 양육의 중요성에 대해 Hoghughi(1998)는 양육은 우리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공중보건의 이슈이며, 양육은 아동기 질병에서 단일의 가장 큰 변인이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진은 양육을 더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알레르기질환 예방 및 치료를 위해서는 의·약학 중심의 물리적 환경 개선과 치료약 개발 접근에서 벗어나 가족관계적 스트레스를 포함한 아동의 주요 심리사회적 환경까지 포괄하는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현재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알레르기질환 예방사업에 아동의 심리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반영,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동의 행복과 건강한 성장을 중심축으로 기능적인 부모환경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해 보인다. 예를 들어, 일하는 부모를 위해 밤늦은 시간까지 보육을 전담하는 시설을 확충하는 정책에는 늦은 밤까지 직장 일을 하느라 양육시간을 박탈당한 부모와, 영유아기 아동이 당연히 누려야 할 부모 품을 직장에 빼앗긴 자녀의 고통이 함께 공존하고 있어, 아동과 부모가 소외되어 있는 정책으로 보인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와 안정적 애착을 형성하고 긍정적 가

족정서분위기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양육시간을 보장하고 양육과 관련된 부모의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생물행동적 가족모델을 근거로 부정적 가족정서분위기에 기여하는 부부 및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중심으로 알레르기질환의 진단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부부갈등 및 양육스트레스가 알레르기질환 진단 가능성에 이르는 심리생물학적 경로 즉, 가족관계적 스트레스로 인한 자율신경계와 내분비계의 반응성, 활력증후 등과 같은 자료는 패널데이터의 한계로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심리생물학적 경로를 포함한 실험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또한, 최근에 가족관련 요인뿐만 아니라 PTSD, 지역사회 폭력, 빈곤 등의 심리사회적 스트레스가 천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으나(Yonas, Lange, & Celedon, 2012)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했다. 따라서 생태학적 관점에서 이와 관련된 다층적인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셋째, 본 연구는 패널데이터의 한계로 자녀 0~2세 사이의 아버지 양육스트레스 자료는 분석할 수 없어,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의 알레르기질환 진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는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보완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알레르기질환 진단 가능성에 대한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요인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참여아동의 알레르기질환 진단 시기는 6차년도 조사 시점인 생후 평균 63개월 이내 어느 지점으로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진단 여부만 고려하고 정확한 진단 시기는 고려하지 않았다. 향후 정확한 진단 시기를 고려한 보다 정교한 통계분석이 이루어진다면 가족정서환경과 알레르기질환 발병 및 유지 사이의 관련성에 대해 보다 풍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6).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안내서. 세종: 교육부.

국민건강보험공단(2016). 주요 알레르기질환, 아동.청소년기 많이 발생. http://www.nhis.or.kr

김경희(2001). 천식이 있는 학령기 아동의 가족기능, 불안, 문제행동. 석사학위청구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김기현·강희경(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학가정학회지, 35(5), 141-150.

김동일·양현종·박용민·나영호·정지태·편복양(2008). 다 기관 설문 조사를 통한 알레르기 질환의 연령별 임상양상. 대한소아과학회, 51(6), 640 - 645.

김동희·조성은·염혜영(2010). 학동기 아토피피부염 환아의 행동문제와 부모양육태도 및 학교생활과의 관계. 소아알레르기 호흡기, 20(3), 197-205.

김보라(2009). 한국 청소년의 알레르기질환 관련 요인: 2009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청구논문.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김영호·서주희·권지원·이은·양송이·조현주·하미나·범은애·이기재·김환철·임신예·강희태·손미아·김수영·정해관·김유미·오경재·사공준·이철갑·김수진·박영욱·홍수종(2015). 한국 초.중.고등학생 알레르기비염의 전국 유병률과 위험인자에 대한 분석,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알레르기 천식 호흡기질환, 3(4), 272-280.

김유나·박애리(2016). 맞벌이 가구와 남성홀벌이 가구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연구: 부부관계와 아버지 양육참여의 상호작용효과분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1(1), 51-76.

김재희(2015). 알레르기질환 청소년의 정신건강: 2014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활용. 한국학교보건학회지, 28(2), 79-88.

김종한(2012). 사회적 지원, 부부갈등, 자기효능감, 양육스트레스와 영아기 어머니의 양육행동간 경로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3(9), 3924-3933.

김지영·김희라·김형진·정지태(2003). 가족의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이 천식에 미치는 영향. 소아알레르기 및 호흡기, 13(4), 238-247.

김진영(2007). 사회경제적 지위와 건강의 관계: 연령에 따른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1(3), 127-153.

남승연·윤혜선·김우경(2005). 학동 전기 소아에서의 알레르기 질환의 유병률과 위험 인자에 관한 연구. 소아알레르기 및 호흡기학회지, 15(4), 439-445.

류동수·이주석(2015). 어머니 우울증과 소아 알레르기 질환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대한소아알레르기 및 호흡기학회, 3(5), 352-357.

박용민(2011). 아토피피부염 역학조사와 위험인자. 소아알레르기 및 호흡기학회지, 21(2), 74-77.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6).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심포지엄 자료. 세종: 보건복지부. http://cdc.go.kr.

선동신(2010). 알레르기 질환에서 심리사회적 문제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순천향대학교 의학대학원.

신지원·김우경·윤혜선(2009). 학동 전기 소아에서 알레르기 질환과 모유 수유와의 연관성. 소아알레르기 호흡기, 19(4), 374-382.

연은모·윤해옥·최효식(2015). 부부갈등, 양육스트레스, 우울 간의 종단적 관계. 한국영유

아보육학, 93, 1-29.

유계숙(2012).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일-가정 양립지원정책.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8(1), 111-125.

유일영·김동희(2004). 아토피피부염 환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간호요구. 아동간호학회지, 10(4), 423-430.

이민식·오경자(2000). 부부갈등이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지각된 부부갈등과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4), 727-745.

이소연(2009). 우리나라 시골, 소도시, 대도시에서의 알레르기질환 유병률의 차이와 요인 분석: 우리나라에서의 위생가설의 적용. 의학박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원.

이영찬·김성완·신승엽·김용희·반건호(2008). 알레르기 비염이 소아의 주의력과 인성 및 행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 대한이비인후과학회지: 두병부외과학, 51(2), 41-147.

이은섭·방지석·오연정·이정원·성태정·이용주·이건희(2015). 학령전기 만성 기침 환아에서 알레르기 감작의 위험 요인. Allergy Asthma & Respiratory Disease, 3(2), 105-108.

이혜숙·이재천·홍성철·김재왕·김수영·이근화(2012). 제주도 서귀포시 학동전기 소아의 알레르기질환 유병률과 위험인자.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천식 및 알레르기, 32(2), 107-114.

이화진(2016). 한국 청소년의 알레르기질환 영향 요인: 국민건강영양조사 제5기(2010-2012년) 자료를 근거로. 박사학위청구논문. 중앙대학교 간호대학원.

이희정(2015).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의 예측변인과 종단적 변화: 어머니 양육행동과 유아의 또래 방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아동학회, 36(4), 209-227.

임수진·최승미·채규만(2008). 부부갈등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처효율성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1), 169-183.

장주영·김효빈·이소연·김자형·김봉성·서희정·홍수종(2006). 반복성 천명을 가진 소아에서 천식 발생 예측 지표의 적용. 대한소아과학회, 48(3), 298-304.

전민희(2016). 소아청소년의 알레르기질환 유병률과 내부 환경요인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강원대학교 대학원.

정승원·장은영·신미용·김병의·안강모·이상일(2005). 아토피피부염 환아의 중증도 및 행동특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우울감,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천식 및 알레르기, 25(1), 39-44.

정현숙(2004). 결혼전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91-101.

조복희·오세영·정자용·이형민(2008). 아토피피부염 아동의 문제행동, 자아역량인식, 사

회적 능력과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6(5), 97-109.

질병관리본부(2014). 소아 알레르기질환 진단/치료를 위한 검사 표준화 연구. http://cdc.go.kr.

최경숙(2008). 발달심리학: 아동.청소년기. 파주: 교문사.

최은정·이미지·윤현진·김자형·이주석·박재홍·정진아(2016). 천식과 알레르기비염을 가진 초등학생의 행동특성과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알레르기천식 호흡기질환 학회지, 4(3), 205-211.

최지은·이경숙·박진아·홍수종·장형윤·김경원·신윤호·안강모(2015). 아토피피부염 24개월 유아의 행동문제와 어머니의 정신건강 및 양육변인 간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0(1), 1-23.

한인숙·양혜정(2015). 부부갈등 및 부모 양육행동과 유아기 자녀 문제행동의 종단적 관계.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5(3), 287-317.

한지영·박현숙(2016). 청소년 알레르기질환 유병률과 관련 요인-2013년 청소년 건강행태 온리인조사 활용.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7(1), 155-168.

홍수종·권지원·최윤경(2014). 어머니의 정신건강과 자녀 알레르기질환의 발생.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홍수종·안강모·이수영·김규언(2008). 한국 소아알레르기 질환의 유병율. 대한소아학회지, 51(4), 15-25.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2011). 산모.영유아의 환경유해인자 노출 및 건강영향 연구(Ⅰ). 인천: 국립환경과학원.

Andersson, N. W., Hansen, M. V., Larsen, A. D., Hougaard, K. S., Kolstad, H. A., & Schlunssen, V. (2016). Prenatal maternal stress and atopic diseases in the child: a systematic review of observational human studies. *European Journal of Allergy and Clinical Immunology: Allergy, 71*, 15-26.

Choi, S. W., Ju, Y. S., Kim, D. S., Kim, J. Y., Kwon, H. J., Kang, D. H., Lee, S. I., & Cho, S. H. (1998).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ISAAC questionnaire. *Kore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31*(3), 361-371.

Chen, E., Bloomberg, G. R., Fisher Jr, E. B., & Strunk, R. C. (2003). Predictors of repeat hospitalization in children with asthma: The role of psychosocial and socioenvironmental factors. *Health Psychology, 22*(1), 12.

Davies, P. T., Harold, G. T., Goeke-Morey, M. C., Cummings, E. M., Shelton, K., Rasi, J. A., & Jenkins, J. M. (2002). Child emotional security and interparental conflict.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i-127.

El-Sheikh, M. (1994). Children's emotional and physiological responses to interadult angry behavior: The role of interparental hostilit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2*, 661-678.

El-Sheikh, M. (2005). The role of emotional responses and physiological reactivity in the marital conflict - child functioning link.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6*(11), 1191-1199.

Emery, R. E., & O'Leary, K. D. (1982). Children's perceptions of martial discord and behavior problems of boys and girl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0*(1), 11-24.

Gottman, J. M. & Katz, L. F. (1989). Effects of marital discord on young children's peer interaction and health. *Developmental Psychology, 25*(3), 373-381.

Hamilton, N. G. (2013). 대상관계 이론과 실제: 자기와 타자 [Self and Others: Object Relations Theory in Practice]. (김진숙, 김창대, 이지연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1999에 출판).

Helmbold, P., Gaisbauer, G., Kupfer, J., & Haustein, U. F. (2000). Longitudinal case analysis in atopic dermatitis. *ACTA DERMATOVENEREOLOGICA -STOCKHOLM, 80*(5), 348-352.

Hofer, M. A. (1994). Hidden regulators in attachment, separation, and los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23), 192-207.

Hoghughi, M. (1998). The importance of parenting in child health. *British Medical Journal, 316*(7144), 1545-1550.

Im, Y. J., Park, E. S., Oh, W. O., & Suk, M. H. (2014). Parenting and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in mothers with their children having atopic disease. *Journal of Child Health Care, 18*(3), 215-229.

Jee, H. M., Kim, K. W., Kim, C. S., Sohn, M. H., Shin, D. C., & Kim, K. E .(2009). Prevalence of asthma, rhinitis and eczema in Korean children using the International Study of Asthma and Allergies in Childhood (ISAAC) questionnaires. *Pediatric Allergy and Respiratory Disease, 19*(2), 165-172.

King R. M., & Wilson, G. V. (1991). Use of a diary technique to investigate psychosomatic relations in atopic dermatitis.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35*(6), 697-706.

Klinnert, M. D., Kaugars, A. S., Strand, M., & Silveira, L. (2008). Family psychological factors in relation to children's asthma status and behavioral adjustment at age 4. *Family Process, 47*(1), 41-61.

Lackner, J. M., Gudleski, G., Blanchard, E., Katz, L., & Krasner, S. (2003). Beyond abuse: The association among perceived parenting style, abdominal pain, and somatization in treatment-seeking IBS patients. *Gastroenterology, 124*(4), A96.

Lim J., Wood, B. L, Miller, B. D. (2008). Maternal depression and parenting in relation to child internalizing symptoms and asthma disease activity.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2*(2), 264-273.

Lim, J. H., Wood, B. L., Miller, B. D., & Simmens, S. J. (2011). Effects of paternal and maternal depressive symptoms on child internalizing symptoms and asthma disease activity: Mediation by interparental negativity and parenting.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5*(1), 137-146.

Macuka, I., & Vulić-Prtorić, A. (2007). Family determinants of childhood asthma. *15th Psychology Days in Zadar: Book of Selected Proceedings. University of Zadar*, 213-221.

Markman, H., Stanley, S., & Blumberg, S. (2001). *Fighting for your marriage: Positive steps for preventing divorce and preserving a lasting love, New & Revised.*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ublishers.

Marshall, G. D. (2004).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al influences in allergic diseases. *The Journal of the American Osteopathic Association, 104*(5), S1-S6.

Milam, J., McConnell, R., Yao, L., Berhane, K., Jerrett, M., & Richardson, J. (2008). Parental stress and childhood wheeze in a prospective cohort study. *Journal of Asthma, 45*(4), 319-323.

Miller, G. E., & Chen, E. (2006). Life stress and diminished expression of genes encoding glucocorticoid receptor and β2-adrenergic receptor in children with asthma.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3*(14), 5496-5501.

Mortz, C. G., Lauritsen, J. M., Bindslev Jensen, C., & Andersen, K. E. (2001). Prevalence of atopic dermatitis, asthma, allergic rhinitis, and hand and contact dermatitis in adolescents. The Odense Adolescence Cohort Study on Atopic Diseases and Dermatitis. *British Journal of Dermatology, 144*(3), 523-532.

Mrazek, D. A. (2003). Psychiatric symptoms in patients with asthma: Causality, comorbidity, or shared genetic etiology.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12*(3), 459-471.

Mrazek, D. A., Klinnert, M., Mrazek, P. J., Brower, A., McCormick, D., Rubin, B., ... & Jones, J. (1999). Prediction of early onset asthma in genetically at risk children. *Pediatric Pulmonology, 27*(2), 85-94.

Raudenbush, S. W., & Bryk, A. S. (2002). *Hierarchical Linear Models*. Newbury Park, CA: Sage.

Van Den Nieuwenhof, L., Schermer, T., Bosch, Y., Bousquet, J., Heijdra, Y., Bor, H., ... & Van Weel, C. (2010). Is physician diagnosed allergic rhinitis a risk factor for the development of asthma?. *Allergy, 65*(8), 1049-1055.

Wang, I. J., Wen, H. J., Chiang, T. L., Lin, S. J., & Guo, Y. L. (2016). Maternal psychologic problems increased the risk of childhood atopic dermatitis. *Pediatric Allergy and Immunology, 27*(2), 169-176.

Wills-Karp, M., & Ewart, S. L. (2004). Time to draw breath: asthma-susceptibility genes are identified. *Nature Reviews Genetics, 5*(5), 376-387.

Wood, B. L., Miller, B. D., Lim, J., Lillis, K., Ballow, M., Stern, T., & Simmens, S. (2006). Family relational factors in pediatric depression and asthma: Pathways of effect.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45*(12), 1494-1502.

Wood, B. L., Lim, J. H., Miller, B. D., Cheah, P., Zwetsch, T., Ramesh, S., & Simmens, S. (2008). Testing the biobehavioral family model in pediatric asthma: Pathways of effect. *Family Process, 47*(1), 21-40.

Wood, B. L., Miller, B., & Lehman, H. K.(2015). Review of family relational stress and pediatric asthma: The value of biopsychosocial systemic models. *Family Process, 54*(2), 376-389.

Wright, R. J., Rodriguez, M., & Cohen, S. (1998). Review of psychosocial stress and asthma: An integrated biopsychosocial approach. *Thorax, 53*(12), 1066-1074.

Wright, R. J., Finn, P., Contreras, J. P., Cohen, S., Wright, R. O., Staudenmayer, J., ... & Gold, D. R. (2004). Chronic caregiver stress and IgE expression, allergen-induced proliferation, and cytokine profiles in a birth cohort predisposed to atopy. *Journal of Allergy and Clinical Immunology, 113*(6), 1051-1057.

Yamamoto, N., & Nagano, J. (2015). Parental stress and the onset and course of childhood asthma. *BioPsychoSocial Medicine, 9*(1), 1-8.

Yonas, M. A., Lange, N. E., & Celedon, J. C. (2012). Psychosocial stress and asthma morbidity. *Current Opinion in Allergy and Clinical Immunology, 12*(2), 202-210.

·논문접수 8월 9일 / 수정본 접수 9월 6일 / 게재 승인 9월 19일

·교신저자: 양혜정, 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조교수, 이메일 drhcyang@gmail.com

Abstract

Longitudinal patterns of family relational stress among young children with allergies: Based on the Biobehavioral Family Model

Jung Im Lee and Hae Chung Yang

This study examines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family relational stress(marital conflict, parenting stress) and the diagnoses of allergies(asthma, allergic rhinitis, & atopic dermatitis) among young children based on the Biobehavioral Family Model(Wood et al., 2008). Additionally, it was tested whether the variables previously known as risk factors for allergies predicted the diagnosis. We used the data from 1,508 families who participated in the years 1 to 6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The results from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and hierarchical linear modeling were as the following. First, child's sex and exposure to indirect smoking were significant predictors for the diagnosis of allergies. Second, the mothers of children with allergies(N=842) perceived significantly higher levels of marital conflict and parenting stress compared to the mothers of children without allergies(N=666) during the first 4~5 years after the children's births. Lastly, parenting stress among the fathers of children with allergie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the fathers of children without allergies during the children's ages 3 and 5, although the levels of perceived marital conflict did not differ between the two group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family's emotional climate affects not only the children's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problems but also their physical health. Implications for prevention and intervention for children's allergies through family-based counseling and education programs and policy recommendations were discussed.

Key words: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Biobehavioral Family Model, allergies, family relational stress, young children, longitudinal

육아정책연구
제11권 제2호(2017. 9.) 29~56

원장과 원감의 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 참여 경험의 의미 분석

송미온[1)]

요 약

본 연구는 유치원교원능력개발에 대한 원장과 원감의 관점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참여자의 실제 경험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제안점을 알아보았다. 연구대상은 여섯 명의 단설 유치원 원장과 원감이고, 연구방법은 면담을 통한 질적연구로 연구기간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이다. 연구결과에서 원장과 원감의 교원능력개발평가 경험은 첫째, 교원능력개발평가 참여자의 인식을 넓히는 경험을 하면서 왜 해야 하나에서 해야 되는 일로, 부담스러워 하는 교사의 인식을 준비된 일로, 학부모에게 교평이 무엇인지 알려 참여하도록 인식을 바꾸는데 의미가 있었다. 둘째, 교원의 전문성을 진단하는 경험을 하면서 자기평가를 통해 자기분석 자료로 활용하고, 동료교원평가를 통해 동료를 진단하고 점검해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학부모만족도조사를 통해 학부모의 마음을 반영하는데 의미가 있었다. 셋째, 직무능력을 키우는 경험에서 소통으로 신뢰적 관계를 맺으며 관리능력을 키우고, 공개수업 연구로 교원의 교육활동 능력을 키우며 전문성을 키우는데 의미가 있었다. 문제점과 제안점으로는 학무모만족도조사 참여율 관리가 어려워 이에 대한 행정지원을 제안했다. 또 전문성 진단과 능력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일에서 학부모의 평가에 대한 관심과 이해 부족, 교사와 학부모의 평가내용 관점 차이의 문제로 더 많은 교사연수 기회나 학부모교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지원을 제안했다.

주제어: 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 원장, 원감, 경험, 유아교육

Ⅰ. 서론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은 정부가 법, 정치, 행정, 재정, 교육 등 여러 차원에서 노력해 무상교육, 유치원 정보공시제, 운영위원회설치, 누리과정실행, 기관평가실행 등 지속적으로

1)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복지학과 아동보육·교육전공 박사수료

세계 선진국 수준으로 유아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 2016년 8월에 교육부는 유치원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의 능력을 진단하고 평가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히고(교육부보도자료, 2016. 8), 2017년 2월에 입법화 했다(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2017).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18조(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원의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20조(평가항목)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평가대상 교원에 따라 원장 원감의 유치원 경영에 관한 능력, 교사는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등에 관한 능력을 평가한다, 그리고 제22조(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는 유치원의 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한 유치원 교육의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교육부, 2015b: i). 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는 동료교원 및 학부모가 참여하는 다면평가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전문성 진단을 통한 지속적 능력개발을 지원한다. 특히 원장과 원감을 대상으로 한 평가는 구체적으로 원장 원감의 유치원 경영에 대한 전문적인 직무수행 및 교육활동 지원능력 향상, 유치원 공동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관리자로서 원장 원감의 지도성 함양, 유치원 경영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합리적으로 타당성 있는 지원 대책 강구, 유아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유치원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는 초·중등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를 바탕으로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09.11.13) 및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13.2.22)에 의해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유치원 수준의 교원평가이다(교육부, 2015b: 5). 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는 초·중등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모델로 국립유치원에서 2011년부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12년 국·공립 단설유치원, 2013년 3학급 이상 국·공립유치원과 희망하는 3학급 이상 사립유치원, 2014년 2학급 국·공립유치원과 희망하는 1학급 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 2015년 국·공립유치원 재직교원(계약제 포함) 및 희망하는 사립유치원으로 단계적으로 도입되었다. 2017년 현재 평가대상은 국·공립유치원 재직교원(계약제 포함), 사립유치원 교원으로 확대되었다(교육부, 2017b: i).

이러한 시점에서 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가 그동안 어떻게 실행되어 왔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구자는 교사인식(장연주, 2016; 김규수·박미정, 백승선, 2014; 윤진주·김영실·인정이, 2012; 김경철·김안나, 2010), 결과 및 개선방안(조부경, 2016), 프로그램 모형 개발(김규수, 박미정, 2016, 박미정, 2014), 사립유치원 적용(곽윤숙, 2016) 등의

선행연구를 찾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에서 교사들은 형식적인 연수(장연주, 2016), 평가의 객관성 문제와 업무과중(김규수·박미정·백승선, 2014), 평가지표의 내용 이해도 차이(윤진주·김영실·인정이, 2012),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박미정, 2014) 문제를 살펴볼 수 있었다.

김경철·김안나(2010)는 그 목적과 취지에 적합한 방법과 내용에 대해 각 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숙고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았다, 김규수·박미정·백승선(2014)은 교사 연구를 넘어서 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연구대상을 학부모, 원장, 원감까지 포함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부경(2016)은 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 시범적용 결과 및 개선방안에 대해 교원연수, 행정, 재정, 제도개선에 대한 지원방안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김규수·박미정(2016)은 유치원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원능력개발체제에 따른 교원능력개발 프로그램 모형을 개발하고, 곽윤숙(2016)은 사립 유치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시행에 앞서 교원들의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 외, 교육위원회(2015, 11)의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장 회의 등을 통하여 평가의 문제점 등을 제기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높여주기를 경상남도함안교육지원청에서 건의했다.

앞서 실행된 여러 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 관련 선행연구는 주로 교사를 대상으로 연구되어 왔다. 본 연구자는 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각 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평가에 참여해본 유치원 원장과 원감은 현장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이들의 경험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문제점과 제안점을 수렴하는 연구를 실시했다.

선행연구로 유치원 원장과 원감의 교원능력개발평가 경험, 문제점, 제안점과 관련된 연구들을 외국의 사례는 교사평가: OECD 나라 실제와 문헌연구(Isoré, M. 2009)에서 살펴보고, 미국의 K학년(kindergarten)을 포함한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교사평가(Teacher Evalution) 연구를 찾아보았다. 교장이 평가에서 교사의 발달을 증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장의 관점과 경험(Kraft & Gilmour, 2016), 교사평가 과정에서 교사와 관리자의 관점(Sheppard, 2013), 교사평가의 변화에서 교장의 일에 대한 함축(Derrington, 2011), 교사평가: 교장의 이해와 개선안(Kersten & Israel, 2005) 등의 연구에서 교사평가의 경험과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방안을 제안했다. 학교단위의 미국 교장의 경험 연구는 본 연구의 대상인 우리나라 단설 유치원의 원장과 원감의 경험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나 초등학교교원능력개발평가를 모델로 한 유치

원교원능력개발평가와 관련된 국외 연구로서 비교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본다.

Kraft와 Gilmour(2016)는 교장의 평가가 평가의 목표와 관점이 다른 점, 더 늘어난 교장의 임무, 교장의 전문성에서 벗어난 피드백, 교장의 제안된 교육정도를 문제점으로 보고 평가의 횟수를 낮추고, 교장이 맡는 책임 정도를 바꾸고, 교장을 교육하고 지도하는 것, 교수지도와 내용 전문가를 고용해 교사를 지도하는 방법 등을 제안했다. Sheppard(2013)는 교사와 관리자는 교사평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관리자로서는 평가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든다고 보고했다. Derrington(2011)은 교장들에게 새로운 다면측정평가를 새로운 교사 평가 시스템으로 실행하려고 하는데 잠재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했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실행하는데 시간과 자료와 교육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Kersten과 Israel(2005)은 평가에 드는 시간, 협회, 학교문화, 평가과정에서 제약을 문제점으로 보았고, 실제적 대안에 대한 연구, 지역 내 동료코칭과 멘토, 리더십의 공유 제공, 협회와 운영 사이의 책임 공유에 대한 전략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유치원 원장과 원감의 관점에서 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 실행 경험을 알아보고, 원장과 원감이 말하는 현재 교평의 문제점과 제안점을 살펴보려고 한다. 이 연구에서 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는 줄여서 쓰는 말로 “교평”이라고 한다. 원장과 원감의 경험에서 경험은 표준국어대사전(2016)에서 자신이 실제로 해 보거나 겪어 봄 또는 거기서 얻은 지식이나 기능 또는 철학에서 객관적 대상에 대한 감각이나 지각 작용에 의하여 깨닫게 되는 내용으로 정의한다. 유치원 원장과 원감은 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를 경험해보면서 지식이나 기능을 얻고 직·간접적 체험을 통해 그 내용을 깨닫는다. 송도선(2013)에 의하면 경험 이론가로서 대표적 철학자인 잔 듀이는(John Dewey) “인간 경험의 최종적 가치를 그 실효성(workability)에 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의 사상은 주로 실용주의(pragmatism)라고 이해되고 있지만, 모든 인간 생활을 통해서 습득하는 경험을 문제 해결의 수단이라고 본다는 점에서 도구주의(instrumentalism)라고도 한다”(p. 9). 연구자는 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원장과 원감의 관점을 알아보기 위해 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실제에서 경험하는 내용을 알아보고, 더욱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있어 원장과 원감이 발견하는 문제와 해결 도구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을 연구문제로 설정했다.

[연구문제 1] 원장과 원감이 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얻은 경험의 의미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2] 원장과 원감이 경험한 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의 문제점과 제안점은 무엇인가?

Ⅱ.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질적연구방법(qualitative research)으로 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 참여자 중 원장과 원감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면담에서 물어보고 그들의 실제 경험을 들어보았다. 연구를 시작한 2016년 현재 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국·공립과 희망하는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되고 있다. 연구에 참여할 내담자를 구하기 위해 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 시범운영이 실시된 유치원 중 서울특별시, 6대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경상남도의 국·공립단설유치원에 재직 중인 원장과 원감 총 20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 형식으로 된 사전설문조사를 해서 그들의 교평 경험을 묻고 연구 참여 의사와 동의를 구해 연구에 참여할 대상과 자료를 수집했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내담자는 <표 1>과 같고, 이들은 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원장과 원감이었다. 연구 참여자 수는 유치원 원장과 원감 3명 씩 총 6명이고 이분들의 유치원 교원 총 경력은 모두 25년 이상이다.

〈표 1〉 연구대상 배경

이름	직위	경력	나이	성	학력	시범운영년도	지역
ㄱ원장	원장	7년	61세	여	대학원졸	2013~2016	경기
ㄴ원장	원장	6년	58세	여	대학원졸	2015~2016	광주
ㄷ원장	원장	6년	58세	여	대학원졸	2014~2016	인천
ㄹ원감	원감	3년	57세	여	대학원졸	2014~2016	경기
ㅁ원감	원감	1년	49세	여	대학원졸	2016	대구
ㅂ원감	원감	2년	50세	여	대학원졸	2014~2016	대구

연구기간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로 5개월간 1:1면담을 했고 면담 날짜와 시간은 <표 2> 면담일시와 같다. 연구자료 수집은 도서관 데이터베이스와 여러 관련 전문 기관의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수집했고, 연구대상 수집은 인터넷의 유치원 알리미의 유치원 찾기에서 검색된 국립유치원과 단설유치원을 군집표본추출(cluster sampling)로 순차적으로 수집했다. 사전설문조사는 연구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전화로 원장님께 설문조사 여부에 대해 허락을 받고 연구의 목적과 활용을 알리는 문구와 연구대상의 배경, 교원능력개발평가 경험,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문제들에 대한 연구결과와 논의에 대한 연구대상의 의견 그리고 개인적 경험에서 문제점과 제안점은 무엇이 있는지 등을 질문하고 연구 참여 동의를 받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연구에 참여한 내담자와의 면담은 1:1면담으로 전화 또는 대면으로 만나 반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을 하고 사전설문조사의 질문지의 답변과 1:1면담 내용을 참고해 심층적 질문으로 이어가며 실행했다. 면담은 내담자가 원하는 날과 시간에 내용을 녹취했다.

〈표 2〉 면담일시

내담자	면담 날짜와 면담 시간
ㄱ 원장	전화면담 2016.11.23 (5분), 2017.2.14 (15분)
ㄴ 원장	전화면담 2017.01.17 (30분), 2017.01.19 (15분)
ㄷ 원장	전화면담 2017.04.07 (35분), 2017.04.11 (20분)
ㄹ 원감	대면면담 2016.12.20 (90분)
ㅁ 원감	전화면담 2017.01.31 (10분), 2017.02.13 (20분)
ㅂ 원감	전화면담 2017.04.14 (30분)

연구자는 내담자에게 연구자의 연구 목적과 배경을 알리고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원장과 원감의 경험을 들으려고 했다.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한 심층질문은 사전조사를 통해 연구대상이 응답할 수 있는 질문 내용을 알아보았고, 실제 면담에서는 연구문제에 대한 연구대상의 응답을 내담자의 주도에 따라 자연스러운 이야기로 들으며 응답이 짧거나 더 깊이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말해 달라고 묻고, 내담자의 말을 연구자가 반복하며 정확히 들었는지 확인하고, 내담자의 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질문을 해서 내용을 깊이 있게 했다. 후속 질문은 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 내용, 경험이론에서 경험의 개념과 원리, 선행연구의 결과와 논의와 관련해 작성해서 면담 중에 참고했다. 심층면담을 위해 사전설문조사와 면담에서 연구자가 참고한 질문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원장과 원감의 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 경험 사전조사와 면담참고질문 내용

질문 내용	심층 질문의 예
1. 경험	주로 무엇을 했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반복적으로 경험한 일들은 무엇입니까?, 흥미로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정서적 경험을 했습니까?, 질적 향상을 경험한 점은 무엇입니까?, 개인적 성장은 무엇이었습니까?, 장단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해 유치원 교육 신용을 제고한다고 생각합니까?, 전문성 향상에 효과가 있었습니까?, 유치원의 신뢰도가 제고된 면은 무엇입니까?, 평가내용은 어떻습니까?, 운영의 실제에서 어떤 점을 고려했습니까?, 결과활용은 어떠했습니까?, 교원연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등
2. 문제점과 제안점	실행과정에서 경험했던 어려움이나 문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원장님과 원감님의 경험에서 생각한 제안점은 무엇입니까?
3. 연구참여 동의여부	연구 참여에 동의하십니까?

연구의 분석을 위해 수집한 면담 내용은 전사하고 같은 내용의 주제를 모아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로 분류해서 범주화했다. 경험의 의미 분석은 내담자의 면담내용에서 분류된 주제를 잘 설명하는 내담자의 자연스러운 표현을 찾아 그대로 쓰거나 내담자가 말한 내용에서 총체적 의미를 분석해 대표하는 말을 써냈다. 그리고 분석된 경험

내용에 대한 해석은 연구대상이 말한 경험을 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의 이론적 배경과 연구, 경험이론에서 설명하는 경험의 개념들을 참고해서 다각적 논의로 내담자의 경험의 의미를 해석하고 교평의 문제점과 제안점을 알아보았다.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면담은 녹취하고 데이터 분석과정 외부 점검을 받는 작업을 했다.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이론적 배경과 정확한 용어정의를 기술하고, 참여자를 다시 방문해 연구의 결과와 해석이 그들이 말한바와 같은지 확인했다. 연구의 과정과 결과는 전문가(아동복지학과 교수 1인, 유아교육과 교수 1인, 유아교육 장학사 1인)의 외부감사(audit)를 받아 외부의 자문가와 감사자들이 연구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감사하고 정확성을 평가하도록 했다(조흥식 공역, 2012: 289). 본 연구는 여섯 명의 내담자의 경험을 통해 결과를 찾고 결론과 논의를 내린 연구이므로 교평을 경험하는 모든 원장과 원감의 경험을 대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연구의 윤리 확립을 위해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를 참고했고(교육부, 2015a), KCI 문헌 유사도 검사를 통해 논문 유사도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다.

Ⅲ. 결과 및 해석

본 연구에서는 질적인 방법으로 원장과 원감의 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얻은 경험의 의미를 알아보고, 원장과 원감이 경험한 교평의 문제점과 제안점을 알아보았다. 연구의 결과는 <표 4>와 같이 주제를 분류하고 의미를 분석했다.

〈표 4〉 주제 분류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1. 경험	가. 참여자 인식 넓히기	1) 유치원 관리자의 인식 넓히기: 왜 해야 하나에서 해야 되는 일 2) 교사 인식 넓히기: 부담스러운 일에서 준비된 일 3) 학부모 인식 넓히기: 교평이 무엇인지 알리는 일
	나. 전문성 진단하기	1) 자기평가를 통한 전문성 진단: 자기분석 자료로 활용함 2) 동료교원평가를 통한 전문성 진단: 동료의 진단과 점검으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감 3) 학부모만족도조사를 통한 전문성 진단: 학부모의 마음을 반영함
	다. 직무능력 키우기	1) 소통 속에서 관리능력 키우기: 신뢰적 관계 맺기 2) 공개수업 연구로 교원의 교육활동 능력 키우기: 전문성을 키움
2. 문제점 제안점	가. 학부모 참여율 관리	1) 학부모만족도조사 참여율 관리 문제 2) 학부모만족도조사 참여율 관리 행정지원 제안
	나. 전문성 진단과 능력개발지원	1) 학부모의 평가에 대한 관심과 이해 부족 문제 2) 교원과 학부모의 평가내용 관점 차이 문제 3) 교사연수 기회와 학부모 교육지원 제안

1. 원장과 원감의 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 경험

연구자는 원장과 원감의 면담에서 유치원 원장과 원감은 주로 무슨 일을 했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얻었으며, 어떤 생각을 했는지 물어보고 경험의 내용들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는지 분석하고 해석해보았다.

가. 참여자 인식 넓히기

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는 2011년 시범운영부터 시작해 2017년 현재 전국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확산되었다. 교평에 대해서는 2016년까지 실행해온 기관이 국공립과 희망하는 몇 몇 사립유치원이었기 때문에 사립보다는 현재 국·공립 유치원 교원들에게 더 많이 인식되어 왔다. 연구대상 원장과 원감은 교평 대상으로 유치원이 선정되고부터 매 해 교평을 실시해 오면서 자신을 비롯한 교원과 학부모의 교평에 대한 이해를 넓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고 그러한 활동을 하는 자신의 역할에 교평의 의미가 있었다고 한다.

1) 유치원 관리자의 인식 넓히기: 왜 해야 하나에서 해야 되는 일

유치원 관리자로서 ㄱ원장은 처음에 '우리도 해야 하나?'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 ㄱ원장은 기관의 장으로서 교평을 실시하는 주체자의 역할을 맡으면서 우리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고민을 했고, 고민에 대한 답은 학교 속에 유치원이 속하기 위해 초·중·고에서 하고 있는 교원평가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라는 판단에 이르렀다.

> "교평이 유치원은 나중에 생겼어요. 그거에 대해서 뭐 우리도 초등학교처럼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래 우리도 똑같이 유치원 하면은 공교육기관이고 유아교육에서 우리가 유치원을 학교라고 부르고 있으면서 당연히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구식적인 사람이라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학교로서 거듭나려면 학교에서 하는 교원능력평가 일을 해야 할 것 같고 우리도 다 인증된 교사들인데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쪽인 것 같아요." (ㄱ원장, 면담, 2016.11.23)

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는 유아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유치원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세부 목적으로 한다(교육부, 2015b: 3). 현장에서 교평을 4년간 경험해 본 ㄱ원장은 유치원이 공교육기관으로서 학교로 거듭나기 위해 인증된 교사들은 이런 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

> “각자 선생님들이 자신의 수업을 점검해보는 것은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서로 주고받고 할 수 있는 동료평가의 기회도 나름대로 되고, 관리자 입장에서는 원내에서 계획을 해서 하는 거랑 전체입장에서 하는 교평은 또 다르잖아요. 그런 방면으로 접근하기는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덜 했고, 교사들도 교평은 이제 해야 되는 거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ㅁ원감, 면담, 2017.2.13)

ㅁ원감은 동료평가를 통해 교사들이 자신의 수업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것과 교육부의 권위로 실시하는 교평으로 인해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원내에서 교사의 전문성을 진단하는데 어려움이 덜 했던 것과 교사도 평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원장과 원감은 교육부에서 실행하라고 지시된 일로서 실제 속에서 직접 경험해보며 교평을 왜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에서부터 해야 되는 일로 교평에 대한 인식을 넓혀갔다.

2) 교사 인식 넓히기: 부담스러운 일에서 준비된 일

원장과 원감은 동료교원으로서 교사를 평가하고 평가 관리자로서 평가 결과를 관리한다. 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평가를 받는 교사들은 그 과정에서 동료교원과 학부모에게 수업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처음 해보는 교사들은 평가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 결과를 평가 관리자는 보는데 나를 어떻게 생각 할까 하고 부담을 느낀다.

> “(교사가) 수업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동료와 학부모가) 평가를 한다는 것이 부담이 되는 거지요. 반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오니까요. 평가 결과는 각 반 담임만 나의 반 평가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자는 모든 반의 평가를 다 볼 수 있지요. 그런데 그 결과 수치를 무시 할 수는 없어요. 그 결과를 보면서 관리자들은 어느 반이 학부모 평가가 안 좋게 나왔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 담임들은 부담이 갈 수 밖에 없지요.” (ㄹ원감, 면담, 2016.12.20)

> “선생님들이 처음에 한다고 했을 때는 수업을 학부모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불만사항도 몇 개 이야기를 표출을 했었어요. 근데 시범사업을 해마다 하다보니까 교사들도 그러려니 하고 저희는 1학기 때 동료장학을 강하게 하고 있어요. 수업공개를 교생들에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에 대해 공개를 하는 것에 대해 그다지 크게 부담을 갖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ㄴ원장, 면담, 2017.1.17)

김성숙·정경수(2015)는 공개수업이 “공개수업 교사는 물론 많은 참관 교사들이 공개된 다른 교사의 수업을 관찰할 기회와 경험을 통해 수업에서의 효과적인 교수기술, 새로운 교수-학습방법 등에 대한 전문적 교수기술을 배우며 자신의 수업 방향을 개선

하는 기회로 삼기도 하는 적극적인 활동"(p. 246)이라 한다. 원장과 원감은 교사들의 평가 결과와 수업 공개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 미리 동료장학으로 공개수업을 준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교사의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3) 학부모 인식 넓히기: 교평이 무엇인지 알리는 일

교평에서는 학부모를 평가에 참여시키기 위해 학부모만족도조사를 학부모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학부모만족도조사는 학부모 권장 참여율 50% 이상(교육부, 2015b: i)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 원장과 원감은 학부모에게 교평이 무엇인지 교육하고 참여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학교에 익숙하지 않은 유치원 수준의 아이를 둔 학부모들은 평가를 꼭 해야 되는 것이라는 인식과 의지가 높지 않아 학부모만족도조사를 작성하는 참여도는 높지 않고, 이로 인해 원장과 원감은 학부모만족도조사 참여율을 높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학부모에게 유치원은 초·중·고와는 다르잖아요. 인식이 다르고 다녔던 엄마들도 이렇게 평가를 해야 하나 하는 참여도는 아직도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는 많이 일반화가 되어 알고 있지만 꼭 참여를 해야 된다는 학부모의 의지는 아직도 높지는 않습니다." (ㅁ원감, 면담, 2017.2.13)

> "평가를 해달라고 하면 학부모들도 부담스러워 합니다. 대부분 평가를 하다보면 자세히 안 읽어보게 되고 중간인 '보통이다'에 체크를 많이 하게 되지요. 그래서 저는 교능평가를 하기 전에 부모님들께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평가문항 다섯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보통이다는 몇 점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학부모 연수 시에 알려줍니다." (ㄹ원감, 면담, 2016.12.20)

>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학부모한테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유치원 교원 능력 향상을 위해서 저희는 1학기 때 교육과정반이나 방과 후 과정반이 다 수업공개 동료장학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때 공개를 하고 2학기 때는 교원능력평가를 위한 학부모들에게 수업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년 초부터 계속 봐왔던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부터 이제 수업평가를 하고 난 후 오늘부터 며칠까지 평가를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하시던가, 종이 설문지로 하시던가, 꼭 해달라고 사전교육을 시킨 다음에 했더니 별 무리는 없더라고요." (ㄴ원장, 면담, 2017.1.17)

원장과 원감은 교평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이 낮은 편이라 평가를 관리하는 관리자의 입장에서 학부모만족도조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많이 노력해야 하고, 사전교육을 실시해 학부모에게 교평이 무엇인지, 무엇을 보고 어떻게 평가하는 것인지를 알려주며 인식을 넓히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송석례(2015)의 연구에서도 학부모

가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고 평가에 임할 수 있도록 사전 연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교평에 참여하는 학부모들도 평가를 부담스럽게 여기고 좋은 평가를 주지 않기 때문에 교원의 전문성을 진단하고 능력을 개발하려는 평가의 목적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학부모에게 미리 알리고 평가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함을 유치원 관리자는 경험을 통해 깨닫는다.

나. 전문성 진단하기

교평의 과정에서 원장과 원감이 경험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원장과 원감은 전문성을 진단하는 경험에서 자신과 동료교원 그리고 학부모의 요구를 되돌아보고 반영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한다. 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전문성을 진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다(교육부, 2015b: 3). 전문성 진단은 자기평가, 동료교원평가, 학부모만족도조사와로 전문성을 진단해 볼 수 있게 되어있다. 평가되는 영역과 요소는 원장과 원감은 유치원 경영(유치원 교육계획, 원내장학, 교원인사, 시설 및 예산), 교사는 학습지도(수업준비, 수업실행, 평가 및 활용)와 생활지도(개인생활지도, 사회생활지도)이다.

1) 자기평가를 통한 전문성 진단: 자기분석 자료로 활용함

자기평가의 성격은 자기평가를 포함한 평가결과에 대해 스스로 분석하고, 능력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바탕으로 전문성 시장을 위한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는 것이다(교육부, 2015b: 4). 교평에서는 동료교원평가 및 학부모만족도조사 실시 전, 교원 스스로 자신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교육부, 2015b: 33). ㄴ원장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생각해보고, 내년 계획에 반영하고, 학부모 회의에서 학부모 요구사항을 반영했다.

> “제 나름대로는 그걸 보고 어느 부분이 부족한 것 같다 어느 부분이 더 요구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내년 계획에도 반영을 하고 내년 학부모 회의에서는 이러 이러한 면에서 더 강조해야 되겠다 하고 점점 더 제 나름대로는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해마다 똑같은 학부모님들이 아니고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이 달라지더라고요 지역마다 다르고, 100% 다 만족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ㄴ원장, 면담, 2017.1.17)

> “관리자가 된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교사들이 정말 하고 싶어 하는 것과 관리자가 해야 되는 입장은 아직도 저에게는 많은 숙제예요. 교사들이 유치원의 교육목표에 부합해서 갈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은데 중간자 입장

이니까 경영의 전체적인 맥은 원장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중간자 입장으로서 어려움은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ㅁ원감, 면담, 2017.2.13)

ㅁ원감은 유치원 관리자로서 자신을 평가해 보면 원감으로서 교평을 실시한지 1년 차 되었고 평소의 자신을 되돌아보며 평가해 보았을 때 중간관리자로서 교사가 하고 싶은 일을 들어주는 것과 관리자로서 지시된 일을 해야 할 일 사이에서 입장 차이를 다루는데 어려움을 겪고, 경영의 전체적인 맥을 다루는 원장의 권한 사이에서 중간자로서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기평가를 통해 원장과 원감은 자신을 평가해 보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해야 할 일 그리고 어려워하는 일에 대해 분석하고 다시 생각해 보고, 평소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면서 자신의 전문성을 진단하고 분석하며 교평의 의미를 찾았다.

2) 동료교원평가를 통한 전문성 진단: 동료의 진단과 점검으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감

동료교원평가는 교원의 교육(지원)활동에 대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평가'로 가장 세부단위인 평기자표를 중심으로 실시되는 평가이다(교육부, 2015b: 34). 학부모만족도조사와 함께 교평에서 다면평가의 한 방법으로 쓰인다. 동료교원평가를 통한 전문성 진단으로 원장과 원감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마음이 생긴다.

"제가 동료교원을 평가할 때는 보면서 그랬죠. 이 항목에서는 이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보다 잘하는데 (평가가) 낮게 나오는 면에서 갈등이 있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 선생님은 이런 점을 잘하고 이 선생님은 열심히 하는데 (학부모 평가는) 그 선생님이 불친절하다고 나왔을까? 이랬을 때 고민이 되면서도 일단은 평소에 아이들을 대하는 것과 수업 준비를 하는 것을 평소에 아이들과의 상호작용을 보면서 이상한 것은 없었어요. 선생님들 중에 이상한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좋은 분들만 만나서 그런지 별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ㄱ원장, 면담, 2016.11.23)

"선생님들도 교능평가를 하기 위해 수업을 연구하고 준비하는 과정 중에 부담도 많이 되지만 도움도 많이 받습니다. 동료에게 평가를 받고 학부모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어떻게 부담이 안 가겠어요. 하지만 나에게 부족한 점은 다음에는 고쳐서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요. 그래서 교사들 전문성 향상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가가 부담스럽긴 하지만 평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가를 하면서 교사들도 내 반을 한 번 점검하게 되고 나 자신을 한 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도 하니까요. 물론 유치원 교사들은 기본적으로 평가를 안 해도 잘하는 선생님들이 더 많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평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ㄹ원감, 면담, 2016.12.20)

ㄱ원장은 동료교원을 평가하면서 여러 가지 항목으로 측정 비교 판단 해보고, 평가의 결과물을 보면서 왜 이렇게 나왔을까 '갈등'이 되면 '고민'을 해보았다고 한다. 그러면서 원장의 유치원 교사들의 평소 수업준비 태도와 아이들과의 상호작용을 살피며 잘 하고 있다고 점검했다. ㄹ원감은 교평의 과정에서 교사가 수업을 연구하고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은 되지만 전문성 향상에'도움'이 되고, 교사들은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평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다.

3) 학부모만족도조사를 통한 전문성 진단: 학부모의 마음을 반영함

학부모만족도조사는 유아의 학부모가 개별교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교육부, 2015b: i). 원장과 원감 개별에 대하여 유치원 경영 전반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를 표시하고 유아에 대한 교육(지원)활동에 대해 교육주체로서의 의견을 제시하는 소통기제이다(교육부, 2015b: 37). 면담에서 ㄱ원장은 학부모들이 자유서술란에 원장님에 대해 좋은 말을 해주었을 때 고마운 마음이 들고 섭섭한 말을 해 주었을 때는 신경을 써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ㄴ 원장은 학부모만족도조사로 학부모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관리위원회에서 참고한다고 한다. 교원의 전문성을 진단하는 한 방법으로서 학부모만족도조사는 원장과 원감에게 학부모의 마음을 알고 반영할 수 있는데 의미가 있었다.

> "교원능력평가를 받을 때 학부모님들이 유치원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해주면 좋지요. 일 년 동안 내가 운영을 잘 해주었는데, 유치원의 재정적인 것과 운영적인 면, 인사, 모든 면을 총괄하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총괄을 했을 때 학부모들이 개별로 기록을 하는 난이 있었어요. 그 사항을 보면 '학부모들이 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구나, 또 유치원이 발전하는 것에 대해 고마워하고 있구나.' 알면서 고맙기도 하고, 섭섭한 말들을 써주시는 분도 한두 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 내가 이런 점은 미처 신경을 못 쓰는구나 신경을 써줘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ㄱ원장, 면담, 2016.11.23.)

> "원장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면과 나쁜 면을 이야기 했을 때 '요구사항이 이것이구나!'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만족도조사 말고도 설문지를 받아서 알고 있지만 그런 시기가 다 다르잖아요. 관리위원회에서 참고해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려는 마음은 있으니까 발전했다고 볼 수 있죠." (ㄴ원장, 면담, 2017.1.17)

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의 교원의 전문성을 진단하는 과정 속에서 원장과 원감은 학부모의 의견을 파악하고 사고하면서 조율하는 경험을 했다. 송도선(2013: 75)은 경험을

“인간이 외부 세계와의 관계를 통해서 의식을 내재화하는 과정과 결과의 총체”라고 했다. 원장과 원감은 평가자의 역할을 통해 교원을 평가하고 자신이 평가하는 교원에 대한 관점 이외에 외부의 동료교사 또는 학부모가 평가하는 관점을 다시 살펴봄으로서 자신의 의식을 내재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로 인해 전문성을 키우는 결과도 얻게 되었다.

다. 직무능력 키우기

교평의 과정에서 원장과 원감은 교육부(2015b: 3)의 교평의 평가 목적의 세부지침과 같이 원장과 원감은 유치원 경영에 대한 전문적인 직무수행 및 교육활동 지원 능력을 향상하고, 유치원 공동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관리자로서 원장 원감의 지도성을 함양하고, 유치원 경영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유아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유치원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유념해두며 활동한다. 연구대상 내담자인 원장과 원감은 소통 속에서 관리능력을 키워 신뢰적 관계를 맺으며, 공개수업 연구로 교원의 교육활동 능력을 키우게 되었다고 한다.

1) 소통 속에서 관리능력 키우기: 신뢰적 관계 맺기

유치원 관리자인 ㄱ원장은 유치원 경영에서 중요한 원생과 학부모를 관리하고 지도하기 위해 평소 등·하교 시간에 아이들과 학부모를 만나며 친절히 대한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고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봐준다. ㄹ원감은 학부모가 전한 정보를 담당 선생님과 주고받고, 학부모의 유치원에 대한 궁금증도 풀어준다.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도 중요하므로 교사와 학부모와의 관계 형성을 돕고 대화가 잘 되도록 지도했다.

> “원감선생님과 저는 등교지도를 해요. 아이들을 맞이하고.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고마워하시고 교원능력평가개발에 그런 면을 많이 써주신 것 같아요. 변함없이 아침마다 아이들을 맞이해서 우리 유치원 아이들은 수가 적지만 모든 아이들의 이름을 제가 다 알아요. 그래서 인제 이름으로 다 불러주고 학부모들께 좀 친절하다고 해야 할까요? ‘정말로 학부모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여 주고 아이들을 정말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성공의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ㄱ원장, 면담, 2016.11.23)

> “거의 매일 오전, 오후 등·하원 시간에 아이들과 학부모를 만나기 때문에 소통하는 데는 문제가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침에 등원할 때 유아의 상태를 엄마

에게 듣고 담임 선생님께 전해주고,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은 다시 전해주고 하다 보니까 관리자로서 관계 맺기는 좋았던 것 같아요. 부모들의 궁금증을 많이 해소 해주어야 유치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담임 선생님과 학부모의 관계도 같은 거 같아요. 일단 레포가 형성되고 신뢰가 쌓여야 오해가 없고 선생님을 믿게 되니까요. 신뢰가 쌓인 상태에서는 교능평가를 해도 담임들이 덜 부담스럽지요. 거의 2학기 말 정도에 교능평을 하는데 평가 부분에 있어서 담임에 대한 평가를 '잘 모르겠다.'로는 안하시겠지요. 그래서 유치원에서도 학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지요. 1, 2학기에 공개수업을 한 번씩 실시하고, 상담도 한 번씩 실시하면서 함께 교구도 만들고, 함께 게임도 하고 부모교육도 하면서 많은 기회를 만듭니다." (ㄹ원감, 면담, 2016.12.20)

소통은 평가의 기본 성격 중 하나로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일이다. 원장과 원감은 평소에 교사와 원아와 학부모를 만나 상담하는 역할을 하고 더 자주 만나기 위해 공개수업과 여러 가지 행사도 마련한다. 평가자는 교사에게 어떻게 그들의 교수 실천을 증진할지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피드백을 줄 수 있다(Kraf & Gilmour, 2016). 레포 형성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뜻하고 사전에서 라포르(rapport)로 쓰며 표준국어대사전(2017)에서는 두 사람 사이의 공감적인 인간관계 또는 그 친밀도를 의미한다. 유치원 관리자는 소통하며 친밀도를 높여 관리능력을 키워 교원과 원아와 학부모에게 더 잘 해주며 신뢰하는 관계를 맺는다. 원장과 원감은 평소에 유아와 동료교원과 학부모와 소통을 자주 하면 평가를 받을 때 도움이 된다고 했다.

2) 공개수업 연구로 교원의 교육활동 능력 키우기: 전문성을 키움

"공개수업은 '교사의 높은 수준의 교수행위를 집중적으로 전시하는(김계화, 2011) 제도화된 활동으로, '교사들이 수업방법의 개선을 위해 비교적 자유롭게 상호간에 수업을 공개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활동'(이윤식, 2002)으로 명시되어 있다."(김성숙·정경수, 2015: 246). 교평에서 공개수업을 한다는 것은 동료교원과 학부모에게 자신의 수업을 보여주고 참석한 동료교원과 학부모는 교평의 평가내용과 자신의 의견에 근거해 자신이 본 것을 작성해 결과를 보고하고, 교사가 그 결과를 받아 자신의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교원들은 자신의 교육 능력을 보여주고 평가 받고 또한 평가를 하는 학부모의 관심은 어디에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 관찰하고 분석하며 교육을 잘 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적용하며 전문성을 키운다.

"수업공개를 교육과정반과 방과후반도 다 하고 있거든요,.., 학년 초부터 각 담임에 대해서 원장 원감 각 담임교사 보건교사 특수교사 방과후 교사까지 저희는 다 교능평가를 해요." (ㄴ원장, 면담, 2017.1.17)

> “엄마들은 공개수업에 오면 내 아이만 보게 되지요. 내 아이를 선생님이 잘 챙겨 주는지 발표는 시켜주는지 등 온통 내 아이에게만 신경이 쏠려 있기 때문에 공개수업을 하기 전에 모든 아이들이 골고루 발표 할 수 있는 방법, 모든 아이가 다 참여 할 수 있는 수업 방법 등을 연구하고 동료들끼리 좋은 수업 등을 공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개수업 전에 아이들이 했던 것들을 다 보여 주라고 합니다. 교실의 작품도 한 아이라도 빠지지 않게 게시하고 발표를 시킬 때도 모든 아이를 골고루 시키라고 이야기 하지요. 그래야 부모들이 만족 할 수 있고 아이들도 만족할 수 있어요.” (ㄹ원감, 면담, 2016.12.20)

ㄴ원장은 유치원의 교육과정반과 방과후반 교사들이 교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치원의 대부분의 교원이 각 담임 교사를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ㄹ원감은 자신의 역할은 공개수업을 하면 학부모가 무엇을 보는지 파악하고 교사가 수업에 임할 때 수업을 잘 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지도하는 것이라고 한다. ㄹ원감은 학부모가 만족하기 위해서는 공개수업 전에 아이들이 했던 것들을 다 보여주고 모든 아이들의 작품을 게시하고 모든 아이를 골고루 시키도록 지도한다.

결과적으로 원장과 원감의 경험은 자신을 포함해 모든 교평 참여자의 인식을 넓히고, 교원의 전문성을 진단하고, 지속적으로 능력을 신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내용이었다. 교평에 대한 참여자의 인식을 넓히는 일은 관리자 자신으로부터 이 일을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동기 부여를 스스로 인식하는 되는 일부터 시작해 해야 되는 일로 깨닫게 되었고, 교평을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교사들의 마음을 덜어주기 위해 미리 계획하고 장학하며 준비된 일로 전환해야 했고, 교평이 무엇인지 모르는 학부모를 참여시키기 위해 교평을 알리는 일들을 해야 했다. 전문성을 진단하는 경험은 자기평가를 통해 스스로를 분석하고 평상시의 요구사항들을 반영하며 생각해보고, 동료교원평가를 통해 진단하고 점검해보고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생각을 해보고, 학부모 만족도조사를 통해 학부모의 마음을 반영해 보았다. 지속적 능력 신장을 해야 되는 면에서 소통 속에서 관리 능력을 키우며 신뢰적 관계를 맺고, 공개수업을 하는 교사들을 위해 연구함으로서 교원의 교육활동 능력을 키워 전문성을 키워주었다.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이런 맥락에서 교평 경험을 대부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2. 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 경험에서 문제점과 제안점

선행연구와 사전조사에서 원장과 원감의 교평 경험은 교평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면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면도 많았다. 연구자는 이 연구에 참여한 내담자를 통해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물어보고 그 해결방법은 무엇인지 제안해 줄 것을 물었다.

가. 학부모 참여율 관리

교평에서는 학부모만족도조사에서 학부모 권장 참여율 50% 이상(교육부, 2015b: i)을 제시하기 때문에 교평을 실시하는 유치원에서는 원 내에서 단체로 교평에 대한 학부모교육을 하고, 학부모가 와서 평가할 수 있도록 평소에 참여해야 할 여러 행사들을 알리고, 각 반 교사는 그 반의 학부모들과 직접 소통해서 학부모의 50% 이상이 학부모만족도조사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유치원 교원이 교평을 원에서 실시하기 위해 학부모만족도조사 참여율을 높이는 일은 어려운 일이라고 한다.

1) 학부모만족도조사 참여율 관리 문제

원장과 원감의 경험으로 보아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는 수준의 학부모들은 평가에 대한 인식이 낮고 평가를 꼭 해야 한다는 의지가 높지 않다. 또 평가를 하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참여율이 낮다고 한다.

> “유치원에서는 교평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평가 실시 전 부모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작 실시에서는 학부모의 참여율은 담임의 독려가 없을 경우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학부모로부터 평가를 받는 것은 필요로는 하는데 평가 행위에 대한 의지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ㄷ원장, 면담, 2017.4.7)

> “종이를 할 때는 70%가 넘었는데 컴퓨터로만 하니까 50%가 됐어요. 직장에서도 다 할 수도 있는데 요즘 엄마들은 다 바쁘기도 하고 그렇죠. 종이로 하면 엄마들이 작성하고 주셨는데 온라인으로 하면 말로는 하겠다고 해도 50~60%가 안 되었던 것 같아요. 좀 더 참여가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방법은 우리가 자꾸 들여다보면서 ‘우리 반은 몇 프로가 됐는지 보면서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계속 들어가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참여율을 봐주는 행정지원을 해준다면 그래서 활성화가 되고 지원이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요.” (ㄹ원감, 개인면담, 2016.12.20)

> “학부모들이 집에 컴퓨터에 가서 입력을 하고 하는 절차상을 학부모들이 불편해 합니다. 이제 지면평가는 하지 않거든요.” (ㅁ원감, 면담, 2017.2.13)

면담에서 ㄷ원장은 낮은 학부모의 참여 의지, ㄹ원감은 학부모만족도조사 참여율을 높이는 일이 교사들이 하는 일의 범위를 넘어서 부담이 되는 점, ㅁ원감은 학부모들이 컴퓨터로 평가하는 것을 불편해 하는 점이 문제라고 했다. 김이경·김갑성·박병선(2012)은 종이설문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변환한 정책이 응답의 편의성 개선에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했으나 이 연구의 학부모는 평가를 하기 위해 직접 유치원에 와서 참여하고 집에 가서 컴퓨터를 켜서 온라인에 접속해 평가결과를 입력해야 되는 참여 방법을 불편해하고 있었다.

2) 학부모만족도조사 참여율 행정지원 제안

원장과 원감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참여자로 되어있는 학부모가 좀 더 자발적으로 학부모만족도조사에 참여해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하는 일이 줄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학부모 대상 교평에 대한 홍보로 참여율을 높이고 교평에 참여하는 구조적 편리성을 갖추는 일은 교평을 주최하는 교육부에서 맡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 “참여율을 봐주는 행정지원을 해준다면 그래서 활성화가 되고 지원이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요. 학부모가 관심을 두지 않는 부분이 큰 것 같아요. 엄마들이 더 관심을 두게 해주어야 할 것 같아요. 교평 업무가 쉽도록 유치원에 와서 하고 가던가 앱으로 하던가 이 업무를 전적으로 맡아서 해 줄 수 있는 부서가 있으면 좋겠죠.” (ㄹ원감, 면담, 2016.12.20)

> “(학부모만족도조사) 참여율을 높이기 어려웠고... 요즘은 컴퓨터를 켜야 되잖아요. 핸드폰으로 하는 것이 편하더라고요. 모바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좋겠고. 절차가 많아요. 형식적으로 인정을 승인을 받고 평가위원들한테 결과를 또 알려주고 해야 하거든요.”(ㅂ원감, 면담, 2017.4.13)

ㄹ원감이 학부모만족도조사 참여율을 봐주는 행정지원을 제안한 것은 교사는 아이들을 돌보는 시간과 그 외의 시간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수업준비를 하는데 바쁘고 그에 대한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교평과 관련된 행정업무는 모자라는 시간에 새로운 업무가 부과되어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ㄹ원감은 행정지원으로 학부모 평가 참여를 앱으로 하는 것과 참여율을 봐주는 업무를 맡아주는 부서가 있으면 했고, ㅂ원감도 평가가 모바일로 편리하게 운영하면 절차가 간편해 평가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나. 전문성 진단과 능력개발

교평에서 원장과 원감은 교원의 전문성을 진단하고 능력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동료교원 평가와 학부모만족도조사를 참고한다. 그 과정에서 원장과 원감은 학부모 평가는 학부모의 평가에 대한 관심 부족과 이해 부족 그리고 평가하는 내용의 관점에 차

이가 있음을 발견하고 평가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데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된다. 이러한 면에서 원장과 원감은 신뢰 할 수 있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고 제안해주었다.

1) 학부모의 평가에 대한 관심과 이해 부족 문제

학부모만족도조사(교육부, 2015b)에서 학부모는 평가지표에서 원장의 유치원 경영 목표 관리, 교육과정 편성운영, 창의인성원아관리, 교실수업 개선, 교원 인사관리, 시설관리를 평가한다. 원감은 유치원 경영면에서 유치원 경영 목표 관리 지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원, 학사업무관리, 교실수업 개선 지원, 교사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면에서 유아의 발달 및 개별 유아의 특성에 대한 이해, 교사-유아 상호작용, 평가내용 및 방법, 가정연계지도, 유치원 생활적응 지도와 같은 평가지표로 평가 된다. 원장과 원감은 학부모의 관심부족으로 낮은 평가 참여율과 학부모의 평가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학부모가 주는 평가를 신뢰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 “(학부모 평가 내용에서) 두 번째 교육과정 편성운영지표가 있고 문항으로 ‘원장선생님은 유아의 발달과 특성을 반영하여 유치원 교육활동을 운영한다.’ 그것은 일반 학부모들이 가정통신문 같은 것도 많이 안보는 것 같더라고요. 공지사항에도 올리고 가정통신문 서면으로도 올리고 현장학습을 가도 또 문자로 보내고 모르는 학부모가 많아요..., 학부모들은 잘 알고 표시한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창의인성원아관리 그리고 문항은 원장선생님은 창의인성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원아관리 한다. 그런 것도 비슷한데 관심 있는 사람은 알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 같은데, 유치원에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지만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아기 사진을 보고, 상장을 보고 알 수도 있지만 100%가 다 이해를 했다 그렇게는 볼 수가 없죠.” (ㄴ원장, 면담, 2017.1.17)

> “참여율을 높이기 어려웠고 점수도 어머니들 평점척도가 그렇잖아요. 대구 경북권은 어머니들이 보통, 보통, 보통을 많이 하시거든요. 같은 보통이라도 지역에 따라 평정이 달라요. 그래서 의심스러울 수도 있어요. 어떤 어머니들은 무조건 낮게 주시는 어머니도 있고 지역에 따라 어떤 어머니는 못 주고도 잘 주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지역에 따라 잘 준다는 개념이 다르더라고요. 보통이라고 하면 50점이예요. 좋은 점수가 아니죠. 80점인가 하면 좋은데 그런 점수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보통 주고 잘 주었다고 생각해요. 매우 그렇다 90점을 줘야 잘 준 것이 되더라고요.” (ㅂ원감, 면담, 2017.4.13)

학부모는 평소에 유치원에서 교원을 보고 생각한 점과 행사참여, 통신문, 유치원 홈페이지, 공개수업 등을 보고 학부모만족도조사지를 통해 평가한다. 학부모들의 교평 참여에 대한 자발적 의지와 평가내용과 측정방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대충 주는

점수 결과는 그에 비해 너무나 열심히 일한 교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결과가 안 되었고, 몇몇 학부모만족도조사 문항들은 학부모들의 관심 범위를 넘어서는 문항들이라 학부모가 잘 알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2) 교원과 학부모의 평가내용 관점 차이 문제

교원과 학부모는 평가하는 내용에 대한 자세가 다르다. 교원은 교원 자신의 교육활동에 대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결과 도출을 위함이고 주관적인 만족도를 표시하는 만족도조사와 달리 동료교원평가는 최대한 객관적인 자세로 평가에 임한다(교육부, 2015b: 34).

> “교원과 학부모가 평가할 때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교사를 평가할 때는 조금 주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자기 아이들을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일치할 수 있지만 어떤 부분은 항목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ㄷ원장, 면담, 2017.4.7)

> “유치원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를 학부모에게 해드려야 하잖아요. 교평을 해보니까 선생님들은 생활지도 쪽에 중점을 두는데 학부모들은 학습지도에 중점을 두어요. 그래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평가가 좀 뒤바뀌는 것 같더라고요...선생님들이 다시 한 번 전반적인 것을 점검을 하고 엄마들이 바라보는 것과 엄마들이 추구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ㅁ원감, 면담, 2017.2.13)

교원들은 평가 내용과 문항을 참고해 교평을 준비하고 평가하고 학부모는 주관성이 개입되어 자신의 아이를 보고 평가하고, 중점을 두고 보는 평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평가가 뒤바뀌므로 ㅁ원감은 교사가 전반적인 것을 점검하고 엄마들이 추구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한다.

3) 교사연수 기회와 학부모 교육지원 제안

면담에서 ㄹ원감은 교평을 실행해 보고 교사들의 연수 기회가 적은 것에 대해 앞으로 더 늘어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ㅂ원감은 홈페이지와 시스템 사용 방법 그리고 아이디 발급도 현재 유치원 내의 교원이 맡고 있는 상황이어서 교평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학부모 교육이 더 많이 지원되기를 바랐다.

> “교사들이 ‘이런 부분을 연수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학기가 끝나고 교육부에서 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선생님들한테 연수 기회를 좀 더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들도 바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고 싶은 연수를 듣고 있거든요. 대부분

하나 둘 듣고 있는데 이런 기회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디에는 150명 200명 시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시간을 놓치면 그 연수도 못 받고 바쁘다보면 온라인 신청 시간도 놓치고 그러거든요.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수가 더 늘었으면 좋겠어요."(ㄹ원감, 면담, 2016.12.20)

"학부모 교육을 (지원)해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홈페이지도 시스템 사용 방법도 아이디 주는 것도요"(ㅂ원감, 면담, 2017.4.13)

박종필·가신현·엄준용(2012)은 학기 중에 이루어지는 연수들은 퇴근 후 또는 방과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수 참여자들은 상당한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연수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고했다. 이러한 연유로 교사연수는 학기가 끝나고 연수를 할 기회를 갖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교육 수가 더 늘기를 바랐다.

본 연구 결과에서 문제점과 제안점은 유치원 관리자(원장, 원감)가 직접적으로 겪은 문제점으로는 학부모만족도조사 참여율을 관리하는 일이 어려워 업무가 과중되는 문제, 학부모의 평가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부족으로 평가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운 것, 교원과 학부모의 평가에 대한 이해도 차이로 평가 결과의 해석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그에 대한 제안으로 교원의 교평 업무를 줄여주는 학부모만족도조사 참여율을 관리 행정지원 그리고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기회를 늘리고 학부모가 교평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교육을 더 지원해 주는 것을 제안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치원 원장과 원감의 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얻은 경험의 의미를 알아보고, 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의 문제점과 제안점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문제의 연구결과와 선행연구를 통해 논의와 결론을 찾으면 다음과 같다.

1. 원장과 원감이 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얻은 경험의 의미

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를 경험한 원장과 원감은 교평 참여자의 인식을 넓히고, 전문성을 진단하고, 직무 능력을 키우는 일들을 주로 했다.

첫째, 참여자의 인식을 넓히는 과정에서 원장과 원감은 자신과 더불어 교원과 학부

모를 대상으로 교평이 무엇인지 이해시키는 일에 노력하는 경험을 했고 그러한 활동을 하는 자신의 역할에 교평의 의미가 있다고 여겼다. 연구의 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해서 논의해 보면 김규수·박미정·백승선(2014)은 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등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보았고, 김은영(2012)은 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 시범운영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개선 방안 제안을 기초로 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한바가 있다. 이처럼 원장과 원감은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유치원에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다.

둘째, 전문성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원장과 원감은 자기평가, 동료교원평가, 학부모만족도조사를 경험했고, 이를 통해 자신을 스스로 평가해보고 교원들을 진단하고 점검해보며 학부모의 요구를 되돌아보아 반영해보는데 그 의미가 있었다고 했다. 박미정(2014)의 연구에서 교사들이 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가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한 연구 결과와는 달리, 본 연구의 연구 결과에서 원장과 원감은 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 경험이 자기평가, 동료교원평가, 학부모만족도조사와 같은 전문성 진단을 통해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했다. 연구자는 내담자와의 면담에서 원장과 원감은 유치원 경영(유치원 교육계획, 원내장학, 교원인사, 시설 및 예산), 교사는 학습지도(수업준비, 수업실행, 평가 및 활용)와 생활지도(개인생활지도, 사회생활지도)와 같은 평가의 구체적인 내용(교육부, 2015b, ii) 면에서 자신과 교원을 평가한 경험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과 예를 들어보려고 했었고, 원장과 원감은 전문성 진단을 통한 자기 성찰이 교원의 전문성 신장의 계기가 되는 것으로 말했다.

셋째, 직무능력을 키우는 경험에서 평소에 아이들과 학부모와 교사와 소통하며 잘 대해주면서 신뢰를 높이며 관리자로서의 능력을 키우고, 공개수업을 연구해 교원의 교육능력을 지원하는데 의미가 있었다고 했다. 선행연구에서 김경철·김안나(2010)는 유치원 교원평가의 결과는 교원의 전문성 발달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되어야 하며 평가결과는 교원의 전문성 발달을 위하여 자신들에게 공개 및 피드백이 제공됨으로써 교사들의 수업개선 및 전문적 발달이 가능한 체제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본 연구결과에서 ㄹ원감은 평소에 교사에게 여러 가지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었고, 교사의 수업 연구 공유의 필요성과 학부모와의 대화의 중요성을 교사들에게 말해주고 있었다. 이러한 원장과 원감의 활동은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하여 유치원 교육의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했다.

2. 유치원 원장과 원감이 경험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문제점과 제안점

본 연구의 결과에서 원장과 원감이 교평 경험에서 겪은 문제는 학부모 참여율 관리, 전문성 진단과 능력개발지원 면에서 찾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제안도 했다.

첫째, 학부모 참여율 관리 면에서 학부모가 교평에 대한 이해가 없고 관심이 없어 참여율을 높이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교평을 받기 위해 교원이 학부모만족도조사 참여율을 높이는 새로운 업무 증가는 문제시 되었다. 학부모만족도조사 참여율을 관리하는 문제는 몇 몇의 교원이 수많은 학부모에게 연락을 해야 하므로 각 반 교사들이 담당하는 교실의 학부모 연락을 맡아 새로운 행정 업무가 부가되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학부모로부터 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를 받기 위한 참여 독려 업무의 증가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교사들의 전문적 업무의 범위를 넘어서 부담이 되었다. 장연주(2016)는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평가로서 자리매김 하기 위하여 평가 이외의 불필요한 업무들을 간소화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제안점으로 원장과 원감은 행정지원으로 참여율을 봐주는 부서가 있거나 학부모가 모바일로 편리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다.

OECD 문헌연구에서 살펴본 교사평가의 목적은 교사의 전문성 발달과 학생들의 학습을 증진시키는 책무성이다(Isoré, 2009: 2). Donaldson(2013)은 공립 초·중등 교장의 관점연구에서 교사의 전문성 발달을 돕는 효과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원에 필요한 재정의 부족, 지역 행정부의 통제력 부족, 시간의 부족을 지적했다. Derrington(2011)은 새로운 시스템을 실행하는데 시간과 자료와 교육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Kersten과 Israel(2005)은 교장들이 교사평가체계는 과도하게 시간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고, 교사평가가 학교의 발전에 긍정적인 변화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연구자들이 행정과 협회 사이의 책임의 분담과 신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전략을 알아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원장과 원감은 교평을 실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면에서 학부모참여율을 높이는데 어려움을 겪어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원장과 원감 관점에서 앞으로 교평 업무가 더욱 실효성 있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학부모만족도조사 참여율을 관리하는데 발생하는 유치원의 새로운 평가 업무와 그에 드는 시간을 경감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 교육부나 관련 전문기관은 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가 무엇인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더 많이 알려 학부모의 참여의지를 높이고, 관련 부서에서 학부모참여도 업무를 지원하는 방법(예, 유치원교

원능력개발평가를 모바일로 간편히 접속해서 참여)을 개발하고 보급해 학부모가 학부모만족도조사 작성에 쉽게 참여하기 쉽도록 하는 것이다. 연구자의 덧붙이는 의견으로 유치원은 컴퓨터나 핸드폰이 없는 학부모의 학부모만족도조사 작성 접근율을 높여주기 위해 학부모가 유치원에 방문한 날 유치원 컴퓨터를 사용해 만족도조사를 작성할 수 있도록 유치원 컴퓨터 사용을 허용하거나 가까운 지역 공공기관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원장과 원감이 전문성을 진단하고 능력개발을 지원하는 면에서 원장과 원감은 교평의 과정에서 참고 되는 학부모가 평가에 대해 관심이 없고, 객관적인 평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으로 교평에서 학부모가 진단한 평가의 결과를 신뢰하는데 문제가 있음을 말했다. Sheppard(2013)의 연구에서 교사는 평가기준에 맞춰 피드백을 주는 것을 교사평가 과정에서 가장 큰 장점으로 본다고 한다. 김규수·박미정·백승선(2014)도 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는 초·중등에 비해 평가자에 대한 신뢰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원장과 원감은 교원과 학부모의 평가 내용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 의해 평가의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었다. Kraft와 Gilmour(2016)는 교장의 평가가 평가의 목표와 관점이 다른 점을 지적했다. 윤진주·김영실·인정이(2012)는 교사의 담당 학급 유아연령과 전체 학급 수에 따라 평가지표 내용 이해도에 차이가 있다고 했다. 김규수·박미정·백승선(2014)은 평가자의 주관성 개입으로 객관성을 가진 평가자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고 했고, 유치원 교사들은 평가자의 주관성 개입으로 평가결과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안으로 원장과 원감은 교사 연수와 학부모 교평 교육지원에 대해서 말했다. 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 전문성 신장을 통한 유치원교육 신뢰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교육부, 2015b, i). 연구 대상자들은 이러한 맥락에서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그를 통한 유치원 교육의 신뢰를 제고 받는데 필요한 교육 지원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같은 연구결과로 전제상(2012)의 연구에서 교사는 수업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로 연수 시간의 부족에 대한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고 했다. OECD의 문헌연구 보고서에서 평가자는 교사를 평가하기 위해 교육받아야 한다고 하는 연구가 많이 있음을 보고했다(Isoré, 2009: 29). 본 연구의 원장과 원감의 경험 연구에서 내담자들은 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는 학부모도 만족도조사를 통한 평가자로 참여시키기 때문에 학부모도 평가하기 위해 평가에 대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었다. 조부경(2016)은 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 시범적용 결과 및 개선방안에 대해 교원연수, 행정, 재정, 제도 개선에 대한 지원 방안이 필요함을 제안했

다. 이러한 논의에서 보아 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를 효율적으로 실행하는 데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원장과 원감의 관점에서 앞으로 교평 업무가 더욱 실효성 있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교원의 전문성을 키우는 연수 기회를 늘리고 학부모가 교원을 평가하는 목적이나 평가내용과 평가방법을 잘 이해하고 교원이 신뢰 할 수 있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나 관련 전문기관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평가내용과 평가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 더 많이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래서 교원과 학부모의 평가내용에 대한 관점 차이를 좁히고 관련 기관에서는 참여하는 학부모에게 학부모가 평가에서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연구해 교사들에게 알릴 수 있는 교육을 지원하고 교원은 이로서 학부모의 관점에 맞춰 실천하는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논의와 결론을 바탕으로 한 연구자의 후속연구 제안은 첫째, 유치원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내용 요구와 연수 가능 시간과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가 목적으로 하는 전문성 신장을 위한 유치원 교육의 신뢰도를 제공하기 위해 변화하는 현장의 필요성을 반영할 수 있는 연수를 지원하고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되는 연수받는 시간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둘째, 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학부모 참여자의 인식과 학부모 요구를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의 결론에서 학부모의 인식과 요구를 파악해서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학부모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교원의 업무 부담을 줄여 줄 수 있고, 학부모의 요구를 알아봄으로서 교원이 반영할 부분들은 무엇인지 알고, 학부모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은 그에 대한 학부모 지도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유치원 원장과 원감의 관점을 알아보기 위해 유치원 원장과 원감이 겪은 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 경험의 의미를 분석해 보고, 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 경험에서 안은 문제점과 제안점을 알아보았다. 이 연구의 결과는 현장에서 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행한 여섯 명의 원장과 원감의 실제적 경험을 드러내어 평가를 경험하는 많은 참여자와 관련 전문가에게 이들의 경험 내용에 대한 통찰력을 주고, 실효성 있는 교평 운영에 대한 원장과 원감의 관점을 고려해 보는데 참고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곽윤숙(2016). 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의 사립 유치원 적용에 관한 연구. 학습자중심 교과교육연구. 2016, 제16권 제11호, pp. 631-65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7865호(2017).

교육부(2015a).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교육부(2015b). 학년도 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 매뉴얼. 원장 원감용.

교육부(2017). 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 매뉴얼. 원장 원감용.

교육부보도자료(2016, 8. 10).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대상에 유치원 교원 포함돼-「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개혁.

교육위원회(2015, 1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경상남도의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2016, 10. 9, 2017, 5. 20). http://stdweb2.korean.go.kr에서 인출.

김경철·김안나(2010). 유아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공립유치원 교사의 이야기. 서울교육대학교 한국초등교육, 제21권 제1호.

김규수·박미정(2016). 교원능력개발평가체제에 따른 유치원 교원능력개발 프로그램 모형 개발. 열린유아교육연구, 2016, 10, Vol. 21, No. 5, pp. 1-30.

김규수··박미정·백승선(2014). 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공·사립 유치원 교사의 인식. 열린유아교육연구, 2014, 10, Vol. 19, No. 5, pp. 405-434.

김이경·김갑성·박병선(2012). 교원능력개발평가 만족도조사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012, 제30권, 제4호, pp. 277~301.

김성숙·정경수(2015). 유아교사의 공개수업 경험에 관한 의미 탐색: 유아교사와의 심층 면담을 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2015, 8, Vol. 20, No. 4, pp. 245-269.

김은영(2012). 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 개요. 육아정책포럼 정책동향.

박미정(2014). 교원능력개발평가 체제에 따른 유치원 교원능력개발 프로그램 모형 개발.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종필·가신현·엄준용(2012). 교원능력개발평가 연계 연수제도 개선방안 연구. 교육정치학연구, 제19집 제2호, pp. 125-156.

송도선(2013). 존 듀이의 경험교육론. 서울: 문음사.

송석례(2015). 유치원 교사의 교직전문성에 따른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인식. 한국유아교육연구, 2015, 17(2), 51-77.

윤진주·김영실·인정이(2012). 유치원 교원능력개발 평가지표의 내용 이해도와 적합성에

대한 사립 유치원 교사의 인식. 교육과정평가연구, 2012, Vol. 15, No. pp. 209-238.

장연주(2016). 공립 유치원 교사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이야기. 유아교육 보육복지연구 2016, Vol. 20, No. 1. pp. 271-298.

전재상(2012).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에 따른 맞춤형 교원연수 운영 지원 실태 분석: 대구지역 교원을 중심으로. 교육평가연구. 2012, 제25권 제4호, 627-653.

조부경(2015). 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 시범적용 결과 및 개선방안. 2016년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시범운영을 위한 직무연수.

Cresswell, J. W. (2012). 질적 연구방법론-다섯 가지 접근(조흥식, 정선욱, 김진숙, 권지성). 서울: 학지사.

Derrington, M. L. (2011). Changes in Teacher Evaluation: *Implications for the Principal's Work. Models of Leadership*, Spring 2011.

Donaldson, M. L. (2013). Principals' Approaches to Cultivation Teacher Effectiveness: Constraints and Opportunities in Hiring, Assigning, Evaluating, and Developoing Teachers. Educational Administration Quarterly, 49(5) 838-882.

Isoré, M. (2009). "Teacher Evaluation: Current Practices in OECD Countries and a Literature Review", *OECD Education Working Papers.* No. 23, OECD Publishing, Paris.

Kersten, T. A. (2005). Teacher Evaluation: Principals'Insights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Planning and Changing*. Vol. 36, No. 1&2, 2005, pp. 47-67.

Kraft, M. A., Gilmour, A. F. (2016). Can Principals Promote Teacher Development as Evaluators? A Case Study of Principals' Views and Experiences. *Educational Administration Quarterly*, 2016, Vol. 52(5) 711-753.

Sheppard, J. D. (2013). *Perceptions of Teachers and Administrators Regarding the Teacher Evaluation Process(Doctoral dissertation)*. Electronic Theses & Dissertations. 852. http://digitalcommons.georgiasouthern.edu/etd/852

·논문접수 8월 9일 / 수정본 접수 9월 4일 / 게재 승인 9월 19일

·교신저자: 송미온,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박사수료, 이메일 mion@sm.ac.kr

Abstract

In-depth Analysis of Kindergarten Administrators Teacher Evaluation Experiences

Mion S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kindergarten administrators‘ opinions about the Teacher Evalua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ir experiences and find problems and suggestions. Six administrators (principals and vice principals) participated from November 2016 to April 2017.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Teacher Evaluation experiences of the administrators were found to expand the perceptions of the participants regarding the meaning of the evaluations, prepare the teachers instead of putting pressure on them, and lead to better parental participation. Second, the administrators noted that the teacher evaluations could be useful for improving teacher performance through self-evaluations and peer evaluations, and application of parents′ needs through parent satisfaction surveys. Third, the administrators improved their management abilities by communicating with the participants, teachers, young children and their parents, and by supporting professionalism through their study in open-classes. The administrators found some problems managing the parent participation rate, ensuring the reliability of the surveys, and accounting for differences in teachers’ and parents’ views of the evaluation criteria. The study suggests acquiring administrative support from the government to manage the participation rate, implement educational support to open more classes for teachers that are required to have training, and give more guidance to parents about how to participate.

Key words: Teacher Evaluation, principal, vice principal, experience, ECE system

육아정책연구
제11권 제2호(2017. 9.) 57~86

기혼 보육교사의 직무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일-가정 갈등과 동료 갈등의 매개효과

이지영[1)] 김성원[2)] 김진원[3)]

요 약

본 연구는 기혼 보육교사의 직무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일-가정 갈등과 동료 갈등의 매개효과를 알아봄으로서 기혼 보육교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언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238명의 기혼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2.0과 AMOS 22.0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통계와 적률상관관계 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실시하고,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해 매개경로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는 높은 편은 아니었으나, 하위변인 중 업무 관련 직무스트레스는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일-가정 갈등과 동료갈등은 높게 느끼는 편은 아니었다. 반면 삶의 질의 하위변인 중 심리적 건강과 사회적 관계는 약간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전반적인 삶의 질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둘째, 기혼 보육교사의 일-가정 갈등, 동료 갈등과 직무 스트레스 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난 반면, 세 변인과 삶의 질 간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셋째, 기혼 보육교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관계에서 일-가정 갈등은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반면 동료 갈등은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무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영향을 행사할 때 일-가정 갈등을 줄이면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기혼 보육교사의 삶의 질을 일부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는 기혼 보육교사의 삶의 질에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과 직무 스트레스와 삶의 질 관계에서 일-가정 갈등과 동료 갈등의 매개효과를 파악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기혼 보육교사, 직무 스트레스, 일-가정 갈등, 동료 갈등, 삶의 질

1) Tarlac State University 교육경영 박사과정
2) 총신대학교 산업교육학부 조교수
3) 장신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

Ⅰ. 서론

현대 사회의 구조 변화와 여성의 사회진출로 말미암아 기관에서의 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커졌고 이에 따라 보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도입되게 되었다. 그럼에도 과중한 업무, CCTV 제도, 잦은 정책 변화(전혜경, 2016), 빈번한 학대사건의 보도 등은 보육교사의 사명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Ferreans(1996)는 삶의 질을 건강과 기능, 사회와 경제적 상태, 심리와 영적 상태, 가족상황의 영역 내에서 개인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안녕감이라고 정의하였고, Cambell(1976)에 의하면 삶의 질은 행복의 양에 의해 좌우되는데, 행복이란 만족감과 함께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때이다. 권한경(2011)은 삶의 질에 대해 개인의 삶을 가치 있고 윤기 있게 만들어주는 만족감의 총량이라고 정의하였다. 선행연구자들이 삶의 질의 공통분모로 삼은 만족감, 안녕감은 삶의 질이 한 개인의 주관적인 지각임을 암시해준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1997: 1)는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한 개인이 살고 있는 문화와 가치체계의 맥락 안에서 자신의 목표, 기대, 규범, 관심과 관련하여 삶에서 자신의 위치에 대한 인식”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삶의 질이란 개인이 삶에 대해 주관적으로 느끼는 개인의 만족도, 자부심, 안녕감의 정도이다. World Health Organization′s Quality of Life Group(1992)에서는 국가와 문화의 차이를 극복한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척도’(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 Assessment Instruction-WHOQOL)를 개발하여 보급하였는데 이 측정도구의 개발은 삶의 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전혜경, 2016). 우리나라에서는 민성길·이창일·김광일 외(2000)가 이 척도를 번안하여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간편형 척도(WOOQOL-Bref)를 보급하였는데 그 하위 영역은 신체적 영역, 사회적 영역, 생활환경 영역, 기타 전반적인 삶의 질로 구성되어 있다.

삶의 질에 관한 연구는 사회 전반에 있어서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고 특정 대상이나 직업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최성실, 2016). 보육교사는 사회적인 요구에 따라 2001년 67,143명에서 2015년 271,454명으로 늘어난(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높은 증가율을 보인 대표적인 직업군이다. 주관적 안녕을 의미하는 교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교사를 보모가 아닌 교사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근무환경 개선 등의 복지 향상이 필요하다(김은주·이기종, 2014). 교사의 삶의 질은 직무만족도,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의 영향을 받으며(전혜경, 2016), 직무 스트레스와 연

계되어 있다(김은수·유승연, 2012; 김은주·이기종, 2014). 김규수·고경미·김경수(2014)는 유아교사의 근무환경 변인으로 교사효능감, 직무 스트레스, 동료 관계를 제시하였는데, 이 중 직무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침을 발견한 바 있다. 또한 조경서·김은주(2014)의 연구에서 직무 스트레스는 직무만족도를 매개변수로 삶의 질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침이 밝혀진 바 있다.

스트레스는 환경에 대해 개인적 지각이 바라는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을 때 발생하는 심리적 과정(Daniels, 1996)이다. 직무 스트레스란 개인이 작업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유발된 부조화로 인하여 심리적 역기능이 유발됨을 의미하며 조직심리학 분야에서 스트레스를 세부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등장한 용어이다(김민서, 2015).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보육교사의 직무 스트레스란 보육교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 근무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불균형으로 인해 겪는 부정적인 정서를 의미한다. 보육교사는 여러 직업 군 중에서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군에 속한다(Kovess-Masfety, Rios-Seidel, & Sevilla-Dedies, 2007). 보육교사는 과도한 업무, 낮은 임금(이영란·박선남·이미란, 2016), 사회적으로 낮은 인식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한다(최미란·이세은·이선임 외, 2016). 또한 잠시도 영유아에게서 눈을 떼기 어려워 화장실조차 마음 놓고 다녀오기 어려운 일상의 현실과 어린이집의 존폐 여부와 관련된 평가를 감당해 내야하는 부분도 스트레스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김은수·유승연, 2012).

현장에서 과거에는 미혼 보육교사 채용을 선호하였지만 최근 들어서는 미혼 보육교사가 영아보육에 어려움을 느끼고 이로 인한 잦은 이직 현상을 보여 기혼 보육교사를 선호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오명숙·조희숙, 2009). 기혼 보육교사는 자신의 자녀를 키운 경험을 통해 영·유아의 발달에 대한 이해가 높고 영·유아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황선영, 2014). 이처럼 기혼 보육교사가 영·유아를 담당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고 앞으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기회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된다(이민선, 2016). 결혼 여부에 따른 삶의 만족도 비교에서 기혼 교사는 미혼 교사에 비해 생활만족도, 정서 요인, 전체 삶의 만족도는 높게, 스트레스 지수는 낮게 나타났다(김은수·유승연, 2012). 기혼 교사가 미혼 교사에 비해 강점을 보이는 영역이 있을 수는 있으나, 기혼 보육교사는 보육현장에서 일하면서 가정을 함께 돌보아야 하기에 미혼 보육교사가 겪지 않을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혼 보육(유아)교사에 관한 연구는 결혼과 임신, 출산, 일-가정 역할로 겪는 어려움(구자영·이대균, 2013; 김승민, 2011), 기혼 유아교사의 가정 내 역할 갈등으로 인한

직무만족도와 자기효능감(용인경, 2003; 이지영·문혁준, 2015), 근무환경에 따른 직장-가정의 역할 갈등(김유리, 2010) 등이 있다. 선행연구의 제목에서 발견되듯이 기혼 보육(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논문의 주제는 '어려움', '갈등'을 내포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기혼 보육교사가 현장에서 근무하는데 고충이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교사가 겪는 여러 가지 갈등의 유형 중에 기혼 보육교사만이 경험하는 갈등은 일-가정 갈등이다. 일-가정 갈등이란 일과 가정 두 가지 역할 중 한 역할의 참여가 다른 역할의 참여를 어렵게 할 때 발생하는 갈등이다(Greenhaus & Beutell, 1985). 초·중·고 교사의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연구에서 직장 관련 갈등 하위 요소 중 직무 과부화, 직무 통제성, 상사 지원, 동료 지원, 대인 스트레스 등이 삶의 질을 낮추고, 가정 관련 갈등의 하위 요소 중 배우자-가족 갈등, 자녀양육 갈등, 의사소통 갈등, 경제적 갈등 등이 삶의 질에 부적 정서를 느낀다고 보고된 바 있다(최재은·배정우·김정남, 2004). 기혼 보육교사 역시 가정과 어린이집의 이중생활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과중한 짐이 되고 교사와 주부 역할 사이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갈등을 겪고 있다(장미정, 2013). 또한 이들은 자녀를 키우면서 보육교사로 일하기 어려운 현실, 보육 전문가이면서 자기 자녀를 못 보는 딜레마를 경험하고 있다. 이는 미취학 자녀가 있을 경우 기혼 여성의 삶의 질이 더 낮게 나타는 것은 일 뿐만 아니라 육아의 부담으로 인해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 삶의 질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볼 수 있다(김근식·윤옥화, 2009; 허숙민·최원석, 2014; Guket, Searle, & Klepa, 1991).

보육교사의 스트레스와 갈등 상황의 원인은 보육현장에서 맺게 되는 인간관계에서 발생한다(김은수·유수영, 2012). 영유아교육기관의 구성원은 대부분 여성으로 규모가 작고 인간관계가 과업이 아닌 사적 관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공동 작업 과제가 많고 학력과 경력에 있어 다양한 배경을 가진 동료들이 모여 일하게 된다. 작은 규모로 말미암아 융통성이 있으며 가족적인 특성이 있는 반면 합리성이 떨어질 수 있고 역할 혼돈이나 책임 소재의 불분명 등으로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박은혜, 2017; 최미미·서영숙, 2013). 김은주·이기종(2014)에 의하면, 보육교사는 운영자와 교사, 영유아로 이루어진 수직적 관계, 동료 교사와의 수평적인 관계, 기관 외적인 교육행정의 상부기관 및 사회조직이나 부모들과 연결된 복잡한 조직을 경험한다. 이와 같은 조직의 구조적 특징 속에서 보육교사가 인식하는 동료 갈등의 원인은 경력 차이에 따른 위계질서, 가치관(교육관)의 차이, 사회적 기술의 부족, 비지지적인 동료관계 등이 있다(최미미·서영숙, 2013). 선행연구의 결과를 보면, 보육교사가 업무와 관련해 자신이 맡은 역할과 동료, 상사와의 관계에서 역할로 인한 갈등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낮아지고(이수

연, 2011) 반대로 동료와의 관계에서 갈등 수준이 낮은 집단에 속한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는 갈등 수준이 높은 집단의 교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조용현, 2011). 아울러 직무만족도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큰 변수임을 감안할 때(전혜경, 2010), 보육교사의 동료와의 갈등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동료지원은 직장생활의 질을 통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윤창영·이순묵(2002)의 연구는 상사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달리 동료와의 관계가 기혼 직장여성에게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최병태·김이영, 2013; 최성실, 2016)에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난 결과를 통해 어린이집 내의 낮은 사회적 지지와 갈등이 삶의 질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RISS(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를 통하여 학술지를 중심으로 한 연구동향을 살펴 본 결과 보육교사의 직무 스트레스는 오래 전부터 연구자들의 주관심사였다(김동춘·송미선, 2005; 김리진·홍연애, 2013; 노수진, 2016; 박윤조·임명희·안정숙, 2015; 여종일, 2016; 유현숙·권정해, 2017; 윤미정, 2011; 이경례·문혁준, 2014; 이경숙·박진아·김명식, 2017; 이경숙·채진영·김명식·박진아·이정민, 2016; 이은숙·이경님, 2016; 이지영, 2012; 조성연·구현아, 2005; 홍석영, 2012). 반면 보육교사의 삶의 질 또는 삶의 만족도는 연구자들이 최근 관심을 갖기 시작한 주제이다(구은미, 2016; 권화숙, 2012; 김은수·유승연, 2012; 김은주·이기종, 2014; 이혜안·심수연·양영애·임명호, 2016; 장희선, 2017; 정혜경, 2016). 아울러 일-가정 갈등(백정원·최정숙, 2013; 이지영·문혁준, 2015)과 동료 갈등(이병록, 2011; 최미미·서영숙, 2013)에 관한 연구물은 몇 편씩 존재하나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직무 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관계에 관한 연구 가운데 영향력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일-가정 갈등, 동료 갈등을 함께 본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연구동향과 아울러 영유아에게 미치는 보육교사의 영향력을 생각할 때 보육교사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살펴보는 연구는 시기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기혼 보육교사의 경우 육아의 경험을 지니고 있어, 안정적인 영유아 보육을 수행할 수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기혼 보육교사의 직무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는 일-가정 갈등과 동료 갈등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그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혼 보육교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안함으로 기혼 보육교사의 복지와 보육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에 따라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기혼 보육교사의 직무 스트레스, 일-가정 갈등, 동료 갈등, 삶의 질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기혼 보육교사의 직무 스트레스, 일-가정 갈등, 동료 갈등, 삶의 질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기혼 보육교사의 직무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일-가정 갈등과 동료 갈등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수도권 지역의 기혼 보육교사로서 250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나 문항이 빠짐없이 완성된 238부를 연구에 포함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은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분류하였다(고혜원, 2012; 김성숙, 2017; 안희옥, 2016; 이민선, 2016).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배경은 <표 1>과 같다.

연구 대상자의 연령은 30대(40.8%)와 40대(40.3%)가 80% 이상으로 대다수를 이루었고, 소지 자격증은 1급 자격증(51.7%)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시설장(25.2%)과 보육교사 2, 3급(22.3%)이 유사한 비율로 뒤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최종학력은 전문대 졸업(37.8%)과 4년제 대학졸업(35.7%)이 유사한 비율로 전체의 73%를 넘는 비율을 보였다. 연구대상자의 경력은 1-3년(42.4%), 4-6년(22.3%), 10년 이상(21.4%) 순이었다. 근무하는 기관의 유형은 민간어린이집(63.0%), 가정어린이집(18.5%) 순이었다. 연구대상자의 담당업무는 영아반 교사(46.6%), 유아반 교사(39.9%)였으며 1일 근무시간은 8-10시간 미만(71.8%), 8시간 미만(17.2%) 순이었다.

월 가계 소득은 500만원 이상(31.7%), 400-499만원 이하(30.7%)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족형태는 핵가족(88.2%)이 가장 높았고, 자녀수는 2명(47.1%), 1명(32.8%)의 순으로 나타났다. 추가 출산계획은 없음(76.5%)이 가장 많았으며, 출근 시 자녀양육은 보육시설 이용(35.3%), 시부모님(9.2%), 친정부모님(8.8%)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편 직업은 사무직(51.7%)이 가장 높았으며, 판매 및 서비스직(17.6%), 전문직(15.5%)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편 근무시간은 8-10시간 미만(58.8%)이, 남편 가사시간은 1시간 미만(76.4%)이 가장 높았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배경

(*N*=238)

	구분	빈도	백분율		구분	빈도	백분율
연령	20대	17	7.1	월가계 소득 (만원)	200 미만	15	6.3
	30대	97	40.8		200-299 이하	28	11.8
	40대	96	40.3		300-399 이하	47	19.7
	50대	28	11.8		400-499 이하	73	30.7
					500 이상	75	31.7
자격증	보육교사2,3급	53	22.3	가족형태	핵가족	210	88.2
	보육교사 1급	123	51.7		확대가족	17	7.1
	시설장	60	25.2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8	3.4
	기타	2	0.8		기타	3	1.3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39	16.4	자녀수	1명	78	32.8
	전문대 졸업	90	37.8		2명	112	47.1
	4년제대학 졸업	85	35.7		3명	24	10.1
	대학원 졸업	24	10.1		4명	3	1.3
					없음	21	8.7
경력	1-3년	101	42.4	추가출산 계획	1명	42	17.6
	4-6년	53	22.3		2명	13	5.5
	7-9년	33	13.9		없음	182	76.5
	10년 이상	51	21.4				
근무기관 형태	가정	44	18.5	출근시 자녀양육	친정부모	21	8.8
	민간	150	63.0		시댁부모	22	9.2
	국 · 공립	32	13.4		베이비시터	6	2.5
	직장	7	2.9		보육시설	84	35.3
	법인	5	2.1		남편	14	5.9
					기타	91	38.2
직위	영아반 교사	111	46.6	남편직업	전문직	37	15.5
	유아반 교사	95	39.9		사무직	123	51.7
	원감	9	3.8		판매 및 서비스직	42	17.6
	원장	13	5.5		생산 및 단순 노무직	22	9.2
	기타	10	4.2		무직	1	0.4
					기타	13	5.5
1일 근무시간	8시간 미만	41	17.2	남편 근무시간	8시간 미만	22	9.2
	8-10시간 미만	171	71.8		8-10시간 미만	140	58.8
	10시간 이상	26	10.9		10시간 이상	76	32.0
1일 가사시간	1시간 미만	34	14.2	남편 가사시간	1시간 미만	182	76.4
	1-2시간	75	31.5		1-2시간	35	14.7
	2-3시간	85	35.7		2-3시간	18	7.6
	3시간 이상	44	18.5		3시간 이상	3	1.3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직무 스트레스, 일-가정 갈등, 동료 갈등, 삶의 질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의 연구도구를 사용하였다.

가. 직무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 보육교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Clark(1980)이 개발하고 D'arienzo, Moracco와 Okrajewski(1982)가 수정한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 요인 설문지(Modified Teacher Occupational Stress Factor Questionnaire)를 권기태(1990)가 번안한 후, 장미아(1996)가 내용타당도 검증을 하고 김혜진(2005)이 수정・보안하여 윤혜영(2009)이 요인분석과 타당도를 확인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검사 도구의 하위요인은 원아들과의 활동, 업무 관련, 행정적 지원, 동료와의 관계, 학부모와의 관계, 경제적 안정, 개인 관련이며 총 3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아들과의 활동은 보육교사의 영유아 지도에 대한 내용이며, 업무관련은 수업준비와 행정적인 업무 및 잡무에 대한 내용이다. 행정적 지원은 상사의 간섭, 보육시설에서의 교사가 맡은 책임, 보조 교사 지원 등이며, 동료와의 관계는 교사 간 의사소통과 근무와 관련한 협조에 대한 내용이다. 학부모와의 관계는 보육시설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과 요구 사항에 대한 내용이며, 경제적 안정은 보육교사의 보수와 급여일의 안정 정도이다. 개인관련은 교사로서 느끼는 보람과 결혼 이후 업무를 지속하고 싶은 정도를 의미한다. 도구는 5점 리커트(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직무 스트레스의 요인별 Cronbach's α는 원아들과의 활동 .67, 업무 관련 .79, 행정적 지원 .88, 동료와의 관계 .90, 학부모와의 관계 .73, 경제적 안정 .66, 개인 관련 .52 그리고 전체 .94으로 나타났다.

나. 일-가정 갈등

본 연구에서 보육교사의 일-가정 갈등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한 도구는 Carlson, Kacmar와 Williham(2000)이 갈등의 유형과 방향을 고려하여 다차원적으로 개발한 일-가정 갈등(Work-Family Conflict) 도구로 이다윤(2003)이 번안하고 전지현(2004)이 수정한 것이다. 본 척도는 시간 갈등, 긴장 갈등, 행동 갈등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고 총 18문항이다. 시간 갈등은 업무나 가정 일로 인해 소모해야 하는 시간과 이를 통해 야기되는 갈등이며, 긴장 갈등은 업무나 가정 일로 인해 발생하는 긴장으로 인해

업무와 가정 일에 방해를 받는 정도이다. 행동 갈등은 업무나 가정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 사용하는 방식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의미한다. 이 도구는 5점 리커트(Likert) 형식을 사용하여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일-가정 갈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일-가정 갈등의 하위요인별 Cronbach's α는 시간 갈등 .85, 긴장 갈등 .84, 행동 갈등 .86 그리고 전체 .94로 나타났다.

다. 동료 갈등

본 연구에서 보육교사 간의 갈등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도구는 Walton, Dutton과 Cafferty(1969)의 갈등 수준 척도를 송재필(2006)이 번안·수정한 것으로 보육교사와 동료간에 간섭 또는 방해, 비협조 또는 의견마찰, 정보제공의 보류 내지 기피, 불신, 무지 또는 불쾌로 인해 나타나는 갈등을 확인하는 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는 5점 리커트(Likert) 방식으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보육교사 간의 갈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갈등 수준의 전체 Cronbach's α는 .90으로 나타났다.

라. 삶의 질

본 연구에서 보육교사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판 WHOQOL-BREF(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BREF)를 사용하였다. 이는 세계보건기구(The WHOQOL Group, 1998)가 제작한 삶의 질 평가척도(WHOQOL-BREF)를 각 언어권에서 표준화 지침에 따라 번역하였는데 민성길 외(2000)가 표준화한 한국판 삶의 질 평가척도이다. 하위요인은 전반적인 삶의 질, 신체적 건강, 심리적 건강, 사회적 관계, 생활환경이며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적인 삶의 질은 건강에 대한 만족과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에 대한 내용이며, 신체적 건강은 에너지와 피로, 움직임, 일상생활의 활동성, 일할 능력, 통증과 불편, 수면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심리적 건강은 긍정적인 느낌, 신념, 자아존중감, 집중력에 대한 내용이며, 사회적 관계는 사회적 지지, 개인적 관계의 내용이다. 생활환경은 재정적 지원, 가정환경, 여가활동 참여성, 신체적 안전과 안정 등이다. 이 도구는 5점 리커트(Likert) 형식이며, 역채점 문항을 환산한 후의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삶의 질의 요인별 Cronbach's α는 전반적인 삶의 질 .74, 신체적 건강 .75, 심리적 건강 .68, 사회적 관계 .74, 생활환경 .74 그리고 전체 .88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 측정도구의 난이도와 이해도를 파악하기 위해 S시의 기혼 보육교사 4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측정도구의 난이도에 특별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서울과 경기 지역의 기혼 보육교사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250부가 회수되었으며, 설문에 응답하지 않거나 문항이 일부 누락되거나 부실하게 기재한 12부를 제외한 후 총 238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2.0과 AMOS 22.0을 통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분석을 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서는 빈도와 백분율 그리고 각 변인의 하위요인과 전체 값에 대해서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 사용된 연구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셋째,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넷째, 보육교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관계에서 일-가정 갈등, 동료 갈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을 통한 모형 검증을 실시하였고, 각 변인간의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methods)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측정 변인들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측정한 기혼 보육교사의 직무 스트레스, 일-가정 갈등, 동료 갈등, 삶의 질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첨도는 <표 2>와 같다. 직무 스트레스 하위 변인의 평균은 원아들과의 활동 2.70, 업무 관련 3.05, 행정적 지원 2.62, 동료와의 관계 2.35, 학부모와의 관계 2.58, 경제적 안정 2.67, 개인 관련 2.65로 나타났다. 직무 스트레스의 변인 중에서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동료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일-가정 갈등의 평균은 시간 갈등 2.79, 긴장 갈등 2.84, 행동 갈등 2.54로 나타났으며 긴장 갈등이 높고 행동 갈등은 다른 유형의 갈

등보다 낮았다. 동료 갈등의 평균은 2.65로 다른 변인의 평균에 비해 높지 않은 편이었다. 삶의 질의 하위 변인에 대한 평균은 전반적인 삶의 질 2.94, 신체적 건강 3.13, 심리적 건강 3.48, 사회적 관계 3.24, 생활 환경 3.22로, 심리적 건강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반적인 삶의 질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측정 변인들이 정상분포를 이루는지 확인하기 위해 측정변인의 왜도와 첨도를 분석하였다. 본 자료의 왜도와 첨도를 분석한 결과 그 점수가 -2.0 과 +2.0 사이이면 정상성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견해에 근거해 (구동모, 2017) 각각의 절대값이 1.0 이하로 나타나 측정 변인들의 분포가 정상성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표 2〉 각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N*=238)

변인	측정변인	*M*	*SD*	왜도	첨도
직무 스트레스	원아들과의 활동	2.70	.66	-.12	-.13
	업무 관련	3.05	.73	-.10	.05
	행정적 지원	2.62	.80	.18	-.06
	동료와의 관계	2.35	.90	.35	-.53
	학부모와의 관계	2.58	.58	-.07	-.07
	경제적 안정	2.67	.81	-.08	-.48
	개인 관련	2.65	.85	.11	-.27
일-가정 갈등	시간 갈등	2.79	.88	-.07	-.47
	긴장 갈등	2.84	.85	-.06	-.46
	행동 갈등	2.54	.78	.03	.31
동료 갈등		2.65	.92	.00	-.77
삶의 질	전반적인 삶의 질	2.94	.72	-.13	.01
	신체적 건강	3.13	.56	.08	-.41
	심리적 건강	3.48	.46	-.42	-.13
	사회적 관계	3.24	.52	-.13	.53
	생활 환경	3.22	.47	-.31	.80

2. 직무 스트레스, 일-가정 갈등, 동료 갈등, 삶의 질 간의 관계

본 연구모형의 구조모형 검증에 앞서 16개 하위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직무 스트레스, 일-가정 갈등, 동료 갈등, 삶의 질의 상관관계행렬

	직무 스트레스							일-가정 갈등			동료 갈등	삶의 질				
	① 원아와의 활동	② 업무 관련	③ 행정적 지원	④ 동료와의 관계	⑤ 학부모와의 관계	⑥ 경제적 안정	⑦ 개인 관련	⑧ 시간 갈등	⑨ 긴장 갈등	⑩ 행동 갈등	⑪ 동료 갈등	⑫ 전반적 삶의 질	⑬ 신체적 건강	⑭ 심리적 건강	⑮ 사회적 관계	⑯ 생활 환경
①	1															
②	.53***	1														
③	.54***	.71***	1													
④	.35***	.47***	.70***	1												
⑤	.56***	.52***	.65***	.64***	1											
⑥	.30***	.53***	.55***	.43***	.48***	1										
⑦	.47***	.54***	.58***	.46***	.53***	.50***	1									
⑧	.43***	.55***	.58***	.54***	.55***	.53***	.67***	1								
⑨	.46***	.59***	.61***	.58***	.56***	.53***	.67***	.91***	1							
⑩	.41***	.50***	.60***	.59***	.57***	.47***	.62***	.82***	.85***	1						
⑪	.30***	.41***	.55***	.64***	.54***	.45***	.41***	.53***	.54***	.50***	1					
⑫	-.28***	-.38***	-.38***	-.29***	-.29***	-.36***	-.41***	-.38***	-.39***	-.36***	-.32***	1				
⑬	-.37***	-.40***	-.36***	-.32***	-.31***	-.44***	-.46***	-.57***	-.60***	-.55***	-.37***	.56***	1			
⑭	-.32***	-.31***	-.33***	-.25***	-.36***	-.36***	-.40***	-.38***	-.38***	-.42***	-.28***	.46***	.54***	1		
⑮	-.18***	-.27***	-.33***	-.26***	-.27***	-.29***	-.26***	-.26***	-.29***	-.33***	-.23***	.39***	.42***	.44***	1	
⑯	-.25***	-.29***	-.33***	-.17***	-.21***	-.34***	-.31***	-.29***	-.31***	-.36***	-.21***	.42***	.49***	.62***	.56***	1

*** $p < .001$

직무 스트레스와 일-가정 갈등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직무 스트레스의 하위 변인과 일-가정 갈등의 하위 변인 전체에 있어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혼 보육교사가 직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일-가정 갈등 또한 높음을 의미한다. 직무 스트레스와 동료 갈등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직무 스트레스의 하위 변인과 동료 갈등에 있어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혼 보육교사가 직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동료 갈등 또한 높음을 의미한다. 직무 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직무 스트레스의 하위 변인과 삶의 질 하위 변인 전체에 있어 $p<.001$ 수준에서 유의한 부7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 결과는 기혼 보육교사가 직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삶의 질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일-가정 갈등과 동료 갈등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일-가정 갈등의 전체 하위 변인과 동료 갈등에 있어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결과는 기혼 보육교사의 일-가정 갈등이 높을수록 동료 갈등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일-가정 갈등과 삶의 질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일-가정 갈등의 하위 변인과 삶의 질 하위 변인 전체에 있어 $p<.001$ 수준에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혼 보육교사의 일-가정 갈등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동료 갈등과 삶의 질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동료 갈등과 삶의 질 하위 변인 전체에 있어 $p<.001$ 수준에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 결과는 기혼 보육교사의 동료 갈등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3. 매개효과 검증

기혼 보육교사의 직무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일-가정 갈등과 동료 갈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네 가지 변인간의 관계를 공분산 분석을 이용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4>와 같이 기준치인 표준카이제곱이 5.0 이하이고, TLI와 CFI는 .90 이상, RMSEA는 .10 보다 작지만 GFI가 .90보다 작아 가설적 경로모형이 기준에 모두 적합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Jöreskog & Sörbom,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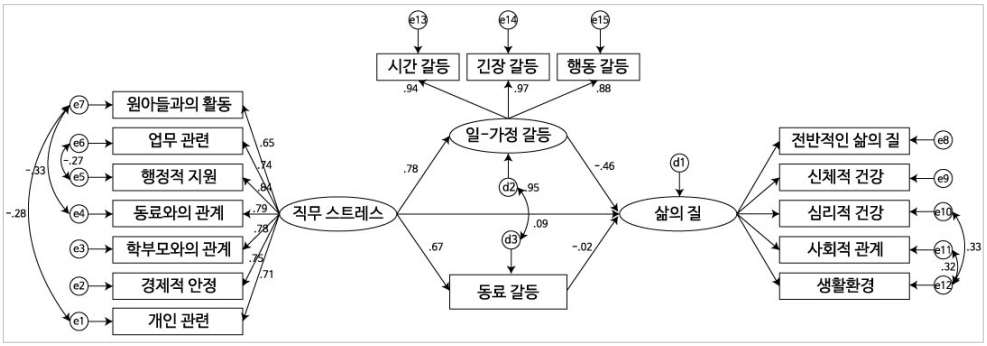
〈표 4〉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χ^2	χ^2/df	GFI	TLI	CFI	RMSEA	
						LO 90	HI 90
적합지수	303.55	3.04	.86	.90	.92	.08	.10
Cutoffs		≤5.0	≥.90	≥.90	≥.90	≤.1	

수정 지수 값(modification indices)을 확인한 결과, 삶의 질의 하위 변인 중 사회적 관계(e11)와 생활환경(e12)간의 공분산에 대한 수정 지수 값이 높아 공분산 경로를 연결하여 모형을 수정하였고, 삶의 질의 하위 변인 중 신체적 건강(e10)과 생활환경(e12), 직무 스트레스의 하위 변인 중 학부모와의 관계(e5)와 경제적 안정(e6), 동료와의 관계(e4)와 경제적 안정(e6), 동료와의 관계(e4)와 개인 관련(e7), 업무 관련(e2)와 개인 관련(e7)의 공분산 경로도 같은 방법으로 연결하여 모형을 수정하였다. 수정된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는데 표준카이제곱이 5.0 이하, GFI, TLI, CFI가 .90 이상, RMSEA가 .10보다 작아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된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5>과 같으며, 최종 연구모형 검증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표 5〉 수정된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χ^2	χ^2/df	GFI	TLI	CFI	RMSEA	
						LO 90	HI 90
적합지수	205.36	2.19	.90	.94	.96	.06	.08
Cutoffs		≤5.0	≥.90	≥.90	≥.90	≤.1	



[그림 1] 최종 연구모형 검증

수정된 연구모형에서 각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본 경로계수의 결과는 <표 6>과 같다. 검정 결과 직무 스트레스에서 일-가정 갈등(10.69), 일-가정 갈등에서 삶의 질(-4.31), 직무 스트레스에서 삶의 질(-2.08)로 가는 경로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직무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일-가정 갈등을 매개로 하여 삶의 질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준다. 검정 결과 직무 스트레스에서 동료 갈등(9.94), 동료 갈등에서 삶의 질(-.31), 직무 스트

레스에서 삶의 질(-2.08)로 가는 경로 중 동료 갈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고 이는 동료 갈등을 매개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표 6〉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CR
직무 스트레스 → 일-가정 갈등	2.59	.78	.24	10.69***
직무 스트레스 → 동료 갈등	3.95	.67	.40	9.94***
직무 스트레스 → 삶의 질	-.20	-.25	.10	-2.08*
일-가정 갈등 → 삶의 질	-.11	-.46	.03	-4.31***
동료 갈등 → 삶의 질	-.00	-.02	.01	-.31

* $p < .05$, *** $p < .001$

본 연구의 최종모델의 직·간접 효과 및 총 효과를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직무 스트레스는 일-가정 갈등에 78.4%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직무 스트레스가 일-가정 갈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일-가정 갈등은 삶의 질에 46.3%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일-가정 갈등은 삶의 질을 낮춤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직무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24.6%, 일-가정 갈등을 매개로 삶의 질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37.9%이었다. 그리고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더한 총 효과는 62.5%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직무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일-가정 갈등이 미치는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통하여 검증한 결과 간접효과 크기 -.38에 대한 유의확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1). 직무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유의하고 일-가정 갈등을 매개로 하여 미치는 간접적 영향 역시 유의하기 때문에 일-가정 갈등은 직무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의 경로에서 부분매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동료 갈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2.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동료 갈등은 직무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매개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표 7〉 연구모형의 직접, 간접, 총효과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직무 스트레스 → 일-가정 갈등	.78***	-	.78***
직무 스트레스 → 동료 갈등	.67***	-	.67***
직무 스트레스 → 삶의 질	-.25*	-.38**	-.63*
일-가정 갈등 → 삶의 질	-.46***	-	-.46***
동료 갈등 → 삶의 질	-.02	-	-.02

* $p < .05$, ** $p <. 01$, *** $p <. 001$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기혼 보육교사의 직무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관련 변인들의 상관관계 및 일-가정 갈등과 동료 갈등의 매개효과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 지역의 기혼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 보육교사의 직무 스트레스, 일-가정 갈등, 동료 갈등, 삶의 질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 직무 스트레스의 경향성은 하위 변인 중 업무 관련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동료관계에 의한 스트레스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들은 수업 준비와 잡무로 인해 바쁘게 생활하며 이로 인해 직무 과부하를 겪는다는 주장(French & Caplan, 1973)과 보육교사들이 직무 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중 업무 과부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가장 높게 지각하고 있다고 한 선행연구(박수경, 2017; 유현숙·권정해, 2017; 이경숙·채진영·김영식 외, 2016.; 이경열·박영신, 2015)와 일치한다. 아울러 동료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낮다고 보고한 선행연구(강이슬·김민경, 2011; 신현정·신동주·김승옥, 2016; 홍효의, 2017)와도 동일한 결과이다. 기혼 보육교사의 전반적인 직무 스트레스가 높지 않은 점은 이재무(201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나, 기혼 보육교사의 경우 업무 관련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 점을 고려하여 기혼 보육교사와 미혼 보육교사를 구분하여 담당하는 업무 중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에 대한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기혼 보육교사의 담당 연령, 직책에 따른 업무의 차이에 관한 연구를 통해 기혼 보육교사의 업무와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직무 스트레스를 낮추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혼 보육교사의 일-가정 갈등에 관해서는 그 하위요인 중 긴장 갈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혼 보육교사가 일-가정 갈등의 하위요인 중 긴장 갈등을 높게 느낀다는 김덕하(200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기혼 보육교사는 일과 양육을 병행하며 교사의 임무와 자녀양육, 가사노동의 가정 일을 완벽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인식함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정은영(2012)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기혼 보육교사는 어린이집의 업무 뿐 아니라 가사와 육아를 동시에 담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서로 영향을 주고 받기에 일-가정 사이의 긴장과 갈등을 경험함을 알 수 있다.

기혼 보육교사의 동료 갈등은 여러 변인 중 낮은 점수 중의 하나였다. 이는 4개 변인의 평균 중 가장 낮았을 뿐 아니라 직무 스트레스의 7개 하위변인 중 동료와의 관계

가 큰 차이를 보이며 최저 점수를 보임에서 증명된다. 보육교사의 역할 갈등을 연구한 선행연구에서 기혼 보육교사가 교사 간의 역할 갈등을 낮게 느낀다는 박태순(2014)의 연구결과와 본 연구의 직무 스트레스 하위 변인 중 동료관계에 의한 스트레스가 가장 낮았던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기혼 보육교사가 가사와 양육의 병행으로 인해 업무를 집중력 있게 소화하기 어렵기에 동료 교사에게 소외되거나 낮은 평가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교육관 등에서 이견을 보여 동료 갈등을 빚는다는 김수연(2014)의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보육교사의 동료 갈등에 관한 선행연구(손현경, 2015; 최미미, 2012)와는 달리 본 연구대상인 기혼 보육교사의 경우 동료와의 갈등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기혼 보육교사는 연륜에 따라 미혼 교사에 비해 인간관계에 대한 경험이 높기 때문에(김윤이, 2015) 동료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하여 갈등이 낮게 나타났다고 유추할 수 있다.

기혼 보육교사의 삶의 질에 대한 경향성은 하위 변인 중 심리적 건강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반적인 삶의 질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심리적 건강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는 기혼 보육교사의 삶의 질의 하위요인 중 심리적 영역이 가장 낮게 나타난 강구수(2012)의 연구결과와 상반되며, 유아 교사의 삶의 질의 하위요인 중 심리적 건강이 가장 높게 나타난 김혜경(2013)의 연구와는 일치하는 결과이다. 초·중·고 여교사의 삶의 질을 측정한 연구(이경민, 2001)에서 삶의 질을 평정한 점수와 본 연구의 점수를 환산하여 비교하였을 때 초·중·고 교사의 점수가 본 연구의 기혼 보육교사 점수보다 높았다. 이는 초·중등 교사들과 비교해 낮은 보수, 보육교사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과중한 업무 등이 직무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직업적 자긍심을 저하시킴으로 보육교사에게 부정적 감정을 유발시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김은수·유승연, 2012; 황옥경, 2012; Thorpe, Boyd, Ailwood & Brownlee, 2011)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즉, 기혼 보육교사는 긍정성이 강하고 신념과 자아존중감이 높아 심리적 건강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이나, 다른 교사들에 비교하였을 때 과중한 업무, 낮은 보수와 사회적 인식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삶의 질은 낮게 느끼는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기혼 보육교사의 직무 스트레스, 일-가정 갈등, 동료 갈등, 삶의 질 간의 관계를 알아 본 결과, 직무 스트레스와 일-가정 갈등, 동료 갈등 간에는 정적인 상관이 나타난 반면, 이 변인들과 삶의 질 간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기혼 보육교사의 직무 스트레스의 하위 변인과 일-가정 갈등의 하위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하위 변인의 모든 결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혼 여성의 직무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일-가정 갈등이 높게 나타난 선행연

구(고상미, 2014; 김성천, 2009)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선행연구에서 동일한 결과는 보이는 현상은 기혼 보육교사 경우 업무량이 늘어날수록 개인이 처리해야 할 일이 증가하고 정해진 시간 안에 업무를 마쳐야 한다는 중압감이 형성되어 어린이집 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기혼 보육교사의 직무 스트레스 하위 변인 전체와 동료 갈등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교사들이 동료 간의 어려움으로 인해 직무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한 연구결과(설혜정, 1999)와 유치원 교사들의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사례연구에서 교사들은 부모와 상급자와의 관계에 비해 동료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많이 느낀다는 연구결과(황현아, 2017)와 같은 맥락이다. 즉 보육교사의 직무 스트레스는 함께 업무를 하는 동료교사와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기혼 보육교사의 경우 일과 가정과의 양립을 위해 제한된 시간에 업무를 마쳐야 하고, 업무 중에도 가정 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수 있기에 동료 간의 갈등이 야기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기혼 보육교사의 직무 스트레스의 하위 변인과 삶의 질 하위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하위 변인 전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육교사의 직무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낮아진다는 선행연구(김규수·고경미·김경수, 2014; 김은수·유승연, 2012; 최성실, 201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기혼 보육교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가 경험하는 직무 스트레스를 낮춰야 하는데, 이를 위한 업무량과 근무시간의 조절, 교사가 경험하는 갈등의 완화 등을 통해 직무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기혼 보육교사의 일-가정 갈등의 하위 변인과 삶의 질의 하위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모든 하위 변인 간에 부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가족 내 갈등이 높을수록 직장 생활 속에서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높아 주관적 삶의 질을 낮춘다는 성낙돈(2007)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며, 취업여성의 직장-가정 갈등이 높으면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선행연구(오유라, 2015; Bacharch, Bamberger, & Conley, 1991; Frone, Russell, & Cooper, 1992; Md-Sidin, Murail, & Ismail, 2010)와 유사한 결과이다. 20대와 30대 기혼 보육교사의 경우 직장이나 가정에서 영유아와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업무와 가사일 뿐 아니라 안전사고 등의 위험요인으로부터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기혼 보육교사는 직장에서 영유아를 보육함과 동시에 가정에서도 육아를 해야 하기에 이로 인해 양육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안희옥, 2016), 일과 가정 사이의 다중 역할을 감당하면서 발생하는 시간 활용에 대한 갈등은

심리적 소진을 야기하여 기혼 보육교사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동료 갈등과 삶의 질에 대한 하위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모든 하위 변인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Jiang과 Hu(2015)는 동료와의 관계가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동료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의미로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기혼 보육 교사가 동료 갈등을 높게 경험할수록 삶의 질을 낮게 평가한다는 사실을 통해 동료 관계 형성의 중요성을 알 수 있으며, 질적인 보육을 위해서는 교사 개인의 역량 뿐만 아니라 동료와의 원활한 관계를 통해 협력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보육교사 간의 팀 빌딩(team building)을 위한 교육과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셋째, 기혼 보육교사의 직무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일-가정 갈등과 동료 갈등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일-가정 갈등은 부분매개 효과가 있는 반면 동료 갈등은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기혼 보육교사의 삶의 질에 일-가정 갈등이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 배우자와 동료와의 관계는 기혼 보육교사의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Graham, Shier, Newberry et al., 2014), 본 연구에서는 직무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일-가정 갈등과 동료 갈등의 매개영향을 가설로 세웠으나, 일-가정 갈등의 매개효과만 나타났다. Guerin, Devitt과 Redmond(2010)에 의하면 동료와 가정 등의 사회적 지원의 부족과 대인관계의 갈등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며 불만족과 탈진으로 이어진다. 즉, 일-가정 갈등을 줄이면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기혼 보육교사의 삶의 질을 일정 부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직장 갈등이 직장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치며 아울러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윤창영·이순묵(2002)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유자녀 보육교사의 일-가족 양립 경험과 의미를 탐색한 백정원·최정숙(2013)의 질적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일-가족 병행 생활로 진입', '유자녀 보육교사 설 곳 없는 보육현장 현실과 마주함', '내 자녀 못 돌보는 보육전문가의 딜레마', '갈등의 증폭과 직업적 회의', '양립을 위한 안간힘', '양립을 지탱하는 힘', '남아있는 과제에 대한 열망'에 대한 내용을 나누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불가피한 경력단절 선택', '재취업의 불리함 및 차별대우', '자녀양육 가능한 보육현장 여건 조성에 대한 바람' 등을 표현해 자녀를 양육하며 일할 수 있는 어린이집과 정책적 지원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가족의 이해부족과 과중한 책임'을 언급하면서 '가족의 직업에 대한 가족의 무시', '가사와 양

육 분담의 불공평함', '공동책임 인식과 실천'이라는 문제점과 바람을 표현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기혼 보육교사의 가정을 가진 어머니로서 직업 유지의 어려움과 그에 대한 대안에 대해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본인의 자녀를 돌보면서 교사로서 일할 수 있는 어린이집과 정책적 지원과 가족의 배려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제안은 일-가정 갈등을 줄이기 위한 대책은 어린이집과 가정 양쪽에서 접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한 이경례·문혁준(2014)와 같은 맥락이다.

기혼 보육교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삶의 질 관계에서 동료 갈등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동료 갈등은 매개효과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혼 보육교사의 직무 스트레스는 삶의 질을 낮추는 요인이며, 이때 직장동료로부터 받는 갈등은 삶의 질의 수준을 약간 낮추기는 하지만 그 영향력은 미비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기혼 보육교사의 경우 동료 교사와의 소통의 부재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며 소외감을 느끼고(백정원, 2013) 가사와 양육의 병행으로 인해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워 동료 교사에게 소외되거나 낮은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동료 갈등을 빚는다고(김수연, 2014) 보고되었다. 또한 본 연구와 변인들이 약간씩 상이하기는 하지만 기혼보육교사의 다중역할갈등과 심리적 소진의 관계에서 직장 내 사회적 지지는 중요한 매개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결과(이민선, 2015)와 일반 보육교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의 관계에서 인간관계가 부분매개 효과를 보인 결과(송선화, 2012)도 제시된 바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발견과는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동료 갈등 점수가 낮게 나왔고 직무 스트레스의 하위변인인 동료 관계 점수가 다른 변인과 큰 차이로 가장 낮게 나타났던 점은 본 연구의 대상이 동료 간의 갈등을 낮게 경험하는 집단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원인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아울러 기혼 보육교사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어린이집 내에서의 인간관계에 관련된 문제로 보기보다는 교사 자신의 개인적 요인과 이들을 둘러싼 보다 폭 넓은 생태학적 관점으로 본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직무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은 시점에 행해진 직무 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관계에 일-가정 갈등, 동료 갈등의 영향력을 함께 본 연구라는 점과 연구대상을 기혼 보육교사로 한정하여 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일-가정 갈등과 동료 갈등 매개효과에 관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혼 보육교사를 위한 가정, 어린이집, 국가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연구자들은 본 연구결과에 따라 기혼 보육교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기혼 보육교사가 일과 가

정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보육교사에게는 방학이 없으며 토요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정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움이 많다. 현재 '대체교사 지원 사업'이란 제도를 통해 보육교사의 공백을 메꿔주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조세연·주새롬, 2015). 그러나 제도는 존재하지만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등으로 막상 응급상황에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기에 교사들의 실제적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제도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보육인력풀 활성화나 투 담임 제도, 인근 지역의 대학교와 연계하여 실습 시기를 확대하여 현장의 부족한 인력을 보안하고 예비 교사들의 실무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다. 둘째, 보육교사의 과중한 업무를 줄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보육시설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진흥원, 구청, 급식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관의 관리를 받고 있다. 각 기관에 소속된 직원이 방문하게 되면 보육교사의 업무는 과중되며 출퇴근 시간도 침해를 받는다. 이로 인해 보육교사에게 주어진 업무와 문서 및 서류 작업은 직무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으며 영유아에 대한 상호작용이 어려워져 보육의 질은 저하될 수 있다(고미연, 2014; 김영지, 2016; 안숙경·이성희, 2016).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문서 간소화, 효율화를 지원하여 간편하게 된 새로운 양식의 서류를 제공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업무의 추가로 여기고 있기에 현장 중심의 간소화된 업무를 위한 문서 제정 또는 관할기관의 현장 점검 등의 대한 행정적 재고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전문가들이 언급한 보육교사 결원시 원활한 교사 수급(김영주, 2016), 근무시간 축소(근로시간에 보육시간, 보육준비시간, 보육평가시간 포함) 및 학급당 1인 근무체제의 개선(박경자·황옥경·문혁준, 2013) 등이 본 연구 주제이며 대상인 기혼 보육교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낮추고 삶의 질을 높이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함께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을 임의표출 방식에 의한 수도권의 기혼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정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우리나라 전체 기혼 보육교사로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기혼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일-가정 갈등에 영향을 주는 가족의 구조 또는 자녀의 연령 등을 고려한 연구 설계를 통한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기혼 보육교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삶의 질에 대한 일-가정 갈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는데, 일-가정 갈등 중 직장에서 가정, 가정에서 직장의 방향성과 이에 포함되는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보육교사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정서적 고갈, 비인간

화, 신체적 건강, 성취감 저하, 근무시간(구은미, 2016), 직무만족도,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전혜경, 2016), 심리적 안정과 건강(이용환, 2011)이었음을 종합해보면 보육교사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교사 자신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어린이집 유형, 근무시간, 급여(구은미, 2016), 지역(전혜경, 2016)에 따라서도 삶의 질에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반영하고 동료 갈등이 직무 스트레스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에 매개변인으로서의 효과가 없었던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보육교사 자신의 개인적, 환경적 요인을 포함하는 생태학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강구수(2012). 보육교사의 삶의 질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경기도 광주시를 중심으로.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강이슬·김민경(2011). 영아보육교사의 교수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7(4), 325-352.

고미연(2014).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교사-유아 상호작용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상미(2014). 호텔 기혼 여성종사원의 직무스트레스가 일-가정갈등과 경력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혜원(2012).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위한 사회적 정책에 대한 실증분석: OECD 국가의 정책들과 한국의 영유아보육료 지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구동모(2017). 연구방법론: SPSS, LISREL, PLS 및 PROCESS-macro를 활용한 기초조절 매개효과분석. 하남: 창명.

구은미(2016). 보육교사의 건강과 소진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99, 1-17.

구자영·이대균(2013). 유아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이 결혼과 임신, 출산으로 겪는 어려움.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0(2), 295-324.

권기태(1990).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대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한경(2011). 중년여성이 인지하고 있는 삶의 질이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화숙(2012). 사회지지와 근무환경이 어린이집 교사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업무요인과 소진을 매개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8(2), 157-174.

김규수·고경미·김경수(2014). 유아교사의 근무환경 및 직무만족도 관련 변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구조모형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19(1), 251-268.

김근식·윤옥화(2009). 기혼취업여성의 삶의 질 결정요인에 관한 구조적 관계분석. 한국자치행정학보, 23(2), 167-188.

김덕하(2009). 직장가정간 갈등이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에서 직무환경의 조절효과 연구: 강서구 어린이집 교사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동춘·송미선(2005). 유치원 교사의 갈등관리 유형과 직무스트레스와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2(4), 261-280.

김리진·홍연애(2003). 보육교사의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7(2), 263-282.

김민서(2015). 유아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성숙(2017). 기혼 보육교사의 자아정체감이 정서지능 및 부모역할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성천(2009).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량과 일-가정 갈등에 관한 연구: 시간통제감을 매개변인으로. 광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수연(2014). 자녀 양육을 경험하고 재취업한 유아교사의 변화와 갈등.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승민(2011). 기혼 보육교사의 임신·출산에 대한 지각 및 직장-가정역할갈등.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애자(2003). 원장 교사 학부모의 보육현장 갈등요인 비교.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주(2016). 3교대 보육교사의 어려움 및 요구 탐색.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0(4), 403-433.

김영지(2016).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가 교사영유아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원경(2015). 보육교사 근무 환경 실태.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유리(2010). 기혼유아교사의 근무환경과 직장-가정의 역할갈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윤이(2015). 중년 기혼 여성이 갖는 보육교사로서의 경험의 의미.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은수·유승연(2012). 어린이집교사의 삶의 만족도와 직무스트레스 및 대처방법과의 관계 연구. 아동과 권리, 16(2), 367-417.

김은주·이기종(2014). 어린이집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삶의 질, 교사효능감, 자기결정성 간의 관계 검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2(1), 205-223.

김혜경(2013). 유치원 교사의 조직몰입, 교수몰입 및 주관적 삶의 질과 행복감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혜진(2005). 유치원 조직풍토, 교사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노수진(2006). 영아교사의 자아탄력성이 교사민감성에 미치는 영향: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와 보육효능감의 조절효과. 창의인성연구, 5(1), 41-61.

민성길·이창일·김광일·서신영·김동기(2000).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간편형 척도(WHOQOL-BREF)의 개발. 신경정신의학, 39(3), 571-579.

박경자·황옥경·문혁준(2013). 우리나라의 보육정책.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5), 513-538.

박선남·이미란(2016). 보육교사의 직무 스트레스, 우울, 지각된 건강상태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25(4), 259-267.

박수경(2017).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 이직의도의 매개효과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검증. 우석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윤조·임명희·안정숙(2015). 보육교사의 인성이 직무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유형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5(3), 129-148.

박은혜(2017). 유아교사론. 서울: 창지사.

박태순(2014). 보육교사의 역할갈등과 직무만족의 관계 분석. 금오공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백정원(2013). 보육교사의 일-가정양립 경험에 관한 연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보육교사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백정원·최정숙(2013). 유자녀 보육교사의 일-가족 양립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41, 167-198.

설혜정(1999). 유아교육 기관내 동료교사간 직무스트레스와 대처방법.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성낙돈(2007). 가정과 직장생활의 질이 교사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교육연구, 24(1), 323-346.

손현경(2015). 어린이집 주임교사가 인관관계에서 갖는 어려움과 극복을 위한 노력.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선화(2012).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인간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6(1), 133-151.

송재필(2006). 보육교사의 갈등대상에 따른 갈등수준 및 갈등해결 방법에 관한 연구: 경주시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현정·신동주·김승옥(2016). 보육교사의 정서성과 심리적 안녕감 및 직무스트레스 간의 관계: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유아교육학론집, 20(5), 177-200.

안숙경·이성희(2016). 어린이집평가인증에 대한 원장과 교사의 인식 및 사후유지관리를 위한 요구. 구성주의유아교육연구, 3(1), 55-71.

안희옥(2016). 기혼 보육교사의 가치관 유형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와 양육스트레스의 관계.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여종일(2016). 어린이집 교사의 교사효능감, 공동체 의식 및 사회적 인식에 대한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한국영유아보육학, 96(1), 153-173.

오명숙·조희숙(2009). 유아교사의 어머니됨과 유아 돌봄 행위. 교사교육연구, 48(1), 29-51.

오유라(2015). 기혼여군의 직장-가정 갈등, 직무스트레스가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용인경(2003). 기혼유아교사의 가정내 역할갈등과 자기효능감 및 직무만족도와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승연·김은수(2012). 어린이집교사의 삶의 만족도와 직무스트레스 및 대처방법과의 관계 연구. 아동과 권리, 16(2), 367-417.

유현숙·권정해(2017).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교사효능감, 조직헌신, 소진과 이직의도 간의 구조적 관계. 유아교육학논집, 21(1), 113-132.

윤미정(2011).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및 소진에 따른 직무만족도 연구: 영유아 담당 연령에 따라.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창영·이순묵(2002). 주관적 삶의 질의 구조모형-기혼 직장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7(3), 43-72.

윤혜영(2009). 유치원 조직풍토, 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직무스트레스와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경례·문혁준(2014). 유자녀 보육교사의 일-가정양립갈등과 직무스트레스의 관계에서 가족지원과 직장내 지원의 매개효과. 유아교육학논집, 18(2), 229-246.

이경민(2001). 여교사의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경숙·박진아·김명식(2017). 보육교사의 보육직무 스트레스 관리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1), 79-101.

이경숙·채진영·김명식·박진아·이정민(2016).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교사효능감, 정서중심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우울의 차이와 우울에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2(4), 23-40.

이경열·박영신(2015). 보육교사의 마음챙김, 직무스트레스, 교사 효능감 및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간의 관계. 생애학회지, 5(3), 47-63.

이다윤(2003). 맞벌이 부부의 '일-가족 갈등' 및 '가족-일 갈등'과 결혼 만족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민선(2016). 기혼 보육교사의 다중역할갈등과 심리적 소진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배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병록(2011). 보육교사의 인간관계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행정학, 13(2), 1-21.

이수연(2011). 보육교사의 역할갈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영란·이영란·박선남·이미란(2016). 보육교사의 직무 스트레스, 우울, 지각된 건강상태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25(4), 259-267.

이용환(2011). 어린이집 교직원의 행복결정요인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아동복지연구, 9(2), 1-19.

이은숙·이경님(2016).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보육효능감 및 보육헌신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6(4), 107-127.

이재무(2016).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조직신뢰에 미치는 영향과 직무열의, 조직몰입의 조절효과. 육아정책연구, 10(2), 51-82.

이지영(2012). 보육교사의 자아존중감과 교사효능감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지영·문혁준(2015). 기혼영아보육교사의 교직전문성 인식, 일과 가정의 양립갈등, 소진, 자아탄력성이 역할수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회, 92, 103-125.

이혜안·심수연·양영애·임명호(2016). 어린이집 교사의 소진과 ADHD, 우울, 불안, 자존감, 충동성, 자살사고, 삶의 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7), 291-299.

장미아(1996). 유치원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대처방법.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미정(2013). 어린이집 기혼교사의 가정-일 역할갈등, 어머니 자녀 관계가 어머니의 발달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희선(2017). 영유아교사의 성격강점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기결정성의 매개효과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102(1), 23-50.

전지현(2004). 취업모의 직장-가정 갈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혜경(2016).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0(3), 101-124.

정은영(2012). 보육교사의 일과 양육 병행 어려움에 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경서·김은주(2014). 유아교사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결정성,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 검증. 열린유아교육연구, 19(1), 81-94.

조성연·구현아(2005).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 아동학회지, 26(4), 55-70.

조세연·주새롬(2015). 서울시 대체교사 지원사업 안내서. 서울: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조용현(2011). 보육교사 간의 갈등수준과 갈등해결 방법 및 직무만족도.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최미란·이세은·이선임·장경은(2016). 보육교사가 지각한 어린이집의 조직건강성과 교사효능감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99, 35-59.

최미미(2012). 보육교사가 인식하는 동료교사와의 갈등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미미·서영숙(2014). 보육교사가 인식하는 동료교사와의 갈등 원인 및 대응에 관한 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1), 221-239.

최병태·김이영(2013). 개인특성과 사회지지가 어린이집 교사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17(1), 7-23.

최성실(2016).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삶의 질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덕성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애경(2005). 보육교사의 직업적 갈등에 관한 연구. 현상학해석학적 교육연구, 3(1), 153-171.

최재은·배정우·김정남(2004). 교사의 주관적 삶의 질과 영향 요인. 동서정신과학, 7(2), 107-122.

함남희(2010).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본 팀티칭 보육교사 간의 관계 이해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허숙민·최원석(2014). 기혼직장여성의 삶의 질 경로에 관한 연구: 경북 경산시를 중심으로. 여성학연구, 24(1), 63-93.

홍석영(2012). 어린이집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교사효능감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몰입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사교육연구, 51(2), 271-281.

홍효의(2017). 어린이집 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행수준, 교사민감성 및 직무스트레스 간의 관계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선영(2014). 영유아기 자녀를 둔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직무 만족도 및 직무스트레스의 관계.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옥경(2012). 보육교사의 처우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보육지원학회지, 8(3), 249-272.

황현아(2017). 유치원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유아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례연구.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Bachrach, S. B., Bamberger, P., & Conley, S. (1991). Work-home conflict among nurses and engineers: Mediating the impact of role stress on burnout and satisfaction at work.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2*, 39-53.

Campbell, A. (1976). Subjective measures of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31*(2), 177-184.

Carlson, D. S., Kacmar, K. M., & Williham, L. J. (2000). Construction and initial validation of a multidimensional measure of work-family conflict. *Journal of Vacational Behavior*, *56*, 249-276.

Clark, E. H. (1980). An analysis of occupational stress factors as perceived by public school teach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Auburn University.

D'arienzo, R. V., Moracco, J. C., & Okrajewski, R. J. (1982). *Stress in teaching: A comparison of perceived occupational stress factors between special education and regular classroom teachers.* Washington, D.C.: University Press of America.

Daniels, K. (1996). Why aren't managers concerned about occupational stress? *Work Stress, 10*, 352-256.

Ferreans, C. E. (1996). Development of conceptual model of quality of life. *Scholarly Inquiry for Nursing Practice*, *10*(3), 293-304.

French, J. P., & Caplan, R. D. (1973). Organizational stress and individual strain. In Marrow, A. J.(Ed.) *The failure of success* (pp. 30-66). New York: Amacom.

Frone, M. R., Russell, M., & Cooper, M. L. (1992). Antecedents and outcomes of work-family conflict: Testing a model of the work-family interfa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7*(1), 65-78.

Graham, J. R., Shier, M. L., Newberry, A. M., & Esina, E. (2014). Aligning perspectives of subjective well-bing: Comparing spouse and colleague perceptions of social worker happiness. *The Qualitative Report*, *19*, 1-18.

Greenhaus, J. H., & Beutell, N. J. (1985). Sources of conflict between work and

family role.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0*, 76-88.

Guerin, S., Devitt, C., & Redmond, B. (2010). Experiences of early-career social workers in Ireland.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40*, 2467-2484.

Guket, B. A., Searle, S., & Klepa, L. (1991). Rational versus gender role explanations for work-family conflic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6*(4), 560-568.

Jiang, Z., & Hu, X. (2015). Knowledge sharing and life satisfaction: The roles of colleague relationships and gender. *Social Indicators Research*, *126*(1), 379-394.

Jöreskog, K. G., & Sörbom, D. (1993).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the SIMPLIS command language*. Chicago: Scientific Software.

Kovess-Masfety, V., Rios-Sevila, C., & Sevilla-Dedieu, C. (2007). Teachers' mental health and teaching level.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23(7), 1177-1192.

Md-Sidin, S., Murail, S., & Ismail, I. (2010). Relationship between work-family conflict and quality of life: An investigation into the role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25*(1), 58-81.

The WHOQOL Group (1998). Development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QOL-BREF quality of life assessment. *Psychological Medicine*, *46*(15), 551-558.

Thorpe, K., Boyd, W., Ailwood, J., & Brownlee, J. (2011). Who wants to work in child care? *Australasi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36(1), 85-94.

World Health Organization (1997). WHOQOL *measuring quality of life*. Division of Mental Health and Prevention of Substance Abuse World Health Organization.

World Health Organization's Quality of Life Group (1992). *Measuring Quality of Life: Development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 Instrument*(WHOQOL). Geneva: WHO.

Walton, R. E., Dutton, J. M., & Cafferty, T. P. (1969). Organizational conflict and interdepartmental conflict.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14*(4), 522-542.

·논문접수 8월 9일 / 수정본 접수 8월 29일 / 게재 승인 9월 19일

·교신저자: 김성원, 총신대학교 산업교육학부 조교수, 이메일 sungwon1331@gmail.com

Abstract

The Effects of Job Stress on the Quality of Life of Married Childcare Teachers: The Mediating Effects of Work-Family Conflict and Colleague Conflict

Jiyoung Lee, Sungwon Kim and Jinwon Kim

This study is intend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job stress on the quality of life of married childcare teachers, and any mediating effect of work-family conflicts and colleague conflicts.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238 married childcare teachers working in a metropolitan area. The data was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bootstrapping to verify any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mediation path using SPSS 22.0 and AMOS 22.0 program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although the participants' overall job stress was not high, they scored relatively high on work-related stress, a sub-factor of job stress. Also, their score for tension conflicts within work-family conflicts was not high. They scored moderately high on psychological health and social relationships, whereas they scored relatively low on the overall quality of life. Second,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among work-family conflict, colleague conflict, and job stress. However, there wa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these three variables—work-family conflict, colleague conflict, and job stress—and quality of life. Third, while work-family conflict was shown to have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job stress and the quality of life of the subjects, conflict among colleagues did not have any mediating effect. It can be implied that when the quality of life is negatively affected by job stress, reducing work-family conflicts could improve the quality of life.

Key words: married childcare teachers, job stress, work-family conflict, colleague conflict, quality of life

육아정책연구
제11권 제2호(2017. 9.) 87~113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영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의 매개효과 검증

홍예지[1)] 박영아[1)] 안수빈[1)] 이순형[2)] 이강이[2)]

요 약

본 연구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을 매개로 이들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및 대전시 소재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36개월 미만 영유아 자녀를 둔 278명의 어머니와 88명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로 기술통계, 신뢰도 및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은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었으며, 영유아의 놀이성은 이들의 스마트기기 과몰입과 유의한 부적 관계를 보였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영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의 매개효과를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 완전매개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을 매개로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를 촉진하도록 돕고, 영유아의 올바른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여 영유아의 발달을 저해하는 환경적 맥락의 영향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고 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부정적 양육태도, 영유아, 스마트기기 과몰입, 놀이성

1)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2)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및 생활과학연구소 겸무연구원

Ⅰ. 서론

영유아에게 놀이는 매일 일어나는 자발적이고 중요한 활동이다. 놀이를 통해 자신의 감정, 욕구, 즐거움 및 흥미를 자연스럽게 느끼고 표현하며(정미라·강수경·김민정, 2015), 자율성과 주도성을 연습하고 자발적인 동기의 학습을 경험한다(고윤지·김명순, 2013; Fisher, Hirsh-Pasek, Golinkoff, & Gryfe, 2008). 영유아는 또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나타내는 심리적 의사표현인 놀이를 통해 주 양육자와의 관계를 넘어서 점차 또래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요구되는 사회적 기술을 배운다(허혜경·김민정, 2012).

맞벌이의 증가와 전문가에 의한 양질의 보육 및 교육에 대한 기대는 유치원, 어린이집과 같은 육아지원기관에서의 단체 생활을 시작하는 영유아의 연령을 낮추고, 참여 영유아의 수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조송림·문혁준, 2013). 이에 따라 주 양육자와의 관계를 넘어서 육아지원기관에서의 다양한 놀이 경험이 영유아의 놀이성 발달을 촉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성인의 지나친 기대와 조급함에서 기인한 조기교육의 영향으로 점차 영유아를 대상으로 성인 중심의 인지적 교육시간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들이 놀이를 즐길 충분한 경험과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다(정미라·강수경·김민정, 2015). 이를 고려하여 학령기 아동 및 성인뿐만 아니라 영아를 포함하여 인간 발달 과정 중 성공적인 관계형성을 위한 주요한 변인인 영유아의 놀이성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의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된다.

영유아에게 놀이가 이루어지는 최초의 환경은 가정이며, 어머니는 주 양육자인 동시에 주 상호작용의 대상으로서 가장 밀접하고 중요한 놀이 상대자다(최형성, 2005). 영유아와 어머니는 놀이 환경에서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다양한 자극을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영유아의 놀이성의 촉진 및 발달에 모델링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이상은·이주리, 2010). 특히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놀이성을 설명하는 주요 변인이다(김영희, 2012; 원혜준·김명순, 2011; Daunhauer, Coster, Tickle-Degnen, & Cermak, 2007; Landry, Smith, Swank, & Miller-Loncar, 2000).

이와 더불어 영유아의 놀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외적 변인 중 디지털 미디어가 현 시대에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스마트기기가 확대 보급되면서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사용 실태를 파악한 연구가 점차 축적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중독이나 휴대전화의존도를 다룬 연구뿐만 아니라 영유아를 대상으로 인터넷, TV 등의 영상물 매체의 과다노출에 의한 과의존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소수

이거나(강정원·장수진·김승옥, 2011; 이경숙·신의진, 전연진·박진아·정유경, 2005; 이경숙·정석진·김명식, 2015), 미디어 매체 중 범위를 좁혀 스마트기기만을 대상으로 영유아의 스마트기기의 과다사용 문제를 파악한 연구(김서희·황성온, 2017, 김효정·이희선, 2015)는 점차 진행 중에 있다. 미디어의 빠른 화면전환, 다양한 시각적·청각적 자극은 영유아의 주의를 끌 매혹적인 도구이며, 이들이 무비판적으로 과몰입하도록 유도하기 쉽다(김서희·황성온, 2017; 이경숙·정석진·김명식, 2015; Radesky, Schumacher, & Zuckerman, 2014)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양육 환경에서 미디어의 다각적 이용이 점차 높아지면서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영유아의 놀이성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지적이고 상징적인 이해와 정교한 소근육 운동능력이 아직 충분히 발달 단계에 이르지 않은 영아의 경우도 스마트기기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누르고, 두드리고, 좌우로 움직임으로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이다(Nevski & Siibak, 2016; Nikken & Schols, 2015). 무엇보다도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과 이들의 놀이성의 관계를 통해 영유아의 스마트기기에의 몰입 수준이 높을수록 놀이성을 저해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어머니의 양육태도, 영유아의 놀이성 및 스마트기기 과몰입의 각 변인 간 직접적인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태도에 비해 부정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미디어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를 중심으로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영유아의 놀이성에 주는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을 거쳐 영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할 수 없음을 알고, 이와 관련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 및 놀이성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영유아의 놀이성 사이에서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이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이는지 변인 간의 영향력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는 매우 제한적인 실정으로 체계적인 연구가 시급하다.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 수준을 고려하여 영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구체적 경로를 파악한다면 이는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스마트기기의 역기능적 영향을 낮추고, 영유아의 놀이성 발달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영유아의 놀이성

놀이성은 놀이의 질적 특성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이는 개인의 내적인 경향을 반영하는 심리적 구인이며, 놀이행동을 일으키는 능동적 성향 또는 태도를 말한다(Barnett, 1990). 놀이성은 놀이의 핵심 부분으로 아동이 어떠한 놀이에 참여하는지가 아닌 자발적으로 참여한 놀이의 정도와 놀이 상황에서 드러나는 긍정적 정서와 태도를 일컫는다(허혜경·김민정, 2012). 아동은 또래, 교사, 부모 등과 함께 하는 다양한 놀이의 경험을 통해 성격, 성향 및 태도 등을 증진시켜 나아간다(정미라·강수경·김민정, 2015). Liberman(1965)은 놀이성을 아동의 내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단일 특성으로 보았으며,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및 유머감각의 다섯 개의 하위 요소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이 후 Barnett(1990)은 Liberman(1965)의 놀이성 변인에 기초한 놀이성 척도를 개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놀이성이 영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놀이의 과정에서 영유아는 주변을 탐색하고 호기심을 가지며, 자발적인 탐구와 다양한 문제 해결책을 찾아가는데, 이 과정에서 신체 및 두뇌 발달뿐만 아니라 인지, 사회, 정서와 같은 통합적인 영역의 학습과 발달을 경험한다(허혜경·김민정, 2012; Fisher et al., 2008). 선행연구는 놀이성이 아동의 다양한 영역의 발달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놀이성은 놀이의 맥락을 경험하는 아동이 타인과의 관계 맺기와 의사소통을 도우며(Jenkinson, 2001), 아동의 창의성과 문제해결력을 강화시키고(Meador, 1992),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고,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되며(Barnett, 1998), 사회적 상호작용, 상상력 및 신체 활동의 수준을 높이고(Singer, Singer, & Sherrod, 1980), 건강한 발달과 웰빙을 촉진시키는 데 기여한다(Lester & Russell, 2010)고 하였다. 이처럼 아동의 놀이성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는 놀이성이 아동의 신체, 언어, 인지, 사회, 정서 등의 전반적인 발달을 촉진시키고, 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일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놀이성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서 가치 있는 매체이자 수단인 동시에 그 자체가 살아있는 교육임을 강조하고 있으며(고윤지·김명순, 2013), 더 나아가 Mixter(2009)는 아동의 놀이성은 이후 성인의 문제해결, 업무향상 및 긍정적 정서와 성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2.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영유아의 놀이성 간 관계

영유아의 놀이성은 영유아의 연령, 기질, 성별, 출생순서, 주도성과 같은 개인 내적 특성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제공되는 놀잇감, 물리적 놀이 환경, 또래, 부모, 교사와 같은 인적, 물리적 등 외적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윤지·김명순, 2013; 허혜경·김민정, 2012; Keleş & Yurt, 2017; Rentzou, 2013). 양육태도는 부모 또는 주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태도로, 자녀의 성장발달을 위한 양육 행동의 경향성과 문화적 반응 양식을 일컫는다(Schaefer, 1959).

선행연구(김영희, 2012; 김희경·유미숙, 2010; 원혜준·김명순, 2011; 이상은·이주리, 2010; Barnett & Kleiber, 1984; Daunhauer, Coster, Tickle-Degnen, & Cermak, 2007; Landry, Garner, Swank, & Baldwin, 1996; Landry, Smith, Swank, & Miller-Loncar, 2000)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놀이성을 설명하는 주요 변인임을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자율적, 애정적, 수용적, 합리적과 같은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영유아의 놀이성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통제적, 적대적, 거부적, 비합리적과 같은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이들의 놀이성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부모의 양육태도와 3, 4, 5세 유아의 놀이성과의 관계를 살펴본 장영숙과 조혜정(2006)의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통제적일수록 유아의 인지적 자발성의 수준이 낮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Landry, Garner, Swank와 Baldwin(1996)의 연구는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주의집중 행동 수행을 용이하게 하는 데 관련이 있으며, 이는 어머니와 6개월 영아 간에 보다 복잡하고 정교한 놀이를 가능하게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Barnett과 Kleiber(1984)의 연구는 평균 연령 5.05세 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가정 내 다양한 변인 중 부모의 허용적 태도가 이들의 놀이성과 관련이 없다고 하였으며, 박주희와 한석실(2007)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온정적, 통제적 양육태도가 만 5세 유아의 놀이성에 유의미한 관련이 없음을 보였다. 이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에 혼재된 결과를 보임에 따라 이를 밝히기 위한 추가적인 검증이 요구된다.

3.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과 영유아의 놀이성 간 관계

TV, 컴퓨터와 같은 기존의 영상 매체에서 점차 진보된 기술을 갖춘 디지털 미디어가 빠르게 개발되고, 이는 우리의 삶 곳곳에서 일상생활의 필수적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 중 스마트기기는 휴대전화와 컴퓨터의 기능이 합쳐진 것으로 무선

인터넷을 탑재한 휴대용 단말기를 일컫는다(김효정·이희선, 2015). 대표적으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가 있으며, 이와 같은 스마트기기는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사용할 수 있고,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인의 스마트기기의 사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기기에 노출되는 연령이 빠르게 하향화되어 유아에 이어 영아도 출생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스마트기기를 접하고 있는 실정이다(권연정·이승연, 2013). 이정림(2014)에 따르면 영유아 스마트폰 이용률은 53.1%이며, 스마트폰의 최초 이용 시기는 평균 2.27세로, 만 3세가 되기 전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스마트기기의 영향권에 있다고 하였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는 2015년에 처음으로 유·아동용 스마트폰 과의존(중독) 척도를 개발하여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 성인뿐만 아니라 만 3세에서 9세에 해당하는 유아의 인터넷·스마트미디어 과의존 실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미래창조과학부·한국정보화진흥원, 2016). 유아의 고위험군과 잠재적 위험군을 포함하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17.9%이며, 이는 2015년의 12.4%에 비해 빠른 증가를 보였다.

선행연구는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사용 시간의 증가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비언어적 정서 단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Uhls, Michikyan, Morris, Garcia, Small, Zgourou, & Greenfield, 2014),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을 저하시키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서툴게 한다고 하였다(김서희·황성온, 2017; Rasmussen et al., 2016). 이와 같은 결과는 스마트기기의 과도한 사용이 또래 관계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다양하고 폭넓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제한에 기인한 것(권오진, 2015; Jackson et al., 2011; Radesky et al., 2014)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이 영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이와 관련된 연구는 소수이며, 이 또한 혼재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Marsh(2010)의 연구는 스마트기기 사용이 영유아의 놀이 및 창의성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보고한 반면, Jackson 등(2011)의 연구는 높은 미디어 사용 빈도는 영유아의 우울, 공격적 행동과 같은 심리·정서 발달뿐만 아니라 상호작용 능력과 같은 사회적 놀이성 발달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4.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 간 관계

스마트기기 사용의 근본적인 논의에 있어서 가정에서의 어머니의 역할은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사용과 이들의 발달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축을 이

룬다. 양육과 관련된 변인 중 부모의 적극적인 중재 및 양육태도는 아동의 미디어 사용의 올바른 습관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Bittman, Rutherford, Brown, & Unsworth, 2011; 김효정·이희선, 2015; Nevski & Siibak, 2016; Rasmussen et al., 2016). 영유아의 미디어 환경에의 노출 및 이용은 자발적인 동기보다는 가정 내 부모의 양육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Bittman, Rutherford, Brown과 Unsworth(2011)는 0-8세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텔레비전 사용 시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으며, Nevsky와 Siibak(2016)의 연구는 에스토니안 0-3세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사용에 있어 부모의 양육태도가 유의한 예측변인임을 밝혔다. 양육태도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김경회와 정지나(2014)의 연구는 어머니의 적절한 한계 설정과 합리적인 지도가 아동의 미디어 몰입성을 유의하게 낮춘다고 하였으며, 김효정과 이희선(2015)의 연구 역시 어머니가 아동과 함께 스마트기기 사용과 관련 된 규칙을 정하는 등의 높은 수준의 한계설정의 양육태도를 보일 때, 이는 아동의 억제조절능력을 높이고, 결국 아동의 스마트기기 과몰입 수준을 낮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어머니의 지지적이고, 온정적인 양육태도는 아동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일관성 있는 예측이 가능하여 문제행동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우애리, 2014). 이에 반해,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비온정적이고, 비합리적이며, 거부적이고, 방임과 무시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의 위험을 높일 것이라 예측해 볼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서울 및 대전지역에 소재한 어린이집 18곳을 임의로 선정하였다. 유아교육기관 중 기관 유형에 따른 특수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어린이집만을 선택하였으며, 민간어린이집 8곳, 직장어린이집 4곳, 가정어린이집 4곳, 국공립어린이집 2곳의 해당 기관 원장의 협조를 받아 설문조사의 취지에 동의한 경우 원을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각 원에 재원중인 36개월 미만 영유아 278명과 그들의 어머니 278명 및 담임교사 88명의 응답을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영유아 및 영유아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영유아 및 영유아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N = 278, 단위: 명(%)

변인	구분	빈도(백분율)
영유아성별	남아	152(54.7%)
	여아	126(45.3%)
영유아월령	12개월 미만	2(0.7%)
	12 ~ 18개월 미만	12(4.3%)
	18 ~ 24개월 미만	49(17.6%)
	24 ~ 30개월 미만	98(35.3%)
	30 ~ 36개월 미만	117(42.1%)
어머니 연령	30세 이하	39(14.0%)
	31 ~ 35세	134(48.2%)
	36 ~ 40세	86(31.0%)
	41 ~ 45세	18(6.4%)
	결측치	1(0.4%)
어머니 최종학력	고졸 이하	43(15.5%)
	2 ~ 3년제 전문대학 졸업	57(20.5%)
	4년제 대학교 졸업	110(39.6%)
	대학원 졸업	65(23.4%)
	결측치	3(1.1%)
어머니 직업	사무직	75(27.0%)
	전문직	53(19.1%)
	자영업	29(7.2%)
	기술·서비스직 및 기타	17(6.1%)
	학생	19(6.8%)
	전업주부	71(25.5%)
	결측치	3(1.1%)
월 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45(16.2%)
	3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19(42.8%)
	600만원 이상	107(38.5%)
	결측치	7(2.5%)

다음으로, 영유아가 재원 중인 원의 담임교사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교사의 연령은 만 32.43(*SD* = 7.83)세였으며, 교사경력은 평균 5.53년(*SD* =3.93)이었다. 근무 기관 유형에 따라서는 민간어린이집 종사자가 61.7%로 가장 많았고, 직장어린이집(28.8%), 가정어린이집(11.9%), 국공립 어린이집(1.8%)이 그 뒤를 이었다. 담임교사의 최종학력은 4년제 대학교 졸업 45.7%, 2-3년제 전문대학 졸업 42.1%, 대학원 이상 8.3%, 고등학교 졸업 4.0%이었다. 담임교사의 어린이집 경력은 6-10년 미만이 25.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4-6년 미만 24.1%, 2-4년 미만 21.3%, 2년 미만과 10년 이상은 각각 14.7%이었다.

2. 주요 변인

가. 영유아의 놀이성

Lieberman(1965)의 정의에 기초하여 Barnett(1990)이 제작한 아동의 놀이성 척도(Children's Playfulness Scale, CPS)를 유애열(1994)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영유아의 놀이성은 총 5개의 하위요인, 23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모두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측정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영유아의 놀이성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각각의 *Cronbach' α* 및 대표 문항 예시는 <표 2>와 같으며, 이는 원 척도인 Liberman(1965)의 다섯 가지 하위요인의 *Cronbach' α의 보고 결과(.66 ~ .83)와 비슷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영유아의 놀이성은 어머니의 보고가 아닌 아동이 재원 중인 원의 담임교사에 의해 측정되었다. 이는 가정에서의 부모 또는 형제·자매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영유아의 놀이성을 측정하는 데에는 분명 한계가 있으며, 주 양육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많을 것이라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어린이집은 보통 종일반으로 운영되며, 다집단 활동을 통해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본 연구가 실시 된 7-8월은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충분히 적응이 된 시기이며, 초임이라 볼 수 있는 2년 미만의 어린이집 근무경력에 해당하는 담임교사는 14.7%에 불과하였다. 연구자는 대부분의 경력 담임교사가 자유선택 활동시간을 포함한 하루 일과동안 연구대상 영유아의 놀이성을 자세히 관찰하여 평정하도록 요청하였다.

〈표 2〉 영유아의 놀이성 변인

하위요인	문항수	*Cronbach' α*		대표 문항 예시
1. 신체적 자발성	4	.80		"놀이를 할 때 조용한 것보다는 활동적인 것을 좋아한다."등
2. 사회적 자발성	5	.82		"놀이하는 동안 다른 아이들의 참여를 수용한다."등
3. 인지적 자발성	5	.81	.93	"놀이를 할 때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놀잇감을 사용한다."등
4. 즐거움의 표현	4	.68		"놀이하는 동안 감정을 자유로이 표현한다."등
5. 유머감각	5	.84		"다른 아이들과 우스운 소리를 내거나 표정, 몸짓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등

나.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Kim과 Rohner(2002)가 Rohner, Kean과 Cournoyer(1991)의 부모 수용-거부 이론을 바탕으로 개발한 부모의 수용-거부와 통제척도(Parental Acceptance-Rejection Questionnaire/Control [PARQ/Control])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통제척도를 제외하고, 부모의 수용-거부와 관련된 온정/애정, 적대감/공격성, 냉담/무시 및 일관적 거부의 하위요인만을 활용하였다. 긍정적 의미의 문항을 내포하고 있는 온정/애정은 역채점을 하였으며, 이 후 '온정/애정 결핍'으로 새로이 명명하였다. 각 문항은 모두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측정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각각의 *Cronbach' α* 및 대표 문항 예시는 <표 3>과 같다.

〈표 3〉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 변인

하위요인	문항수	*Cronbach' α*		대표 문항 예시
1. 온정/애정 결핍	8	.71	.76	"나는 내 아이가 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 등
2. 적대감/공격성	6	.66		"나는 내 아이에게 불친절한 말들을 많이 한다." 등
3. 냉담/무시	6	.70		"나는 너무 바빠서 아이가 묻는 말들을 대답할 수가 없다." 등
4. 일관적 거부	4	.59		"나는 내 아이를 부담스럽게 생각한다." 등

다.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은 이경숙, 정석진과 김명식(2015)이 개발하여 사용한 영유아의 영상물 과몰입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의 영상물 과몰입 척도를 기반으로 모든 항목에서 '영상물'을 '스마트기기'로 주어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원도구는 발달심리학 석사, 박사 및 소아정신과의사 3인에 의해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은 것이며, 본 연구에 적합하게 수정된 척도는 아동학 관련 전문가가 3인이 내용타당도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의 일상생활장애 요인을 측정하는 문항 중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한 문항을 제거한 2문항만을 사용하였고 스마트기기몰입과 행동화요인 5문항은 그대로 사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아니오(0점)' 또는 '예(1점)'로 측정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영유아의 스

마트기기 과몰입이 높음을 의미한다. 각각의 *Cronbach' α* 및 대표 문항 예시는 <표 4>와 같다.

〈표 4〉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 변인

하위요인	문항수	*Cronbach' α*		대표 문항 예시
1. 스마트기기 몰입과 행동화 1	2	.62		"스마트기기를 못 볼 경우 혹은 못 보게 할 경우 심하게 저항한다." 등
2. 스마트기기 몰입과 행동화 2	3	.57	.69	"시간이 지나갈수록 스마트기기를 더 많이 사용하려 한다" 등
3. 일상생활장애	2	.64		"스마트기기 사용 이외에 매사에 다른 것에 흥미를 보이지 않는다." 등

3. 연구 절차

본 연구를 위해 서울 및 대전지역에서 연구에 참여할 기관을 임의로 선정하여 원장에게 유선상으로 협조를 구했다. 2016년 7-8월에 걸쳐 원에 직접 방문하여 원장 및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뒤 동의를 얻은 후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영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용 설문지 및 영유아가 재원 중인 원의 담임교사가 교사용 설문지에 모두 응답하여야만 하는 연구의 설계상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설문지를 개별봉투와 함께 배부하고, 수거하였다. 연구 대상의 정보 보호를 위해 영유아에게 일련번호를 기재한 후 어머니용 설문지와 교사용 설문지가 같은 일련번호를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어머니용 설문지 및 교사용 설문지 모두 동의서와 함께 동봉되어 각 일련번호에 맞추어 어머니-담임교사 페어 총 350부를 배부하였다. 교사는 교사용 설문지를 직접 작성하고, 어머니용 설문지는 교사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의 영유아 어머니에게 설문지를 전달하도록 하였다. 가정에서 작성된 어머니용 설문지는 이후 담임교사에게 전달되어 이렇게 교사에게 모아진 어머니용 및 교사용 설문지 중 281부가 회수되었으며, 회수율은 80.29%이었다. 응답 완료된 설문지는 배부한 후 일주일 내로 연구원이 직접 원에 방문하여 수거하는 절차로 진행되었다. 아이에게 스마트기기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어머니(3명)을 제외하고, 각 원에 재원중인 36개월 미만 영유아 278명과 그들의 어머니 278명 및 담임교사 88명이 응답한 자료가 최종적으로 분석되었다.

4.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및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 α를 확인하였다.* 각 변인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왜도 및 첨도를 알아보고, 각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영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Mplus 7.4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분석하였으며, 최대우도추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방법을 적용하여 모수를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간접효과의 유의성은 부트스트랩(bootstrap)을 실시하여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χ^2값과 함께 RMSEA, TLI 및 CFI 값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RMSEA의 경우 .06이하, TLI 및 CFI는 .90이상인 경우를 좋은 적합도로 보았다(Hu & Bentler, 1999).

Ⅳ. 연구결과

1.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 및 놀이성 간의 관계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 및 영유아의 놀이성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및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여 <표 5>에 제시하였다. 자료의 정규성 확인을 위하여 각 변인별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적정한 값(왜도<2, 첨도<4)을 보여, 본 자료가 정상분포의 조건을 충족시켰음을 알 수 있다(Hong, Malik, & Lee, 2003).

〈표 5〉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치

(*N* = 278)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1											
2	.50***	1										
3	.28***	.48***	1									
4	.35***	.53***	.51***	1								
5	.02	.11*	.03*	.02	1							
6	.13*	.20***	.19**	.07	.01**	1						
7	−.07	−.05	−.00	−.01	−.08	−.13**	1					
8	−.15*	−.05*	−.02*	−.03	−.01	−.12**	.42***	1				
9	−.11	−.01	−.02	−.02	−.06	−.08	.59***	.69***	1			
10	−.04*	−.01	−.01	−.02*	−.01*	−.07	.54***	.67***	.73***	1		
11	−.09	−.08	−.02	−.05	−.07*	−.14*	.60***	.62***	.69***	.77***	1	
12	−.12*	−.05	−.01*	−.03	−.06*	−.13*	.74***	.83***	.88***	.87***	.88***	1
평균	1.52	1.63	1.38	1.81	1.59	.23	3.96	3.26	3.65	3.91	3.68	3.67
표준편차	.33	.42	.45	.47	.31	.22	.75	.77	.67	.64	.74	.60
왜도	.45	.46	1.03	.33	.78	.88	−.56	−.10	−.30	−.35	−.21	−.20
첨도	−.40	−.43	−.03	.11	.61	.26	−.37	−.35	−.28	−.22	−.39	−.41

주: 1 = 온정/애정 결핍. 2 = 냉담/무시. 3 = 일관적 거부. 4 = 적대감/공격성. 5 = 부정적 양육태도 전체. 6 = 아동과몰입. 7 = 신체적 자발성. 8 = 사회적 자발성. 9 = 인지적 자발성. 10 = 즐거움의 표현. 11 = 유머감각. 12 = 놀이성 전체

* $p < .05$, ** $p < .01$, *** $p < .001$.

변인 간 상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각 변인의 전체 점수 간 관계를 살펴본 결과,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r=.01,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영유아의 놀이성(r=−.06, p <.05)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부정적 양육태도의 하위요인과 다른 변인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 본 결과, 적대감/공격성을 제외하고 온정/애정 결핍(r=.13, p<.05), 냉담/무시(r=.20, p<.001), 일관적 거부(r=.19, p<.01)는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부정적 양육태도와 영유아의 놀이성과의 관계에서는 놀이성의 하위항목 중 사회적 자발성이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 중 온정/애정 결핍(r=−.15, p< .05), 냉담/무시(r=−.05, p< .05) 및 일관적 거부(r= −.02, p< .05)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놀이성의 하위 항목 중 즐거움의 표현 역시 온정/애정 결핍(r= −.04, p< .05) 및 적대감/공격성(r= −.02, p< .05)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음으로,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은 놀이성의 하위요인 중 신체적 자발성(r= −.13, p< .01), 사회적 자발성(r= −.12, p< .01) 및 유머감각(r= −.14, p< .05)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 수준이 높을수록 영유아의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및 유머감각이 유의미하게 낮음을 의미한다.

2.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놀이성의 관계에서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의 측정모형 검증

변인 간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에 앞서, 잠재 변인인 어머니의 양육태도,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 및 놀이성을 측정 요인이 적절히 설명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6>과 같으며, 연구모형이 자료에 적절히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측정모형 적합도

모형 적합도	χ^2	*df*	RMSEA 90% C. I.	CFI	TLI
측정모형	85.842**	51	.050 [.031 - .068]	.974	.9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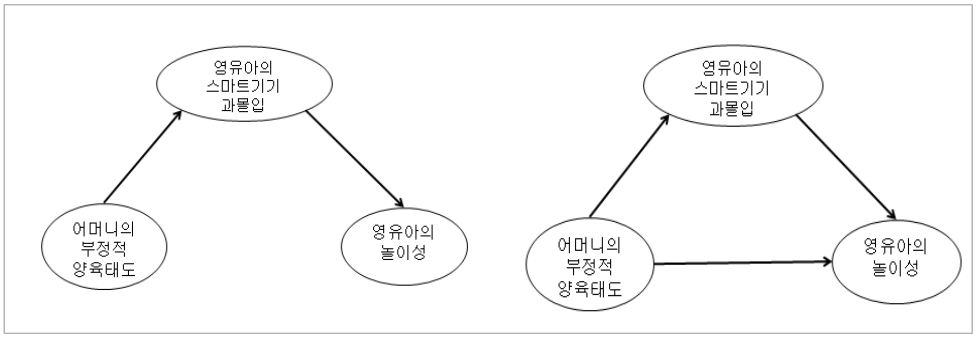
** $p < .01$

다음으로, 측정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렴 타당도와 판별 타당도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였다. 수렴 타당도는 측정 요인이 잠재 변인의 이론적 개념을 얼마나 적절히 측정하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모든 잠재 변인에 대한 측정 요인의 모든 요인부하량(β)의 절댓값이 .55 ~ .88으로 .50이상으로 나타나 수렴타당도의 기준을 만족시켰다(Bagozzi, Wong, & Yi, 1999). 즉, 각 측정 변인이 해당 잠재 변인의 개념을 잘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판별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잠재 변인 간 추정된 상관계수를 검토하였다. 판별 타당도는 서로 다른 잠재변인 간의 개념적 차이가 존재함을 말하는 것으로, 잠재 변인 간의 상관이 -.06, -.15, .25로 모두 .85 미만으로 나타나 판별 타당도의 조건을 충족시켰다(Bagozzi & Yi, 1988).

3.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놀이성의 관계에서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의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설정 및 비교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이 놀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만을 포함한 완전매개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영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살펴보는 부분매개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여 두 모형을 비교 및 평가하였다. 이렇게 설정한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은 [그림 1]과

같으며, 두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두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기 위해 χ^2, CFI, TLI 및 RMSEA 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영유아의 놀이성의 관계에서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의 완전매개모형(χ^2 = 85.907 (*df* = 52, p < .01), CFI = .975, TLI = .968, RMSEA = .049)과 부분매개모형(χ^2 = 85.842 (*df* = 51, p < .01), CFI = .974, TLI = .967, RMSEA = .050)은 모두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 그러나 χ^2 차이 검증을 통해 두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해 본 결과, χ^2 값의 차이가 .065로 자유도의 차이가 1일 때의 임계치인 $_{.95}\chi^2_1$ = 3.84보다 작아서 영가설을 채택하였다. 다시 말해, 두 모형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더 간명한 모형인 완전매개모형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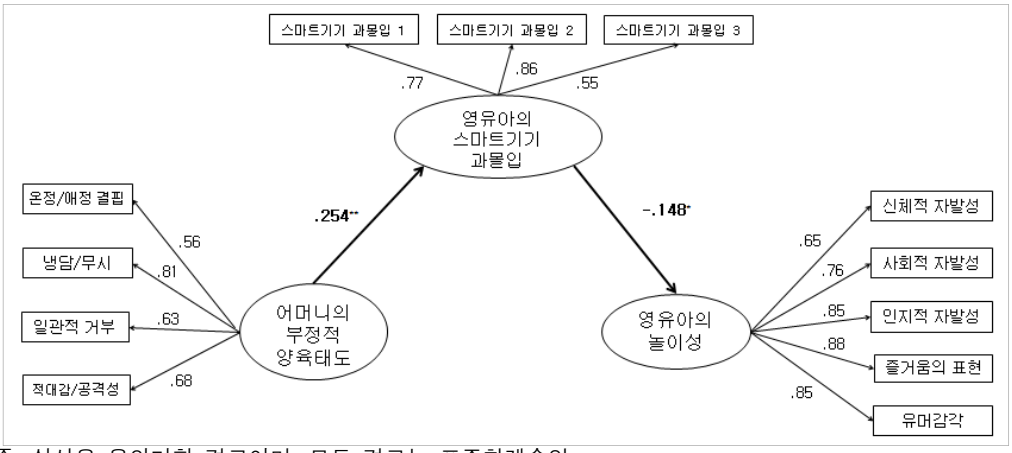
[그림 1]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 및 놀이성 간의 연구모형(좌) 및 경쟁모형(우)

〈표 7〉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적합도

모형 적합도	χ^2	*df*	RMSEA 90% C. I.	CFI	TLI
연구모형	85.907**	52	.049 [.029 - .066]	.975	.968
경쟁모형	85.842**	51	.050 [.031 - .068]	.974	.967

** p < .01

최종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는 [그림 2]와 같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에 미치는 영향(β = .254, p < .01)은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이 영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β = -.148, p < .05)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주: 실선은 유의미한 경로이며, 모든 경로는 표준화계수임.

* $p < .05$, ** $p < .01$

[그림 2]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 및 놀이성 간의 구조 모형

4.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놀이성의 관계에서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의 매개효과 검증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 및 놀이성의 관계에서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추정횟수 n = 10,000으로 설정하여 부트스트랩(bootstrap)을 통해 검증하였다(<표 8>).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영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은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을 통하여 유의미한 간접효과(β = -.038, 95% C.I. [-.083 ~ -.008])를 보였다. 즉, 어머니가 영유아에게 부정적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아동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의 수준은 높아지며, 높은 수준의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은 이들의 놀이성의 수준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8〉 매개효과 검증

경로	간접효과	
	(β)	Bias-corrected 95% C..I.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 → 영유아의 놀이성	-.038*	[-.083 ~ -.008]

* $p < .05$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 및 영유아의 놀이성의 관계를 살펴보고,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영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또한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이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영유아의 놀이성 사이를 완전매개한다는 연구모형과 부분적으로 매개한다는 경쟁모형을 비교하여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결과를 요약 및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온정/애정 결핍, 냉담/무시, 일관적 거부는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의 하위요인 중 적대감/공격성은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과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영유아의 경우, 어머니가 자신에게 보이는 온정/애정 결핍, 냉담/무시, 일관적 거부의 양육태도는 보다 심리적으로 이들이 쉽게 자각할 수 있는 요인인 반면, 상대적으로 적대감/공격성에 해당하는 불친절한 언행, 공격적 행동은 보다 정교한 인지적 이해를 요하는 것으로 영유아의 발달 과정 내 인지적 성숙이 이루어져야 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라 추론해 볼 수 있다. 통합적으로,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어머니가 부정적 양육태도를 더 보일수록 영유아가 스마트기기에 과몰입하는 수준이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사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효정·이희선, 2015; 우애리, 2014; Nevski & Siibak, 2016)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며, 특히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어머니가 부정적 양육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자녀의 신호에 대한 이해의 정도와 민감성이 낮고, 자녀의 요구에 수용적이고, 애정으로 반응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이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기술이 부족함에서 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영아 및 초기 단계 유아의 경우 부모에게 의존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자녀의 불안정한 생활패턴에서 안정적 생활패턴으로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시기이다(김영미·송하나, 2015). 무엇보다 영유아기에는 실생활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의 해석에 있어서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영향력이 크므로 자녀 양육에 있어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나친 통제나 강압적이고, 냉담 및 무시와 같은 비합리적인 양육태도의 방법이 아닌 진심어린 애정과 관심을 보여야 하며, 이와 같은 온정적 양육태도를 통해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올바른 사용 환

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인지적, 신체적, 행동적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영유아의 경우 성인보다 디지털미디어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위험성에 더 취약하므로 다각적인 측면에서 부모의 자각이 필요하며, 책임감 있는 부모 역할 수행(Dimonte & Ricciuto, 2006)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를 높일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의 지지와 격려 및 사회적 자원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 역시 놀이성의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및 유머감각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었다. 즉,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은 이들의 놀이성을 낮췄다. 이는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 수준이 높을수록 주 양육자뿐만 아니라 또래와의 다양하고 폭넓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제한이 있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다(Jackson et al., 2011; Radesky et al., 2014). 놀이성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고, 상대방의 정서 단서를 이해하고 해석을 할 줄 알아야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타인의 정서 단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며(Uhls et al., 2014), 공감능력이 저하되고 자유로운 감정 표현에 제한이 있다고 언급한 선행연구(김서희·황성온, 2017; Rasmussen et al., 2016)와 일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생애 초기 단계인 영아를 포함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회·정서 발달 중 일반적으로 보다 정교화된 사회적 기술보다 자연적인 상황에서 나타낼 수 있는 놀이성 발달을 측정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의 의의라고 볼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영유아의 놀이성을 측정하는 요인을 보다 정밀하게 구조화하여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과의 관계에 대한 통합적인 탐색이 요구된다.

둘째,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은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영유아의 놀이성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과 영유아에게 미치는 디지털 미디어의 영향이 궁극적으로 놀이성 발달에까지 이어지는 경로를 파악한 연구가 전무한 현 시점에서 본 연구 결과를 선행연구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놀이성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혼재된 연구 결과 중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놀이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선행연구(박주희·한석실, 2007; Barnett & Kleiber, 1984)와 유사한 맥락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신체적·인지적·사회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및 유머감각으로 대변되는 아동의 놀이성이 환경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내적 성향을 보다 강력히 반영하는 특성이기 때문이라 추론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척도에서 기인한 결과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다. 즉, 김정숙(2005)의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온정, 격려, 허용, 거부, 방임과 같은 양육태도의 경우 유아의 놀이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행동이나 습관에 대한 합리적 지도와 한계설정과 같은 양육태도가 유아의 놀이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미시적이고 다면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볼 때 각각이 아동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고, 이와 관련하여 경험적 연구가 더 축적되어 관련 변인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 수준을 높이고, 이를 통해 영유아의 놀이성을 저해한다는 것은 영유아에게 미치는 디지털 미디어의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특히 디지털 미디어는 부모의 자녀 양육스타일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현 시대에 미디어 기기가 일상생활의 필수품이 됨에 따라 부모의 양육 환경 또한 변화되고 있음은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제 대부분의 양육자는 디지털 기기와 관련된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육아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심지어 스마트기기는 부모의 역할을 일시적으로 대치해 주는 대리모 수단으로서 자주 사용되고 있다(Nevskii & Siibak, 2016; Pempek & McDaniel, 2016). 그러나 영유아기의 방치적 양육의 한 방식으로 미디어가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디지털 미디어의 사용은 양육을 돕는 주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낮춰 방임, 냉담, 무시와 같은 거부적 양육태도로 이끄는 데 기여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며, 이와 같은 간접적 영향을 통해 영유아의 놀이성을 저해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영유아의 놀이성으로 대표되는 정서적, 사회적 상호작용을 저해하는 스마트기기의 과몰입을 예방하고, 이들의 놀이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조안아와 고영자(2013)의 연구는 유아기 자녀의 영상물 이용 시 어머니의 정서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은 이들의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시킨다고 하였다. 부모가 적절한 상황에서 아동에게 정서적 표현을 충분히 하는 것은 아동의 풍부한 정서적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녀에게 정서적 표현을 높이고, 보다 긍정적 사회적 상호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부모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의 정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절히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부모 정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유아의 놀이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질, 단체생활 경험, 놀이 영역, 또래 지위 등의 변인을 파악하여 이들 개개인의 놀이 특성과 성향에 초점을 맞추어 영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적극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친사회적 행동 발달을 저해하는 스마트기기 과몰입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도 효과적일 것이며, 특히 부모의 스마트기기 과다 사용 및 과몰입 현상이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사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을 알고, 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할 수 있다.

더불어, 영유아기는 두뇌 발달뿐만 아니라 인지, 사회, 정서와 같은 다양한 영역의 발달이 일어나는 결정적 시기로, 이러한 발달은 아동기와 청소년기, 더 나아가 성인기까지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Rasmussen et al., 2016; Zins et al., 2007)를 근거로 가정에서의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태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할 수 있다. 즉,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영유아에게 미치는 스마트기기의 부정적 영향을 미리 예방하고, 조기 개입하는 측면에서 자녀를 올바른 성장과 발달로 이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가정에서 부모는 양육의 적절한 환경을 구성하여 아이에게 스마트기기 사용과 관련하여 사용 시간 및 목적 등 명확한 규칙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한계를 설정해 주고, 아이가 규칙을 잘 따랐을 때 격려해 주는 등 합리적 지도와 적절한 훈육 및 지지적 역할을 통해 긍정적 양육의 수행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아동의 자기 통제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모의 양육 훈련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이를 위해 미디어 환경 내에서 부모-자녀 관계에 초점을 두는 국가적 차원의 통합적이고, 실증적인 부모 교육, 상담 및 개입 프로그램 개발을 강구해야만 한다. 미국의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2013)는 24개월 미만의 영아의 경우, 스크린에 기반 한 미디어에 노출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미디어 사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은 실정으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스마트기기 활용에 대한 실제적인 지도지침을 개발하고 부모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기초적인 자료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 및 영유아의 놀이성의 매커니즘을 살펴보았다. 다시 말해, 점차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연령이 하향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영아를 본 연구대상에 포함시켜 가정에서의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고찰하고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의 수준을 파악하여 영유아의 놀이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 관계를 통해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 또한 영유아의 놀이성을 교사 보고를 통해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하였다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고 추후 연구를 설계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제한점과 제언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과 관련하여 연구대상의 특성을 해석하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대상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의 평균은 1점 만점에 .234(*SD* = .217)로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스마트기기 과몰입의 경향성을 근거로 영유아의 놀이성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을 넘어 영유아가 스마트기기를 통해 이용하는 콘텐츠에 대한 객관적 점검이 요구된다. 즉, 영유아가 스마트기기를 통해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어떠한 동기로 이용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며, 연구 결과를 과대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의 경우 어머니에 의해 평정되었다. 자녀의 스마트기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대다수의 부모가 자녀의 인지적 자극과 교육적 동기에 의해 스마트기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미디어 노출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Pempek & McDaniel, 2016). 따라서 본 연구의 어머니의 보고는 자신의 부정적 양육태도에 대한 응답을 회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의 스마트기기 과몰입 현상을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으로 과소 추정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설문지 이외에도 면접, 관찰 등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연구 자료가 함께 분석될 필요가 있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이 영유아의 놀이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만으로는 영유아의 전반적인 발달을 논하기 어려우며, 연구대상으로 36개월 미만 영유아를 모두 포함하였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 한계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의 연령별 각 변인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지만, 후속연구에서는 영유아의 연령을 세분화하여 영유아의 신체, 언어, 인지에 미치는 전인적인 발달적 영향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사용은 아동의 다양한 발달 영역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모형을 확장하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미디어 사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의 수준이 높은 집단의 아동만을 대상으로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이 이들의 다양한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추후 검증해 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참고문헌

강정원·장수진·김승옥(2011). 유아의 인터넷 게임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유아와 가족 변인의 영향. 어린이미디어연구, 10(3), 205-224.

고윤지·김명순(2013). 유아의 놀이성, 놀이주도성 및 의사소통능력 수준에 따른 놀이행동. 아동학회지, 34(1), 175-189.

권연정·이승연(2013). 만 2세반 영아를 둔 어머니들의 스마트기기 이용지도 양상과 어려움 및 지원요구. 어린이미디어연구, 12(3), 73-109

권오진(2015).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사용과 부모의 인식 및 양육태도와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경회·정지나(2014). 유아의 자기조절력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남녀 유아의 게임몰입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3(2), 595-609.

김서희·황성온(2017).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몰입경향성과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에서 자기 조절력의 매개효과. 대한가정학회지, 55(1), 1-12.

김영미·송하나(2015).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긍정적 양육 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육아정책연구, 9(2), 71-88.

김영희(2012).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놀이신념과 유아의 놀이성과의 관계. 육아지원연구, 7(2), 27-46.

김효정·이희선(2015). 어머니 양육행동 및 유아의 의도적 통제와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 간의 관계. 한국보육학회지. 15(4), 113-134.

김희경·유미숙(2010).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놀이성이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1(5), 115-130.

미래창조과학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6). 2016년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

박주희·한석실(2007). 유아의 놀이성과 가정환경과의 관계. 한국보육학회지, 7(2), 55-72.

원혜준·김명순(2011).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놀이성 및 의사소통능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6), 169-184.

우애리(2014).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행동: 유아의 의도적 통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애열(1994). 유아의 상상놀이와 교사개입에 관한 관찰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

위논문.

이정림(2014). 인터넷 스마트폰 노출 실태 및 보호대책. 이슈페이퍼 2014-14.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이경숙·신의진·전연진·박진아·정유경(2005). 과도한 영상물 노출 양육이 영유아의 심리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임상군과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8(2), 75-103.

이경숙·정석진·김명식(2015). 1-3세 영유아 영상물 과몰입이 일반적, 정서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8(1), 117-132.

이상은·이주리(2010).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유아의 놀이성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 - 유아 놀이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31(6), 71-85.

정미라·강수경·김민정(2015). 만 4, 5세 유아의 놀이성과 의사소통 능력 및 창의적 행동 특성 간의 구조적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53(5), 531-542.

장영숙·조혜정(2006).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놀이성과의 관계. 유아교육학회지, 10(1), 251-268.

조송림·문혁준(2013). 유아의 기질과 놀이성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6), 125-138.

조안아·고영자(2013). 가정내 전자미디어 사용실태 및 어머니의 미디어 중재 유형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미디어연구, 12(1), 1-24.

최형성(2005).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3(4), 111-123.

허혜경·김민정(2012).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영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2(1), 95-110.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2013). Children, adolescents, and the media. *Pediatrics*, 132, 958-961.

Bagozzi, R. P., & Yi, Y. (1988). On the evaluation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16(1), 74-94.

Bagozzi, R. P., Wong, N., & Yi, Y. (1999). The role of culture and gende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and negative effect. *Cognition & Emotion*, 13(6), 641-672.

Barnett, L. A. (1990). Playfulness: Definition, design, and measurement. *Play and Culture*, 3, 319-336.

Barnett, L. A. (1998). The adaptive powers of being playful. In M. C. Duncan, G. Chick, & A. Aycock (Eds.), *Play and culture studies: Diversions and divergences in fields of play*(pp. 97-119). Greenwich, CT: Ablex Publishing.

Barnett, L. A., & Kleiber, D. A. (1984). Playfulness and the early play environment.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44(2), 153-164.

Bittman, M. L., Rutherford, L., Brown, J., & Unsworth, L. (2011). Digital natives? New and old media and children's outcomes. *Australian Journal of Education*, 55(2), 161-175.

Daunhauer, L. A., Coster, W. J., Tickle-Degnen, L., Cermak, S. A. (2007). Effects of caregiver-child interactions on play occupations among young children institutationalized in Eastern Europe. *The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61, 429-440.

Dimonte, M., & Richiuto, G.(2006). Mobile phone and young people. A sruvey pilot study to explore the controversial aspects of a new social phenomenon. *Minerva Pediatrics*, 58(4), 357-363.

Fisher, K. R., Hirsh-Pasek, K., Golinkoff, R. M., & Gryfe, S. G. (2008). Conceptual split? Parents' and experts' perceptions of play in the 21st century.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9(4), 305-316.

Hong, S., Malik, M. L., & Lee, M.-K. (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a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3(4), 636-654.

Hu, L.,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1), 1-55.

Jackson, L. A., von Eye, A., Fitzgerald, H. E., Witt, E. A., Zhao, Y. (2011). Internet use, videogame playing and cell phone use as predictors of children's body mass index (BMI), body weight, academic performance, and social and overall self-esteem.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7(1), 599-604.

Jenkinson, S. (2001). *The genius of play*. Gloucestershire: Hawthorne Press.

Keleş, S., & Yurt, Ö. (2017). An investigation of playfulness of pre-school children in Turkey.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87(8). 1372-1387.

Kim, K., & Rohner, R. P. (2002). Parental warmth, control and involvement in schooling: Predicting academic achievement among Korean American adolescent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3(2), 127-140.

Landry, S. H., Garner, P., Swank, P. R., & Baldwin, C. D. (1996). Effects of maternal scaffolding during joint toy play with preterm and full-term infants. *Merrill-Palmer Quarterly*, 42(2), 177-199.

Landry, S. H., Smith, K. E., Swank, P. R., & Miller-Loncar, C. L. (2000). Early maternal and child influences on children's later independent cognitive soci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71(2), 358-375.

Lester, S., & Russell, W. (2010). *Children's right to play: An examination of the importance of play in the lives of children worldwide* (Working paper No. 57). The Hague, The Netherlands: Bernard van Leer Foundation.

Lieberman, J. N. (1965). Playfulness and divergent thinking: An investigation of their relationship at the kindergarten level.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07(2), 219-224.

Marsh, J. (2010). Young children's play in online virtual worlds. *Journal of Early Childhood Research*, 8(1), 23-39.

Meador, K. S. (1992). Emerging rainbows: A review of the literature on creativity in preschoolers. *Journal for the Education of the Gifted*, 15(2), 163-181.

Mixter, A. (2009). *An Exploration of Adult Playfulness in Relationship to Personality: A Correlational Study*. California: Institute of Transpersonal Psychology.

Nevski, E., & Siibak, A. (2016). The role of parents and parental mediation on 0-3-year olds' digital play with smart devices: Estonian parents' attitudes and practices. *Early Years*, 36(3), 227-241.

Nikken, P., & Schols, M. (2015). How and why parents guide the media use of young children.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4(11), 3423 - 3435.

Pempek, T. A., & McDaniel, B. T. (2016). Young children's tablet use and associations with maternal well-being.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5(8), 2636-2647.

Radesky, J. S., Schumacher, J., & Zuckerman, B. (2014). Mobile and interactive media use by young children: The good, the bad, and the unknown. *Pediatrics*, 135(1), 1-3.

Rasmussen, E. E., Shafer, A., Colwell, M. J., White, S., Punyanunt-Carter, N., Densley, R. L., Wright, H. (2016). Relation between active mediation, exposure to Daniel Tiger's Neighborhood, and US preschoolers'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Journal of Children and Media*, 10(4), 443-461.

Rohner, R. P., Kean, K. J., & Cournoyer, D. E. (1991). Effects of corporal punishment, perceived caretaker warmth, and cultural beliefs on the psychological adjustment of children in St. Kitts, West Ind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3(3), 681-693.

Schaefer, E. S. (1959). Development of a 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95(1), 83-104.

Singer, J. L., Singer, D. G., & Sherrod, L. R. (1980). A factory analytic study of preschoolers' play behavior. *Academic Psychology Bulletin*, 2(2), 143-156.

Uhls, Y. T., Michikyan, M., Morris, J., Garcia, D., Small, G. W., Zgourou, E., & Greenfield, P. M. (2014). Five days at outdoor education camp without screens improves preteen skills with nonverbal emotional cue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39, 387-392.

Zins, J. J., Bloodworth, M. R., Weissberg, R. P., Walberg, H. J. (2007). The scientific base linking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to school success. *Journal of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Consultation*, 17(2&3), 191-210.

·논문접수 8월 9일 / 수정본 접수 9월 4일 / 게재 승인 9월 19일

·교신저자: 박영아,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이메일 90yamw@naver.com

Abstract

The Effect of Mothers'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on Infants' and Toddlers' Playfulness : With a Focus on Infants' and Toddlers' Overindulgence in Smart Devices

Yea-Ji Hong, Young-ah Park, Subin Ahn, Soon-Hyung Yi and Kangyi Le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infants' and toddlers' overindulgence in smart devic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and infants' and toddlers' playfulness. Data were collected from 278 mothers and 88 teachers of children aged below 36 months from child care centers in Daejoen and Seoul, Korea.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Cronbach alpha, correlation, and the hypothesized model was verifi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mothers'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were positively related to young children's overindulgence in smart devices, but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ir playfulness. Second, the research model was selected as a final model which implied that mothers' negative parenting had an indirect effect on infants' and toddlers' playfulness. Lastly, infants' and toddlers' overindulgence in smart devices had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and young children's playfulnes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can be implied that is necessary to protect young children from negative media effects with the help of mothers'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and by promoting developmentally appropriate media environments for infants and toddlers.

Key words: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infants and toddlers, overindulgence in smart devices, playfulness

육아정책연구
제11권 제2호(2017. 9.) 115~147

순환학습모델에 기반한 유아 식생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장숙현[1)] 김지현[2)]

요 약

이 연구는 순환학습모델에 기반한 식생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유아의 영양지식, 식행동, 과학과정기술, 과학적 태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G시의 H어린이집 만 5세반 유아와 만 5세가 된 유아(총 23명)들이었다. 순환학습모델에 기반한 식생활 프로그램은 바람직한 식생활에 필요한 영양지식과 식행동을 증진하고, 식생활과 관련한 순환학습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과학과정기술과 과학적 태도를 증진함을 목표로 개발되었으며, 순환학습구조에서 유아들이 스스로 구성한 지식을 적용해봄으로써 유아의 사전경험과 순환학습의 경험을 연결하기 적합한 Gallenstain(2003)의 5E 순환학습모델을 기반으로 하였다. 프로그램의 주제는 누리과정 신체운동·건강영역 '바른 식생활'의 세부내용인 '균형 있는 섭취', '몸에 좋은 음식', '바른 식사태도'로 선정되었다. 실제 활동 장면에서는 상호작용적 교수법을 적용하였다. 적용 결과, 유아들이 식생활과 관련한 탐구과정에서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고 이를 자신의 식생활에 적용해 보는 기회를 통해 영양지식과 식행동이 증진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과학에 필요한 기술을 접하고 과학적 지식과 개념에 일상적으로 접근하는 경험을 통해 과학과정기술과 과학적 태도에서의 긍정적 변화가 일어났다. 이로써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식생활 프로그램에 과학적 개념과 이론을 반영하는 순환학습모델을 적용하여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순환학습모델, 식생활 프로그램, 영양지식, 식행동

---

* 이 논문은 제 1저자의 2017년도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하였음.

1)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학과 석사
2)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

Ⅰ. 서론

영유아기에는 인간발달의 기초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시기의 식생활은 매우 중요하다. 영유아는 음식을 통해 신체적·심리적 발달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고, 음식을 먹는 방법을 학습하여 식습관을 형성한다. 특히, 유아기에 형성된 식품에 대한 감각과 식습관은 성인기까지 유지되므로 평생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며(김상희·김옥선·최해연·박수선·권수연, 2013), 음식을 먹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에서 기초적인 약속을 접하고 연습하며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게 된다.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생활패턴이 바뀌면서 식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보건복지가족부와 질병관리본부(2015)의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곡류 소비감소 및 육류소비 증가, 아침결식,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의 감소, 간편식 및 가공식품 섭취 증가 등의 식생활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당류 과잉섭취에 따른 비만, 고혈압 등의 건강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2017)이 발표한 비만이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은 연간 6.8조원이며, 부적절한 식생활과 관련한 사회적 비용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식생활의 변화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존재인 유아에게 영향을 미친다(최용득·김명숙, 2010). 보건복지가족부와 질병관리본부(2015)의 국민건강통계는 3-5세 유아의 아침결식률과 당류섭취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러한 식생활의 변화는 비만, 충치, 음식 알레르기, 빈혈, 납중독, 영양불량, 과잉활동과 과잉행동 등의 건강 및 영양문제로 이어지고 있다(이명희·박연희·이민준·김갑영·한국보육교사교육연합회, 2012; 전남련·김진혜·권경미·권순남·강은숙·홍은미·손현숙·이성은, 2010). 영양의 결핍 또는 과잉으로 인한 문제는 유아에게 정서적, 신체적, 인지적 발달의 어려움을 일으킬 수 있다. 영양불량 상태의 유아들은 공격성, 우울감, 정서적 무력감, 초조와 의기소침한 경향을 보이는 등의 정서적 문제를 경험하고, 성장지연, 근육소모, 체중 미달로 인한 신체적 발달의 문제, 뇌 성장 장애로 인한 인지적 발달의 문제까지 겪게된다(전남련·김진혜·권경미 등, 2010). 유아의 부적절한 식생활 환경에서 오는 비만은 당뇨병 등 유아 성인병으로 이어져, 성인기의 질병과도 유관하고(박유미·안연경, 2012), 또래관계에서의 어려움도 유발할 수 있다(김진희, 2012; 김하종·김주연·김경숙, 2012). 따라서 식생활의 기초를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유아들이 건강하고 질 높은 삶의 전제가 되는 바른 식생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적 지원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특히, 유아들이 보육 및 교육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15), 유아들은 하루 중 대부분의 식사와 간식을 기관에서 섭취하므로 어린

이집에서 유아들이 경험하는 식생활은 유아들이 식생활과 관련한 생각과 행동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따라서, 유아들이 어린이집에서 경험하는 식생활은 영양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바람직한 식생활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직 교사들은 '유아 식생활 교육의 방향 및 목표 설정'에서 어린이집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어려움을 느낀다(장주연, 2011)고 보고하고 있으며, 교사가 느끼는 식사지도의 어려움에 대한 연구결과(정혜민, 2009)는 식생활과 관련한 지도체계의 부재를 나타낸다. 육아정책연구소의 2016년 발표자료(김길숙, 2016)를 보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영양 및 식생활 교육은 담임교사가 일상생활에서 유아들을 개별적으로 지도하는 방법이나, 보건소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방문교육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어린이집 교사대상 요구도 조사 결과에서도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식생활 교육은 급·간식지도 등 일상생활에서 요구되는 상황, 보건소 영양교육, 매달 1회 실시하는 건강·위생교육 등으로 일회성을 가지고 비주기적이고 비계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에서 편식과 관련하여 아동학대가 발생하여(2015.1.13. KBS 9시 뉴스),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 하게 되면서 유아 보육 및 교육기관의 식생활 및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문제가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식생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하여 현장 교사들이 식사지도 등 식생활 교육과 관련하여 느끼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식생활과 관련한 보육의 질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식생활의 변화로 인한 이러한 요구로부터 식생활과 관련한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행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아의 식생활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모의 식생활이나 교사의 식생활과 관련한 생각을 알아보는 연구(김혜민, 2009; 정성림, 2014), 급식운영 실태나 교사의 배식 및 급식지도, 유아의 급식환경에서의 식사행동(김지숙, 2003; 장보경, 2002; 최애경·임재택, 2004) 등을 알아보는 연구는 유아의 식생활과 관련한 교육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으나 구체적인 교육의 방향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선행 영양지식 및 식생활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권기남·성미영, 2012). 그 중에서도 비만아 등 섭식과 관련한 문제를 가진 연구대상이 많아(김유경·천종희, 2000), 일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발달에 적합한 식생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유아 대상 식생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에 앞서 선행 연구를 통해 개발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식생활 프로그램이 가지는 한계점을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상 및 생명과의 관련이 높은 식생활 교육의 특성을 반영하여 적합한 교수학습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하기보다는 특정한 활동매체를 활용하여 진행되거나 특정 주제에 치우친 활동들이 실시되었다. 특히 유아를 대상으로 개발된 기존의 프로그램(김정미·안지영, 2015b; 박소현, 2009; 홍연홍, 2014)은 요리활동으로 접근한 영양교육 프로그램이 많았다. 식생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개발된 소수의 프로그램은 유아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식생활 경험보다는 제철음식, 신토불이음식, 전통음식 등 식생활 관련 생태교육과 환경교육에만 연구의 중점을 두거나(채영숙, 2005), 식생활이라는 주제보다 더 넓은 범위의 건강교육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었다(김정미·안지영, 2015a). 그러나 식생활 교육에서는 지식의 습득과 함께 행동으로 옮겨 실천하는 변화가 필수적이므로, 유아들로 하여금 식생활과 관련된 지식을 탐색하고 이를 식생활에 적용해 보는 일련의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박인영·이심열, 2006). 따라서 반복적인 탐구과정을 통해 실생활과 연결시키면서 학습한 내용을 습관화 할 수 있는 교수학습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 요구된다.

둘째, 선행연구들은 교수학습방법에 있어서 사진이나 그림을 활용하여 음식의 이름과 신체와의 관계, 음식의 성분과 역할을 설명하거나(색동유치원, 2000), 퍼펫 등을 이용해 음식에 대한 정보를 극화하여 전달하는 등 교사주도로 지식을 전달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었다(이수진, 2003; 하정연·임재택, 2006). 바람직한 식생활 형성을 위해서는 유아들의 자발적 동기가 필요한데, 교사 주도의 전달적 교수학습방법은 유아들의 활동참여도가 낮아 식생활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기 어렵다. 따라서, 유아들이 반성적인 학습자로 활동하며 식생활에 대한 자기 평가와 교정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유아가 환경과 자유롭게 상호작용하며 식생활과 관련하여 자신이 탐색한 것을 표현하고 탐구를 확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연구와 적용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유아의 발달에 적합하고, 식생활 교육의 특성을 반영하는 식생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구성주의 이론에 기초하여 학습자 스스로 구체적인 경험에서 과학적 개념을 획득하도록 하는(김승희, 2015) 교수학습모델인 순환학습모델(Learning Cycle Model)을 프로그램의 구성의 원리로 활용하고자 한다. 순환학습은 학습자의 사전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활동을 통해 학습자의 개념형성과 사고발달을 도모하므로, 식생활과 관련하여 순환학습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유아가 자신의 식생활을 돌아보고 식생활 관련 요소를 탐구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

에서는 순환학습의 단계를 세분화하여 유아의 경험과 순환학습의 경험을 연결하기 적합한 순환구조인 Gallenstain(2003)의 5E 순환학습모델을 프로그램의 기본구조로 하였다. 유아의 바람직한 식생활을 형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유아들이 영양과 관련한 지식을 스스로 구성하고, 습득한 개념을 식생활 행동에 적용하는 순환학습을 경험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순환학습을 기반으로 하여 개발할 유아 식생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실제 활동 장면에 상호작용적 교수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상호작용적 교수법은 유아들이 궁금한 것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도록 하는 탐구과정에서 유아-유아, 유아-교사, 유아-환경 간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교수법을 뜻한다(이경민, 2004). 상호작용적 교수법은 유아들이 순환학습을 통해 스스로 구성한 과학적 개념을 또래, 교사, 환경과 주도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며, 과학교육의 이론과 개념을 가장 잘 적용한 구성주의에 기초한 교수법이라는 점에서 순환학습모델과 맥락을 같이한다. 동시에, 학습자 내부의 인지적 측면을 강조하는 순환학습모델의 특징을 보완하여 환경과의 상호작용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순환학습모델과의 절충을 기대할 수 있다.

순환학습모델에 기반한 유아 식생활 프로그램의 활동내용은 누리과정 '바른 식생활하기'의 세부영역인 '균형 있는 섭취', '몸에 좋은 음식', '바람직한 식사태도'의 3가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지식의 습득이 실제적인 식생활의 변화로 이어지는 식생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식생활의 요소를 지식과 행동으로 나누어 재정의해야 하며, 지식과 행동으로 나눈 식생활 요소를 유아들에게 일관된 경험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하나의 활동내용을 2회기에 걸쳐서 지식-행동으로 연속하여 다루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개발한 프로그램을 어린이집 유아에게 적용하여 영양지식, 식행동, 과학과정기술, 과학적 태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실시집단을 담당한 담임교사의 프로그램 평가지,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 연구자와 연구보조자에 의해 기술된 관찰기록지, 담임교사 및 연구보조자와의 면담결과와 프로그램 진행 기간 동안 가정으로부터 보고 받은 유아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유아 보육 및 교육기관에서의 식생활 관련문제와 식생활 교육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유아의 발달에 적합하며 현장에 적용이 가능한 식생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육현장의 식생활 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에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근거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순환학습모델에 기반한 유아 식생활 프로그램은 어떻게 개발되어야 하는가?

[연구문제 2] 개발된 순환학습모델에 기반한 유아 식생활 프로그램을 경험한 만 5세 유아의 영양지식, 식행동, 과학과정기술, 과학적 태도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식생활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G시에 위치한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현직 교사 중 만 4, 5세반을 담임하고 있거나 담임하였던 경력이 있는 교사 4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요구도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식생활 프로그램 적용 및 변화에 대한 분석 대상은 G시에 위치한 H어린이집의 만 5세반 유아 16명, 만 4세반 유아 중 생일이 지나 만 5세가 된 유아 7명과 담임교사 3명이었다. 만 5세아 또는 만 5세반 재원 중인 유아로 대상을 선정한 이유는 만 5세가 생물지식 습득이 활발하여 초보적 인과성을 띄는 시기(김경아·이현진·김영숙, 2007)인 동시에 초등학교 입학과 함께 겪게 될 급식환경, 식사지도 여건 등의 변화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누리과정(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가족부, 2013)에 따르면, 만 5세는 몸에 좋은 음식을 선택해 보는 식생활을 목표로 하며, 호기심을 가지고 주변 사물과 자연세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탐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순환학습모델에 기반한 식생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효과를 검증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만 5세아 또는 만 5세반 재원 중인 유아는 초등학교 입학 전으로 학령 전 아동기에 해당하여 성장 속도는 이전에 비해 느려지지만 신체활동과 영양소에 대한 요구가 높으며, 식행동이 형성되는 결정적인 시기(김일옥·최경순, 2011)라는 점을 공유하는 발달단계이다.

이에 따라 2016년 12월 15일부터 2017년 2월 3일까지 실시집단인 H어린이집의 유아를 대상으로 오후실내자유놀이시간을 활용하여 1주일에 2회, 매회 30-40분씩 총 16회기로 순환학습을 통해 유아의 바람직한 식생활을 형성하기 위한 식생활 프로그램이 제공되었다. 담임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지능에 있어 일반적인 발달 범위를 벗어나는 유아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검사 실시 전에 연구에 대한 설명문과 동의서를 작

성하여 유아의 보호자에게 발송하였으며, 보호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유아에 한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식생활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된 도구는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사용된 요구도 조사 질문지와 프로그램 평가 과정에서 사용된 교사의 자기평가지이다. 예비조사 과정에서 사용된 요구도 조사 질문지는 문항구성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해 아동학 교수 1인과 보육교사 경력을 소지한 아동학 석사 1인 및 유아교육 석사과정생 2인의 질문 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쳤다. 질문지는 유아 식생활 프로그램에 대한 보육현장의 실태와 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만 4, 5에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식생활 지도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서 나타난 유아의 영양지식, 식행동, 과학과정기술, 과학적 태도에서의 의미있는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식생활 프로그램 실시 중 각 회기별 관찰을 실시하여 기록하였으며, 프로그램 실시 이후 자유기술방식의 교사 자기평가지를 작성하고 면담을 실시하였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 개발한 순환학습모델에 기반한 유아 식생활 프로그램은 Gallenstain(2003)의 5E 순환학습모델에 기반을 두고 상호작용적 교수법을 적용하였으며, ADDIE 모형에 근거하여 개발되었다. ADDIE 모형은 분석(Analysis), 설계(Design), 개발(Development), 실행(Implementation), 평가(Evaluation)를 포함한다. 분석단계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순환학습모델에 기반한 식생활 프로그램과 관련한 문헌을 고찰하고, 만 4, 5세 담임 경력이 있는 어린이집 교사 4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필요성, 내용 및 방법의 요구 탐색을 위한 요구도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여 식생활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내용 요소 및 구성 방법을 추출하였다. 설계단계에서는 예비프로그램 시안을 설계하고 전문가 협의를 거쳤으며, 개발단계에서는 예비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전문가협의를 통해 프로그램 최종안을 구성하였다. 실행단계에서는 개발된 프로그램을 연구자가 직접 실시집단에 실시하였으며, 평가단계에서는 교사의 자기평가지 및 면담, 회기별 참여관찰과 부모의 관련 보고를 통해 유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4. 자료 분석

식생활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요구도 질문지 조사 결과는 각 질문에 대한 답을 유형별로 묶어서 분석하였다. 순환학습모델에 기반한 식생활 프로그램 적용 후 유아의 영양지식, 식행동, 과학과정기술, 과학적 태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분석은 교사의 자기평가지, 회기별 참여관찰 기록, 교사와 연구보조자 면담 및 부모의 관련 보고에 대해 이루어졌다. 교사용 자유기술식 자기평가지는 16회기가 끝난 이후 배부되었고, 유아의 의미 있는 변화에 대한 보고와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교사의 평가 내용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활동을 참여 관찰한 내용은 관찰 당시 기록한 관찰일지의 내용을 전사하였으며, 프로그램 실시 중 가정으로부터 부모로 부터 보고된 의미있는 유아의 변화를 자료로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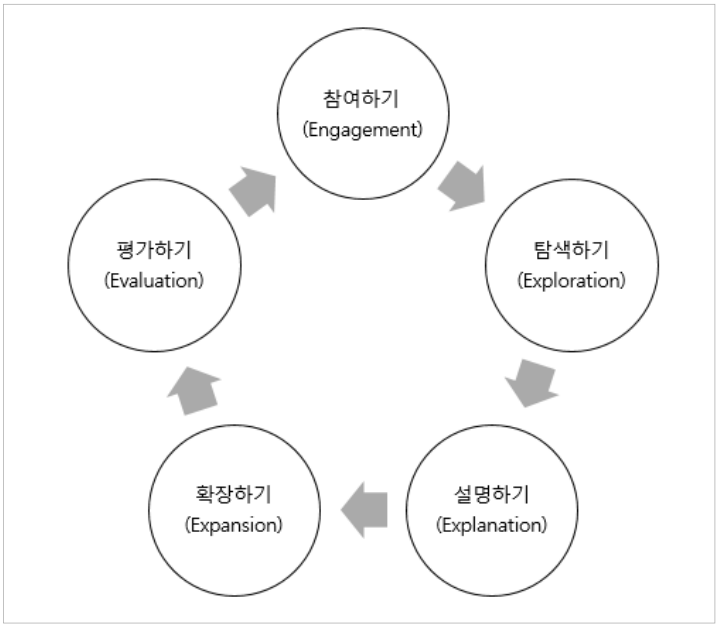
Ⅲ. 프로그램 개발

1. 프로그램 개발 방향

바람직한 식생활을 형성하기 위한 유아 식생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문헌조사와 요구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개발 방향을 설정하였다.

첫째, 유아의 바람직한 식생활을 형성하기 위한 식생활 프로그램은 순환학습모델에 기반을 두고 개발하고자 하였다. 순환학습모델은 구성주의 이론에 기초하여 학습자 스스로 구체적인 경험에서 과학적 개념을 획득하도록 하며, 학습자의 사전 지식과 경험에 근거한 활동을 통해 학습자의 개념형성과 사고 발달을 도와주는 수업모델이다(김승희, 2015). 유아는 매일 수차례 식생활을 경험하므로 식생활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는 순환학습모델에 기반한 유아 식생활 프로그램에서 학습을 위한 토대로 활용될 수 있다. 식생활 교육은 그 특성상 지식의 습득뿐만 아니라 실제 행동에의 적용을 통한 변화가 중요하며, 순환학습은 식생활 교육에서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교수학습모델로 작용할 수 있다. 5E 순환학습모델(Gallenstain, 2003)의 참여하기 단계에서 유아는 활동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탐색하기 단계를 통해 원자료를 탐색하며 스스로 지식을 구성해본다. 설명하기 단계에서는 유아들이 이전단계를 통해 생각하고 느낀 것을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개념을 도입한다. 확장하기 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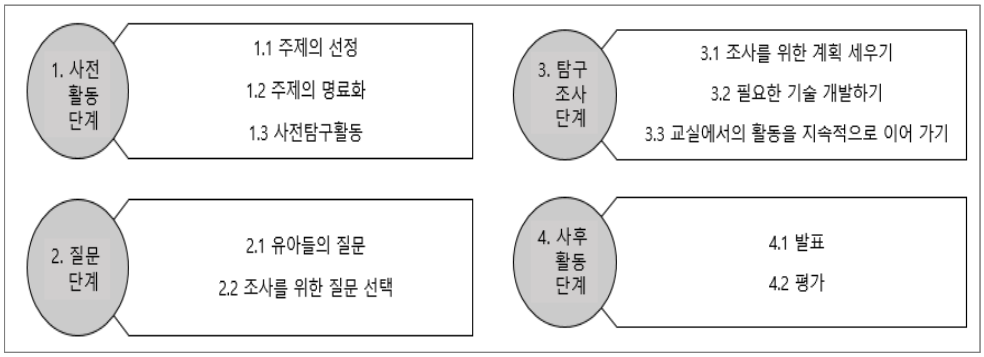
계에서 유아는 앞서 스스로 구성한 식생활 지식을 실행해 보고, 평가하기 단계에서 자신의 탐구활동을 피드백하여 다시 돌아오는 순환학습을 위한 사전 지식과 경험으로 활용할 수 있다. 5E 순환학습은 학습자 내부의 인지적 측면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여러 순환학습모델 중에서도 구성주의적 특징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Llewellyn, 2013), 순환구조에 따라 연속되는 구체적인 경험 속에서 유아들이 영양지식에 인지적 과정에서 접근하며 흥미를 가지고 탐구한 지식을 식생활 행동으로 적용해 봄으로써 바람직한 식생활로 정착되도록 도움을 준다고 판단된다. 5E 순환학습모델의 순환단계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5E 순환학습모델

둘째, 순환학습모델을 적용할 시 실제적인 교수학습방법으로 상호작용적 교수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상호작용적 교수법은 구성주의에 기초한 대표적인 교수법이며, 상호작용적 교수법에서의 상호작용은 학습과정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이경민, 2000). 상호작용적 교수법을 순환학습모델에 기반한 유아 식생활 프로그램에 적용함을 통해, 교사는 유아가 가지고 있는 식생활과 관련한 사전 지식이 활동과정에서 변화 및 확산되는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유아는

순환학습의 과정에서 지식을 스스로 구성하고 검증하면서 유아-유아, 유아-교사, 유아-환경 간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이 탐구한 내용을 정교화 할 수 있다. 순환학습이 피아제의 이론에 기초하여 유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지식의 구성과정을 중요시한다면, 상호작용적 교수법은 순환학습을 통해 유아들이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는 과정 또는 결과를 타인과 나누며 유아 개인의 지식과 개념을 한 층 성숙시킬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진다. 상호작용적 교수법의 4단계와 각 단계의 내용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상호작용적 교수법의 단계와 내용

셋째, 순환학습모델의 틀 안에서 상호작용적 교수법을 적용하여 새로운 통합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순환학습에서 개념을 도입하고 적용함에 있어 교사 주도로 개념을 전달하여 과학적 결론을 강요하거나 유아가 독단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방법보다는, 상호작용적 교수법을 활용하여 유아들이 사회적 교류를 통해서 자신들이 발견한 내용과 선개념과의 차이를 발표하고, 오개념을 발견하며 주제와 관련하여 탐구활동이 가지는 의미를 떠올리게 하는 과정이 바람직한 식생활 형성에 의미 있다고 판단되었다. 5E 순환학습모델과 상호작용적 교수법의 통합을 예를 들어 살펴보면, 순환학습의 설명하기 단계에서 유아 주도의 개념도입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교사가 개념을 일방적으로 소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기보다 상호작용적 교수법의 사후활동단계의 내용인 '발표'와 '평가'를 통해서 유아들이 탐색단계에서 알아본 것을 공유하고, 질문단계의 '유아들의 질문'을 이끌어 내며 함께 지식을 구성해가는 단계를 거칠 수 있다. 또한 상호작용적 교수법의 핵심인 '질문'은 유아들이 순환학습의 여러 단계에 적용이 가능하며, 유아들이 능동적으로 순환학습에 참여하여 지식을 구성하고 확장하기 위한 동기를 부여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상호작용적 교수법을 5E 순환학습모델의 단계와 통합하여 제시하면 〔그림 3〕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5E 순환학습모델 단계				
		참여하기	탐색하기	설명하기	확장하기	평가하기
상호작용적 교수법 단계	사전 활동 단계	주제의 선정, 주제의 명료화	사전탐구활동			
	질문 단계	유아들의 질문, 조사를 위한 질문의 선택	유아들의 질문, 조사를 위한 질문의 선택	유아들의 질문, 조사를 위한 질문의 선택		유아들의 질문
	탐구 조사 단계		조사를 위한 계획세우기, 필요한 기술계발하기	교식에서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 가기	조사를 위한 계획세우기, 필요한 기술계발하기	
	사후 활동 단계			발표, 평가		발표, 평가

〔그림 3〕 5E 순환학습모델의 단계와 상호작용적 교수법의 통합

2. 요구도 조사

가. 조사 내용

질문지는 교사들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만 4, 5세 대상 영양지식, 식습관, 식생활 지도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현재 어린이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식생활지도의 형태', '만 4, 5세를 대상으로 식생활을 지도할 때의 어려움', '만 4, 5세 유아들의 더 나은 식생활을 위해 어린이집 혹은 교사가 지원해야 할 것', '만 4, 5세를 대상으로 한 식생활 프로그램의 필요성 여부와 이유', '만 4, 5세를 대상으로 하는 식생활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교육적 내용과 방법', '식생활 관련 활동 경험 여부와 식생활 관련 활동에서 고려할 점'을 그 내용으로 포함하였다.

나. 요구도 조사 결과

요구도 조사 결과 교사들은 첫째, 현재 어린이집 만 4, 5세 대상 식생활지도가 '건강한 생활' 등 제한적인 활동주제와 급·간식 시간, 건강·위생교육시간 등 제한적인 상황에서 일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기관중심으로 진행되는 일과에서 개인차를 고려해 줄 수 없는 상황에서 비롯되는 어려움을 만 4, 5세를 대상으로 하는 식생활지도의 어려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유아들이 자발적으로 영양

이 풍부한 음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지식을 활동을 통해 제공하는 식생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유아들이 접하는 영양과 관련한 지식은 유아의 실질적인 식생활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로 유아가 먹는 음식에 적용한 영양과 식생활에 대한 지식을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넷째, 식생활 프로그램을 구성함에 있어 자유선택활동, 요리, 게임 등 다양한 활동형태로 제공하되 동기부여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만 4, 5세 유아들의 특성상 어린이집 생활을 하며 골고루 먹는 것이 좋다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 당위성과 근거에 대해 알지 못해 동기부여가 약하다는 점을 중요하게 언급하였다. 다섯째, 식생활과 관련한 내용을 다룰 때는 유아의 가정과 기관에서의 식사행동과 선호음식, 식생활 사전 지식 수준, 그리고 자연탐구영역에서의 전반적인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질문지를 이용한 요구도 조사의 결과를 정리하면 <표 1>와 같으며, 진하게 나타낸 부분은 요구도 조사에서 중복 기술 된 내용이다.

〈표 1〉 요구도 질문지 분석 결과

문항내용	질문지 조사 결과
1. 현재 어린이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식생활지도의 형태	· 지역사회 연계활동(보건소방문)으로 이루어짐 · 건강 위생교육 시 대집단으로 영상시청, 이야기나누기, 퀴즈형태로 이루어짐 **· <건강한 생활> 생활 주제에서 음식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짐** · 식당에 게시된 식품별 영양군 자료를 유아들이 자유롭게 탐색함 **· 일과 중 간식, 식사 시간에 실시간으로 요구되는 상황에서 지도함**
2. 만 4, 5세를 대상으로 식생활을 지도 할 때의 어려움	· 유아들도 몸에 좋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맛이 없어 먹기 꺼려 할 때 독려하기 어려운 점(시금치, 나물류, 샐러드, 야채류) **· 집단생활의 특성상 식사지도 시 유아들의 음식에 대한 기호와 개인차를 모두 고려해줄 수 없는 상황에서 비롯되는 어려움** · 한 아이의 편의를 봐주다 보면 다른 아이들이 부당하게 느낌 · 모두의 편의를 존중하다보면 식사지도가 어려워짐
3. 만 4, 5세 유아들의 더 나은 식생활을 위해 어린이집 혹은 교사가 지원해야 할 것	· 유아들이 꺼려하는 음식재료를 이용한 요리활동의 진행이 필요함 · 쓴 맛이 나는 이유, 몸에 왜 좋은지 등의 내용을 다룬 영양교육 활동 진행이 필요함 · 개별성을 고려하여 식사를 조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 일괄적으로 제공된 음식을 모두 먹는 제도가 아닌 최소한의 기준을 가지고 식사시간, 메뉴 등을 유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4. 만 4, 5세를 대상으로 한 식생활 프로그램의 필요성 여부와 이유	· 유아들이 다양한 식재료에 대한 관심이 높고, 같은 재료로 다른 메뉴가 요리되는 것에 흥미를 보임. · 만 5세 유아특성상 오랜 기간 어린이집 생활을 하며 습관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 당위성과 근거에 대해 동기부여가 약해 교사가 지시할 때가 많음 · 유아들 스스로 자발적이고 즐거운 식생활을 하도록 돕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유아 스스로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성인의 지시가 아닌 스스로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문항내용	질문지 조사 결과
5. 만 4, 5세를 대상으로 하는 식생활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교육적 내용과 방법	· 기본생활습관 형성의 중요성과 동기부여를 다루어야함 · 식생활 프로그램에 음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포함되어야함 · 요리, 자유선택활동(수·과학, 미술, 언어, 역할, 쌓기, 음률영역활동), 게임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함 · **스스로 음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영양에 대한 지식을 다루어야함** · 대체 음식에 대한 내용(같은 영양소를 여러 음식을 통해 섭취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볼 수 있겠음

3. 프로그램 목표 설정

본 연구는 순환학습을 통해 유아의 바람직한 식생활을 형성함을 목적으로, 바람직한 식생활에 필요한 영양지식과 식행동을 증진하고, 순환학습의 과정에서의 과학적 경험을 통해 과학과정기술과 과학적 태도의 증진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4. 예비프로그램 시안 구성

유아 식생활 프로그램의 구성과 유아의 식생활에 대한 이론적 근거, 순환학습모델의 정의와 전개과정 및 관련 연구에 대한 문헌 고찰을 실시하였다. 문헌고찰과 요구도 조사를 바탕으로 예비프로그램 시안을 구성하였다. 식생활과 관련하여 유아가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주제인 동시에 관련 경험이 풍부하고 생활주변에서 활동내용과 소재를 찾기 쉬운 자연과 환경, 건강과 생활, 음식과 몸의 관계, 영양소와 역할 등을 다루는 식생활 프로그램을 설계하였으며, 프로그램의 진행에 상호작용적 교수법을 도입하기 위한 순환학습모델과 상호작용적 교수법의 통합을 계획하였다. 주제에 따른 활동 내용마다 각각 지식과 행동을 다루는 2회기를 기준으로 8번의 순환학습, 총 16회기로 시안을 구성하였다. 여기서 2회기는 5E 순환학습모델에서의 참여, 탐색, 설명하기의 3단계가 지식을 다루는 첫 번째 회기와 확장, 평가하기의 2단계가 행동을 다루는 두 번째 회기로 구성되었다.

프로그램은 3가지 주제로 이루어졌다. 누리과정의 신체운동·건강 영역의 건강하게 생활하기 내용범주 중 '바른 식생활하기'의 세부내용인 '적당량의 음식을 골고루 먹는다(균형 있는 섭취)', '몸에 좋은 음식을 선택할 수 있다(몸에 좋은 음식)', '음식을 소중히 여기고 식사예절을 지킨다(바른 식사태도)'를 포함하였다. 기존의 식생활 또는 영양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연구를 분석한 결과, 이 3가지 교육주제를 벗어나는 내용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예비프로그램 시안을 구성할 때 분석한 선행연구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선행 식생활 프로그램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선행 식생활 프로그램 내용 분석

	만 5세 누리과정 '바르게 먹기' 세부내용		
출처	적당량의 음식 골고루 먹는다	몸에 좋은 음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음식을 소중히 여기고 식사 예절을 지킨다
김정미, 안지영(2015)	다양한 식품이 있어요, 편식을 예방해요, 아침밥을 꼭 먹어요	건강한 간식을 먹어요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가져요, 바른 식사예절을 지켜요, 음식을 소중해요
박진성(2009)	다양한 음식경험을 통해 감각기능 향상	식품과 건강의 관계이해, 영양에 관련된 지식 향상	바람직한 식습관 형성,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영양과 관련된 문제를 인식하고,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
신은경(2006)	균형잡힌 식단으로 먹어요	음식과 친해져요(음식과 몸의 관계), 건강을 위한 식사지침, 건강한 음식과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알고 선택해요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먹어요, 올바른 식습관을 만들어요, 식사예절을 가져요, 음식쓰레기로부터 지구를 지켜요
홍연홍(2014)	다양한 음식경험으로 감각기능 향상시키기, 다양한 음식 골고루 식사하기, 적정한 식사량과 식사시간 지키기	음식과 영양의 중요성 알기, 영양에 관한 문제 인식하기, 5대 영양소와 식품의 관계 알기, 건강한 음식 안전한 음식 알기, 주변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해하기, 몸에 좋은 음식을 선택하기	바람직한 식사태도 인식하기, 음식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 갖고 소중히 여기기, 즐겁게 식사하기, 질병 예방법(위생)을 알고 실천하기
누리과정 지도서 '건강과 안전-맛있는 음식과 영양'	음식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이 있음을 알기, 적당한 양의 음식 골고루 먹기	우리 몸의 성장을 위해 음식이 필요함을 알기,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 음식을 골고루 먹는 태도를 기르기	음식을 함께 나누는 즐거움을 경험, 음식을 만들며 즐거움 느끼기, 음식을 먹으며 감사한 마음 가지기, 바른 자세로 음식을 먹는 습관 갖기, 규칙적인 식사습관 갖기, 올바른 식생활 실천하기
	↓		
순환학습모델에 기반한 식생활 프로그램 내용	균형 있는 섭취	몸에 좋은 음식	바른 식사태도

5. 전문가 자문 및 예비적용

가. 전문가 자문

예비 프로그램에 대해 아동학 전공 교수 1인, 보육교사 경력을 소지한 아동학 석사 1인 및 유아교육 석사과정 2인의 전문가 협의과정을 거쳤다. 전문가 자문을 통해 협의

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회기마다 지식과 행동에 해당하는 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이를 각 회기의 활동에 반영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따라서 첫 번째 회기에서는 지식 습득의 목표를, 두 번째 회기에서는 행동 변화의 목표를 설정하고 활동 계획안에 기술하여 나타내었다. 둘째, 5E 순환학습 중 확장하기에서는 새로운 과학적 개념인 식생활 지식을 식생활 행동으로 나타내는 실제에의 적용과 변화가 일어나는 단계이므로, 실제로 행동을 통해 확장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4회기 확장활동으로 계획한 '아침 식사 일기쓰기'를 '아침을 먹고 어린이집에 왔어요'로 수정하였으며, 14회기 확장활동으로 계획한 '소중한 음식 포스터 만들기'를 '소중한 음식 캠페인 하기'로 수정하였다.

나. 예비적용

설계된 예비프로그램이 적용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2016년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예비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 어린이집과 같은 G시에 위치한 C어린이집 만 5세반 11명을 대상으로 3가지 주제 당 2회기, 총 6회기의 활동내용을 예비 적용하였다. 예비프로그램 실시로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식생활 프로그램이 오늘 먹은 음식 등 친숙한 소재를 바탕으로 하고 어린이집에서 활동하는 방법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므로 거부감 없이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계획된 활동시간 안에 모든 유아가 활동을 경험하기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를 들면 역할놀이 활동으로 계획된 '바른 식사 레스토랑' 놀이의 경우 자유선택놀이의 형태로 역할영역에서 이루어지는데, 활동시간 내에 모든 유아가 놀이에 참여하기 어려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 예비적용 후 전문가 협의

예비적용 후 전문가 협의에서는 보육교사 경력을 소지한 아동학 석사 1인 및 유아교육 석사과정 2인이 참여하여 협의가 이루어졌고, 아동학 교수 1인으로부터 예비연구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다. 이를 통해 협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의 내용이 자료의 수집, 분류와 재분류, 주변의 물체와 물질에 대한 특성 파악 등의 능력을 요구한다고 판단되어 만 4, 5세반 2학기에 프로그램을 적용할 것으로 협의하였다. 둘째, 예비연구 시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소집단 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유아가 있었으므로, 본 프로그램에서는 담임교사와의 협의를 통해 프로그램 활동시간이 끝난 후에도 활동자료를 해당 활동영역에 지속적으로 제시하여 유아들이 자유선택활동시간을 이용해 자유롭게 활동해 볼 수 있도록 협의하였다.

6. 최종 프로그램

가. 프로그램의 최종 구성 체계

프로그램 구성절차를 거친 순환학습모형에 기반한 유아 식생활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구성 체계는 〔그림 4〕과 같다.

<table>
<tr><td>목표</td><td colspan="3">· 바람직한 식생활에 필요한 영양지식을 증진한다.
· 바람직한 식생활에 필요한 식행동을 증진한다.
· 식생활과 관련한 순환학습을 통해 과학과정기술을 증진한다.
· 식생활과 관련한 순환학습을 통해 과학적 태도를 증진한다.</td></tr>
<tr><td rowspan="2">내용
요소</td><td>식생활
지식</td><td colspan="2">· 적당량의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함을 알기(균형 있는 섭취)
· 몸에 좋은 음식에 대해 알기(몸에 좋은 음식)
· 음식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와 식사예절에 대해 알기(바른 식사태도)</td></tr>
<tr><td>식생활
행동</td><td colspan="2">· 적당량의 음식을 골고루 먹기(균형 있는 섭취)
· 몸에 좋은 음식을 선택하기(몸에 좋은 음식)
· 음식을 소중히 여기고 식사예절을 지키기(바른 식사태도)</td></tr>
<tr><td rowspan="2">탐구
모델</td><td>적용
모델</td><td colspan="2">· 5E 순환학습모델(Gallenstain, 2003)</td></tr>
<tr><td>적용
절차</td><td colspan="2"><table><tr><td colspan="3">첫 번째 회기</td><td colspan="2">두 번째 회기</td></tr><tr><td colspan="3">지식</td><td colspan="2">행동</td></tr><tr><td>참여하기</td><td>탐색하기</td><td>설명하기</td><td>확장하기</td><td>평가하기</td></tr><tr><td colspan="3">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유아 스스로 탐색하는 시간을 가진 후 유아가 탐색을 통해 구성한 지식을 또래에게 설명함.</td><td colspan="2">첫 번째 회기를 통해 유아가 스스로 구성한 식생활 지식을 확장하여 행동으로 연습해 보고 이를 평가함.</td></tr></table></td></tr>
<tr><td>평가</td><td>질적
평가</td><td colspan="2">교사 자기평가지, 회기별 관찰기록, 담임교사 및 연구보조자 면담, 가정으로부터의 부모보고</td></tr>
</table>

〔그림 4〕 순환학습모델에 기반한 유아 식생활 프로그램의 구성 체계

나. 순환학습모델에 기반한 유아 식생활 프로그램의 최종 모델

순환학습모델에 기반한 유아 식생활 프로그램은 총 16회기로 구성되었다. 3가지 주제(균형 있는 섭취, 몸에 좋은 음식, 바른 식사태도)에 따른 활동 내용마다 각각 지식과 행동을 다루는 2회기를 기준으로 8번의 순환학습, 총 16회기가 이루어졌다. 5E 순환학습(Gallenstain, 2003)의 참여하기, 탐색하기, 설명하기 단계에서는 식생활 지식을 내용요소로 활동이 이루어졌고, 확장하기와 평가하기 단계는 식생활 행동을 내용요소

로 활동이 이루어졌다. 순환학습주기 내에서 한 가지 활동내용을 가지고 참여하기, 탐색하기, 설명하기 단계를 통해서 식생활과 관련하여 유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알아보거나 탐색을 통해 확장하고 이를 또래와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난 후, 확장하기와 평가하기 단계에서 앞서 다루어 본 지식을 확장하여 식생활 행동으로 이어가는 2회기 단위로 반복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식생활 행동을 다루어보면서 식생활 지식을 재구조화하고 다음 활동에 대한 순환학습으로 이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활동 중 유아-유아, 유아-교사, 유아-환경 간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상호작용적 교수법을 각 순환학습단계와 통합한 모델을 개발하였다. 순환학습모델에 기반한 유아 식생활 프로그램의 최종 모델은 <표 3>와 같다.

〈표 3〉 순환학습모델에 기반한 유아 식생활 프로그램의 최종 모델(2회기 단위)

활동 내용	구분	순환학습 단계	순환학습 전개과정	상호작용적 교수법
식생활 지식	1회기	도입	흥미 끌기	활동내용에 관심가지기	주제의 선정, 주제의 명료화, 사전탐구활동, 유아들의 질문, 조사를 위한 질문의 선택
		전개	탐색하기	활동자료 탐색하며 스스로 알아보기	유아들의 질문, 조사를 위한 질문의 선택, 조사를 위한 계획세우기, 필요한 기술 개발하기, 교실에서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정리	설명하기	알아본 내용을 친구들과 나누기	유아의 질문, 조사를 위한 질문의 선택, 발표, 평가
식생활 행동	2회기	도입	확장하기	확장 활동 계획하기	조사를 위한 계획세우기, 필요한 기술 개발하기, 교실에서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전개		확장 활동 실행하기	
		정리	평가하기	확장 활동 평가하기	발표, 평가

다. 프로그램 전체 구성

선행 식생활 관련 프로그램과 누리과정이 포함하고 있는 식생활 교육내용을 분석하여 도출한 '균형 있는 섭취', '몸에 좋은 음식', '바른 식사태도'로 구성된 3개의 주제 안에 3-4개의 활동내용을 포함하였다. 하나의 활동내용은 각각 식생활 지식을 다루는 회기와 식생활 행동을 다루는 회기의 2회기 구성으로 설계하여 유아들이 하나의 활동

주제에 대해서 식생활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식생활 행동에 적용하여 확장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하나의 주제는 총 4-6회기를 포함하였고, 순환학습모델에 기반한 식생활 프로그램 전체는 16회기로 구성되었다.

이상의 총 16회기에 구체적으로 순환학습의 각 단계를 적용할 시 상호작용적 교수법을 도입하여 유아들이 순환학습의 과정에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신의 탐구활동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표현함으로서 식생활 프로그램에 반성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예를 들어, 7회기에서는 '무엇을 먹을까'라는 활동명으로 '주제의 명료화', '유아의 질문'을 통해 유아들이 식품구성탑과 관련해 가지고 있는 사전의 생각과 의문점을 파악하였다. 유아들로 하여금 질문을 가지도록 하여 유아들의 요구와 흥미에 중점을 두는 탐구활동을 자극하여 유아들 스스로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도록 하였다. 이어진 8회기에서는 '골고루 먹어요'라는 활동명으로 실제로 유아들이 먹은 음식블록으로 탑을 쌓아보며 고른 영양섭취를 위한 식품섭취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과학과정기술인 분류활동에 참여하는 경험을 제공하였다. 또한 발표와 평가를 통해 유아들이 탐색과정을 통해 발견한 생각이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동시에, 또래 및 교사와 피드백 하는 과정에서 필요시 음식을 재선택하며 몸에 좋은 음식에 대한 식생활 지식을 정교화 하고 행동으로의 실천 동기를 마련하였다. 순환학습모델에 기반한 식생활 프로그램의 전체 회기 구성의 주제, 활동 절차와 활동 내용, 내용 요소 및 활동 유형은 <표 4> 와 같다.

〈표 4〉 순환학습모델에 기반한 식생활 프로그램 전체 구성

주제	회기	식생활 요소	순환학습 단계	상호작용적 교수법	활동명	활동내용
균형있는 섭취	1	지식	참여	주제의 선정, 주제의 명료화	채소를 탐색해 보아요	생채소를 탐색하고 채소가 들어간 음식 알아보기
			탐색	사전탐구활동, 유아의 질문		
			설명	발표		
	2	행동	확장	조사를 위한 계획 세우기, 필요한 기술 개발하기	맛있는 채소 요리를 만들어보아요	채소를 이용한 요리 레시피 쓰고 요리활동하기
			평가	평가		
	3	지식	참여	사전탐구활동	아침을 왜 먹어야 할까요?	아침을 먹었을 때와 먹지 않았을 때 어떻게 다를지 예측해 보기
			탐색	유아의 질문, 조사를 위한 질문의 선택		
			설명	발표, 주제의 선정		
	4	행동	확장	조사를 위한 계획 세우기, 교실에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발표	아침밥을 먹고 어린이집에 왔어요.	아침을 먹고 어린이집에 와서 그 느낌과 생각을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기
			평가	평가		

주제	회기	식생활 요소	순환 학습 단계	상호작용적 교수법	활동명	활동내용
균형 있는 섭취	5	지식	참여	주제의 선정, 사전 탐구활동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	음식이 우리 몸에서 힘을 내는 양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기
			탐색	필요한 기술 개발하기		
			설명	발표		
	6	행동	확장	조사를 위한 계획 세우기, 필요한 기술 개발하기	밥상차리기 놀이	식탁을 구성하고, 음식모형을 이용해 적당량의 한끼 밥상차리기
			평가	평가		
몸에 좋은 음식	7	지식	참여	주제의 명료화, 유아의 질문	무엇을 먹을까?	식품구성탑에 속한 5군을 알아보고, 각 식품군의 음식블록 만들기
			탐색	필요한 기술 개발하기		
			설명	평가, 조사를 위한 질문의 선택		
	8	행동	확장	조사를 위한 계획 세우기, 필요한 기술 개발하기	골고루 먹어요	오늘 내가 먹은 음식 카드로 음식블록으로 식품구성탑 쌓아보기
			평가	발표, 평가, 필요한 기술 개발하기		
	9	지식	참여	주제의 선정, 사전 탐구활동	가공식품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가공식품 생산과정을 함께 조사 해보기
			탐색	조사를 위한 계획 세우기, 필요한 기술 개발하기		
			설명	발표		
	10	행동	확장	교실에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필요한 기술 개발하기	좋은간식 vs 줄일간식	몸에 좋은 간식과 줄일 간식을 분류해 보고, 좋은 간식을 선택 해 먹기
			평가	평가		
	11	지식	참여	조사를 위한 질문의 선택	소금과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에 들어간 소금과 설탕의 양을 측정해 보기
			탐색	필요한 기술 개발하기		
			설명	발표		
	12	행동	확장	필요한 기술 개발하기, 교실에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마트와 시장에 가요	마트와 시장에 방문하여 직접 간식을 구매 해 보기
			평가	평가		
바람직한 식사 태도	13	지식	참여	주제의 명료화	소중한 음식	음식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에 대해 토의하기
			탐색	필요한 기술 개발하기		
			설명	발표, 평가		
	14	행동	확장	조사를 위한 계획 세우기, 필요한 기술 개발하기, 발표	남기지 않아요	음식을 소중하게 여기고 바르게 먹는 방법을 소개하는 캠페인 하기
			평가	평가		
	15	지식	참여	주제의 명료화	나의 식사 모습을 알아보아요	식사체크표를 이용해 나의 평소 식사 모습 확인 해 보기
			탐색	조사를 위한 계획 세우기, 필요한 기술 개발하기		
			설명	발표, 평가		
	16	행동	확장	유아의 질문, 사전 탐구활동, 필요한 기술 개발하기	바른 식사 레스토랑 놀이	예의바른 사람들이 오는 레스토랑 역할 놀이
			평가	평가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각 회기의 구성은 순환학습모델의 단계와 식생활 프로그램의 주제와 내용, 상호작용적 교수법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유아들에게 식생활에 관한 탐구경험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8회기의 '골고루 먹어요'라는 활동은 '몸에 좋은 음식'을 주제로 유아들이 평소 먹는 음식이 유아들의 몸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아보며, 순환학습의 확장, 평가하기 단계로 이루어졌다. 확장하기 단계에서는 앞선 회기인 7회기 '무엇을 먹을까?'를 통해 유아들이 스스로 구성한 식품군과 영양과 관련한 지식을 확장하여 유아들이 실제 먹은 음식으로 식품구성탑을 쌓아보며 어떤 식품군에 속하는 음식인지 알아볼 수 있다. 이 때 유아들이 식품구성탑을 어떻게 쌓을 것인지 '조사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제 탑을 쌓기 위해 음식블록을 분류할 때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상호작용적 교수법을 도입하였다. 평가하기 단계에서는 유아들이 하루 동안 먹은 음식이 고른 영양을 포함하고 있는지 평가 해 보고 피드백 받은 내용을 반영하여 고른 영양을 포함하는 탑을 쌓아볼 수 있다. 이 때 유아들이 상호작용적 교수법의 단계인 '발표'를 통해 자신이 쌓은 탑을 소개하고, 유아들은 또래의 식품구성탑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유아-유아, 교사-유아, 환경-유아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전 단계를 통해 구성한 지식을 정교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유아들은 이 과정에서 식품군과 영양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자신이 평소 자주 먹는 음식과 관련한 활동으로 경험하면서 자신의 식생활을 돌아보며 바른 식생활을 연습할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유아는 각 식품군의 특성과 우리 몸에 가지는 역할에 따라 자신이 먹은 음식을 분류하는 경험을 하고 또래와 함께 탑을 쌓는 활동을 하며 과학과 관련한 생각을 나누며 과학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을 접하게 된다. 유아들은 오늘 먹은 음식이라는 친숙한 소재를 통해 활동에 참여하며 호기심을 느끼며, 일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사고하며 자신 또는 친구가 쌓은 탑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비판성도 기를 수 있다.

Ⅲ. 프로그램 적용과 유아의 변화 분석

본 연구에서 개발한 순환학습모델에 기반한 유아 식생활 프로그램을 경험한 유아의 영양지식, 식행동, 과학과정기술, 과학적 태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 실험에 참여한 교사의 자기 평가지, 연구자와 연구보조자가 각 회기를 진행하며 수집한 사진과 관찰기록지, 교사 및 연구보조자 면담결과 등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순환학습모델에 기반한 식생활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시집단의 담임교사들은 유아

들의 바람직한 식생활에 필요한 영양지식과 식행동에서의 의미 있는 변화에 대해 보고하였다. 실시집단을 담임한 교사들은 순환학습모델에 기반한 식생활 프로그램이 유아들이 평소 자주 접하는 음식에 대한 정보를 다루고 있으며, 스스로 구성한 지식을 유아들의 식생활을 반영하는 활동에 적용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어 영양지식과 식행동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음식과 가정에서 자주 접하는 음식을 경계 없이 다루며, 실제 유아들이 알고 있는 음식을 소재로 이용해 활동하면서 음식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골고루 먹어요' 생활주제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활동내용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식생활 프로그램을 적용하면서 '좋아하는 음식', '맛있는 음식'이면 좋다고 생각했던 유아들이 '우리 몸에 좋은 음식', '음식에 든 여러 가지 영양소' 등에 구체적인 관심을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실시집단 담임교사A의 프로그램 평가지 중에서)

> 어린이집에서 유아들의 식행동 지도는 주로 급·간식 시간에 교사의 지도로 이루어지는데,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역할놀이로 표현해보는 등 유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을 통해 실제 식습관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됩니다. 거의 아침을 먹지 않고 등원했던 유아들이 아침식사의 중요성을 알게 되면서 아침을 먹고 등원하고, 채소를 먹지 않으려고 했던 유아들이 골고루 먹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 하며 채소를 먹어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관찰되었으며, 일과 중 간식을 먹으면서 메뉴로 제공된 음식에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는지 교사에게 설명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실시집단 담임교사B의 프로그램 평가지 중에서)

실제로 프로그램이 진행된 실시집단에서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 목표로 하는 바람직한 식생활에 필요한 영양지식과 식행동이 증진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다음은 실시집단이 순환학습모델에 기반한 식생활 프로그램을 통해 유아들이 먹어 본 음식이 속한 식품군과 각 영양소가 하는 역할과 관련한 영양지식의 습득을 경험하고, 아침식사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하는 식행동의 증진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유아 1: 설렁탕이 1층 맞아?
> 유아 2: 설렁탕 쌀 친구 아니야? 먹으면 힘나잖아.
> 유아 1: 1층에 있는 음식은 다 파란색 블록인 것 같은데, 설렁탕만 빨간색 블록이야
> 유아 2: 왜 그럴까?
> 유아 3: (게시된 식품구성탑 활동자료를 가리키며) 여기 봐. 설렁탕 3층이야. 고기로 만드나봐.
>
> (활동 관찰일지 중에서)

> 유아 1: (등원 후 아침식사를 기록하며) 나 오늘은 아침 먹고 왔어.
> 유아 2: 나도 씨리얼 먹었어.

유아 1: 나는 미역국이랑 밥 먹었어. 어제는 아침을 안 먹고 왔는데 아침간식 먹을 때까지 배고팠어.
유아 2: 초등학교에 가면 아침간식을 못 먹어서 점심 먹을 때까지 배고프데.
(활동 관찰일지 중에서)

또한 유아들이 속한 가정으로부터 영양지식 및 식행동 변화와 관련하여 보고가 이루어졌는데, 유아들은 식생활 프로그램에서 가공식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음식들이 생산되고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는 과정에서 각 음식의 특성을 알고,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은지 알게 되었다. 또한 식생활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평소 식행동을 돌아보고 건강한 식행동을 알고 실천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 친구들과 함께 가공식품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이는 치즈팀이라며, 치즈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치즈에는 왜 구멍이 있는지를 엄마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 평상시에 집에서 자주 먹으려고 하던 단 음식(사탕, 초콜릿) 섭취를 스스로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 늦게 일어나 항상 아침을 먹지 못하고 등원했었는데, 내일은 꼭 아침을 먹고 갈 거라며 일찍 깨워달라고 몇 번이나 말하고 잠들었습니다.

-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는 것을 엄마도 ○○에게 이야기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식생활을 점점해보는 과제물을 하다가 ○○가 식사 전에 손을 안 씻는다는 것을 알고 반성했습니다. 앞으로는 식사 전에 손을 씻겠다고 하네요. 이런 과제물을 하는 것이 재미있는지 아주 적극적으로 열심히 했어요. (알림장을 통한 식생활 프로그램에 대한 부모보고)

순환학습모델에 기반한 식생활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시집단의 담임교사들은 유아들이 식생활과 관련한 순환학습을 통해 과학과정기술과 과학적 태도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를 나타내었다고 평가하였다. 실시집단을 담임한 교사들은 순환학습모델에 기반한 식생활 프로그램이 관찰하기, 분류하기, 측정하기, 추리하기, 예측하기, 의사소통하기 등 과학과정에 필요한 기술들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유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식생활과 관련한 주제로 과학적 지식과 개념을 다루면서 과학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끼는 경험이 반복되어 과학적 태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오전 또는 오후 자유선택활동시간을 이용하여 유아들이 식생활 프로그램에 포함된 활동에 계속해서 흥미를 보이고 참여 해보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음식블록들을 쌓아보며 기준에 따라 음식을 분류 해보기도 하고, 밥상을 차리는 활동을 하며 활동자료인 앞치마에 먹은 음식에서 발생한 에너지를 체크하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러한 활동 중에 활동 내용과 관련해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는 경험을 하면서 자신

이 가진 생각을 나누는 상호작용기술이 향상됨을 느꼈습니다. 한 끼 식사의 열량을 체크한 후 우리 몸에 필요한 열량이 얼마만큼 인지, 잉여량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활동에 참여한 후 실제 급·간식 시간에 관련 이야기를 나누며 유아들이 대략적인 자신의 식사량을 계산해보는 모습도 관찰되었습니다.(실시집단 담임교사A의 프로그램 평가지 중에서)

생채소, 가공식품 등 다양한 실제 식품 탐색과 모형을 이용한 충분한 놀이를 통해서 월령이 낮은 유아들도, 높은 유아들도 좋아하는 음식과 평상시에 자주 접하는 식품들에 쉽게 접근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가공식품에 대해 조사해오고 발표하면서 유아들이 평상시에 먹는 가공식품에 관심을 가지고, 음식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채소가 들어간 레시피를 작성하고 요리활동에 참여한 후로는 미술영역에서 자신이 생각해 낸 채소 음식들을 그리거나,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나름의 레시피를 개발해보는 모습도 관찰되었습니다.(실시집단 담임교사B의 프로그램 평가지 중에서)

실제로 프로그램이 진행된 실시집단에서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 목표로 하는 식생활과 관련한 순환학습을 통한 과학과정기술과 과학적 태도의 증진을 직접 경험하고 있었다. 다음은 실시집단이 순환학습모델에 기반한 식생활 프로그램을 통해 합의된 기준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과학과정기술의 증진을 경험하고, 자료에서 정보를 찾고 활용하며 또래와의 의사소통 하는 등 협동성을 보이며 과학적 태도의 증진하는 기회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아 1: (초콜릿 포장 위 숫자를 가리키며)찾았다. ○○초콜릿 하나에 설탕이 12가 들어가 있어.
유아 2: 그럼 내가 설탕을 12만큼 담아볼게. (숟가락으로 설탕 1숟가락을 떠서 저울 위에 올리며)하나.
유아 3: 한 숟가락 담으니까 2네.
유아 2: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숟가락이야. 6 숟가락을 올리니까 저울이 12가 됐어.
유아 1: 이제 여기 ○○초콜릿에 들어있는 설탕의 양이라고 쓰자.

(활동 관찰일지 중에서)

유아 1: 그 다음은 뭘 해야 하지?
유아 2: 잠깐만, 내가 보고 올게. (게시판 앞으로 가서 유아들이 채소 탐색 후 함께 작성한 레시피를 살펴보며)마요네즈를 넣을 차례야.
유아 1: 얼만큼 넣어?
유아 2: 감자 한 개에 한 숟가락씩.
유아 1: 그럼 우리 감자 5개 넣었으니까 5숟가락 넣을게.

(활동 관찰일지 중에서)

교사들은 유아들의 영양지식, 식행동, 과학과정기술, 과학적 태도가 증진된 것이 순환학습 구조에 의해 반복되는 식생활에 대한 활동에 대해 유아들의 관심과 흥미가

높았기 때문이라고 평가하였다. 이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식생활 프로그램에 순환학습모델을 도입한 것이 효과적이었음을 말해준다. 또한 교사들은 활동마다 유아-유아, 교사-유아, 환경-유아 간 자유로운 상호작용이 허용되는 분위기에서 유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탐색한 내용을 공유하며 함께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순환학습모델에 기반한 유아 식생활 프로그램에 상호작용적 교수법을 적용한 것이 적절한 접근법이었음을 말해준다.

> 처음에는 유아들이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음식에 대한 흥미에서 단순하게 활동에 접근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면, 회기가 반복될수록 유아들이 다음 단계에서 할 활동을 예측해보거나, 확장활동으로 어떤 활동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싶은지 계획하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을 소중히 여기고 바르게 먹는 방법을 소개하는 캠페인을 준비할 때, 유아들이 캠페인을 한다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이야기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활동에 상호작용적 교수법의 '질문', '계획세우기', '교실에서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등을 적용하여 교사가 유아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유아들끼리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서 더 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연구보조자의 면담내용 중에서)

더 나아가, 교사들은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난 것이 유아 식생활 프로그램이 다루고 있는 교육내용이 현재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식생활 관련 교육내용을 포함하면서도 앞으로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할'균형 있는 섭취, 몸에 좋은 음식, 바른 식사태도'를 포함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이러한 주제를 다루는 방식으로 순환학습모델을 적용하여 의미 있는 접근법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 식생활 프로그램이 보건소에 영양교육이나, 건강·위생 교육시간에 멀티미티어 자료를 보며 이야기 나누는 활동, 급·간식 시간에 유아들에게 개별적으로 제공되는 식사지도 시 다루는 내용을 모두 포함하면서도, 좀 더 다양하고 포괄적인 내용을 반복되는 단계에 따라 다루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유아들의 음식이나 영양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보조자의 면담내용 중에서)

> 기존에 어린이집에서도 '바른 식사태도'에 대해서 일과 중 급·간식 식사지도 등의 방법으로 다루어왔지만, '바른 식사태도'라는 주제에 대해서 유아들의 실제 식생활을 다루고 행동으로 연습 해 보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여러 번 이야기해주어도 동기부여가 어려워 식사에 바른 자세로 참여하지 못했던 유아들이 골고루, 바르게 먹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실천하며 주변에 알리는 활동을 경험하면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시집단 담임교사C의 면담내용 중에서)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의 바람직한 식생활을 형성하기 위한 순환학습모델에 기반한 식생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유아의 영양지식, 식행동, 과학과정기술, 과학적 태도에 일어난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순환학습모델에 기반한 유아 식생활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유아의 영양지식과 식행동에 의미 있는 변화가 관찰되었다. 프로그램 적용 이전에는 일상에서 유아들이 '좋아하는 음식', '맛있는 음식'에 대해서만 관심을 표현했던 것과 달리, '몸에 좋은 음식'이나 '음식에 든 영양소'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게 되었음이 실시집단 담임교사를 통해 보고되었다. 실시집단 담임교사와 부모의 보고에 의하면, 실제로 유아들이 급·간식 시간에 골고루 먹으려고 노력하거나 아침을 먹고 오는 횟수가 증가하였으며, 단 음식 섭취량을 조절하고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으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프로그램을 직접 실행한 연구보조자와의 면담에서 순환학습과정에서 유아들이 알아본 지식을 유아들의 실제 식생활에 적용하는 과정이 유아들이 바람직한 식생활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행동변화를 위한 동기를 부여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교실상황을 참여관찰한 사례에서도 유아들은 자료를 탐색하거나 그 결과를 또래와 상호작용하며 과학적 개념으로서의 영양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반영하여 어린이집에서와 가정에서의 식행동을 변화시켜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순환학습모델에 기반한 식생활 프로그램에서 학습자가 식생활을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 경험 속에서 과학의 내용과 구조로서의 영양지식을 발견하고 습득한 영양지식을 유아들의 실제 식생활에 적용 해 보는 경험을 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본 프로그램의 기반이 되는 순환학습모델은 참여, 탐색, 설명, 확장, 평가 단계가 순환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유아들이 주도적으로 식생활과 관련한 자료를 탐색하고 영양지식을 구성할 수 있었다. 더불어 순환학습모델은 제시된 대상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단순한 발견학습법이 아닌, 순환단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기에 적합한 교수법이므로(Settlage, 2000), 유아들이 구성한 지식을 식행동에 적용 해 보는 과정으로의 확장이 유아들이 바람직한 식생활을 위한 식행동을 연습하고 앞서 획득한 영양지식을 정교화 하는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생물지식에 대한 인지 및 추론이 가능해지는 만 5세 유아들(김경아·이현진·김경숙, 2007)이 영양지식을 식품과 영양에 대한 지식을 인식하는 과정에 대한 과학적 구조(Axelson·Brinberg, 1992)로 접하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복된 식행동의 축적으로 형성되는 식생활을

일정한 조건 하에 되풀이하여 지도하며 반복하여 실행함으로써 효과가 나타난 것을 의미한다(박인영·이심열, 2006; 심유진·김진순·지세민·손태용·황진아·정은정, 2010). 이러한 결과는 실천 문제 중심 학습을 적용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이 영양지식과 식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연구(권영주, 2015)와 순환학습의 학습주기를 건강교육 프로그램에 적용하여 건강을 위한 행동의 실천에 미친 효과를 검증한 연구결과(김정미·안지영, 2015a)와 관련이 있다. 생물, 우리 몸의 생김새, 혈액순환, 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순환학습을 통해 학령기와 청소년기 학습자가 탐구과정에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과정에서 생명체와 자연환경과 관련된 지식이 증진되었다는 결과들(김미지, 1993; 신희연, 2016; 윤영주, 2008; 정영희, 2011)과도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식생활 프로그램에 순환학습모델을 도입하여 유아가 영양지식을 과학적 개념에서 경험하도록 하고, 이렇게 구성한 영양지식을 실제 유아들의 식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프로그램 설계가 적절하였음을 시사한다.

순환학습모델에 기반한 유아 식생활 프로그램은 유아의 과학과정기술과 과학적 태도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왔다. 프로그램 적용 이전과 비교했을 때 유아들이 일상생활이나 활동 중에 관찰, 분류, 측정, 추리, 예측, 의사소통 등의 과학적 기술을 사용하며 문제에 접근하거나, 어린이집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 속에서 보다 쉽게 과학적 요소를 발견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과학의 과정에서 또래와 협동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프로그램의 실행을 보조한 연구보조자의 면담내용에 따르면, 유아들은 순환학습과정에 따라 진행되는 활동에서 과학적 구조를 발견하고 회기가 거듭될수록 앞으로 일어날 활동을 예측하고 계획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프로그램의 진행에 상호작용적 교수법을 적용하여, 순환학습 속에서 '질문', '계획세우기', '교실에서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등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교실 상황을 참여관찰한 사례에서도 유아들은 음식에 넣어야 할 재료의 양 또는 유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에 들어간 설탕의 양을 측정, 비교하거나, 레시피 등의 객관적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 단계의 행동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등의 과학적 태도를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유아가 순환학습에서의 참여와 탐색을 통해 형성한 과학적 지식을 주체적으로 적용해 보는 단계를 거치면서 능동적으로 기능을 구성한 것(Odom·Kelly, 2001)으로 판단되며, 순환학습의 통합적 성격이 유아들로 하여금 새로운 지식, 기능, 태도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도록 도움을 주었다(Dixon, 1999)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식생활 프로그램의 목표는 식생활 그 자체뿐만 아니라 과학의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의 증진과 과학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는데 두고 개발되었으므로, 유아는 사전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각 순환학습의 단계와 자신의 식생활을 연결하면서, 자신의 선개념을 돌아보고 인지적 갈등을 접하게 되었다. 이 때, 유아들은 활동요소인 식생활 지식과 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에 참여하면서 과학과정기술을 습득하고, 친근한 소재로부터 과학을 접하면서 과학을 즐거운 경험으로 접하게 되었으므로 더 높은 수준의 과학적 태도를 형성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프로그램의 진행에서 교수학습방법으로 도입한 상호작용적 교수법은 각 단계에서 유아들의 사회적 교류를 활발하게 하는데 기여하였고, 과학과정기술이 포함하는 '의사소통'기술이나 과학적 태도가 포함하는 '비판성', '협동성' 등을 동반상승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순환학습이 과학과정기술과 과학적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연구(김순식, 2016; 동효관·송미영·신영준, 2010)와 순환학습을 통한 그림책 통합 요리활동이 유아의 과학과정기술과 과학적 태도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검증한 연구결과(황윤세, 2011)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식생활 프로그램에 순환학습모델을 도입하여 유아가 식생활이라는 친숙한 소재를 활용한 활동을 통해 과학기술을 개발하며, 과학적 경험에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과학에 대한 긍정적 감정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한 프로그램 설계가 적절하였음을 시사한다.

한편, 본 연구의 유아 식생활 프로그램은 순환학습모델에 기반하여 개발되어 실시 집단 담임교사들로부터 유아들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단계에 흥미를 가지고 예측 해보며 주도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는 순환학습모델에 기반하여 개발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선행연구(김정미·안지영, 2015a; 황윤세, 2011)가 유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 것을 보고한 연구결과와 일관된다. 또한 순환학습모델에 기반한 식생활 프로그램을 적용할 시 도입된 상호작용적 교수법은 유아들이 탐구하는 과정에서 유아들을 둘러싼 환경과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유아들 각자가 구성한 지식을 공유하며 확장하는데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는 상호작용적 교수법을 적용한 연구가 과학적 개념, 과학과정기술, 과학적 태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밝힌 연구(이경민, 2000; 추명숙, 2015)와 맥락을 같이하는 동시에, 기존에 과학 프로그램에 주로 도입되었던 상호작용적 교수법을 식생활 프로그램에 도입하여 효과를 확인하였으므로, 상호작용적 교수법이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접근법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순환학습모델에 기반한 유아 식생활 프로그램은 식생활 프로그램에 과학교육의 이론과 개념을 반영하는 순환학습모델과 상호작용적 교수법을 도입하여 식생활 교육이 가지고 있는 탐구적 특성을

조명하고 과학과 관련한 정의적 영역에서의 향상을 확인하여, 신체 및 건강과 관련한 식생활에서 더 나아가 인지영역에서의 교육적 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기존의 식생활 관련 프로그램의 내용과 누리과정 관련 교육내용을 분석하여 3가지 주제인 '균형 있는 섭취', '몸에 좋은 음식', '바른 식사태도'를 도출하여,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식생활 교육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현장교사들은 기존에 어린이집에서 일상적 혹은 일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식생활과 관련한 교육을 포함하는 동시에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보육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였다는 평가를 하였다.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첫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식생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유아 식생활의 중요성을 제시한데 있다. 유아기는 식생활 습관 형성에 있어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영양 또는 식생활 프로그램 개발은 유아보다 초등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직전의 학령전기 후반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건강한 식생활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하였다. 초등학교 입학 후에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하루 종일 먹기보다는 방과 후 시간 등을 이용하여 스스로 음식을 선택할 기회가 많아지므로, 프로그램을 통해 몸에 좋은 음식을 선택하기 위한 지식과 행동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였다. 둘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선행 식생활 프로그램은 연구대상인 유아의 식생활과 관련한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였거나 식생활의 중요한 요소인 지식과 이를 실제에 적용한 행동을 총체적으로 다루는 접근법에 대한 고민이 결여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내용과 방법으로 구성된 식생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5E 순환학습모델과 상호작용적 교수법을 도입하여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기존에 유아의 식생활과 관련하여 혼재되어 사용하던 용어를 재정의하여 식생활의 요소를 지식과 행동으로 나누어 제시함으로써 유아들이 순환학습 탐구과정에서 식생활과 관련한 지식과 행동을 유의미하게 다루도록 하였다. 동시에 식습관 또는 식태도보다 더 넓은 범위를 정의하는 식행동이라는 용어를 재조명하였으며, 순환학습모델에 의한 과학적 순환경험 속에서 유아들이 자발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며 탐구하도록 하여 영양지식과 식행동 사이에 존재하는 동기유발의 측면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이 가지는 논의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 보육 및 교육기관에서 급·간식 시간, 건강·위생 교육시간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단발성 식생활 교육보다는 유아의 발달에 적합하며 체계성을 가지는 식생활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식생활이 유아에게 가지는 의미에 대한 연구와 발달

에 적합한 식생활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 및 적용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요구된다. 유아의 발달을 국가적·사회적으로 지원하고, 더 나아가 유아들이 바른 식습관을 가진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은 식생활과 관련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순환학습모델에 기반한 유아 식생활 프로그램과 같은 구성주의적 접근의 식생활 교육을 보육과정으로 통합 운영하여, 유아가 기관에서의 식생활 경험을 식생활 지식과 행동을 습득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유아 보육 및 교육 기관에서 급·간식 지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사들을 위한 교사교육 프로그램이나 부모들이 가정에서 식사 지도 시 경험하는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지원 프로그램의 형태로도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식생활 교육과 연계할 수 있는 유아 대상 영양사 또는 급·간식 관련 예·결산을 집행하는 원장을 대상으로 하는 식생활 운영에 대한 교육 체계가 필요하다. 이로써 유아보육 및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식생활과 식생활 교육의 효과적 운영에 대한 사회적 역할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정책방향의 설정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순환학습모델에 기반한 식생활 프로그램을 적용받지 않거나 타 모델에 기반한 식생활 프로그램을 적용한 비교집단이 존재하지 않아 개발 프로그램의 적용 결과를 실시집단 내의 의미 있는 변화에 대한 교사의 관찰 보고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비교집단을 선정하고 유아 변인들을 직접 측정하여 적용 결과를 양적으로 비교, 검증하는 연구가 시행될 필요가 있겠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실시집단 유아의 수나 요구도 질문지를 수행한 교사의 수가 많지 않아 추후에는 연구대상 수를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프로그램의 효과가 일정기간 지난 후에도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추후 관찰이 필요하겠다.

참고문헌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가족부(2013).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국민건강보험공단(2017). 2016 건강보험 주요통계.

권기남·성미영(2012). 유아의 식행동 문제에 대한 정서성의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0(2), 1-10.

권영주(2015). 실천 문제 중심 학습을 적용한 녹색식생활 교육이 유아의 영양지식 및 식생활태도에 미치는 효과.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경아·이현진·김영숙(2007). 일상생활의 대화에서 나타난 아동의 생물 지식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0(3), 57-81.

김길숙(2016). 유치원·어린이집에서의 영양·식생활 교육과 신체활동 현황 및 문제점. 육아정책연구소

김미지(1993). 소화에 대한 중학생 성취도에 미치는 순환 학습과 전통적 설명식 학습의 효과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상희·김옥선·최해연·박수선·권수연(2013). 아동영양학. 서울: 파워북.

김순식(2016). 탐색을 강조한 순환학습이 초등학생들의 과학학습 동기 및 과학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지구과학교육학회지, 9(1), 54-64.

김승희(2015). (교수-학습 모형과 방법을 활용한) 유아과학교육. 서울: 학지사.

김유경·천종희(2000). 도시지역 학령 전 아동의 식습관과 체위 및 비만과의 상관관계 연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5(5), 349-360.

김일옥·최경순(2011). 아동영양학, 경기: 공동체

김정미·안지영(2015a). 학습주기를 활용한 건강교육 프로그램이 유아의 건강 인식, 지식 및 실천에 미치는 효과. 열린유아교육연구, 20(6), 379-403.

김정미·안지영(2015b). 학습주기를 활용한 유아영양교육 프로그램 개발. 열린부모교육연구, 7(4), 35-49.

김지숙(2003). 유치원에서의 유아의 식사행동과 교사의 급식지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진희(2012). 아동의 과체중, 비만과 정신건강문제의 관계-집단따돌림의 매개효과. 한국아동복지학, 40, 201-228.

김하종·김주연·김경숙(2012). 외모 및 체형에 대한 5세 유아의 인식 및 경험 분석. 유아교육학논집, 16(5), 209-231.

김혜민(2009). 유아 식생활 지도에 대한 유치원 교사와 부모의 인식 비교. 강릉원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동효관·송미영·신영준(2010). 5E 순환학습이 초등학생의 과학 학업 성취도와 탐구 능력 및 과학적 태도에 미치는 효과. 초등과학교육, 29(4), 567-575.

박소현(2009). 요리활동 중심의 유아 영양교육프로그램 개발.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유미·안연경(2012). 부모· 교사의 영양지식, 식습관, 식생활지도와 유아의 영양지식, 식습관의 관계.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13(1), 67-91.

박인영·이심열(2006).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의 식생활 단원 교육이 학생들의 영양 지식, 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8(4), 25-38.

보건복지가족부·질병관리본부 (2015), 2014 국민건강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 2차 년도.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2015),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색동유치원(2000). 환경교육 수업안. 서울: 양서원.

신희연(2016). 순환 학습 모델을 적용한 중학교 과학의 혈액 순환에 대한 디지털 교재 개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심유진·김진순·지세민·손태용·황진아·정은정(2010). 초등학교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에서 수행한 영양 및 신체상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한국영양학회지, 43(4), 382-394.

윤영주(2008). 초등학생의 인체에 관한 선개념 유형별 5E 순환학습모형의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경민(2000). 상호작용적 교수법에 의한 과학교육이 유아의 과학적 개념, 탐구능력, 태도에 미치는 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경민(2004). 유아과학교육. 서울: 정민사.

이명희·박연희·이민준·김갑영·한국보육교사교육연합회(2012). 아동영양학. 파주: 양서원.

이수진(2003). 유아를 위한 생태적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보경(2002). 유치원의 중식 지도 현황 조사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주연(2011). 식생활교육에 대한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의 인식도 및 요구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남련·김진혜·권경미·권순남·강은숙·홍은미·손현숙·이성은(2010). 아동영양학. 파주: 양서원.

정성림(2014). 부모의 식습관 중재와 유아 식생활의 관련성.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영희(2011). 고등학교 생물수업에서 학습 동기를 고려한 5E 순환학습 모형의 효과.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혜민(2009). 유아교육기관 급식실태와 교사의 식생활지도 및 영양지식에 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3) http://korea1391.org

채영숙(2005). 유야교육기관에서의 생태적 식생활 프로그램 운영 및 효과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애경·임재택(2004). 유아와 어머니의 식생활에 관한 조사연구. 유아교육논총, 13(2), 19-38.

최용득·김명숙(2010). 영유아의 건강과 영양. 서울: 파란마음.

추명숙(2015). 상호작용적 교수법에 의한 누에 기르기 활동이 유아의 과학적 개념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하정연·임재택(2006). 유아를 위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열린유아교육연구, 11(4), 215-240.

홍연홍(2014). 요리활동을 중심으로 한 유아 영양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배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황윤세(2011). 학습주기를 활용한 그림책 통합 요리활동에 따른 유아의 과학적 태도와 탐구능력의 차이분석. 한국영유아보육학, 67, 245-271.

KBS(2015.1.13.) 9시 뉴스 “왜 김치 남겨” 어린이집 교사가 네살배기 폭행“.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001522

Axelson, M. L., & Brinberg, D. (1992). The measurement and conceptualization of nutrition knowledge. *Journal of Nutrition Education, 24*(5), 239-246.

Dixon, N. M. (1999). *The organizational learning cycle: How we can learn collectively*. Brookfeild, VT : Gower Publishing,

Gallenstein, N. L. (2003). *Creative Construction of Mathematics and Science Concepts in Early Childhood.* Olney, MD: Association for Childhood Education International.

Llewellyn, D. (2013). *Inquire Within: Implementing Inquiry-and Argument-Based Science Standards in Grades 3-8.* Thousand Oaks, CA : Corwin Press.

Odom, A. L., & Kelly, P. V. (2001). Integrating concept mapping and the learning cycle to teach diffusion and osmosis concepts to high school biology students. *Science Education*, *85*(6), 615-635.

Settlage, J. (2000). Understanding the learning cycle: Influences on abilities to embrace the approach by preservice elementary school teachers. *Science Education*, *84*(1), 43-50.

·논문접수 8월 9일 / 수정본 접수 9월 6일 / 게재 승인 9월 19일

·교신저자: 김지현,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이메일 jihyunkim@mju.ac.kr

Abstract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Dietary Education Program Based on Learning Cycle Model for Young Children

Suk-hyun Jang and Ji-hyun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how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dietary education program based on learning cycle model affects young children's nutrition knowledge, dietary behavior, science-process skills and attitude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five-year-olds and four-year-olds who passed their birthday(total 23) in H day care center in G City. The aim of the dietary education program for young children is to improve their nutrition knowledge, dietary behavior and science-process skills and attitudes through the learning cycle associated with dietary life. The 5E Learning Cycle model by Gallenstain(2003) was adopted as the foundation of the study. The following three topics were discussed on the program based on the Nuri Curriculum: balanced diet, selection of healthy food, values of food and good table manners. The interactive approach was applied to teaching-learning method. As a result, the dietary education program was effective in enhancing nutrition knowledge and dietary behavior and producing positive changes in science-process skills and attitudes. It can be implied that it is appropriate to develop the dietary education program based on the learning cycle model and the interactive approach, which reflect scientific concepts and theoretical backgrounds.

Key words: learning cycle model, dietary education program, nutrition knowledge, dietary behavior

육아정책연구
제11권 제2호(2017. 9.) 149~167

일본 신(新)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의 문제점과 시사점 고찰

이규림[1)]

요 약

본 연구는 그 동안 정부 주도의 유보통합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보다 먼저 기관 통합을 시도하였던 일본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유보통합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탐색하고자 하였다. 2006년 일본은 유치원과 보육소 기능을 통합한 이른바, 인정어린이원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 초기 제도는 실패하였고 2015년 4월 '아동·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신(新) 제도' 실시와 함께 인정어린이원법을 개정하여 기존 인정어린이원 유형 중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을 보완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관련 선행연구, 일본 정부의 심의회 및 검토회 보고서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유치원과 보육소의 역사, 유보 일원화에 대한 시도 및 과정, 인정어린이원의 현황, 문제점 및 과제를 도출하였다. 신(新)인정어린이원의 문제점 및 과제로는 국가의 책무성 저하, 행정 복잡성 초래, 유형 간 상이한 설치기준, 기존 기관 대상 전환 유도책 미흡을 들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논하였다.

주제어: 유보통합, 신(新)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 유치원, 보육소

Ⅰ. 서론

우리나라의 영유아교육·보육기관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초기 이 두 기관은 설립목적이 달라서 보완관계로 시작하였으나 점차 역할과 기능, 담당 대

1)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상이 유사해지면서 서로 대치되는 갈등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의사결정과 합의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이 사실을 유아교육 및 보육계의 구성원들도 잘 알고 있기에 유보통합 즉, 유아교육과 보육의 일원화를 위한 시도들이 주기적으로 있어 왔다. 그러나 애초부터 하나는 학교로, 다른 하나는 아동복지시설로 설립 및 관리・감독되어 왔고 행정체계(교육청과 지자체), 목적 및 강조점(교육과 보육 서비스) 등이 다르며 구성원들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통합에 대한 시도가 엎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2012년 새 정부가 들어서고 국가수준 통합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제정・공포함으로써 교육과정은 통합을 이루었으나 여전히 기관은 이분화되어 있다. 이에 정부는 2014년 2월 국무조정실에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이후 통합추진단)을 창단하여 3단계에 이르는 통합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1단계는 정보공시 및 결재카드 통합, 2단계는 재무회계 및 시설 기준 통합, 3단계는 교사양성자격 통합 및 처우 격차 해소, 관리부처 통합 등을 순차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러나 통합추진단은 추후 통합 계획에 대하여 함구하고 모르쇠로 일관(이데일리 2016. 9. 29 '교육부, 복지부 주도권 다툼에 유보통합 3년째 제자리')하고 있어 당초 계획이었던 2016년 내 통합 추진은 물거품이 되었다. 특히, 현장의 기대와는 달리 유치원과 어린이집이라는 두 기관에 대한 통합(하나의 기관으로 통합, 연령별 통합 등)은 처음부터 언급조차 되지 않아 통합 후 이 기관들의 향방에 대해서는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기관 통합은 현장 관계자들을 인터뷰하였을 때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이고 유보통합하면 기관 통합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는 조사결과(나석희・이현진, 2014: 269)에 비추어 봤을 때에도 기관 통합은 위 3단계에 제시된 정책들과 더불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주요 과제이다.

2017년 5월 현 정부가 구성됨에 따라 '깜깜이 유보통합' 추진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새 정부는 유보통합 정책 '추진'에서 한 발짝 물러서서 그동안 검토해온 과제에 대한 현장의 '의견 수렴'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지난 3년간 진행해온 과제들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에 적용할 것을 기대해 온 것에 비해서는 김이 빠진 모양새이다. 또한 여전히 통합추진단에 의한 비공개 업무로 학계 및 현장 관계자들도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교체되었음에도 유보통합에 대한 새로운 정보나 추진 방향 및 속도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보여 진다. 그러다 지난 6월 정부 주관으로 '유보통합 끝장 토론(조선일보 2017. 6. 12 '20년 제자리걸음 유보통합 속도 낼까')'이 실시됨으로써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정부가 7월 중순에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서 유보통합 정책은 빠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히려 유보통합대신에 유보의 격차 해소에 더 힘을 싣는 경향이다.

우리나라의 유보 이원화 상황과 가장 유사한 일본은 앞서 2006년 기관 통합을 먼저 실시한 바 있다. 이른바, 인정어린이원(認定子ども園)이라고 한다. 유치원과 보육소의 기능을 합쳐서 한 기관에서 유아교육과 보육을 동시에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일본 정부의 당초 계획은 기존의 유치원과 보육소를 인정어린이원으로 전환시켜 완전한 기관 통합을 이루는 것이었으나, 전환율이 기대 이상으로 저조하여 현재 일본에는 유치원, 보육소 그리고 인정어린이원이라는 세 가지 형태의 영유아교육・보육기관이 존재하게 되었다. 특히, 인정어린이원은 유보연계형, 유치원형, 보육소형, 지방재량형으로 다시 분리됨으로써 행정시스템의 비효율성이 더욱 조장되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본정부는 2015년 '아동・육아 3법'을 제정하여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을 학교 및 아동복지시설로서의 지위로 명시하고 인가 및 관리감독, 재원 지급을 단일화하였다. 본 연구에서 언급되는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은 이 '아동・육아 3법'에 의거한 기관을 의미하며 이후부터는 '신(新)인정어린이원'으로 통칭하고자 한다.

현재 진행 중인 정책이므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일이지만, 이러한 전례(前例)를 분석함으로써 한 기관 내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동시에 운영할 때의 장점, 문제점 및 개선사항이 무엇인지,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해 나간 효율적인 방식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일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기관 통합 시 밑그림을 그려볼 수 있으며 우리의 유보통합 현 상황을 되짚어보는 일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3단계 과제인 관리부처 통합에 대한 정책 마련에 있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능을 합친 신(新)인정어린이원은 관리 체계의 효율성, 부모의 이용 수월성 등의 장점이 나열된다. 따라서 유보통합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우리나라 정책에 현실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해 본다.

사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만의 문제가 아니다. 작게는 유아, 부모, 교사, 기관장 등의 관련자들의 일인 것처럼 보이나, 크게 보면 행정체계, 교육・보육재정 등 국가의 큰 틀과도 관련이 있다. 또한 영유아기부터 공교육시스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시점이므로 유보통합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리와 함께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완성시켜나갈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인정어린이원의 개요, 문제점과 과제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기관 통합에 남겨진 과제 및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밀도 있게 논하고자 한다.

Ⅱ. 인정어린이원의 개요

1. 개념

인정어린이원은 유치원과 보육소에서 '보호자의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교육 및 보육을 일원화하는 기능'과 '가정양육을 하는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가정양육 불안에 대한 상담활동, 부모가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소 제공 기능'을 만족시키는 시설을 말한다(文部科學省・厚生勞働省幼保連携推進室, 2006 井上剛男, 2014: 43에서 재인용).

앞서 언급한 바, 인정어린이원의 유형은 4가지이다(井上剛男, 2014: 47). 첫째, '유보연계형'은 인가유치원과 인가보육소가 연계하여 운영하는 형태로서 인가유치원인 동시에 인가보육소의 자격을 지닌다.

둘째, '유치원형'은 인가유치원이 보육적인 기능을 동시에 하는 형태로서 인가유치원이기는 하나 보육소 허가는 받지 않은 시설이다. 유치원이 인정어린이원으로 전환하였을 경우 이 유형에 속한다.

셋째, '보육소형'은 인가보육소가 보육이 필요한 아동 이외의 아이들도 받아서 유치원적인 기능을 하는 시설이므로 인가보육소이기는 하나 유치원 허가는 받지 않아도 된다. 유치원형과 반대로 보육소가 전환하였을 경우 이 유형에 속한다.

넷째, '지방재량형'은 유치원과 보육소 어느 쪽의 인가 없이 지역의 교육, 보육시설이 유치원과 보육소 기능을 병합한 형태이므로 유치원이나 보육소 어느 곳의 허가도 받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인정어린이원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인정어린이원의 현황

단위: 개

구분	유보연계형	유치원형	보육소형	지방재량형	계
공립	451	35	215	2	703
사립	2,334	647	259	58	3,298
계	2,785	682	474	60	4,001

자료: 일본내각부 아동·가정양육본부 홈페이지(http://www8.cao.go.jp/shoushi/kodomoen/index.html)에서 2017년 7월 27일 추출.

2016년 4월 기준 전체 인정어린이원의 개수는 총 4,001개이다. 4개 유형 중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이 2,785개로 가장 많으며 공립보다 사립형이 약 5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정어린이원의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인정어린이원 변화 추이

단위: 개

연도	계	설립유형		유형별 내역			
		공립	사립	유보연계형	유치원형	보육소형	지방재량형
2014	1,360	252	1,108	720	411	189	40
2015	2,836	554	2,282	1,930	525	328	53
2016	4,001	703	3,298	2,785	682	474	60

자료: 일본내각부 아동·가정양육본부 홈페이지(http://www8.cao.go.jp/shoushi/kodomoen/index.html)에서 2017년 7월 27일 추출.

최근 3년간 인정어린이원 개수는 계속 증가 추세이다. 일본의 유치원 수가 11,252개(일본문부과학성 학교실태 조사, 2016년 4월 기준)이고 보육소가 총 23,447개(일본후생노동성 보도자료, 2016. 9. 2)인 것에 비해서는 적은 개수이며 유치원보다 2.5배, 보육소에 비하여 6배가 더 적은 수치이다. 그러나 2015년 4월부터 아동양육지원 신제도가 실시되었으며 내각부는 이 제도를 통하여 신(新)인정어린이원의 양적, 질적 확대를 꾀하고 있다(金井徹・前田有秀・杉山弘子・安田勉・小松秀茂, 2016: 27-28)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장기적으로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으로의 전환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여 진다.

인정어린이원의 법적지위는 유형에 따라 학교 및 아동복지시설의 단일 지위를 지니거나 학교 또는 아동복지시설로서 각각의 지위를 가진다. 교직원 자격은 기관에 따라 아직은 다르나 추후 유치원교원면허장과 보육사자격증을 모두 갖춘 '보육교유(保育教諭)'로 통합할 예정이다. 운영시간은 기본 11시간이 원칙이다. 유치원이 4시간이고 보육소가 11시간인데 보육소 원칙을 따른 것이다. 이러한 인정어린이원의 특성을 유형별로 비교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인정어린이원의 특성 비교

구분	유보연계형	유치원형	보육소형	지방재량형
법적 지위	학교 및 아동복지시설	학교	아동복지시설	유치원+보육소 기능
직원 자격	보육교유 (유보통합자격), 유치원교사+ 보육사 자격	3세 이상: 유보통합자격		
운영 시간	11시간 (토요일 운영 원칙)		11시간 (토요일 운영 원칙)	지역실정에 따름

주: 일본은 유치원과 보육소 통합 자격교사를 '보육교유(保育教諭)'로 명명함.

자료: 일본내각부 아동·가정양육본부 홈페이지(http://www8.cao.go.jp/shoushi/kodomoen/index.html)에서 2017년 7월 27일 추출.

2. 도입과정[2)]

인정어린이원의 도입과정을 살펴보기에 앞서, 유치원과 보육소의 시초 및 유보통합에 대한 지속적인 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가. 유치원과 보육소의 시초

일본은 1872년에 제정된 '학제(學制)'의 22장에 '유치원, 소학교는 남녀 6세를 대상으로 하며, 소학교 2학년에 들어가기 전 인생의 초석을 가르친다(제22장)'라고 유아교육시설에 대한 설명이 명문화되어 있다. 이는 프랑스의 '육유원(育幼院)'이라는 시설을 형식적으로 조문화시킨 것이지 실제로 시설이 설립된 것은 아니었다.

1876년 일본 최초로 도쿄여자사범학교 부속유치원이 세워지면서 본격적인 유아교육이 시작되었다. 이후 도쿄여자사범학교 부속유치원에서 파견된 여성교원에 의하여 1987년 4월에는 가고시마여자사범학교 부속유치원이, 1879년 5월에는 오사카부립 모범유치원이 개원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부유층 자녀의 취학 전 준비교육기관의 특성이 강하여 일반 서민을 위한 유치원으로 보기 어려웠다. 이후 문부성은 1884년 2월 유아의 소학교 입학을 금지하고 서민 자녀도 다닐 수 있는 유치원을 전국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1892년 9월 도쿄여자사범학교도 일반가정 자녀를 위한 '분실(分室)'이라는 유아교육기관을 개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은 대부분 대도시에 설치됨으로써 부유층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기관으로 인식되었다.

한편, 정부는 대도시에서 지방으로의 유치원 보급에 힘쓰면서 기존의 부유층 자녀 교육기관이라는 이미지와는 다른 교육 즉, 보육시설을 탄생시켰다. 초기에 학령기 아동이 영유아인 동생을 보살피는 관습이 있어서 학교에 동생들을 데려오는 경우가 많았고 그렇다보니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 차원에서 그들이 데려오는 영유아를 수업이 끝날 때까지 보호하는 '별실(別室)'을 만들었다. 또한 농번기에 바쁜 부모를 대신하여 자녀를 맡아주는 '농번기 탁아소'가 생겨났다. 이것이 일종의 보육기관인 탁아시설의 시초이다.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로 영유아 자녀가 있는 어머니들의 취업이 늘어나면서 노동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탁아소 개설이 활성화되었다. 일본 최초의 탁아소는 1894년 도쿄방적주식회사에 부설된 곳이고 이후 1896년 후쿠오카의 미츠이탄광, 1900년 가네가후치방적주식회사, 1906년 일본벽돌제

2) 井上剛男(2014)의 연구, 일본내각부 아동・가정양육본부 홈페이지 (http://www8.cao.go.jp/shoushi/kodomoen/index.html) 자료를 참고로 재구성하였음.

조주식회사에도 탁아소 개설이 이어졌다.

이와 같이 일본의 유아교육・보육은 유치원과 탁아소라는 2개의 다른 기관에 의하여 탄생하였고 현재도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이 각각 관할하면서 이원화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1950년대 이후 유치원과 보육소의 차이는 더욱 명확해졌다. 즉, 1951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면서 보육소 대상아를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로, 유치원은 '이와 같은 제한이 없는 유아'로 정하고 유치원과 보육소의 관계를 정리(1971년)함으로써 더욱 명백해졌다.

나. 유보통합에 대한 지속적인 시도

이러한 분명한 태생적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유보통합에 대한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여러 차례의 시도 중 첫 번째가 '교육과정 통합'이다. 우리의 누리과정과 같은 교육과정에 대한 통합이 일찍이 1948년에 시도되었다. 바로 유치원의 '보육요령' 편찬이 그것이며, 문부성에서 유아교육내용 조정위원회(1947년 2월 설치)를 설치하여 유치원의 보육내용 기준을 정하였고 그 머리말에 '유치원이나 그 이외의 유아를 위한 시설, 교사나 보모의 인식과 기능을 향상시켜가는 일이 필요하며 그 목적을 위하여 개발되었다'라고 명시하였다.

두 번째는 '연령별 통합' 시도이다. 해외에도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으나 일본에도 이미 1946년 2세 이하는 보육소에, 3-4세 이상은 유치원에 다니게 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1947년 후생노동성 아동국에서는 문부성과 후생성의 허가를 얻어 '유보의 이매간판론(幼保二枚看板論)[3]'을 제안하게 된다. 즉, 0-5세 교육・보육을 문부성과 후생성이 같이 관할하되, 연령에 따라 부처의 차이를 두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현실화되지 못하였고 결국 일본정부는 양 기관 모두 각자의 기능을 발휘해서 유아교육에 힘쓰자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로써 '유보(幼保) 일원화 논쟁은 다시 유보(留保)되었다.'

다. 유보 이원화 체제의 견고화

1950년대 이후 유치원과 보육소는 각자의 기능을 더욱 차별성 있게 견고화시키는 전략을 취하게 된다. 1951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하여 보육소는 그 대상을 '보육이

3) 사전적 의미로 '대표가 되는 두 가지 사항'을 의미함. 여기서는 문부성이나 후생성 어느 한 쪽으로 흡수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일원화된 틀 안에서 부처 간 연령에 따른 차이를 두고 관할하자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음.

필요한 영유아'로 한정하였고 이에 문부성은 1948년 편찬한 '보육요령'을 1956년에 '유치원교육요령'으로 명칭을 개정하여 공시함으로써 교육대상과 교육과정에 대한 차별화를 꾀하였다. 이후 1965년 후생성은 유치원교육요령에 대치되는 '보육소보육지침'을 개발하여 고시하였다.

결정적으로는 1963년에 문부성의 초중등교육국장과 후생성의 아동국장이 협의하여 '유치원은 유아에 대한 학교교육을 실시하며, 보육소는 보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을 행함으로써 두 기관은 그 기능을 명확히 달리한다'라고 '유치원과 보육소의 관계에 대하여'를 발표하였다. 이로써 명실상부 유보 이원화 체제가 표명되었다.

이후에는 유보통합보다는 유치원과 보육소가 우위 다툼을 하는 경향을 보였고 1971년 문부성의 중앙교육심의회는 '이후 학교교육의 종합적인 확충정비를 위한 기본적 시책에 대하여'를 발표하고 보육소에 다니는 아동도 유치원에 준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유치원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킨 보육소에는 유치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는 유치원을 보육소보다 우위로 보는 새로운 유보관계를 부각시켰다고 여겨진다. 이를 두고 후생성의 아동가정국 중앙아동복지심의회 보육제도특별부회는 같은 해 '보육과 교육, 어떻게 해야 할까'를 발표하여 중앙교육심의회가 보호와 교육을 분리시키고 있으며 아동복지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주장하였다. 이를 중재하기 위하여 행정관리청은 1977년 '유치원 및 보육소에 대한 간담회'를 열었고 1981년 최종보고서에서 '유치원과 보육소는 각각 학교교육시설과 아동복지시설이며 각자의 목적과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일원화가 실현될 수 없는 상태이다'라고 결론지어 보고하였다.

라. 인정어린이원의 탄생 과정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 또한 저출산(소자화) 대책으로서 영유아교육 및 보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1986년의 출산율 1.58이 1989년이 되자 1.57로 떨어짐으로써 위기의식을 느낀 일본정부는 1990년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1991년 문부성은 3세아의 유치원 취원을 허용하게 되었고 1997년에는 돌봄보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유치원에서의 연장보육을 장려하였다. 한편, 후생성은 1992년 12월 '가정양육 신시대를 향하여'라는 회의 보고서를 계기로 그 동안 3세아까지는 가정양육을 주로 하되 보육이 필요한 아동만 보육소에 맡기자는 주장을 넘어 일시보육(우리나라의 시간제보육)과 가정양육을 위한 육아상담까지 보육소의 역할로 규정하였다.

이로써 보육의 개념이 다양화된 보육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보호자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로 확대되었다. 1994년 시작된 '엔젤플랜'에서는 보육소가 지역의 가정양육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게 되었으며 중앙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도 지방아동육성계획(지방판 엔젤플랜)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러던 중 1996년 12월 지방분권추진위원회가 저출산 시대에 대비하여 유치원과 보육소의 연계 강화 및 시설 종합화를 꾀하도록 권고하게 된다. 이를 문부성과 후생성이 받아들여 1997년 4월 '유치원과 보육소 존속에 대한 검토회'를 설치하고 1998년 3월 유치원과 보육소의 시설 공용화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였다. 결정적으로 2003년 2월 종합규제개혁회의에서 '규제개혁추진을 위한 액션 플랜 12 항목'에 유치원과 보육소의 일원화를 포함시킴으로써 2006년까지 교육과 보육을 일체화하여 일관성 있는 종합시설을 설치할 것을 검토하게 하였다.

이것이 인정어린이원 제도를 도입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이러한 종합시설이 규제개혁이나 지방분권화라는 정치적 동향을 전제로 하고, 기존 유치원과 보육소의 이원화 체제를 유지하면서 보완적으로 신설되었다는 것이다. 2005년에는 '취학 전 교육과 보육을 일원화시킨 종합시설'의 시범사업이 전국 35개소에서 이루어졌고 시범사업의 결과를 참고하여 2006년 6월 '취학 전 아동에 대한 교육과 보육의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추진 법률'이 만들어졌으며 9월 '취학 전 아동에 대한 교육과 보육의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추진 법률 시행령'이 발표되었고 10월에 드디어 인정어린이원 제도가 시행되었다.

마. 인정어린이원 제도 실시 이후

2008년 7월 발표된 교육진흥 기본계획에서는 제도 시행 5년 내에 인정어린이원을 2,000개원으로 늘리겠다고 명시하였다. 인정어린이원 제도 실시 직후인 2007년 기관수는 94개였고 기본계획이 발표된 2008년에는 229개로 늘어났으며, 5년 후인 2014년에는 1,360개로 현격히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처음 목표치의 70%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다 2015년이 되어서야 2,836개로 늘어남으로써 목표수준을 충족시켰다. 인정어린이원으로의 전환은 의무가 아닌 자율신청에 의하므로 현장의 적극적인 전환 의사가 없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2014년 8월 일본보육협회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인정어린이원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기관은 극히 적고 그 이유는 전환을 해도 큰 메리트가 없기 때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2014년 8월 27일 도쿄 오차노미즈 솔라시티). 어찌

보면 인정어린이원 제도는 일본 정부의 행정 시스템을 효율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제도일 뿐 현장의 요구에는 크게 부합하지 못한 반쪽짜리 정책일지도 모르겠다.

2009년 보육제도 개선을 복지 공약으로 내걸어 집권에 성공한 민주당은 유보시설을 일원화하고 보육 및 육아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아동・가정성(子ども·家庭省)'을 신설하여 인정어린이원에서 '종합어린이원'으로 변경된 명칭 하에 기존 시설들을 전환시키려고 하였다. 인정어린이원의 확대와 폐해 극복을 위한 시도였으나 자민당과 공명당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대신에 자민당과 공명당의 제안에 따라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 확충에 대한 방안이 모색되었다.

이를 위한 제도 개선책이 바로 '아동・가정양육 신제도(이하 신제도)'이다. 저출산이 심화되고 보육정책의 효율화를 위하여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던 찰나에 '신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유치원과 보육소는 그 목적 및 역할이 다르고 각각의 사회적 요구에 대응해 왔으나, 최근 사회구조나 취업형태의 변화를 배경으로 취학 전 아동에 대한 교육 및 보육의 요구는 다양해져 더욱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유치원과 보육소 양쪽의 역할이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시설 설립을 위하여 2006년 '인정어린이원법'이 제정되었고 2012년에는 이 법의 일부가 개정되었으며 2015년 4월부터는 신제도가 시행되었다. 신제도에 의한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을 초기 시설과 구분하기 위하여 임의로 '신(新)인정어린이원'으로 부르고자 한다.

최근 신(新)인정어린이원의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관리감독기관인 내각부에서는 2016년 6월 '신(新)인정어린이원 교육・보육요령의 개정'에 대한 제1회 검토회를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 6차 회의까지 마무리하고 12월 심의회 보고서를 공개하였다. 구체적인 개정의 방향성으로 첫째, 자질・능력에 기초한 교육목표 및 내용의 명확화와 자질・능력을 기르는 학습과정 또는 평가 중시 둘째, 교과 통합적인 시점에서 교육과정의 힘을 발휘시키는 '교육과정 운영'을 들고 있다. 특히, 유아교육에서 길러야 할 자질・능력으로서 지식과 기능의 기초, 사고력과 판단력 및 표현력 등의 기초, 배우려는 힘, 인간성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자기절제나 자존감 등 이른바, 비인지적 능력의 육성, 현대적인 과제를 추구한 교육내용의 재고를 꾀함과 동시에 돌봄보육이나 가정양육의 지원도 충실히 다루었다. 이와 더불어 5세아 수료시까지 길러야 할 구체적인 역량을 명확히 하고 유아교육의 학습 성과가 소학교와 공유되도록 하였다. 유치원 교육요령의 개정내용과 보육소 보육지침 및 신(新)인정어린이원교육・보육요령의 개정내용 간 정합성을 꾀하며 전반적인 유아교육의 질을 확보하고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참고로 2016년 8월 2일에 개최된 제3차 검토회에서는 재원시간이 서로 다른 원아가

있는 경우, 2세에서 3세로의 이동(영아반에서 유아반으로)에 대한 경우 등 매우 구체적인 발생사항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는 세심한 배려도 교육・보육과정에 명시하고자 논의하였다. 이와 같이 개정된 신(新)인정어린이원교육・보육요령은 중앙교육심의회 및 사회보장심의회에서 정합성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개정안을 정리하여 2016년 내에 대신보고(장관보고), 1년간의 시범기간을 거친 다음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Ⅲ. 인정어린이원의 문제점과 과제

인정어린이원은 일본의 메이지시대부터 계속 되어 온 유치원과 보육소의 이원화 체계를 통합한 기관으로, 발생 초기부터 여러 비판과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어떠한 제도이든 새롭게 시작할 때에는 삐걱거리기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 제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여 발전시키는 것이다. 여러 학자들(逆井直紀, 2015; 櫻井慶一, 2015; 長瀬美子, 2014; 井上剛男, 2014)이 지적한 인정어린이원의 문제점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2006년 개설된 초기 인정어린이원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이유는 첫째, 유치원과 보육소를 그대로 두고 제3의 통합기관을 만들면서 일원화가 아닌 삼원화를 초래한 점이다. 둘째, 아동중심이나 권리 증진 차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발의한 제도라는 점이다. 셋째, 기존 시설의 전환율을 높이기 위하여 인정어린이원의 시설 기준을 하향화시킨 점이다. 넷째, 재정 지원의 일체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혼란을 일으켰다는 점이다. 다섯째, 한 기관에 유아기관과 영아기관이 섞여 있다 보니 관리감독 기준이 제각각이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초기 인정어린이원의 문제점은 '아동・양육 3법'에 의한 신제도 시행으로 어느 정도 개선을 예측해 볼 수 있다. 逆井直紀(2015: 105)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신(新)인정어린이원 인가 및 지도감독이 내각부로 단일화되고 학교 및 아동복지시설로서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2014년 8월 '취학전 아동에 대한 교육・보육 등의 종합적인 제공의 추진에 대한 법률'이 일부 개정). 둘째, 다원화되었던 재정 주머니가 '시설형 급부'라는 명칭으로 일원화되면서 재정 확보가 안정되었다. 셋째, 기관 이용시 시정촌의 인정을 받아 1호 인정(만 3세 이상으로 취학 전 보육이 필요하지 않는 아동), 2호 인정(만 3세 이상으로 보육이 필요한 취학 전 아동), 3호 인정

(만 3세 미만으로 보육이 필요한 아동)의 3개 인정 구분이 설정되고 이에 따라 인정어린이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교사는 유치원교사와 보육사 양쪽 자격을 가진 이로 규정하여 자격 기준을 높였다. 다섯째, 교육 및 보육과정은 내각부, 문부성, 후생성 3대신에 의하여 고시된 '신(新)인정어린이원교육・보육요령'이 2014년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현재 개정 작업 중이다. 여섯째, 설치주체를 정부, 지방공공단체,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으로 한정함으로써 기존 NPO 단체나 개인 허가와 차별화를 두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초기 인정어린이원의 문제점을 '아동・양육 3법'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존재한다. 앞서 거론되었던 문제점보다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과제를 논해보고자 한다. 특히, 다음 4가지는 정부의 입장에서 '국가의 책무성' '행정 복잡성'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서비스 이용자인 부모와 영유아가 질 높은 교육・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기관 간 상이한 설치기준'을 통일해야 하고, 서비스 제공자인 기관이 신(新)인정어린이원으로 원활한 전환을 하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유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영유아 교육 및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저하

최근 일본에서는 '보육소 떨어졌다, 일본 죽어라!(保育園落ちた, 日本死ね!)'라는 문구가 핫이슈가 된 적이 있다. 이는 한 인터넷 블로그(2016. 2. 15)에 올라온 글이다. 출산 이후 직장 복귀를 앞두고 1세 된 자녀를 맡기기 위하여 보육소에 지원하였으나 대기아동이 너무 많아 보육소에 떨어진 취업모의 하소연에서 비롯되었다. 이 글의 파급력은 생각보다 컸다. 이에 공감한 엄마들이 국회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이 문구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고 이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그 결과, 현 정부로부터 대기아동을 줄이고 보육소를 확대, 보육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는 성과를 이루어내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사회문제인 저출산 및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책임지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신(新)인정어린이원의 입소 기준은 이에 반하는 실정이다. 기존에 인가받은 보육소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시정촌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시정촌은 보육이 필요한지 판단하여 보육소를 배정하였다. 따라서 장애가 있거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라도 비교적 평등하게 보육소 이용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인정어린이원은 유치원처럼 보호자가 직접 해당 인정어린이원에 입소를 신청하고 그 결정 또한 자체적으로 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어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영유아가 적절한 보육서비

스로부터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는 영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각 가정에 전가하고 정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선 형상이라고 보여 진다.

2. 삼원화 체제로 인한 행정 복잡성 초래

신(新)인정어린이원은 '취학 전 아동에 대한 교육・보육 등의 종합적인 제공 추진에 대한 법률(개정)' 이른바, 인정어린이원법 개정에 기초하여 단일의 인가시설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일방적으로 기존 유치원이나 보육소를 신(新)인정어린이원으로 의무 이행시킬 수는 없는 실정이다. 이로써 일본의 정식 영유아교육・보육기관은 유치원, 보육소, 인정어린이원 세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의무 통합이 아닌 현장의 자율적 전환에 맡기다보니 궁극적 목적인 일원화, 기존의 이원화도 아닌 새로운 삼원화 체제가 유지되는 것이다. 관리・감독기관도 문부성, 후생성에 내각부가 추가되었다. 서비스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는 부모에게 선택권을 하나 더 주는 것이므로 다원화 체제가 좋을 수 있다. 그러나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중복 존재하는 것은 여전히 비효율적이라고 여겨진다.

3. 인정어린이집 유형 간 상이한 설치 기준

앞서, 2006년 인정어린이원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한 이유로 시설설치 및 설비, 운영 기준이 기존의 유치원과 보육소보다 낮게 설정되었고, 국가의 공적 자금 투입이 원활하지 않았음이 지적되었다. 일본정부는 이러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2015년 신(新)인정어린이원의 기준을 기존 유치원이나 보육소에 비하여 높게 설정하고 있다. 즉, 교사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설립자를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으로 제한함으로써 2006년도의 개인, NPO단체, 영리법인 허용보다 엄격히 규제하였다. 다만, 신(新)인정어린이원인 유보연계형 이외의 유치원형, 보육소형, 지방재량형 3가지 유형은 아직도 2006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로써 기관에 따른 보육의 질적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다.

또한 인정어린이원의 두 유형인 유치원형과 보육소형은 어느 한쪽의 허가만 받아도 되는 상황이라서 유치원형의 보육, 보육소형의 교육 부분이 미흡해 질 수 있다. 심지어 지방재량형은 어느 쪽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운영이 가능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는 더욱 커진다. 井上剛男(2014: 48)는 감독기관의 인가(허가) 유무가 인정어린이원의 질에 절대적인 것은 아니나, 일정 수준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임

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인정어린이원이 일정 수준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제각각인 설치 기준을 일관성 있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4. 기존 유치원과 보육소 대상 전환 유도책 미흡

인정어린이원법 개정으로 인하여 일본정부의 재정 조치 제도의 복잡성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즉, 시설형 급부와 지방형 급부로 재정을 통합・정리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의 재정 부담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의 유치원이나 보육소의 입장에서 보면, 인정어린이원 제도가 그다지 매력적인 제도는 아닐 것이며 설사 인정어린이원으로 전환한다하더라도 인적, 물적 인센티브나 메리트가 전무한 실정이다. 단지 행정 편의상 인정어린이원으로의 이행 절차를 간소화시킨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일찍부터 일본은 저출산 대책으로 유치원에서 연장보육을 하고 있다. 굳이 유치원에서 인정어린이원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이미 보육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보육소 또한 대기아동이 고질적 문제인 현 상황에서 굳이 인정어린이원으로 전환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아동수가 감소하여 기관 통합 밖에 길이 없는 기관이 아니라면 인정어린이원 전환에 의한 인센티브 등의 메리트가 없는 이상, 정부의 행・재정 편의성만으로는 현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쉽게 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Ⅳ. 우리나라 유보통합 방향에 남긴 시사점

지금까지 일본의 유보통합 기관인 인정어린이원의 역사, 문제점과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미 기관통합을 한 일본이나 아직 통합하지 못한 우리나라나 모두 '유보(幼保)통합은 유보(留保) 상태'라고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중심이라는 유아교육 및 보육의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분산된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지금까지 살펴본 일본의 사례를 기초로 우리나라 유보통합에 시사하는 바를 다음과 같이 4가지 측면에서 논하고자 한다.

1. 통합 기관 운영 측면

인정어린이원은 한 기관에서 교육과 보육이 동시에 기능하는 통합 기관이다. 우리나라도 유보통합이 이루어질 때 이러한 형태의 기관 통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럴 경우, 연령별로 영아와 유아와 함께 할 수도 있고, 3-5세 유아라도 유치원의 '기본과정+방과후 과정' 선택, 어린이집의 '12시간 종일보육' 선택으로 그 서비스가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1호, 2호, 3호 아동 인정 기준에 따른 교육・보육 서비스의 실행과정을 잘 파악하여 교육과 보육 어느 한쪽으로 기능이 치우치지 않는 균형적 운영을 모색함과 동시에 각 아동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에 고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있다. 일본처럼 기존 유치원과 보육소를 그대로 두고 통합 기관으로 전환을 유도할 것인지, 모든 기관이 전체적으로 한 종류의 통합 기관이 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이다. 인정어린이원이 안고 있는 과제에서도 설명하였듯이, 국가에서 하나의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적용하지 못하면 통합된 하나의 기관 운영은 기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설치기준, 서비스 내용, 관리감독 기준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한번 기관이 통합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만약 실패할 경우 그 피해는 오롯이 영유아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때 일본의 사례를 참고로 유치원, 어린이집, 신(新)인정어린이원을 동시에 염두에 두고 경우의 수를 충분히 검토하여 최종 판단하는 일이 고려되어야할 것이다.

2. 통합 교육·보육과정에 대한 측면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기관 통합을 실시하였으나 교육・보육과정 통합은 우리보다 늦은 2015년 4월 시행하였고 지금도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정어린이원법 제10조 제2항 '유치원교육요령 및 보육소보육지침과의 정합성 확보'가 개정의 핵심사항이다. 즉, 유치원교육요령과 보육소보육지침 각각의 개정을 위한 검토를 하고 신(新)인정어린이원이 참고할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 및 심의를 하는 것이다.

특히, 재원시간이나 일수가 다른 원아가 있는 경우, 기존 보육소보다 보육 서비스가 미흡한 경우 등을 포함하여 신(新)인정어린이원이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언급하며 이러한 세심한 부분도 충실히 해결하고자 한 점은 시사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통합과정 내에 가정양육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 등을 명시함으

로써 책임 있는 가정육아와 이를 최대한 지원하려는 기관, 중앙 및 지자체의 의지도 엿 볼 수 있다. 우리도 영아-유아 통합 교육·보육과정 마련 및 기존 누리과정 개정 시 이러한 세심한 배려사항을 통합과정에 명문화시킴으로써 유아교육 및 보육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통합 교사에 대한 측면

일본은 '보육교유(保育教諭)'라는 용어로 유보통합 교사를 통칭한다. '보호+교육+교원'이 포괄된 의미이다. 유치원교원면허장과 보육사자격증을 모두 취득한 사람이어야 하며 어느 한 쪽만 자격이 있을 경우 교과목을 추가 이수하여 양쪽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도 설정하고 있다. 자격뿐만 아니라 보육교유로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수의 중요성도 강조한다. 그 예로, 원내외의 연수, 공개보육(수업공개와 유사한 의미), 타원이나 외부기관(대학 등)과의 연계에 의한 연수를 들 수 있다. 원내에서의 직무에 대한 명확화, 연수체계에 대한 충실한 검토뿐만 아니라 유아교육에서부터 고등교육까지를 통찰한 광범위한 교육내용을 포함시키는 것까지 고려되고 있다.

교사양성 및 자격 정비는 교육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변인이 바로 교사이기 때문이다. 현재 난무해 있는 보육교사 자격증 정비를 시작으로 유보통합 교사 양성기관과 교육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하루빨리 시작해야 할 것이다.

4. 통합 기관을 위한 인프라 구축 측면

일본은 '자녀양육을 1차적으로 부모의 몫'이라고 천명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원을 할 때에도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적합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확립하고자 한 시도가 신(新)인정어린이원이라고 여겨진다. 정부입장에서 보면, 신(新)인정어린이원은 행정 관리 편의와 재정 낭비 방지, 부모에게 선택권 제시를 위한 최적의 대안이다. 물론 일본의 유보통합이 완성된 것은 아니며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인정어린이원 도입과 실행의 과정에서 여러 부처와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들여 의견을 나누고 연구하며 검토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친 끝에 발표·시행하는 점, 정책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예산 확보 방안(예: 소비세 증액 등)을 우선

적으로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홍금자, 2014: 435)하고 있는 점은 눈여겨 볼만하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노력을 더욱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관들이 원활하게 신(新)인정어린이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매력적인 유도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은 유보통합에 대한 인프라를 확장해야 할 우리나라 정책입안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부분이다.

흔히 '남북통일보다 어려운 것이 유보통합'이라고 한다. 논의를 시작한 지 수 십년이 지났어도 해결되지 않는 현 상황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예상된다. 그러나 유보통합은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할 유아교육과 보육의 중요한 사안이므로 추후 추진이 된다면,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현장과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러한 일이 가능할 때 모든 구성원의 환영을 받는 진정성 있는 유보 통합 정책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나석희·이현진(2014). 유아교육·보육통합에 관한 유아교사와 원장의 인식. 아동교육, 23(3), 269-287.

이데일리(2016. 9. 29). 교육부, 복지부 주도권 다툼에 유보통합 3년째 제자리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11&newsid=01400566612785040&DCD=A00701&OutLnkChk=Y 2017년 6월 26일 추출.

일본내각부 아동·가정양육본부 홈페이지(http://www8.cao.go.jp/shoushi/kodomoen/index.html 2017년 6월 13일 추출)

일본문부과학성(2016). 학교실태조사(2016년 4월 기준).

일본후생노동성 보도자료(2016. 9. 2). 보육소 등 관련 현황 요약(2016년 4월 1일 기준).

조선일보(2017. 6. 12). 20년 제자리걸음 유보통합 속도낼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12/2017061200085.html 2017년 6월 26일 추출.

홍금자(2014). 아동·육아 관련 3법 제정에 의한 일본의 육아 체계와 재정지원 방식의 변화. 아동과 권리, 18(3), 411-439.

金井徹・前田有秀・杉山弘子・安田勉・小松秀茂(2016). 子ども・子育て支援新制度下の幼保連携型認定こども園における課題の檢討. 尙絅學院大學紀要, 71, 27-40.

藤井伸生(2014). 認定こども園, 幼保一体化の課題. 保育新制度子どもを守る自治体の責任.

自治体研究社, 69-78.

櫻井慶一(2015). 子ども・子育て支援新制度の歴史的意味を考える－幼保連携型認定こども園制度を中心にして－. 季刊保育問題研究, 271, 18-28.

逆井直紀(2015). 認定こども園と新制度. 全國保育団体連絡會・保育研究所 (編). 保育白書 2015 年版. ちいさいなかま社. 103-105.

長瀬美子(2014). 保育實踐の視点から考える新制度・こども園. 保育情報, 453, 4-8.

井上剛男(2014). 認定こども園制度の課題. 佐賀大學教育學部紀要, 64, 41-51.

·논문접수 8월 9일 / 수정본 접수 8월 31일 / 게재 승인 9월 19일

·교신저자: 이규림,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이메일 grlee@kicce.re.kr

Abstract

A Consideration on Problems and Implications of Japanese New Nintei Kodomo-en

Gyurim Le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sider the integration of kindergartens and child care centers in Korea by examining the case of Nintei Kodomo-en, a newly integrated institution in Japan. In 2006, the first model of Nintei Kodomo-en was installed but failed. From april, 2015, a new model was initiated, improving the problems of the previous model, with the three laws related to Child Care and Children. The study analyzed the process and drew implications that can be applied to our situations. For this, data were collected from preceding researches and Japanese government conference reports. Concretely speaking, this study analyzed the history of kindergartens and child care centers, found the definition and history of Nintei Kodomo-en including its issues and problems, and discussed 4 implications for our country.

Key words: integr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New Nintei Kodomo-en, kindergarten, child care center

육아정책연구
제11권 제2호(2017. 9.) 169~194

유아의 학교준비도 영향요인 분석

김진미[1)]　　홍세영[2)]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의 취학 이후의 학업적응 및 성취를 예견하는 주요 변인인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이를 신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영향요인을 유아 개인 요인, 가구 요인, 기관 요인으로 분류하였으며, 근래 유아교육·보육 기관 이용률이 증대되는 시점에서 기관의 질과 유아의 발달과의 관계를 탐색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바 기관 변인을 구조적 요인과 과정적 요인으로 대별하여 이들의 영향력을 보다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2014) 자료를 사용하여 위계적 회귀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성별과 외현화 문제행동은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는 여아가 남아보다, 외현화 문제행동이 낮을수록 학교준비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실환경, 교수효능감, 교사-유아 상호작용과 같은 기관의 과정적 질은 학교준비도와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반면 기관의 구조적 질은 학교준비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는 유아교육기관의 구조적 변수보다는 과정적 변수가 아동의 발달과 보다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선행연구들의 논의와 궤를 같이한다. 셋째, 유아의 학교준비도 하위영역별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으나 유아 개인 요인과 기관 요인 중 교실환경 및 교사-유아 상호작용은 모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유아의 학교준비도 향상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도출하였다.

주제어: 한국아동패널, 학교준비도, 기관의 구조적 질, 기관의 과정적 질

1) 호서대학교 강사
2) 한양대학교 입학사정관

Ⅰ. 서론

전 세계적으로 유아교육·보육(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CEC)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데, 많은 국가에서 유아교육·보육정책을 주요 정책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관심을 반영한다. 이는 유아기가 민감기이며, 초기 투자가 미래 투자의 생산성을 증대시킨다는 점에 근거한다. 많은 연구들에서 유아교육·보육이 사회·경제적 이점, 평생학습의 기초로서 아동의 학습 성과와 복지, 빈곤의 감소와 세대 간의 사회적 이동 증대 등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이점들과 관련됨을 보고한다(Ruhm & Waldfogel, 2012; Taguma, Litjens, & Makowiecki, 2012). 이와 함께 학습궤적(learning trajectories)이 유아기의 경험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Curby, Rimm-Kaufman, & Ponitz, 2009), 유아교육·보육의 질과 유아 발달과의 관련성을 탐색하는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유아의 발달은 인지, 언어, 사회·정서적 발달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으나 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민주 시민의 기초 자질을 형성하는 유아교육·보육의 목적 상 특정 영역의 발달보다 유아의 전반적인 발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특히 학교에 입학하기 전 습득해야 할 지식과 기술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교준비도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학교준비도(school readiness)는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뿐 아니라 행동 및 인지적 발달을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Parker et al., 1999), 아동의 초등학교 생활전반의 성공적인 적응과 수행을 예측하고, 아동의 학교생활 부적응 문제를 예방하고 긍정적인 발달을 이끌 수 있는 주요 변인이다(박연정·정옥분, 2010; Cho & Ahn, 2015). 선행연구에서는 학교준비도가 취학 이후 아동의 발달과 유의한 관계를 보인다고 보고한다(Hess, Holloway, Dickson, & Price, 1984; Rouse, Brooks-Gunn, & McLanahan, 2005; Romano, Babchishin, Pagani, & Kohen, 2010). 이와 같은 연유로 학교준비도는 교육자와 정책 입안자들에게 오랫동안 주요 관심사였으며(Halle et al., 2012: 613), 이에 따라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학교준비도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실증연구를 보면, 연구자마다 학교준비도 구성요인이 상이할 뿐 아니라 일부 지역의 소수 사례를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주로 유아 개인 및 가정 배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성미영 외, 2010; 이수연·황혜정, 2014; Cho & Ahn, 2015; 조성연, 2002; Hammer et al., 2017; Ramey, & Ramey, 2004; Raver, 2003). 기관의 질과 학교준비도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들이(방은정·정옥분, 2015; 성미영·장영은·손승희, 2016; 안영혜, 2014; Blazer, 2012; Graziano et al., 2016)

존재하지만 기관 이용시간이나 적응 프로그램의 효과성, 교사 신념, 교사-유아 관계 등 특정 변인과의 관계만을 규명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2012년 5세 누리과정이 시행되고 2013년 만 3, 4세로 누리과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유아교육·보육기관을 이용하는 유아 수는 급격히 증대해왔다. 2016년 기준 유아(3-5세)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기관 이용률은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3], 이는 2016년 각 94.2%, 93.7% 취학률을 보이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취학률(한국교육개발원, 2017)에 근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기관이용률의 증대는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경험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환기시킨다. 미국의 연방 정부와 주에서 아동의 발달궤적을 의미있게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질의 교육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Early et al., 2007) 상기와 같은 정책의 흐름을 반영한다. 학교준비도는 유아 개인 및 가구 요인뿐만 아니라 아동이 경험하는 학습경험의 질과 학습이 일어나는 맥락에 영향을 받는다(Halle et al., 2012). 이와 같은 점에서 유아의 교육경험이 이루어지는 기관의 환경과 질[4]을 포괄하여,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탐색해볼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전국수준에서 수집된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선행연구에서 유의한 요인으로 보고되는 유아 개인 및 가구 변인과 함께 기관 변인을 투입하여 유아교육·보육기관의 질이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아의 학교준비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학교준비도의 개념과 구성요인

준비도(readiness)는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 준비되어진 상태를 의미하는데(Burgess, 2005), Shepard & Graue(1993)는 준비도가 발달과정과 같은 생태학적 특성을 지니며, 개인의 이전 경험에 의해 강한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일반적으로

3) 유아의 교육·보육기관 이용률=(A+B)/C*100, A(703,506명)=유치원 이용 유아 수(2016년 4월 통계자료로 6세 이상아 제외), B(597,800명)=어린이집 이용 유아 수, C(1,405,487명)=유아 인구수로 2016년 12월 주민등록인구 수임.

4) 유아교육·보육의 질과 관련된 정의는 국가마다, 신념, 가치 및 사회경제적 맥락에 근거한 이해집단들 간에 따라 다르지만, 정책적 관점에서 크게 구조적 질(structural quality)과 과정적 질(process quality)로 구분할 수 있다(Taguma et al., 2012).

취학 전 유아의 준비도와 관련된 개념은 학습준비도(readiness to learn)와 학교준비도(readiness for school)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Kagan, 1994; 김경빈, 2017 재인용). 두 용어는 유사한 개념으로 간주되어 혼용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두 개념의 의미에는 엄밀한 차이가 있다(강경미·엄정애, 2016). 학습준비도가 특정 학습과제의 성공적 수행에 필요한 선수 조건으로서 학습과 관련된 기초능력을 중시하는 개념인 반면 학교준비도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과업이나 교육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지적, 신체적, 사회적 발달 등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성공적인 적응과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능력으로 보다 광의적인 개념을 포함한다(방소영·황혜정, 2013). 따라서 학교준비도는 인지 및 언어적 능력뿐만 아니라 사회정서적 발달과 건강을 포괄하는 다차원적(multidimensional)인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Halle et al., 2012). 이러한 학교준비도에 대한 정의와 개념은 학자마다 조금씩 상이할 뿐 아니라 구성요인에 있어서도 합일된 견해는 제시되지 않는다. 연구자에 따라 학교준비도의 구성요인에 대해 제시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학교준비도 구성요인

연구자	구성요인
지성애 외(2006)	지식, 적응, 기능, 성향, 규칙
박연정·정옥분(2010)	단체생활태도, 정서교류능력, 일상생활지식, 학습활동능력
성미영 외(2010)	어휘능력, 읽기능력, 산수과제 성취도
임정진 외(2012)	학습관련기술, 사회적 행동, 이야기 이해력, 소근육 운동능력
전은옥·최나야(2015)	단체생활 기본자세, 사회정서 유능성, 일상생활 기초지식, 학습활동을 위한 능력
Cho & Ahn(2015)	지식, 기능, 적응, 성향, 태도
이수현·황혜정(2014)	기능, 생활, 성향, 태도, 지식
성미영·장영은·손승희(2016)	읽기능력, 사회적 기술, 과제수행능력
The National Education Goals Panel (Kagan, Moore, & Bredekamp, 1995에서 재인용)	건강·신체발달(health and physical development), 정서적 안녕과 사회적 유능성(emotional well being and social competence), 학습태도(approaches to learning), 의사소통기술(communication skills), 인지 및 일반적 지식(cognition and general knowledge)
Perry, Dockett, & Tracey(1998)	지식(knowledge), 적응력(adjustment), 기능(skill), 기질(disposition), 규칙(rules)
Murphey & Burns(2002)	사회 정서발달(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학습태도(approaches to learning),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on), 인지발달/일반적 지식(cognitive development /general knowledge)[5]
the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2012)	자아·사회적 발달(self and social development), 자기조절(self regulation), 언어·문해적 발달(language and literacy development), 수학적 발달(mathmatical development)

위와 같이 연구자에 따라 학교준비도를 구성하는 요인들은 조금씩 상이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학업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언어능력 및 기초지식과 같은 인지적 능력과 단체생활 내에서 타인과 의사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술 및 사회·정서적 발달능력 등을 포함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유아교육·보육의 목적이 유아의 일상생활 속에서 전 영역에 걸쳐 전인적 발달을 도모한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유아교육·보육의 목적은 아동이 단순히 학습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 발달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신체 및 사회·정서, 언어적 능력을 포괄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주안점을 둔다는 점에서 학습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발달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인 학교준비도(박연정·정옥분, 2010)는 아동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적합한 개념이다.

2. 학교준비도와 취학 이후 아동 발달과의 관계

학교준비도는 유아의 학교 입학 단계에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그 이후의 발달 단계에까지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된다. 구체적으로 5-6세 유아의 학교준비도와 초등학교 6학년 시기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살펴본 Hess et al.(1984)의 연구에 따르면 유아의 학교준비도가 이후 고학년 시기의 학업성취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Romano et al.(2010)의 연구에서도 유아의 학교준비도가 이후 발달 단계에 미치는 종단적인 효과를 밝혀냈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학교준비도의 한 구성요소로 간주되는 유치원 시기의 문해력과 수리 능력은 초등 3학년 시기의 학업 발달 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학교준비도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사회정서적 행동 발달이 3학년 시기의 사회정서적 행동 발달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유아기 이후의 발달 단계에까지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를 제공했다. 또한 유아기에 형성되는 학습태도는 주변 세계와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태도와 연관되어 학업관련 자율성, 자기효능감의 발달을 도와 학업적응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며(김희수, 2013), 의사소통 기술은 학교의 행동적 규칙 등을 이해하고 따르는 능력과 불가분의 관계를 보인다(Catts, Fey, Zhang, & Tomblin, 1999). 이와 같이 유아기에 형성되는 인지적 및 정의적 발달이 이후의 발달

5) Murphey & Burns(2002)의 연구에서 학교준비도를 구성하는 한 영역인 아동의 '인지 발달/일반적 지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활용한 문항들은 다음과 같다. ① 책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② 일련의 사건을 기억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③ 유인물에 있는 명칭을 인식할 수 있다. ④ 연필, 크레용, 붓을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다. ⑤ 상상놀이에 참여한다.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며, 학교 적응의 성공적인 요인으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학교준비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3. 학교준비도 영향요인

학교준비도는 아동의 개인 특성 및 아동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박연정·정옥분, 2010). 즉 학교준비도는 아동이 경험하는 학습경험의 질뿐만 아니라 학습이 일어나는 맥락에도 영향을 받는다. 이 때 맥락은 가정과 학교 환경, 더 넓게는 지역사회 환경까지도 포함한다. 학교준비도의 포괄적 관점(comprehensive view)은 아동의 내재적 특성과 과거 및 현재의 환경적·문화적 맥락 사이의 상호작용을 포함한다(Carlton & Winsler, 1999; May & Kundert, 1997; Meisels, 1999; Wesley & Buysse, 2003; Halle et al., 2012: 613 재인용). 이처럼 학교준비도는 유아의 개인적 특성과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데, 선행연구를 통해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유아 개인, 가구 요인, 기관 요인으로 정리할 수 있다.

가. 유아 개인

유아의 성별이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은 일관되지 않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학교준비도가 높음이 나타났다. 예로 박연정·정옥분(2010), 방은정·정옥분(2015), 이수현·황혜정(2014), 전은옥·최나야(2015), Cho & Ahn(2015)은 여아일수록 학교준비도는 높게 나타남을 보고하였으나 조성연(2002, 2010)연구에서는 유아의 성별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유아의 창의성 및 정서적 문제도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조성연(2010)의 연구에서는 유아의 창의적 특성(인지적/정의적 요인) 중 창의적 특성 중 인지적 요인이 학교준비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고하였으며, Raver(2003)는 유아의 정서·사회적 문제가 학교준비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주의집중 등 정서적 문제를 가진 아동은 초기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가구 요인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부모학력과 가구소득 등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부모의 양육태도, 양육신념 등이 있다. 먼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가정의 SES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학교준비도는 높았다(방은정·정옥분, 2015; 이수현·황혜정, 2014; 조성연, 2002; Blazer, 2012; Hammer et al., 2017; Ramey & Ramey, 2004). 이밖에 부모의 양육태도나 참여, 양육신념, 가정환경의 질 등의 요인이 있다. Cho & Ahn(2015)의 연구에서는 가정환경의 질이 높으며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높을수록 유아의 학교준비도도 높게 나타남을 규명하였다. 그리고 Parker et al.(1999)은 부모와 아동의 관계 및 가정학습환경이 아동의 학교준비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부모의 놀이에 대한 이해 및 아동의 학습을 촉진하는 능력의 증가가 아동의 긍정적 행동에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쳤다. 반면 부모의 화 또는 엄격성은 아동의 산만성과 적대감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 연관된 어휘능력의 감소를 예측하였다. 그리고 박연정·정옥분(2010)의 연구에서는 모가 적극적 양육행동을 취할수록 유아의 학교준비도 점수가 높았다. 유사한 맥락에서 Brooks-Gunn & Markman(2005)은 부모의 양육행동이 학교준비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며, 이러한 영향은 민족·인종 간 학교준비도 차이를 좁히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 기관 요인

부모와 대리양육자의 온정적이고 지지적인 관계와 함께 높은 질의 포괄적인 유아교육·보육은 아이들의 장기적인 성과와 학교준비도를 향상시킨다(Brooks-Gunn, Fuligni, & Berlin, 2003). 그러나 기관의 질과 학교준비도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탐색한 연구는 미미하며 일부 변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먼저 방은정·정옥분(2015)은 기관이용시간이 길수록 유아의 학교준비도가 높음을 보고하였으며, 성미영 외(2016)는 교사신념이 유아의 행동자기조절능력(읽기능력, 사회적 기술)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규명하였다. 그리고 안영혜(2014)는 생활적응 프로그램이 유아의 지식, 적응능력, 성향개발, 태도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유아의 가정배경에 따른 학교준비도의 격차를 줄이는 전략을 모색한 Blazer(2012)의 연구에서는 3세에서 4세에 경험하는 유아학교 프로그램의 질이 학교준비도에 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밝혔다. 이 연구에 따르면 우수한 질의 유아학교 프로그램이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은 가정배경이 취약한 아동에게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질적으로 우수한 유아교육기관이 가정배경에 따른 유아의 학교준비도의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같은 맥락에서 Ma et al.(2015)의 연구에서는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학교 준비 프로그램이 단기적으로도 유아의 학교 준비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규명하였다. 한편, 유아가 기관 내에

서 경험하는 관계에 주목한 연구들도 있다. Rojas(2015)의 연구에 따르면 교육 기관 내에서 유아-또래 관계가 좋고, 또래들의 발달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준비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Graziano et al.(2016)은 기관 내 교사-유아의 관계가 유아의 실행기능과 학교준비도의 관계에서 정적인 매개역할을 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 요인은 크게 기관 이용시간, 기관에서 실시되는 프로그램, 교사-유아 관계 등 일부 변인들이 주를 이루며, 기관의 질적인 측면을 포괄하여 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미흡하다. 기관의 질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유아의 학교준비도와의 관련성을 세밀하게 탐색하는 것은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의 질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강상진 외(2004)는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변수와 유아 발달 간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의미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기관 운영 요인, 교사 요인 등에 대한 정보도 포괄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같이 기관의 질과 학교준비도와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학교효과(school effect) 이론에 근거한다. 학교효과 이론은 학교가 성취한 성과에 관심이 있는 이론으로, 교육효과는 학교가 통제할 수 없는 내·외적 조건이(예컨대, 지역사회 특성, 학생의 사회경제적 가정 배경 등) 학교교육의 산출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한 후 발생한 산출을 순수한 학교의 교육활동 성과로 정의할 수 있다(강상진·김현주, 2001). 이를 통해 유아교육기관의 기관장과 교사 고유의 노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아교육기관의 질적 요소를 탐색하고, 그 영향력의 정도를 규명할 수 있다(진희민·강상진, 2017: 128 재인용).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관의 질을 구조적 질(structural quality)과 과정적 질(process quality)로 구분하고(Taguma et al., 2012) 유아 개인, 가구 변인, 기관 변인을 순차적으로 투입하여 유아의 학교준비도과의 관계를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가 2008년부터 구축하고 있는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2014)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2,150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 특성, 모 특성,

가족 특성, 육아지원서비스 특성, 지역사회 특성, 육아지원정책 특성 등 아동을 둘러싼 광범위한 내용을 매년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는 층화다단계 표본추출법을 적용하였다. 7차년도의 표본 수는 1,620가구로서 표본은 전년도 대비 유지율 97.5%이다. 본 연구의 분석에는 유아가 이용하는 기관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외에 가구의 주 양육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유아가 이용하는 기관은 유치원, 어린이집, 반일제 이상 학원으로 응답되었으나 반일제 이상 학원(50사례)은 제외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기관용 설문지에 응답한 교사를 대상으로 이들이 기관 특성 및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대해 평정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결측치를 제외한 1,051 사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 변인설정 및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유아 개인, 가구 변인 및 기관의 질을 구조적 질과 과정적 질로 구분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투입하여 유아의 학교준비도와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와 유사하게 강상진 외(2004)는 유아교육기관의 교육효과와 관련하여 국내 선행연구에서 다룬 교육활동 변수들을 구조적 변수와 과정적 변수로 분류하였다. 예컨대, 선행연구에서는 구조적 변수로 교육 공간, 교사 수, 학급구성, 기관의 유형을 다루고 있으며, 과정적 측면의 변수로는 교육프로그램의 특성과 사회·심리적 환경 변수를 포함하였다(강상진 외, 2004). 전술하였듯이 질에 대한 측정지표는 구조적 요인(structural elements)과 과정적 요인(process elements)으로 나누어지는데(Phillipsen et al., 1997), 구조적 요인은 교사 아동 비율, 교사 교육수준 및 연수 등이며, 과정적 요인은 교사 아동 상호작용, 학습기회 등이다(Sylva, 2010). 선행연구(강상진 외, 2004; Sylva, 2010)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관의 프로그램의 질을 반영하며, 유아의 학습기회로 기능하는 교실환경을 과정적 요인으로 분류하여 투입하였다. 구체적으로 구조적 질은 기관유형, 설립유형, 기관규모, 교사 대 아동비율을, 과정적 질은 교실환경, 교수효능감과 교사-유아 상호작용이다. 교사의 신념을 대표할 수 있는 교수효능감과 교사의 온정적이고 민감한 정서적, 행동적 측면을 포괄하는 교사-유아 상호작용은 기관의 과정적 질을 대변하는 요인이다.

가. 종속변인

학교준비도는 Murphey & Burns(2002)의 도구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안하여 사용하였다(최윤경 외, 2014)[6]. 학교준비도는 사회정서 발달(6문항), 학습에 대한 태도

(8문항), 의사소통(3문항), 인지발달 및 일반적 지식(5문항)으로 총 22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4점)로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었으며, 문항을 합산한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세부 문항 및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표 2〉 종속변수 구성 및 설명

구분(문항 수)	변수 설명	신뢰도
사회정서 발달(6)	- 또래들과 어울릴 수 있다, 또래와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 적절한 문제 해결 기술을 사용한다 등	.774
학습에 대한 태도(8)	- 간단한 규칙과 지시를 잘 따른다, 스스로 선택한 활동을 15분 정도 지속한다 등	.881
의사소통(3)	- 욕구, 필요한 것, 생각들을 말로 표현한다, 간단한 지시, 요청, 정보를 이해한다 등	.805
인지발달 및 일반적 지식(5)	- 책의 내용을 이해한다, 활동을 기억하고 사건의 순서를 설명할 수 있다 등	.788
전체		.931

나. 독립변인

전술한 것처럼 독립변인은 유아 개인, 가구, 기관 요인으로 분류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면 아래 <표 3>과 같다. 정서적 특성을 나타내는 문제행동의 경우, 어머니가 보고한 유아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Preschool 1.5-5)(오경자·김영아, 2009) 점수를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해 6개월 내에 유아가 그 행동을 보였는지를 판단하여 0~2점(전혀 해당되지 않는다~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의 범위에서 응답하도록 구성되었으며, 각 영역에 해당하는 문항을 합산한 점수를 활용하였다. 부모 양육행동은 조복희 외(1999) 문항을 참고하여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자체 제작한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가정환경의 질은 Caldwell & Bradley (2003)의 도구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8개 하위영역 총 5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8개의 하위 영역 중 모방학습(5문항), 다양성(9문항), 수용성(4문항)의 신뢰도(*Cronbach's α*)가 .4 미만으로 나타나 이를 제외한 5개 하위영역을 분석에 투입하였다.

6)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은 학교준비도(school readiness)를 학습준비도라 명명하였으나(최윤경 외, 2014: 45), 다수의 연구에서 school readiness와 readiness to learn를 구별하고 사용하고 있으며,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본 데이터에서 포괄하는 개념과 영역이 학교준비도라 지칭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학교준비도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표 3〉 독립변수 구성 및 설명

	구분(문항 수)		변수 설명	신뢰도
유아 개인	성별		남=0, 여=1	-
	내재화(36)		정서적 반응성, 불안·우울, 신체증상, 위축 등	-
	외현화(24)		주의집중문제, 공격행동	-
가구 변인	모 학력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교, 대학원으로 조사된 것을 각 학교 급에 해당하는 교육연한으로 변환	-
	부 학력			
	월 가구소득		자연로그 값[7]	
	모 온정적 양육(6)		'아이와 친밀한 시간을 갖는다.'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한다.' 등	.863
	모 통제적 양육(6)		'아이가 어려도 엄격하게 예절을 가르친다.' '아이가 잘못 했을 때는 반드시 벌을 주고 반성하게 한다.' 등	.732
	부 온정적 양육(6)		모 질문지와 같음	.865
	부 통제적 양육(6)		모 질문지와 같음	.787
	EC_HOME	학습자료(11)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장난감, 책, 게임에 대한 아동의 접근 가능성 등	.580
		학습자극(5)	부모가 유아기의 중요한 지식이나 기술 습득에 대하여 격려 및 학습 관여 정도	.892
		언어자극(7)	부모가 대화, 모델링 등을 통해 자녀의 언어발달 독려	.577
		반응성(7)	아동에 대한 양육자의 정서적, 언어적 반응성과 온정적 관계 등	.647
		물리적 환경(7)	물리적 환경이 안전하고, 충분한지 등	.718
기관 요인 (구조적)	기관유형		유치원=0, 어린이집=1	-
	설립유형		국공립=0, 기타=1	-
	기관 규모		99인 이하=0, 100인 이상=1	-
	교사 대 아동 비율		학급 내 교사 수(주 담임과 부 담임교사의 합)/유아 수	-
기관 요인 (과정적)	교실환경(4)		교실 내의 공간은 유아의 연령과 흥미, 발달특성을 고려하여 배치하였다, 교실 내의 자료는 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하다 등	.897
	교수효능감(7)		다루기 어려운 아이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 부모가 무관심하거나 가정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을 지도할 경우 아이들의 학습의욕을 높일 수 있다 등	.853
	교사-유아 상호작용(10)		아이에게 애정과 신뢰를 가지고 자주 상호작용한다, 아이의 요구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반응한다 등	.914

이상의 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량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분석 변수의 기초통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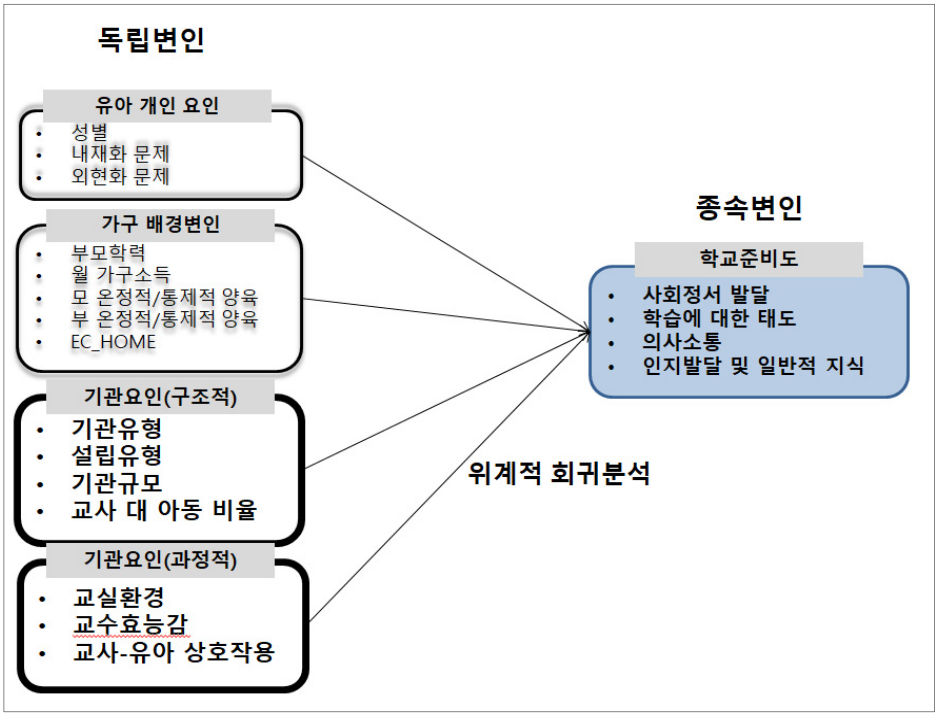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속변수						
사회정서 발달			3.50	0.43	1.50	4.00
학습에 대한 태도			3.37	0.52	1.00	4.00
의사소통			3.52	0.55	1.00	4.00
인지발달 및 일반적 지식			3.64	0.41	1.00	4.00
총합			3.49	0.41	1.27	4.00
독립변수						
유아 개인	성별(여아=1)		0.48	0.50	0.00	1.00
	내재화 문제		6.64	5.89	0.00	37
	외현화 문제		5.58	5.13	0.00	30
가구 변인	모 학력		14.89	1.94	12.00	18.00
	부 학력		15.06	2.00	12.00	18.00
	월 가구소득		6.01	0.41	4.61	8.01
	모 온정적 양육		3.64	0.54	1.00	5.00
	모 통제적 양육		3.46	0.50	1.00	5.00
	부 온정적 양육		3.52	0.60	1.00	5.00
	부 통제적 양육		3.31	0.56	1.00	5.00
	EC_HOME	학습자료	8.90	1.00	1.00	11.00
		학습자극	4.79	0.86	0.00	5.00
		언어자극	6.75	0.62	2.00	7.00
		반응성	5.51	1.36	0.00	7.00
		물리적 환경	6.55	1.04	0.00	7.00
기관 요인 (구조적)	기관유형(어린이집=1)		0.35	0.48	0.00	1.00
	설립유형(국공립 외=1)		0.75	0.44	0.00	1.00
	기관규모(100인 이상=1)		0.55	0.50	0.00	1.00
	교사 대 아동 비율		19.23	6.59	1.00	48.00
기관 요인 (과정적)	교실환경		4.32	0.62	1.00	5.00
	교수효능감		3.89	0.49	2.43	5.00
	교사-유아 상호작용		4.26	0.50	2.30	5.00

7) 일반적으로 월평균 소득은 편포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자연로그를 취하여 월평균임금 로그값을 산출함.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유아의 학교준비도 영향요인을 유아 개인, 가구 요인, 기관 요인으로 구분하고, 각 변인을 순차적으로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변인의 투입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유의한 변인으로 고려되는 유아 개인, 가구 요인 변인을 투입하고, 연구자의 주요 관심 변인인 기관 요인을 구조적 요인과 과정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투입함으로써 각 변수군이 통제될 때의 설명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으며, [그림 1]과 같이 도식화하여 나타내었다.

[연구문제 1] 유아 개인, 가구 요인, 기관 요인을 순차적으로 투입하였을 때, 이들이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그림 1] 연구 모형

Ⅳ. 분석결과

1. 학교준비도 영향요인 검증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Durbin-Watson과 VIF를 조사한 결과 Durbin-Watson=1.956으로 잔차 간 자기상관이 없으며, VIF는 1.041~2.232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식별되지 않아 회귀분석을 위한 기본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아 개인, 가구 요인 및 기관의 구조적·과정적 질이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분석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유아의 학교준비도 영향요인 분석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b	*β*	*b*	*β*	*b*	*β*	*b*	*β*
유아 개인	성별(여아=1)	.128***	.155	.127***	.153	.127***	.153	.121***	.146
	내재화 문제	.003	.042	.003	.037	.002	.036	.002	.032
	외현화 문제	-.017***	-.214	-.017***	-.213	-.017***	-.212	-.017***	-.217
가구 요인	모 학력			-.002	-.011	-.002	-.011	-.002	-.010
	부 학력			.007	.034	.007	.035	.006	.031
	월 가구소득			.043	.042	.043	.042	.032	.031
	모 온정적 양육			-.027	-.035	-.027	-.036	-.027	-.036
	모 통제적 양육			.040	.048	.040	.048	.038	.046
	부 온정적 양육			.015	.021	.013	.019	.010	.014
	부 통제적 양육			-.024	-.032	-.024	-.033	-.021	-.028
	EC_HOME 학습자료			.005	.013	.006	.014	.006	.014
	EC_HOME 학습자극			-.020	-.041	-.020	-.042	-.020	-.042
	EC_HOME 언어자극			.014	.021	.014	.022	.020	.030
	EC_HOME 반응성			-.008	-.027	-.008	-.025	-.009	-.029
	EC_HOME 물리적 환경			.004	.011	.004	.009	-.002	-.004
기관 요인 (구조적)	기관유형(어린이집=1)					-.006	-.007	.004	.004
	설립유형(국공립 외=1)					-.005	-.005	.048	.050
	기관규모(100인 이상=1)					.006	.008	.012	.014
	교사 대 아동 비율					-.001	-.021	.000	-.003
기관 요인 (과정적)	교실환경							.063**	.094
	교수효능감							.077*	.091
	교사-유아 상호작용							.158***	.188
R^2(Adj. R^2)		.066(.063)		.074(.060)		.074(.057)		.166(.149)	
F		24.656***		5.488***		4.341***		9.328***	

* $p < .05$, ** $p < .01$, *** $p < .001$

먼저 유아 개인 변인 중 성별과 외현화 문제는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일 경우, 남아보다 학교준비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외현화 문제는 학교준비도에 부적 영향을 주었으나 가구 요인들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관의 구조적 요인은 학교준비도와의 관계에서 유의한 관계가 포착되지 않은 반면, 기관의 과정적 요인 모두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차적으로 각 요인들을 투입한 결과, 유아의 성별, 외현화 문제행동은 통계적 유의성이 지속적으로 유효하였다. 최종 모형(모형 5)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변인들의 표준화 계수(β) 값을 보면, 성별(β=.146), 외현화 문제(β=-.217), 교실환경(β=.094), 교수효능감(β=.091), 교사-유아 상호작용(β=.188)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측정 단위 수준이 같을 경우 영향력의 크기가 외현화 문제행동, 교사-유아 상호작용, 성별, 교실환경, 교수효능감 순으로 나타남을 의미한다.

2. 학교준비도 하위 요인별 영향요인 검증

한편 학교준비도 하위 영역별에 따라 변인들이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추가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음 <표 6>에서와 같이 유의한 변인들만 제시하였다. 첫째, 사회정서 발달에는 유아 성별(+), 외현화 문제행동(-), 모의 통제적 양육(+), 교실환경(+),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즉 여아이며 외현화 문제행동이 낮고 모의 통제적 양육 수준이 높으며, 교실환경과 교사-유아 상호작용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이 높았다. 둘째, 학습에 대한 태도에는 유아 성별(+), 외현화 문제행동(-), 교실환경(+), 교수효능감(+), 교사-유아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셋째, 여아이며 외현화 문제행동이 낮고, 모의 통제적 양육이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높았다. 그리고 설립유형이 비국공립기관이며, 교실환경과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질이 높을수록 유아의 의사소통 발달 수준이 높았다. 한편 가정 내 학습자극이 높을수록 의사소통에는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인지발달 및 일반적 지식에는 유아 성별(+), 외현화 문제(-), 가구소득(+), 학습자극(-), 물리적 환경(-), 설립유형(+), 교실환경(+),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종합하면 학교준비도 하위 영역별로 영향요인이 조금씩 상이하게 나타나지만 유아 성별, 외현화 문제행동, 교실환경, 교사-유아 상호작용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 유아의 학교준비도 하위 영역별 영향요인 분석

종속변수		사회정서 발달		학습에 대한 태도		의사소통		인지발달 및 일반적 지식	
유의한 변인		*b*	*β*	*b*	*β*	*b*	*β*	*b*	*β*
유아 개인	성별(여아=1)	.088**	.101	.154***	.148	.104**	.095	.118***	.145
	외현화 문제	-.013**	-.151	-.024***	-.241	-.014**	-.136	-.014***	-.176
가구 요인	월 가구소득							.061+	.061
	모 통제적 양육	.061*	.069			065+	.059		
	EC_HOME 학습자극					-.049*	-.077	-.030*	-.064
	EC_HOME 물리적환경							-.025*	-.064
기관요인 (구조적)	설립유형(국공립 외=1)					.083+	.065	.054+	.057
기관요인 (과정적)	교실환경	.061**	.087	.077**	.092	.057+	.064	.045*	.068
	교수효능감			.129**	.123				
	교사-유아 상호작용	.161***	.181	.143**	.136	.176***	.158	.168***	.203
R^2(Adj. R^2)		.116(.097)		.155(.137)		.111(.092)		.137(.118)	
F		6.112***		8.599***		5.814***		7.411***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취학 전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전국수준에서 수집된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위계적 회귀분석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성별과 외현화 문제행동은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일수록 학교준비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선행연구의 결과(박연정·정옥분, 2010; 방은정·정옥분, 2015, 이수현·황혜정, 2014, 전은옥·최나야, 2015)와 일치한다. 그리고 외현화 문제행동이 높을수록 학교준비도는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유아의 정서·사회적 문제가 학교준비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보고한 Raver(2003)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한편 가구 요인 중 대다수의 변인들은 그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선행연구에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유의한 관계가 포착되지 않았다. 이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하여 해석할 수 있다. 먼저 본 연구의 가구 배경을 보면 부모의 학력이 약 15년(전문대학 이상)이며, 월 가구소득은 평균

424만원으로 나타난바 중산층 가구가 표집대상에 속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가정환경의 질도 전반적으로 매우 양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대상 간 변량의 차가 크지 않아 이들의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날 개연성이 높다.

둘째, 기관의 구조적 질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교실환경, 교수효능감, 교사-유아 상호작용과 같은 과정적 질은 유아의 발달에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이는 Mashburn et al.(2008)의 연구에서 유아교육기관의 질과 유아의 발달과의 관계를 탐색한 결과 아동의 인지 및 언어, 사회적 유능성 발달과 관련하여 교사의 학력 및 경력 수준, 교실 크기, 아동 대 교사 비율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반면, 교사의 정서 및 교수적 상호작용은 아동의 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보고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또한 신나리·오정순(2015)의 연구에서 유아와 교사 개인 요인이 유아 발달에 영향을 미친 반면 교사 대 유아 비율과 기관설립유형은 유아 발달 간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처럼 기관의 구조적 질이 학교준비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게 나타난 결과는 유아교육기관의 질을 구조적 질과 과정적 질로 구분하여 연구한 결과들이 주로 구조적 변수보다는 과정적 변수가 아동의 발달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며(Vandell & Wolfe, 2000), 구조적 질은 과정적 질을 높이는 보조적 역할을 한다고 보고한 연구(진희민·강상진, 2017: 131 재인용)에서 그 논의점을 찾아볼 수 있다. 교사가 근무하는 기관의 환경 및 맥락적 요인은 교사의 인지, 행동, 인지적 및 다른 개인적 요인들과 상호결정(reciprocal determinism) 과정을 통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Bandura, 1986, 1997; Tschannen-Moran et al., 1998 재인용). Bronfenbrenner & Morris(2006)의 생태학적 관점에 따르면 아동의 발달에는 외체계(exosystem)의 경로를 통해 직접적이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기관의 구조적 질이 과정적 질을 매개하여 나타날 수 있는 효과가 존재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교실 크기나 아동 대 교사 비율 등은 높은 질의 사회적 및 교수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Mashburn et al., 2008). 전술하였듯이 신나리·오정순(2015)의 연구에서는 유아와 교사 개인 요인이 유아 발달에 영향을 미친 반면 교사 대 유아 비율과 기관설립유형은 학급 간 차이를 예측하지 못했다. 그러나 아동 발달에 학급 간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급 간 차이를 예측하는 추가적 변인을 탐색할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고려하였을 때, 기관의 구조적 질과 과정적 질 간의 상호 관계를 추가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유아의 학교준비도 하위 영역별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조금씩 상이하게

나타났다. 예컨대 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은 사회정서 발달과 의사소통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예의범절에 대한 부모의 가르침이나 유아가 잘못했을 때 이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적절한 훈육은 타인을 이해하며 원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을 보여준다. 한편, 가정 내 학습자극이 높을수록 유아의 의사소통, 인지발달 및 일반적 지식에 부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지적 발달을(intellectual development) 격려하는 부모의 관심이나 학습 관여가 과도할 경우,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바 이를 고려한 부모 교육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 특기할만한 부분은 기관 요인 중 교실환경과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학교준비도 세부 영역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의 자격이나 학력수준을 규제하는 정책보다 수업상황이나 아동의 실제 교육적 경험, 교사의 실제적 지식 및 기술과 관련한 교사의 전문성 개발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Pianta et al.(2005)의 주장을 지지한다.

본 연구결과에 터하여 유아의 학교준비도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성별과 문제적 행동특성을 고려한 가정과 기관 간의 지원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남아가 여아에 비하여 학교준비도에 있어서 불리한 조건을 갖는다는 것을 암시하는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교육기관 내에서 교사가 교수활동 시 유아의 성별에 따라 다각적인 관리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외현화 문제행동이 높을수록 학교준비도가 낮을 가능성이 높았다. 외현화 문제는 주의집중문제나 공격행동을 포괄하는 바 기관 내뿐 아니라 가정 내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세심한 관찰과 지도가 필요하다. 또한 상기 두 요인은 유아의 학교준비도 하위영역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유아의 전반적인 능력뿐 아니라 세부 영역의 발달을 위해 기관과 가정 내에서 유아 발달의 지원전략을 모색하는데 참고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유아의 태도 및 행동은 단기간 또는 한정된 장소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형성·유지되는 특성을 가지므로, 가정과 기관이 지속적으로 아동의 발달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능동적인 연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교사의 효능감 및 상호작용 기술 증진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이 개발·실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유아교육·보육기관의 과정적 질을 구성하는 요체인 유아교사의 행동과 신념이 유아의 학교로의 성공적인 이행을 예측하는 학교준비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이는 교사들이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아동에 적합한 교수를 통해 아동의 발달과 학습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만드는데 중추적인(pivotal) 역할을 하며, 교사가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Lin, Lawrence, & Gorrell, 2003; Pianta et al., 2005)을 강조한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동안 유아교육·보육분야에서는 기관 및 설립유형에 따라 교사의 양성과정과 학력, 기관 환경의 편차가 큼이 지적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지난 십여 년간 큰 변동 없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교사의 질은 단기간에 획득되기보다 장기간에 걸친 부단한 노력 끝에 얻어지는 것이며 교직에 입문한 이후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에서(김정희·김동춘, 2012), 교사가 끊임없이 자기 계발을 하고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사의 학력 및 경력, 그리고 교사가 처한 다양한 환경적 맥락을 고려하여 교사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이 요구된다. 예로 현장에 기초한 교사의 교수법 및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설계·실행과 함께 교사의 상호작용 기술 증진을 위한 상담이나 모니터링을 통한 평가(또는 피드백) 등의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Mashburn et al., 2008).

또한 유아발달 특성을 고려한 교실 내 공간 배치 가이드를 마련하고 충분한 자료 제공을 통해 교실 환경을 개선할 수 있으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복지 정책의 활성화를 통해 교사의 처우를 보다 개선하는 것도 교사의 효능감을 높여 교사-유아의 상호작용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된다는 점에서(진희민·강상진, 2017), 기관 차원의 지원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교실환경은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실 내 공간 배치 및 교실 내 자료의 적합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아의 발달 특성 및 흥미를 고려하여 이에 대한 공간을 구성하고, 설계할 수 있는 교사의 능력뿐 아니라 이와 같은 환경을 구성할 수 있는 기관의 지원적 환경을 보여주는 대리변수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적절한 환경 및 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는 교사의 역량은 기관의 지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 기관장의 협력적이고 지원적인 리더십에 대한 부분도 함께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유아 연령과 발달차를 고려하여 교사가 적합한 교실환경을 구성하는지에 대해 동료교사 간 평가 및 외부 전문가 또는 기관 간의 피드백 시스템 마련 등 조직 내외적으로 점검 및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유의한 요인으로 고려되는 요인과 함께 기관 변인을 중심으로 이들이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탐색하였다. 연구결과는 유아교사가 유아의 학교로의 성공적인 이행(transition)을 위해 중요하며, 그들의 행동과

신념은 아동의 학업성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증명함으로써 기관의 질을 인당하는 교사의 질에 대한 중요성과 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데이터 상의 한계로 기관의 질을 제한된 변인을 중심으로 설정하여 탐색하였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변인을 제공하지 못한 제한점을 가진다. 이를 위해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관에서는 기관의 질에 대한 중요성을 반영하여 기관의 질을 대표할 수 있는 변인들을 선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유아교육기관은 설립유형에 따른 근무환경과 교사의 자격 및 경력, 학력 등의 격차가 큼이 보고된다. 적실한 유아교육기관의 환경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관 풍토 및 관리자의 지원적 리더십, 교사의 신념 및 효능감, 태도 등을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하여 수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유보통합이 추진되고 있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설립배경이나 운영방식 등이 상이한바 이러한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조적, 과정적 질을 세밀하게 살펴보지 못한 제한점을 가진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기관의 유형에 따른 구조적, 과정적 질을 대변할 수 있는 변수를 보완하여 이들 관계를 보다 엄밀하게 탐색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강경미·엄정애(2016). 놀이 중심 유치원에 다니는 취학 전 만 5 세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학교준비도에 대한 이해와 고민 및 요구. 교육과학연구, 47(4), 1-27.

강상진·이영·주은희·남궁지영(2004).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효과 비교. 유아교육연구, 24(4), 119-140.

김경빈(2017). 취학 전 유아의 취원 기관 유형에 따른 초등학교 입학 준비 현황과 학교준비도에 대한 부모의 인식 차이.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연하·김양은(2008). Bandura 의 교사 자기 효능감 척도 (Teacher Self-efficacy Scale) 요인구조 분석. 유아교육연구, 28(2), 169-191.

김정희·김동춘(2012). 유아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직무성과 조직헌신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16(5), 77-96.

김희수(2013). 교사용 유아 학습태도 척도 개발 연구. 한국보육학회지, 13, 1-17.

박연정(2008). 학령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 척도개발 및 학교준비도와 관련변인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연정·정옥분(2010). 학령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 관련변인 연구. 인간발달연구, 17(3),

37-54.

방소영·황혜정(2013). 초등학교 학교준비도에 대한 유아기자녀 부모, 학령기자녀 부모와 유아교사, 초등교사의 인식차이. 아동학회지, 34(2), 139-160.

방은정·정옥분(2015). 유치원 교사의 교수행동이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육아지원연구, 10(3), 25-51.

서문희·신희연·송신영(2009). 보육시설 평가인증 효과 분석.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성미영·장영은·이강이·손승희(2010). 양육신념, 부모협력 및 가정학습환경과 유아의 학교준비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6), 21-29.

성미영·장영은·손승희(2016). 자기조절에 대한 교사신념, 유아의 행동적 자기조절 및 학교준비도의 관계: 유아 성별에 따른 차이: 유아 성별에 따른 차이.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2(3), 61-78.

신나리·오정순(2015). 위계적 선형모형을 이용한 유아 인성 발달 영향 요인 연구: 교사 정서적 지원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2), 59-85.

안영혜(2014). 5 세 유아의 초등학교 생활적응 프로그램이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87, 51-82.

이수현·황혜정(2014).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5(2), 385-410.

임정진·김유정·조수원·안선희(2012). 유아와 어머니의 개인적 배경 및 어머니의 놀이참여 수준에 따른 유아의 학교준비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4), 295-319.

전은옥·최나야(2015). 가정환경 자극과 유아의 학교준비도의 관계. 한국영유아보육학, 94, 93-119.

조성연(2002). 학령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에 대한 가정환경 (HOME)과 성격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4), 103-111.

조성연(2010).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대한 창의적 특성과 성격 및 사회인구학적 변인.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8(1), 127-136.

지성애·정대현·정효은·안지송·박은영(2006). 유아의 초등학교 준비도에 대한 유아교육기관 교사와 학부모 및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 열린유아교육연구, 11(5), 227-249.

진희민·강상진(2017). 만 3세~5세 유아의 또래상호작용 발달곡선과 유아 및 기관의 관련 요인 탐색. 교육학연구, 55(1), 125-154.

지성애(2009). 발달적 모델 중심 유치원-초등학교 연계교육 프로그램 개발. 유아교육학논집, 13(4), 387-413.

최윤경·배윤진·송신영·임준범·이예진·김소아·김신경(2014). 한국아동패널 2014 보고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한국교육개발원(2017). 「교육기본통계」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Macmillan.

Blair, C. (2002). School readiness: Integrating cognition and emotion in a neurobiological conceptualization of children's functioning at school entry. *American Psychologist*, *57,* 111-127.

Blazer, C. (2012). *Pre-kindergarten: Research-based recommendations for developing standards and factors contributing to school readiness gaps*. Miami: Research Services, Miami-Dade County Public School.

Bronfenbrenner, U., & Morris, P. A. (2006). The bioecological model of human development. In R. M.Lerner (Ed.) *Handbook of child development: Vol. 1. Theoretical models of human development* (6th ed., pp. 793 - 828). Hoboken, NJ: Wiley.

Brooks-Gunn, J., & Markman, L. B. (2005). The contribution of parenting to ethnic and racial gaps in school readiness. *The Future of Our Children*, *15,* 139 - 168.

Brooks-Gunn, J., Fuligni, A. S., & Berlin, L. (Eds.). (2003). *Early child development in the 21st century: Profiles of current research initiatives*. Teachers College Press.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2012). Development of the Desired Results Developmental Profile - School Readiness (DRDP-SR©).

Catts, H. W., Fey, M. E., Zhang, X., & Tomblin, J. B. (1999). Language basis of reading and reading disabilities: Evidence from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Scientific studies of reading*, *3*(4), 331-361.

Cho, K. J., & Ahn, S. H. (2015). Effect of Home Environment Quality and Father's Parenting Participation on School Readiness of Preschool Children.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3*(3), 229-239.

Curby, T. W., Rimm-Kaufman, S. E., & Ponitz, C. C. (2009). Teacher - child interactions and children's achievement trajectories across kindergarten and first grad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01*(4), 912-925.

Early, D. M., Maxwell, K. L., Burchinal, M., Alva, S., Bender, R. H., Bryant, D., ... & Henry, G. T. (2007). Teachers' education, classroom quality, and young children's academic skills: Results from seven studies of preschool programs. *Child development*, *78*(2), 558-580.

Forget Dubois, N., Dionne, G., Lemelin, J. P., Pérusse, D., Tremblay, R. E., & Boivin, M. (2009). Early child language mediates the relation between home environment and school readiness. *Child development*, *80*(3), 736-749.

Graziano, P. A., Garb, L. R., Ros, R., Hart, K., & Garcia, A. (2016). Executive Functioning and School Readiness Among Preschoolers With Externalizing Problems: The Moderating Role of the Student - Teacher Relationship.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27*(5), 573-589.

Halle, T. G., Hair, E. C., Wandner, L. D., & Chien, N. C. (2012). Profiles of school readiness among four-year-old Head Start children.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7*(4), 613-626.

Hammer, C. S., Morgan, P., Farkas, G., Hillemeier, M., Bitetti, D., & Maczuga, S. (2017). Late Talkers: A Population-Based Study of Risk Factors and School Readiness Consequences.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60*(3), 607-626.

Hess, R. D., Holloway, S. D., Dickson, W. P., & Price, G. G. (1984). Maternal variables as predictors of children's school readiness and later achievement in vocabulary and mathematics in sixth grade. *Child Development, 55*(5), 1902-1912.

Holloway, S. D., & Reichhart-Erickson, M. (1988). The relationship of day care quality to children's free-play behavior and social problem-solving skill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3*(1), 39-53.

Kagan, S. L. (1994). Readying schools for young children. *Phi Delta Kappan*, *76*(3), 226-233.

Kagan, S. L., Moore, E., & Bredekamp, S. (Eds.). (1998). *Reconsidering Children's Early Development and Learning Toward Common Views and Vocabulary: National Education Goals Panel*. DIANE Publishing.

Lin, H. L., Lawrence, F. R., & Gorrell, J. (2003). Kindergarten teachers' views of children's readiness for school.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8*(2), 225-237.

Ma, X., Nelson, R. F., Shen, J., & Krenn, H. Y. (2015). Effects of preschool intervention strategies on school readiness in kindergarten. *Educational Research for Policy and Practice*, *14*(1), 1-17.

Mashburn, A. J., Pianta, R. C., Hamre, B. K., Downer, J. T., Barbarin, O. A., Bryant, D., & Howes, C. (2008). Measures of classroom quality in prekindergarten and children's development of academic, language, and social skills. *Child*

development, *79*(3), 732-749.

Murphey, D. A., & Burns, C. E. (2002). Development of a comprehensive community assessment of school readiness. *Early Childhood Research & Practice*, 4(2).

Parker, F. L., Boak, A. Y., Griffin, K. W., Ripple, C., & Peay, L. (1999). Parent-child relationship, home learning environment, and school readiness. *School Psychology Review*, *28*(3), 413.

Perry, B., Dockett, S., & Tracey, D. (1998). Ready To Learn: Exploring the Concept of School Readiness and Its Implications. Paper presented at the Australia and New Zealand Conference on the First Years of School (7th, Canberra, Australia, 1998).

Pianta, R., Howes, C., Burchinal, M., Bryant, D., Clifford, R., Early, D., & Barbarin. (2005). Features of pre-kindergarten programs, classrooms, and teachers: Do they predict observed classroom quality and child-teacher interactions?.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9*(3), 144-159.

Ramey, C. T., & Ramey, S. L. (2004). Early learning and school readiness: Can early intervention make a difference?. *Merrill-Palmer Quarterly*, 50(4), 471-491.

Raver, C. (2003). Young children's emotional development and school readiness. *Social policy report*, *16*(3), 3-19.

Rojas, N. (2015, November). The Association of Peer Behavioral Regulation with School Readiness Skills in Preschool. In 2015 Fall Conference: The Golden Age of Evidence-Based Policy. Appam.

Romano, E., Babchishin, L., Pagani, L. S., & Kohen, D. (2010). School readiness and later achievement: replication and extension using a nationwide Canadian survey. *Developmental psychology*, *46*(5), 995-1007.

Rouse, C., Brooks-Gunn, J., & McLanahan, S. (2005). Introducing the issue. *The future of children*, *15*(1), 5-14.

Ruhm, C., & Waldfogel, J. (2012). Long-term effects of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Nordic Economic Policy Review*, *1*(1), 23-51.

Sylva, K. (2010). Quality in early childhood settings. In Sylva, K., Melhuish, E., Sammons, P., Siraj-Blatchford, I., & Taggart, B. (Eds.). *Early childhood matters: Evidence from the effective pre-school and primary education project*. 70-91. Routledge.

Taguma, M., Litjens, I., & Makowiecki, K. (2012). *Quality Matter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Finland. OECD Publishing.

Tschannen-Moran, M., Hoy, A. W., & Hoy, W. K. (1998). Teacher efficacy: Its meaning and measure.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68*(2), 202-248.

Vandell, D., & Wolfe, B. (2000). *Child care quality: Does it matter and does it need to be improved?* (Vol. 78).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Institute for Research on Poverty.

·논문접수 8월 9일 / 수정본 접수 8월 29일 / 게재 승인 9월 19일

·교신저자: 김진미, 호서대학교 강사, 이메일 argos83@hanmir.com

Abstract

An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Preschool Children's School Readiness

Jin-Mi Kim and Seyoung H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factors affecting preschool children's school readiness. Literature review showed that factors influencing school readiness wer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children's personal factors, household factors and institution's factors. Specifically institution's factors included the quality of structure and process of institution. The former consists of the type, size and teacher-child ratio of the institution, and the latter consists of class environment, teaching efficacy, and interaction between teacher and childre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girls displayed higher school readiness, higher external behavior problem and lower school readiness compared to boys. Second, the quality of institution's process quality factors such as class environment, teaching efficacy, and interaction between teacher and children exerted significant effect on school readiness of preschool children while the structural quality factor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rd, the effect of variables differed according to each subcategory of school readiness. In conclusion, this study empirically demonstrated the importance of the process quality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institutions in that teachers' behavior and beliefs had significant impact on preschool children's school readines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necessity and strategies for improving the process quality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institutions, and of the teachers who guarantee the quality of institution were discussed.

Key words: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school readiness, institution's structural quality, institution's process quality

육아정책연구
제11권 제2호(2017. 9.) 195~217

충청북도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상태변화와 평가인증점수

유재언[1)]

요 약

어린이집에게 평가인증제도 참여는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경우 이외에도 미인증에서 신규로 평가인증을 받거나, 인증에서 미인증으로 이탈하거나, 미인증을 고수하는 경우의 수가 존재했다. 하지만 그동안 어떤 특성의 어린이집이 신규로 평가인증을 받았는지, 이탈했는지, 미인증을 고수했는지를 세분화 하여 알아본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런 배경에서 본 연구는 2014년 5월(시점1)과 2017년 5월(시점2)까지 운영 중인 충청북도에 소재한 모든 어린이집 1,056개소의 자료를 수집하여 어린이집 일반특성 및 평가인증점수에 따라 평가인증 상태변화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했다. 첫 번째 분석 결과,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이 낮을수록(시점1) 신규로 평가인증을 받거나, 이탈하거나, 미인증을 고수하는 경우(시점2)가 많았다. 두 번째 분석 결과, 건강과 영양 영역의 평가인증점수가 낮았던 어린이집일수록(시점1) 평가인증에서 더 많이 이탈했다(시점2). 세 번째 분석 결과, 새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보육과정 점수는 평가인증을 3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비해 낮았지만, 그 외에 총점, 보육환경, 상호작용과 교수법, 건강과 영양, 안전 영역별 점수는 서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평가인증제도 진입을 독려하고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할 때 표적 집단이 될 어린이집에 관한 기초정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지닌다.

주제어: 평가인증, 보육정책, 어린이집, 공공빅데이터

1) Iowa State University 인간발달가족학과 박사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어린이집의 서비스 질을 우수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여부와 평가인증점수를 공개하여 어린이집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이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2015). 2006년 대한민국에 평가인증제도가 도입된 이후, 평가인증제도에 참여하는 어린이집이 급격히 증가하여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약 80%의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았을 정도로(보건복지부, 2016) 평가인증제도는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가 어린이집 서비스 질 관리와 영유아 가정에 객관적인 정보제공이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측면이 높게 평가되지만 더 바람직한 제도로 발전하기 위해 몇 가지 개선될 부분이 남아 있다. 첫째, 현재는 어린이집 측이 평가인증제도 참여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신청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20% 정도 남아 있는 미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차명숙, 2015; 천희영·최혜영, 2015). 미인증 어린이집에는 예전부터 미인증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과거에는 평가인증을 받았다가 현재는 미인증으로 돌아간 경우도 있다. 한편, 현재 평가인증 상태인 어린이집 중에서도 2회 이상 재인증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미인증 상태였다가 신규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도 존재한다(서문희·양미선·이정원 외, 2013). 하지만 평가인증에서 이탈한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신규 진입한 어린이집, 미인증을 고수하는 어린이집의 비중이 각각 얼마나 되는지 기초현황 자료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나아가 어떤 특성의 어린이집이 주로 이런 경우에 속하는지에 관해서도 연구된 내용이 적다(차명숙, 2015; 천희영·최혜영, 2015). 미인증 어린이집이나 평가인증 상태가 변한 어린이집에 대한 기초정보가 부족하면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평가인증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평가인증에서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의 표적 집단을 설정하기가 어려워진다.

둘째, 현행 평가인증 결과는 총점과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과 교수법, 건강과 영양, 안전의 영역별 획득 점수 각각을 100점 만점으로 공개하고 있으나, 평가인증점수가 과도하게 상향평준화 되어 어린이집의 실질적인 서비스 질을 가늠하기가 수월하지 않다(김준현, 2017; 유재언, 2014).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에 공표된 평

가인증 어린이집 점수를 보면, 기수평균이 90점대 초중반을 웃돌고, 대부분의 어린이집 평가점수가 90점대에 편중되어 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벌어진 어린이집들도 평가인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점수도 매우 높다는 지적이 언론에서 자주 보도되고 있다(한겨레, 2016. 10. 5.). 어린이집 입장에서 평가인증을 준비하는 과정은 고되고(차영숙·유희정·강민정, 2012; 하영례, 2008)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은 상황이라 원아모집에서의 홍보효과도 크지 않을 수 있다(유재언, 2017). 이처럼 평가인증 상태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고 다시 미인증이 된 어린이집이 상당히 있으나, 어느 정도의 서비스 질(평가인증점수)을 가진 어린이집이 미인증으로 변경되었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아직까지 찾을 수가 없다. 평가인증점수가 낮았던 어린이집이 이후에 평가인증에서 이탈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평가인증점수가 저조하지 않았는데도 미인증을 선택한 것인지 밝혀내야만 평가인증제도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평가인증제도 참여를 신청한 어린이집은 3년 주기로 평가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평가인증 어린이집은 2회 이상 평가인증을 받은 재인증과 이전까지는 미인증 상태였지만 새로 평가인증을 받은 신규인증으로 구분된다(서문희·양미선·이정원 외, 2013; 이미화, 서문희·최윤경·엄지원, 2012). 그런데 신규인증 어린이집의 서비스 질이 재인증 어린이집의 서비스 질만큼 높은 수준인지 장담할 수 없다(서문희·양미선·이정원 외, 2013). 그러나 아직까지는 다른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이 획득한 점수와 재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이 획득한 점수 간의 차이를 단순히 비교한 자료만 있을 뿐이다(서문희·양미선·이정원 외, 2013,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2017). 이에 관하여 보다 정교한 분석 자료가 있다면 신규인증 어린이집이 어떤 영역의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하는지 또는 재인증 어린이집의 어떤 서비스 질을 더욱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제기한, 1)평가인증 상태가 변경된 어린이집의 현황 및 특성, 2) 평가인증에서 이탈한 어린이집의 서비스 영역별 수준, 3) 신규인증 어린이집의 서비스 질에 관한 정보 부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충청북도에 소재한 모든 어린이집의 2014년(시점1)과 2017년(시점2) 평가인증 여부, 일반특성, 평가인증점수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1)어린이집 일반특성(시점1)에 따른 지난 3년 간(시점1-시점2)의 평가인증 상태 변화, 2)기존 평가인증점수(시점1)에 따른 평가인증에서의 이탈(시점1-시점2), 3)신규인증 어린이집(시점1-시점2)의 평가인증점수(시점2)를 세 개의 연구문제로 제시해 각각을 분석하려고 한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평가인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않는 어린이집들의 일반특성 및 평가점수를 밝혀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참여 상황을 객관적이고 정밀하게 진단하고, 모든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제도 참여를 독려하고 평가인증제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표적 집단을 설정하는데 기초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개괄 및 선행연구 고찰

논문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어린이집 평가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부터 간단히 살펴보겠다. 2006년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가 도입된 이후,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제1차, 2010년부터는 제2차 평가인증이 실시되었고, 2014년 말부터는 제3차 평가인증 시범사업과 기존의 지표를 사용한 평가가 병행되고 있으며, 2017년 말부터는 본격적인 제3차 평가인증이 시행될 예정이다(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kcpi.or.kr/, 2017).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신청하면, 지자체, 어린이집, 한국보육진흥원이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을 하여 참여를 확정하여, 한국보육진흥원의 현장관찰자가 현장평가를 하고, 소위원회와 종합평가위원회에서 등급을 조정 및 결정하여 이 결과를 어린이집에 통보하고 공표한다(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2015). 제2차 평가인증을 기준으로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과 교수법, 건강과 영양, 안전의 영역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75점 이상을 획득하면 3년 간 유효한 평가인증을 받는다(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2015).

2017년 11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될 제3차 평가인증에서는 제2차 평가인증과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2017).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이 발행한 '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에 따르면 첫째, 평가인증 평정방식이 절대평가 75~100점의 점수제에서 A, B, C, D등급제로 변경된다. 둘째, 신규로 평가인증에 참여했다가 평가에서 75점 미만의 점수를 획득하여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어린이집(불인정)에게만 부여하던 재참여 기회를 재인증을 받는 어린이집에게도 준다. 셋째,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관해서만 공표하던 정보공개가 평가를 받은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공개로 확대하고, 미인증 어린이집에 관해서도 미신청, 불인정, 종료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공개한다.

제3차 평가인증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주로 긍정적인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제2차 평가인증에서 달라지는 점으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려면 제2차 평가인

증지표로 실시된 현재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판단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어떤 특성의 어린이집이 신규로 평가인증을 받았는지, 평가인증에서 불인정 판정을 받았거나 유효기간이 종료되어서 이탈했는지, 미인증 상태를 줄곧 유지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알려진 정보가 제한적이다. 또한 평가인증 영역별 점수가 충분히 타당하고 차등적으로 매겨지고,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과 평가인증에서 이탈한 어린이집 간에 차이가 있었는지도 알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신규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이 획득한 평가인증점수가 재평가 어린이집과 비교하여 높은지, 낮은지, 거의 차이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평균점수를 단순비교한 정도의 자료만 공개되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3차 평가인증에 대한 사전 준비와 함께 그동안의 제2차 평가인증 실태를 면밀하게 진단하고 정리하려는 취지에서 지난 3년 동안의 평가인증 변동과 평가인증점수의 관련성을 규명하려고 한다.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주제로 연구를 하였고, 이들의 노력 덕분에 평가인증에 관한 정보와 지식이 상당히 축적되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관한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직원의 평가인증 과정과 사후관리 경험에 관심을 가졌다(서현, 2007; 최미숙·정영미·이빛나, 2013; 탁옥경·배지희, 2007). 이런 연구들에서는 현장관계자들을 설문조사 하거나 심층면접 하여 현장에서의 어려움과 요구를 정책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평가인증을 진행하는 과정과 더불어 평가인증지표를 보완·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자들의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평가인증지표에 관한 연구에서는 호주, 미국, 일본과 같은 외국 사례를 참고로 하여 우리나라의 평가지표 개선방안을 제안하거나(이대균, 2005; 이순자·김세곤·이금란, 2007; 조해연·유선영·박선혜, 2014), 제1·2차 평가지표의 구성, 영역·지표별 가중치 적용과 측정, 평정방식의 문제점을 제기하여(김준현, 2017; 염동문·이한우·홍정아, 2015; 이한우·염동문·강봉석, 2016) 평가지표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더욱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최근에는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이 평가를 받는 기간이 종료된 다음에도 서비스 질을 우수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관리 방안을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김동례, 2015; 박미영·한미라, 2017; 양서정·김수향, 2014).

선행연구들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가정과 어린이집에 미치는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밝혀내기도 했다(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2017). 평가인증을 통해 보육교사들의 전문성이 높아지고(남미경, 2015) 보육자료를 더 많이 활용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들과의 상호작용도 늘어난다(김영희, 박지현,

이은주, 2008). 평가인증에 참여한 어린이집의 거의 대부분(89%)이 평가인증에 참여한 경험에 만족한다는 것으로 조사되었고(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2017), 90% 이상의 평가인증 현장관찰자와 심의위원들이 평가인증제도가 어린이집 질 관리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였다(이미화·서문희·최윤경 외, 2012). 평가인증 어린이집과 미인증 어린이집을 비교한 서문희·송신영(2009)의 연구에서도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서비스 질이 우수하고, 교사의 효능감이 높으며, 보육아동 모집에도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많았다(60%). 서문희·신희연·송신영(2009)의 연구에서도 평가인증에 참여한 이후와 그 이전을 비교하여 평가인증을 통해 어린이집의 서비스 수준이 높아졌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인증 또는 미인증 어린이집의 일반특성을 밝혀내는 연구들도 여러 편 수행되었다. 2013년 40인 이상 신규 평가인증 어린이집 1,716개소의 평가인증점수를 분석한 서문희·양미선·이정원 외(2013)에 따르면, 설립주체 유형별로 획득한 점수에 차이가 있었다. 총점을 기준으로는 직장(97.1점)과 국공립(95.3점)어린이집의 평균 점수가 높았고, 부모협동(87.7점), 법인(89.9점), 민간(90.4점)어린이집의 평균 점수가 낮았다(서문희·양미선·이정원 외, 2013). 하지만 설립주체 유형별 평균 점수의 순위와 점수 차이는 영역별로 달랐다(서문희·양미선·이정원 외, 2013). 천희영·최혜영(2015)의 연구와 양미선·이규림·정지운 외(2016)의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평가인증 유지율과 평가인증 점수가 설립주체 유형별로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40인 이상 또는 39인 이하로 구분된 어린이집의 정원수규모와 재인증 또는 신규인증에 따라서도 평가인증점수에 차이가 있었다(서문희·양미선·이정원 외, 2013). 2015년 6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 어린이집 42,865개소 정보를 분석한 차명숙(2015)의 연구에서도 운영기간이 길고, 정원충족률이 높고, 정원수규모가 적은 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을 받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 외에 보육하는 영유아의 구성, 도시규모, 취약보육별로 총점과 영역별 평가점수에 차이가 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유재언, 2014).

이처럼 최근 들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자료를 분석하여 미인증 어린이집의 일반특성을 규명하고, 일반특성별 평가인증점수 차이를 비교한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선행연구에서 몇 가지 제한점이 남아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고 선행연구들의 결과가 여전히 유효한지 검증하려고 한다. 첫 번째로, 미인증 어린이집의 일반특성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에서는 평가인증 여부만으로 어린이집을 구분하여,

신규인증 어린이집과 재인증 어린이집, 지속적으로 미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과 평가인증에서 이탈하여 미인증으로 상태가 변화된 어린이집이 별도로 분류되지 않았다(유재언, 2014; 차명숙, 2015; 천희영·최혜영, 2015).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평가인증 여부가 아닌 두 시점에서의 평가인증 상태변화를 네 집단(인증→인증, 인증→미인증, 미인증→인증, 미인증→미인증)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어린이집 일반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두 번째로, 조사 당시 평가인증 상태에 있는 어린이집들의 일반특성에 따라서 평가인증점수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는 연구되었지만(서문희·양미선·이정원 외, 2013; 양미선·이규림·정지운 외, 2016; 유재언, 2014; 천희영, 최혜영, 2015), 평가인증에서 미인증으로 이탈하기 전의 평가인증점수가 이런 평가인증 상태 변경에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번 연구에서는 평가인증 상태였을 때의 평가인증점수가 이후 평가인증에서 이탈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세 번째로, 신규인증 어린이집과 재인증 어린이집 간에 총점 및 영역별 평가인증점수를 비교한 연구는 있었지만(서문희·양미선·이정원 외, 2013), 평가인증점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나머지 일반특성이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인증 여부만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만약 신규인증 어린이집이 특정한 일반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일반특성이 평가인증점수에 관련이 있다면, 이를 통제한 후 신규인증에 따른 평가인증점수 차이는 줄어들거나 커질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런 어린이집 일반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신규인증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점수가 재인증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점수와 차이가 나는지를 비교한다.

3. 연구문제

이번 연구에서 설정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린이집의 일반특성에 따른 평가인증 상태변화(인증→인증, 인증→미인증, 미인증→인증, 미인증→미인증)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어린이집이 획득했던 평가인증점수는 이후 평가인증에서의 이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신규인증 어린이집이 획득한 평가인증점수는 재인증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점수와 비교하여 어떤 차이가 있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이번 연구에서의 연구대상은 2014년 5월 이전에 설치되어 2017년 5월까지 운영 중인 충청북도 소재 모든 어린이집이다. 2014년 5월 말 기준으로 충청북도에 소재하여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1,212개소였는데, 이 중에서 이후 3년 간 156개소가 휴업 및 폐업(원)을 하여, 2017년 5월 말까지 운영되고 있는 1,056개소가 이번 연구에서의 분석대상이다. 충청북도 어린이집의 일반특성과 평가인증점수에 관한 정보는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에서(http://info.childcare.go.kr/) 수집했다. 어린이집 일반특성에 관한 정보는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의 2014년 5월과 2017년 5월 어린이집일람현황 자료를 활용했다. 평가인증 여부 및 평가인증점수는 2014년 6월 초와 2017년 6월 초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의 어린이집 평가인증-인증 점수로 찾기에 공표된 정보를 이용했다. 이런 방법으로 두 번에 걸쳐 수집한 어린이집 일반특성과 평가인증점수 자료는 어린이집명, 전화번호, 주소를 기준으로 병합(merge)했다.

이번 연구에서의 분석지역인 충청북도 어린이집의 2014년 수급현황은 다른 시·도 지역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충청북도에는 0~6세 주민등록인구 중에서 51.6%가 어린이집을 이용했고, 이는 전국 평균 46.6%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대도시(광역시·특별시)가 없고 중소도시와 농어촌만 있는 9개 도 지역 중에서는 4번째로 평균 수준이다(박진아·도남희·조혜주, 2015). 어린이집 설립주체 유형별로는 전국 평균에 비해 국공립, 가정 어린이집 이용률이 낮은 반면, 민간 어린이집 이용률은 높았다(박진아·도남희·조혜주, 2015). 충청북도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평균은 81.3%로 전국 평균 82.7%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9개 도 지역 중에서는 2번째로 높은 수준이다(최효미·이정원·김진미, 2015). 충청북도는 대체로 어린이집·유치원 인프라가 적정 수준이고 옥천군, 보은군, 단양군에서는 충분한 공급이 이뤄졌지만, 청원군, 증평군, 제천시에서는 공급이 적어 접근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최효미·이정원·김진미, 2015). 이와 같이 충청북도는 다른 시·도와 비교하였을 때 어린이집 수급 상황이 특별히 두드러지지 않고(유재언, 2014), 충청북도에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특성도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 연구에서의 결과와 매우 유사하여(차명숙, 2015) 이번 연구에서 분석지역으로 선정하였다.

2. 변수설명

가. 평가인증 상태변화

2014년 6월(시점1)과 2017년 6월(시점2) 두 시점에서의 평가인증 상태변화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연구문제에서 종속변수이고, 세 번째 연구문제에서는 독립변수이다. 평가인증 변경은 인증(시점1)→인증(시점2), 인증(시점1)→미인증(시점2), 미인증(시점1)→인증(시점2), 미인증(시점1)→미인증(시점2)의 네 집단으로 구분했다. 첫 번째 연구문제를 규명하는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에서는 인증→인증을 기준집단(=0)으로 하여, 나머지 세 집단을 각각 비교했다. 두 번째 연구문제를 규명하는 이항로지스틱회귀분석에서도 인증→인증을 기준집단(=0)으로 하여, 인증→미인증 집단(=1)과 비교했다. 이 경우 미인증→인증과 미인증→미인증 집단은 분석대상에서 제외됐다. 평가인증 상태변화가 종속변수였던 첫 번째와 두 번째 연구문제 분석에서와 달리, 세 번째 연구문제를 규명하는 최소자승회귀분석에서는 인증→인증 집단(=0)과 미인증→인증 집단(=1)으로 구분하여 현재의 평가인증점수를 설명하는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나. 평가인증점수

두 번째 연구문제에서는 독립변수, 세 번째 연구문제에서는 종속변수로 사용된 평가인증점수는 총점과 보육환경, 보육과정, 상호작용과 교수법, 건강과 영양, 안전 영역 각각에 대해 75~100점까지의 값을 가진다. 두 번째 연구문제에서는 2014년 시점에서의 평가인증점수가 독립변수로 사용되었고, 세 번째 연구문제에서는 2017년 시점에서의 평가점수가 종속변수로 이용되었다. 이번 연구에서 사용된 평가인증점수는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파견한 현장관찰자가 평가를 하고, 평가인증 심의위원회에서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에 공개되어 있는 점수를 사용했다. 3차 지표를 적용하여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 34개소는 평가인증점수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 연구문제를 규명하는 최소자승회귀분석에서만 제외됐다.

다. 어린이집 일반특성

정원충족률, 설립주체 유형, 정원, 보육하는 영유아 구성, 위탁운영, 취약보육, 운영기간, 도시규모의 어린이집 일반특성은 첫 번째 연구문제를 규명하는 다항로짓분석에서 독립변수로 사용됐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연구문제를 규명하는 이항로짓분석에서

는 통제변수로 사용됐다. 정원충족률은 정원에서 차지하는 현원의 비율(%)이다. 설립주체 유형은 국공립, 가정, 민간, 기타(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협동, 직장)의 4개로 구분했고, 이 중에서 비중이 가장 큰 가정이 기준집단(=0)인 더미변수로 만들었다. 설립주체 유형 중에서 법인·단체(30개소), (부모)협동(5개소), 직장(17개소)은 그 수가 너무 적어 사회복지법인과 함께 기타라는 하나의 집단으로 분류했다. 보육하는 영유아 구성은 0~2세의 영아만 보육(=0)하는 경우와 3~5세의 유아도 보육(=1)하는 경우로 구분했다. 3~5세 유아만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7개소에 매우 적어 3~5세의 유아도 보육하는 집단에 포함시켰다. 위탁운영은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 1, 직영을 하는 경우 0으로 구분했다. 취약보육은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장애아통합, 방과후전담, 방과후통합, 시간연장형, 휴일보육, 24시간 서비스를 하나라도 실시하는 경우(=1)와 전혀 실시하지 않는 경우(=0)로 구분했다. 운영기간은 2014년에 설치된 경우 최소 0년부터 1989년 이전에 설치된 경우 최대 25년까지의 값을 가지는 년 단위 연속변수다. 충청북도에는 특별시와 광역시인 대도시가 없으므로 도시규모를 시(市) 지역인 중소도시(=1)와 군(郡) 지역인 농어촌(=0)으로 구분했다.

3. 분석방법

가장 먼저, 충청북도 어린이집의 일반특성과 평가인증점수 기술통계를 알아봤다. 첫 번째 연구문제로, 어린이집의 일반특성에 따른 평가인증 변경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인증→인증 집단과 나머지 세 집단(인증→미인증, 미인증→인증, 미인증→미인증)을 각각 비교하는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했다. 두 번째 연구문제로, 평가인증에서 이탈한 어린이집의 과거 평가인증점수가 어떠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2014년 당시 평가인증 상태였던 어린이집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항로지스틱회귀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했다. 세 번째 연구문제로, 2014년에는 미인증 상태였지만 2017년까지 새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현재 평가인증점수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2017년 현재 평가인증 상태인 어린이집만을 대상으로 최소자승회귀분석(ordinary least square regression analysis)을 했다.

Ⅲ. 연구결과

1. 충청북도 어린이집의 일반특성 및 평가인증 점수 기술통계

연구문제를 본격적으로 규명하기에 앞서, <표 1>을 통해 연구대상인 어린이집의 일반특성과 평가인증점수 기술통계를 우선적으로 살펴보겠다.

〈표 1〉 충청북도 어린이집의 일반특성과 평가인증점수 기술통계

변수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범위
평가인증 상태변화	1,056	100.0		
인증→인증	773	73.2		
인증→미인증	82	7.8		
미인증→인증	120	11.4		
미인증→미인증	81	7.7		
정원충족률('14/'17)	1,056	100.0	86.0(17.5)/73.6(23.6)	0-100/0-100
설립주체 유형	1,056	100.0		
국공립	49	4.6		
가정	472	44.7		
민간	383	36.3		
기타	152	14.4		
정원	1,056	100.0	54.0(50.1)	9-341
보육 영유아 구성	1,056	100.0		
유아(3~5세)도 보육	490	46.4		
영아(0~2세)만 보육	566	53.6		
위탁운영	100.0	100.0		
위탁운영	38	3.6		
직영	1,018	96.4		
취약보육여부	1,056	100.0		
실시	311	29.5		
미실시	745	70.6		
운영기간	1,056	100.0	10.1(6.3)	0-25
도시규모	1,056	100.0		
중소도시(시)	675	63.9		
농어촌(군)	381	36.1		
평가인증점수('14/'17)				
총점	855/861		94.0(3.8)/96.4(2.7)	80.6-99.9/84.8-100
보육환경	855/861		96.2(4.0)/98.1(2.7)	77.7-100/79.0-100
보육과정	855/861		96.1(4.6)/97.7(3.4)	75.7-100/77.0-100
상호작용과 교수법	855/861		94.7(4.1)/96.5(3.4)	78.0-100/79.0-100
건강과 영양	855/861		93.7(4.9)/95.4(4.1)	75.7-100/76.3-100
안전	855/861		91.0(6.4)/94.7(4.9)	75.3-100/76.3-100

첫째, 평가인증변동은 인증→인증이 73%로 가장 많았고, 미인증→인증(11%), 인증→미인증(8%), 미인증→미인증(7%)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지난 3년 사이에 충청북도 전체 어린이집의 1/4 이상이 평가인증 상태가 달라졌거나 미인증을 고수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둘째, 평균 정원충족률은 2014년 86%에서 2017년 74%로 낮아지고, 표준편차는 커져, 지난 3년 사이에 해당 어린이집에서 보육하고 있는 아동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걸 알 수 있다. 셋째, 설립주체 유형은 가정어린이집(45%)과 민간어린이집(36%)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협동, 직장의 기타(14%)와 국공립어린이집(5%)의 비중은 낮은 수준이었다. 넷째, 평균 정원은 54명이었으나, 최소 9명에서 최대 341명까지 범위가 넓었다. 다섯째, 영유아의 구성은 0~2세 영아만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절반 이상이었고(54%), 3~5세 유아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46%였다. 참고로, 3~5세 유아만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7개소에 불과하여 3~5세도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포함시켰다. 여섯째, 위탁운영을 하는 어린이집은 4%로 적었고, 거의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직영(96%)을 하였다. 일곱째, 취약보육을 실시(30%)하는 어린이집은 미실시(71%) 어린이집의 절반이 되지 않았다. 여덟째, 평균 운영기간은 10년이었다. 아홉째, 중소도시(시)에 소재한 어린이집이 약2/3이고, 1/3정도의 어린이집은 농어촌(군)에 소재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평가인증점수 총점과 영역별 획득점수는 2014년과 2017년 모두 90점대 중반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고, 최근 들어 소폭 더 상승했다.

2. 어린이집 일반특성에 따른 평가인증 변동: 연구문제 1

첫 번째 연구문제로 어린이집 일반특성에 따라서 평가인증 변동에 차이가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이 분석에서는 2014년과 2017년 모두 평가인증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기준이다.

2014년에는 평가인증이었다가 2017년 미인증으로 변경된 어린이집의 일반특성에 관한 분석 결과부터 살펴보겠다.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2014년 5월)이 1%씩 높아질수록 인증에서 미인증으로 변경되는 확률이 3%씩 낮아졌다(RRR=0.97, p<.001). 하지만 설립주체 유형, 정원, 보육하는 영유아 구성, 위탁운영, 취약보육, 운영기간, 도시규모에 따라서는 미인증으로 변경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는 미인증이었다가 2017년 평가인증 어린이집으로 변경된 어린이집의 일반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도 살펴보겠다. 정원충족률이 1% 높아질수록 미인증에서 인

증으로 변경될 확률이 3%씩 낮아졌다(RRR=0.97, p<.001). 취약보육을 실시하던 어린이집은 취약보육을 실시하지 않던 어린이집에 비해 미인증에서 인증으로 변경될 확률이 49% 낮아졌다(RRR=0.51, p<.01). 이는 취약보육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은 2014년 이전부터 평가인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운영기간이 1년 길어질수록 미인증에서 인증으로 변경될 확률이 6%씩 낮아져(RRR=0.94, p<.01), 설치된 지 오래된 어린이집일수록 2014년 이전부터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설립주체 유형, 정원, 보육하는 영유아 구성, 위탁운영, 도시규모는 미인증에서 인증으로 변경되는데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2014년과 2017년 모두 미인증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일반특성에 관한 분석 결과를 보겠다. 2014년에 정원충족률이 1%씩 높아질수록 지속적으로 미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일 확률이 5%씩 낮아졌다(RRR=0.95, p<.001). 그러나 이번 분석에 사용된 나머지 일반특성은 미인증을 유지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평가인증의 상태변화에 관한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변수	인증→미인증 (기준:인증→인증)		미인증→인증 (기준:인증→인증)		미인증→미인증 (기준:인증→인증)	
	RRR	SE	RRR	SE	RRR	SE
상수	2.94	1.75	6.53**	3.71	12.42***	7.13
정원충족률	0.97***	0.01	0.97***	0.01	0.95***	0.01
설립주체 유형(기준: 가정)						
국공립	1.01	0.68	1.00	0.58	0.29	0.33
민간	0.87	0.27	0.88	0.25	1.05	0.31
기타	0.99	0.37	0.67	0.26	0.40	0.20
정원	1.00	0.00	1.00	0.00	0.99	0.00
유아도 보육(기준: 영아만 보육)	0.69	0.23	1.59	0.55	0.91	0.36
위탁운영(기준: 직영)	0.45	0.50	0.71	0.50	0.37	0.35
취약보육실시(기준: 미실시)	0.95	0.26	0.51**	0.13	0.56	0.17
운영기간	0.97	0.02	0.94**	0.02	0.96	0.02
농어촌(기준: 중소도시)	0.71	0.20	0.65	0.16	1.20	0.34
N	1,056					
Wald χ^2 (df)	126.01 (30)***					
Pseudo R^2	.07					
Log pseudolikelihood	-852.97					

** p < .01, *** p < .001.

3. 이전의 평가인증점수에 따른 미인증으로 상태변화 : 연구문제 2

앞에서는 어린이집의 일반특성에 따라서 평가인증 변경에 차이가 있었는지를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했는데, 이 경우 2014년 당시 미인증이었던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점수 자체가 없으므로 평가인증점수가 평가인증 변경에 관련이 있는지는 분석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는 2014년에 평가인증 상태라 평가인증점수가 있었던 어린이집만을 대상으로 하여 당시의 어린이집 일반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평가인증점수가 미인증으로 변경되는데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이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평가인증점수에 따른 평가인증 이탈에 관한 이항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변수	인증→미인증(기준: 인증→인증)	
	OR	SE
상수	601.12	2750.26
정원충족률	0.97***	0.01
설립주체 유형(기준: 가정)		
국공립	0.99	0.68
민간	0.90	0.27
기타(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협동, 직장)	1.00	0.38
정원	0.99	0.00
유아도 보육(기준: 영아만 보육)	0.79	0.30
위탁운영(기준: 직영)	0.50	0.58
취약보육실시(기준: 미실시)	0.92	0.26
운영기간	0.95	0.02
농어촌(기준: 중소도시)	0.71	0.21
평가인증점수(2014년 6월)		
총점	1.06	0.11
보육환경	0.99	0.04
보육과정	1.01	0.04
상호작용과 교수법	0.99	0.04
건강과 영양	0.93*	0.03
안전	0.98	0.04
N	855	
Wald χ^2 *(df)*	42.82 (16)***	
Pseudo R^2	.07	
Log pseudolikelihood	-251.08	

* $p < .05$, *** $p < .001$.

<표 3>을 보면, 2014년 시점에서의 건강과 영양 영역 평가인증점수가 1점 높아질수록 2017년 미인증으로 변경될 오즈비(odds ratio)가 7%씩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OR=0.93, p<.05). 하지만 그 외의 평가인증점수 총점, 보육환경, 보육과정, 상호작용과 교수법, 안전 영역에서의 획득 점수별로는 미인증으로의 변경에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표 2에서의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정원충족률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OR=.97, p<.001).

4. 신규인증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점수: 연구문제 3

그렇다면 2014년 6월에는 미인증 상태였지만 2017년 5월까지 신규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점수가 재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점수와 비교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연구문제 3) 최소자승회귀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는 <표 4>(총점, 보육환경, 보육과정), <표 5>(상호작용과 교수법, 건강과 영양, 안전)와 같다.

〈표 4〉 신규인증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점수(총점, 보육환경, 보육과정)에 관한 최소자승회귀분석 결과

변수	총점		보육환경		보육과정	
	b	*SE*	*b*	*SE*	*b*	*SE*
상수	95.72***	0.67	96.80***	0.62	98.72***	0.70
정원충족률	0.01	0.01	0.01	0.01	−0.01	0.01
설립주체 유형(기준: 가정)						
국공립	0.24	0.47	−0.28	0.34	−0.01	0.55
민간	−0.24	0.24	−0.49	0.26	0.03	0.33
기타	0.34	0.28	−0.54	0.29	0.33	0.39
정원	−0.01***	0.00	0.00	0.00	0.00	0.00
유아도 보육(기준: 영아만 보육)	0.64*	0.28	1.41***	0.30	0.41	0.32
위탁운영(기준: 직영)	1.25**	0.38	0.99***	0.26	1.11**	0.38
취약보육실시(기준: 미실시)	−0.11	0.21	−0.50*	0.22	−0.10	0.26
운영기간	0.00	0.02	0.01	0.02	0.00	0.02
농어촌(기준: 중소도시)	−0.10	0.20	−0.08	0.19	0.26	0.25
미인증→인증	−0.24	0.30	−0.32	0.29	−0.82*	0.40
N	859		859		859	
F (df)	3.83 (11)***		10.42 (11)***		2.31 (11)**	
R^2	.06		.10		.02	

* p < . 05, ** p < . 01, *** p < .001.

이번 분석에서는 신규인증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점수가 2014년 시점에서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대상(인증→인증과 미인증→인증) 어린이집의 2017년 6월 시점 평가인증점수를 사용했다. 평가인증점수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최소자승회귀분석에서 종속변수의 정규분포 가정으로부터 자유로운 로버스트(robust) 표준오차 추정을 하였다. 3차지표로 평가인증을 받은 34개소 어린이집의 경우 현재의 평가인증점수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 <표 4>와 <표 5>의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표 4>의 총점에 관한 분석결과부터 살펴보겠다. 2014년 미인증에서 2017년 인증으로 변경된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점수 총점은 2014년부터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비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에서 정원, 보육하는 영유아 구성, 위탁운영, 취약보육은 총점에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정원이 1명 늘어날수록 총점은 0.01점씩 낮아졌다(b=-0.01, p<.001). 유아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총점은 영아만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총점에 비해 0.64점 높았다(b=0.64, p<.05). 위탁운영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은 직영인 어린이집에 비해 총점이 1.25점 높았다(b=1.25, p<.01).

<표 4>의 보육환경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겠다. 신규인증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점수는 재인증 어린이집에 비해 차이가 없었다. 통제변수 중에서 보육하는 영유아 구성, 위탁운영, 취약보육 실시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이었다. 유아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영아만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비해 보육환경 점수가 1.41점 높았다(b=1.41, p<.001). 위탁운영을 하는 어린이집은 직영을 하는 어린이집에 비해 보육환경 점수가 0.99점 높았다(b=0.99, p<.001). 취약보육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은 취약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비해 보육환경 점수가 0.50점 낮았다(b=-0.50, p<.05).

<표 4>의 보육과정에 관한 분석결과도 살펴보겠다. 신규인증 어린이집의 보육과정 점수는 재인증 어린이집에 비해 0.82점 낮았다(b=-0.82, p<.05). 통제변수 중에서는 위탁운영만 보육과정 점수에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운영을 하는 어린이집은 직영을 하는 어린이집에 비해 보육과정 점수가 1.11점 높았다(b=1.11, p<.01).

이어서 <표 5>에서 상호작용과 교수법, 건강과 영양, 안전에 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겠다. 상호작용과 교수법, 건강과 영양, 안전 모두 신규인증 어린이집과 재인증 어린이집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통제변수는 이런 영역별 점수에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어린이집의 정원이 1명 늘어날수록 상호작용과 교수법, 안전 점수가 각각 0.01점(b=-0.01, p<.001), 0.03점씩(b=-0.03, p<.001) 낮아졌다. 유아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영아만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비해 상호작용과 교수법 점수가 0.70점 낮았다(b=-0.70, p<.05). 위탁운영을 하는 어린이집은 직영을 하는 어린이집에

비해 상호작용과 교수법 점수가 1.17점 높았다(b=1.17, p<.05). 정원충족률이 1% 높아질수록 건강과 영양, 안전 점수가 각각 0.02점(b=0.02, p<.05), 0.03점(b=0.03, p<.05) 높아졌다. 기타(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협동, 직장)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에 비해 건강과 영양 점수가 0.93점 높았다(b=0.93, p<.05).

〈표 5〉 신규인증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점수(상호작용과 교수법, 건강과 영양, 안전)에 관한 최소자승회귀분석 결과

변수	상호작용과 교수법		건강과 영양		안전	
	b	*SE*	*b*	*SE*	*b*	*SE*
상수	97.24	0.73	93.34***	0.98	94.44***	1.15
정원충족률	0.00	0.01	0.02*	0.01	0.03*	0.01
설립주체 유형(기준: 가정)						
국공립	0.23	0.49	0.98	0.68	1.04	0.77
민간	0.13	0.28	−0.04	0.37	−0.09	0.40
기타	0.42	0.34	0.93*	0.42	0.14	0.54
정원	−0.01***	0.00	−0.01	0.00	−0.03***	0.01
유아도 보육(기준: 영아만 보육)	−0.70*	0.35	0.63	0.45	−0.14	0.48
위탁운영(기준: 직영)	1.17*	0.46	0.74	0.70	0.65	0.84
취약보육실시(기준: 미실시)	0.07	0.25	0.02	0.31	−0.71	0.38
운영기간	−0.03	0.02	0.03	0.03	−0.02	0.03
농어촌(기준: 중소도시)	0.03	0.26	0.15	0.31	−0.61	0.37
미인증→인증	−0.08	0.33	−0.07	0.48	0.28	0.48
N	859		859		859	
F (df)	6.82 (11)***		1.96 (11)*		11.51 (11)***	
R^2	.08		.03		.15	

* p < .05, ** p < .01, *** p < .001.

Ⅳ. 논의 및 결론

이번 연구는 2014년 5월 이전부터 2017년 5월 말까지 운영되고 있는 충청북도 어린이집 1,056개소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평가인증 상태변화가 어린이집의 일반특성 및 평가인증점수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봤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세 개의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어린이집 일반특성에 따른 평가인증 상태변화에 관한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연구문제1), 2014년 평가인증 점수에 따른 평가인증에서의 이탈에 관한 이항로지스틱회귀분석(연구문제2), 신규인증 어린이집의 2017년 평가인증점수에 관한 최소자승회귀분석(연구문제3)을 각각 실

시했다.

연구문제별 주요 분석 결과를 논의하겠다. 첫 번째 연구문제를 풀기 위한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에 비해 지난 3년 사이에 평가인증에서 이탈하거나, 신규인증을 받았거나, 미인증을 고수하는 어린이집은 공통적으로 3년 전의 정원충족률이 낮았다. 그중에서도 미인증을 고수하는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 수준이 특히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차명숙(2015)의 분석 결과와도 일치한다. 하지만 정원충족률과 달리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과 평가인증 상태가 변화된 어린이집 간에 설립주체 유형, 정원, 보육하는 영유아 구성, 위탁운영, 도시규모의 일반특성에는 차이가 없었다. 신규인증 어린이집에서는 취약보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적고, 운영기간이 짧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이는 취약보육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설치된 지 오래되지 않았을 때부터 이미 평가인증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종합하면, 취약보육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을 제외하면 나머지 일반특성과는 무관하게 운영기간이 길어지면서 재인증까지 받는데, 일반특성 만으로는 구체적인 이유는 파악할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정원충족률이 낮았던 어린이집에서 주로 평가인증 상태가 변화된 것이다.

첫 번째 분석을 통해 정원충족률이 낮았던 어린이집이 주로 평가인증에서 이탈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지만 본 연구에 사용된 일반특성 만으로는 그 원인을 파악하기가 어려워, 두 번째 분석에서는 평가인증점수를 독립변수로 추가하여 구체적으로 평가인증의 어느 영역이 이탈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봤다. 분석 결과, 정원충족률을 제외하면 여러 평가영역 중에서 낮은 수준의 건강과 영양만이 평가인증을 이탈하는데 밀접한 관련이 있었고, 그 외에 총점, 보육환경, 보육과정, 상호작용과 교수법, 안전 수준은 평가인증에서의 이탈에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두 번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원충족률과 더불어 낮은 수준의 건강과 영양 서비스 질이 평가인증에서 이탈하는데 중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2017년 11월 이후 3차 평가인증이 시행되고 미인증 어린이집을 불인증, 미신청, 변동(취소, 종료 등)으로 구분한 정보가 공개되면, 이와 관련하여 보다 정교한 후속연구가 이어져 본 연구에서의 분석 결과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신규인증 어린이집이 획득한 평가인증점수는 재인증 어린이집에 비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보기 위하여 최소자승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새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보육과정 점수가 약 1점 낮지만 총점, 보육환경, 상호작용과 교수법, 건강과 영양, 안전 영역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

다. 평가인증점수보다는 오히려 정원충족률, 설립주체 유형, 정원, 보육하는 영유아 구성, 위탁운영, 취약보육의 일반특성에 따라서 평가인증점수에 차이가 있었다. 어린이집의 정원이 늘어날수록 상호작용과 교수법, 안전 수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 위탁운영을 하는 어린이집은 총점, 보육환경, 보육과정, 상호작용과 교수법의 여러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협동, 직장이 속한 기타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에 비해 건강과 영양의 질이 우수했다. 보육하는 영유아 구성과 평가인증점수의 관련성은 영역별로 복잡했다. 유아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영아만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비해 총점과 보육환경 수준이 높았으나, 상호작용과 교수법 수준은 낮았다. 이번 연구에서의 결과와 달리 서문희·양미선·이정원 외(2013)의 연구에서는 신규인증 어린이집과 재인증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점수에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 두 연구에서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은 이유는 서문희·양미선·이정원 외(2013)의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 어린이집 일반특성을 통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즉, 재인증 어린이집과 신규인증 어린이집 간의 평가인증점수 격차는 평가인증을 받은 횟수보다는 어린이집의 일반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연구의 분석결과와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겠다. 첫째, 후속연구에서는 평가지표와 어린이집이 획득한 평가인증점수(총점과 영역별 점수)의 타당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건강과 영양 영역의 점수가 평가인증에서 이탈하는데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그 외의 총점, 보육환경, 보육과정, 상호작용과 교수법, 안전 점수는 평가인증에서의 이탈에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또한 보육과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영역의 평가인증점수가 재인증 어린이집과 신규인증 어린이집 간에 차이가 없었고, <표 1>의 기술통계에서 평가인증 총점과 모든 영역별 평균점수가 90점대 초중반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결과들은 현재의 평가인증점수 변별력이 낮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므로 제3차 평가인증이 등급제로 전환될 경우를 대비하여 현재의 평가인증점수 분포를 정밀하게 분석해서 등급별 커트라인을 어느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지 정해질 필요가 있다. 둘째, 평가인증 상태변화나 획득한 평가인증점수의 변화에 따라서 정원충족률도 어떻게 달라지는지 후속연구에서 종단적인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어린이집 일반특성 중에서도 정원충족률이 세 가지의 평가인증 상태변화에 모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나, 역으로 평가인증 변경과 평가인증점수가 어린이집 이용자의 선택에도 영향을 주어 정원충족률이 변화되는지를 알아보지는 못했다. 그러므로 평가인증제도 참여와 평가인증결과 정보공개제도가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어린이집 선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연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현재의 평가인증점수는 어린이집의 영역별 서비스 질이 변별력 없이 과대추정 되고 있으므로, 제3차 평가인증에서는 등급 분류가 어린이집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되도록 평가지표의 타당도를 높여 모든 어린이집이 A등급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해야 한다. 둘째, 정원충족률이 낮을수록 미인증으로 이탈하거나 미인증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정원충족률이 낮고 미인증을 고수하는 어린이집의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평가인증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안내, 교육, 지도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건강과 영양 점수가 낮았던 어린이집이 미인증으로 이탈하는 경우가 많았고, 기타어린이집에 비해 가정어린이집의 건강과 영양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어린이집을 표적 집단으로 하여 건강과 영양 수준을 높이고 평가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교육을 해야 한다. 넷째, 신규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서의 보육과정 수준이 재인증 어린이집에 도달할 수 있도록 평가인증 신규 신청 시 보육과정 평가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이 영역의 서비스 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을 사후관리 차원에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평가인증에 참여하여 높은 등급을 받아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어린이집 측에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등급별 인센티브 차등 제공도 고려해볼 수 있다.

곧 다가올 제3차 평가인증에서는 미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관해서도 표준화된 등급으로 평가결과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궁극적으로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가 신청제에서 의무제로 전환되어 모든 어린이집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정책변화가 어린이집의 서비스 질을 더욱 향상시키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가정에게 보다 객관적이고 많은 정보를 쉽게 전달해줄 수 있도록 이번 연구에서 밝혀낸 신규인증, 이탈, 지속적인 미참여 어린이집을 표적 집단으로 한 홍보, 교육, 사후관리가 강화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김영희·박지현·이은주(2008). 보육시설 평가인증이 보육교사의 보육활동 자료활용 및 유아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9(3), 387-397.

김준현(2017).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발전방안 연구: 평정방식과 평정결과 공개방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7(4), 53-79.

남미경(2015). 어린이집 평가인증이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발달과 교수 효능감 및 직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생태유아교육연구, 14(3), 68-90.

박진아·도남희·조혜주(2015). 지역별·유형별 어린이집 수급 현황 분석 및 전망.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보건복지부(2016). 보육통계 2016년 12월 말 기준. 세종: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2017). 2017 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통합지표). 서울: 한국보육진흥원.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2015). 2015 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40인 이상 어린이집). 서울: 한국보육진흥원.

서문희·김온기·김명순·서영숙·이완정·서소정·나종혜·김은영·이계윤·이원선·송신영(2009). 보육시설 평가 인증 시행의 평가와 추진방안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서문희·신희연··송신영(2009). 보육시설 평가인증 효과 분석.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서문희·양미선·이정원·김온기·원종욱·송신영(2013). 어린이집의 질 제고를 위한 평가인증제도 중장기 개편방안. 서울: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서현(2007).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보육교사 경험의 의미. 한국영유아보육학, 50, 1-29.

양미선·이규림·정지운·김정민(2016). 공보육·교육 공급 정책 평가와 개선방안.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유재언(2014). 충청북도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5), 15-30.

유재언(2017). 2015학년도 어린이집 월별 정원충족률 변화 분석을 통한 월별 통계자료 제공 필요성 논의. 디지털융복합연구, 15(3), 27-37.

이미화·서문희·최윤경·엄지원(2012).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평가인증 발전방안 연구. 서울: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이한우·염동문·강봉석(2016). AHP분석을 통한 어린이집 평가인증지표에 대한 중요도 연구: 경남지역 40인 이상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0(1), 307-325.

조해연·유선영·박선혜(2014). 유아교육기관 평가 지표 분석: 한국(유치원평가, 어린이집 평가인증), 미국(NAEYC), 호주(ACECQA)의 상호작용 영역 평가 지표 비교를 중심으로. 유아교육학논집, 18(6), 139-163.

차명숙(2015).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 배경요인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2(4), 199-213.

차영숙·유희정·강민정(2012).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들려주는 평가인증 참여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과 변화에 대한 이야기. 유아교육연구, 32(6), 83-109.

천희영·최혜영(2015). 부산지역 인증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수준 분석. 생애학회지, 5(1), 91-104.

최미숙·정영미·이빛나(2013). 법인어린이집 평가인증 재인증에 대한 교직원 인식 차이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75, 117-134.

최효미·이정원·김진미(2015). 어린이집·유치원 인프라 격차에 따른 지역 유형화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탁옥경·배지희(2007). 보육시설 평가인증 과정에 참여한 원장과 교사의 인식. 유아교육연구, 27(4), 327-353.

하영례(2008).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준비과정의 어려움에 관한 질적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12(4), 25-47.

한겨레 2016. 10. 5. 아동학대 어린이집 평균 90점 이상...'엉터리'평가인증.

한국보육진흥원(2017). 어린이집 평가인증-평가인증 제도운영. https://www.kcpi.or.kr/

·논문접수 8월 9일 / 수정본 접수 8월 28일 / 게재 승인 9월 19일

·교신저자: 유재언, 아이오와주립대 인간발달가족학과 박사, 이메일 jjagjjag@naver.com

Abstract

Service Quality of Child Care Centers and Changes in Participation in Accreditation Policy

Jaeeon Yoo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characteristics and service quality of child care centers, and changes in participation in accreditation policy over last three years. Based on the data from 1,056 child care centers in Chungbuk province in 2014 and 2017, multinomial and binary logistic, and ordinary least square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The child care centers with lower levels of enrollment rates were less likely to continue to participate in accreditation policy. In addition, lower level of the health and nutrition quality of child care centers was a significant predictor on the likelihood of discontinue participation in the accreditation policy. Moreover, the care process quality of child care centers that recently participated in this accreditation policy was lower than those of child care centers that have consistently participated in the policy. However, other service qualities in 2017, such as environment, interaction and teaching, and safety did not vary from changes in participation in the policy. These results have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accreditation policy to provide objective information and service quality of child care centers.

Key words: Accreditation Policy, child care policy, child care center, administrative big data

육아정책연구
제11권 제2호(2017. 9.) 219~246

미취학 아동의 보육 및 교육시설 입지환경에 대한 연구: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황세원[1)] 김효진[2)] 최정선[3)]

요 약

도시의 물리적 환경은 아동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미취학 아동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보육시설과 교육시설의 경우 실내 환경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이루어지고 주변 도시 및 근린환경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취학 아동의 보육·교육시설 주변 환경을 건축물 용도 및 유해시설 분포, 도로와의 관계, 공원의 접근성이라는 세 가지 물리적 요소로 분석함으로써 보육·교육시설의 입지환경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에 입지한 건축물의 용도 및 유해시설에 대해 살펴 본 결과, 유해시설은 금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성동구에 주로 집중되어 있었다. 미취학 아동이 공장시설, 숙박위락시설과 같은 유해시설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육·교육시설의 입지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유치원 주변 도로 환경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되어 있으나, 속도제한만으로는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보육·교육시설에 주변 도로에서 아동의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인접한 공원 접근성을 살펴본 결과, 전체 공원 비율이 낮으며 공원 인접 어린이집과 유치원 수도 적은 경우는 광진구, 구로구로 나타났다. 보육·교육시설에서 도보로 접근할 수 있는 소규모 공원 확보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보육·교육시설의 입지환경을 살펴 본 결과, 미취학 아동의 안전한 활동 보장 및 근린환경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주변 유해시설에 대한 규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보행으로 접근 가능한 공원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추후 후속 연구를 통해 보육·교육시설의 입지 환경과 관련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미취학 아동, 어린이집 및 유치원, 입지환경, 유해시설, 도로 및 공원시설

1)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박사수료
2)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도시설계 협동과정 박사수료
3)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박사수료

Ⅰ. 서론

아동은 성인과는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받아들이고 인식한다. 아동은 감각과 신체를 이용하여 주변 환경을 섬세하게 받아들이며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Olds(2001)는 아동은 주변의 미세한 속성에 대해 감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Prescott & David(1976)의 연구에서는 실제로 영유아가 사람보다 장소와 감각을 더 잘 기억한다고 나타났으며, 영유아는 어른이 미처 인식하지 못한 환경의 섬세한 자극에 깊은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나종혜, 2013 재인용).

도시의 물리적 환경은 개인의 활동과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연구결과로 나타나고 있어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된다(Handy, 2002). 특히 영유아 및 아동의 경우 근린환경 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므로, 아동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도시환경은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4] Horelli(2007)은 아동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중점을 두었으며, 아동친화적 환경에 대한 관점으로 지역사회 환경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Nordström(2009)은 아동친화적 환경에 대한 요소를 도출하기 위해 “좋은 환경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과 개념”, “아동의 경험과 교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연구” 두 가지에 대한 문헌을 검토하여 총 10가지 요소를 도출하였으며, 이 중 주택, 안전, 도시 및 환경의 질이 물리적 환경과 관련된 부분으로 제시되어 아동을 위한 도시환경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국내에서도 아동과 관련된 환경을 건축물 내 실내환경에 국한하는 범위를 넘어 도시와 근린환경에 초점을 두어 연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양육과 관련하여 도시주거환경을 고찰하는 연구와 함께,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와 관련하여 지표를 마련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천현숙 외, 2012; 홍승애 외, 2012). 아동이 생활하는 주거공간 뿐 아니라 아동의 생활권인 건축물의 주변 근린환경에 대해서도 연구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과 같은 미취학 보육·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여전히 실내 환경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어 주변 도시 및 근린환경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각각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에서 규정하는 법령을 따르게 된다.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인구밀도와 보육시설의 수요 및 공급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나[5] 이는 주변 환경에 대한 기준이라 보기

4) 주거지 외부공간 사용자 중 70%가 15세 이하의 아동으로 주거지 외부공간의 가장 중요한 사용자 집단이다.(Marcus, 1974)

5)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르면 도시취약지역이나 공동주택 또는 산업단지지역에 입지를 권고하거나 제15조의2항에서는 어느 규모 이상일 때 놀이터 설치를 명시하는 선에서 주변 환경

는 어렵다. 또한 법령의 대부분이 보육시설과 운영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어린이집 설치 시 주변 환경과 관련된 기준은 찾아보기 어렵다. 「유아교육법」에서는 '학교'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규칙 제89조에 따라 통학 위험요인이나 녹지와 같은 차단공간에 대한 간단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다[6]. 그러나 유치원의 경우 '학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초·중·고등학교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유아교육법」에서도 유치원에 대한 입지환경 기준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처럼 미취학 아동이 이용하는 보육·교육시설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주변 환경은 아동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지만 지금까지는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보육·교육시설 주변 환경에 대해 조사 분석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향후 보다 나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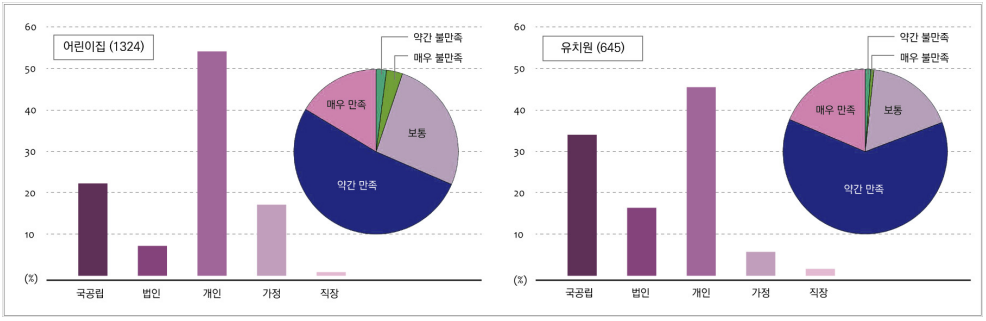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도시 맥락에서 높은 인구밀집을 보이며, 비교적 많은 수의 보육기관이 분포해 있으며, 다양한 자료의 구득이 가능한 서울시 내에 위치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주변 환경을 분석하고자 한다.

서울시가 매년 시민 생활과 사회 환경의 모습을 조사하는 '서울서베이'에서도 보육과 관련한 지표 문항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2015년 서울서베이에서 거주지 선택요인을 살펴보면 교육과는 별개의 항목으로 어린 자녀 양육과 보육을 선택한 비율이 전체의 21%를 차지한다. 이는 보육 및 교육시설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실질적인 보육에 대한 조사는 보육시설 조사에 그쳤는데 어린이집(1324개)과 유치원(645개)을 분리해서 분석한 결과 둘 다 민간개인형 어린이집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개인 및 가정 보육형태 비율이 높은 어린이집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국공립, 법인, 직장형태 비율이 높은 유치원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다(그림 1 참조). 현재 보육시설과 관련하여 서울서베이에서 만족도를 조사하는 항목은 보육시설 자체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주변 입지환경을 배제하고 시설 자체에만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규모가 작을수록 시설 뿐만 아니라 입지환경도 취약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7]. 따라서 보육시설의 입지와 환경에 대한 조사와 평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이와 관련한 연구가 절실하다.

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있다.

6) 제11항에서 초등학교의 통학거리에 관한 사항, 제14항에서 초, 중, 고등학교에 한하여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공원 및 녹지축과 연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7)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2항에 따르면 보육정원이 50명 미만이거나 100m 이내 놀이터가 있는 경우 또는 여건상 놀이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놀이터 설치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최소한의 야외공간 마저 확보되지 못하는 소규모 보육시설들이 다수 있을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주: 서울서베이 자료 중 보육시설 관련 항목에 대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과 만족도 문항들을 추출·분석하여 연구자가 그림으로 재구성함.

자료: 서울특별시(2015b). 서울서베이 (가구주) 도시정책지표조사. http://data.seoul.go.kr/openinf/fileview.jsp?infId=OA-13270 (검색일: 2017. 5. 22)

〔그림 14〕 서울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시설 종류 및 만족도

첫째, 미취학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시설 내에 대한 규정이나 가이드라인 등이 있거나 육아환경이나 유치원의 실외놀이와 관련된 연구는 상당수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아동의 실외활동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보육시설에서의 활동 중 실외활동이 많아질 수 있도록[8]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입지환경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 저출산, 맞벌이 부부 증가, 보육료 지원 등 여러 가지 현상을 바탕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양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입지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각종 유해시설이 있는 곳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입지하여 운영되는 경우가 상당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 미취학 아동의 경우 등하원, 산책, 실외놀이가 이루어지는 주변 근린환경 속 유해시설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주변 건축물의 용도 및 유해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필요하다.

둘째, 미취학 아동이 보호자와 함께 걸어서 등하원을 하는 경우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초등학교 부설 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 이상 교육시설에 확보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방지턱과 CCTV 설치 등에 대한 기준을 같이 적용받게 된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시 사고감소효과를 가져오며 토지이용 특성별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시 개선효과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신민호 외; 2005). 그러나 영유아 보육 또는 교육시설의 경우 정원이 상대적

8) 누리과정 운영방안에서는 실외활동을 하루 1시간 이상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9) 이영돈 PD의 소비자고발, KBS(2008. 7. 25)

으로 적으며 작은 단위, 즉 한 건물, 또는 건물 내 부분점유 등으로 자리 잡게 된다. 또한 스쿨존으로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학교 주변 중심으로 지정되어, 어린이집 주변은 상대적으로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비율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10] 지금까지는 규모가 작아 영유가 보육 기관의 입지환경까지 고려하지 못한 채 지나치기 쉬웠지만, 안전에 대한 인식 및 실질적인 보완과 지원을 위해서는 입지환경이 어떠한지 세밀하게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거주환경의 유형에 따라 안전에 대한 인식이 다르므로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유인창 외, 2014).

셋째, 미취학아동의 보육시설의 경우 단독건물의 부분적인 점유형태로 인하여 필지 내 공지를 오픈스페이스 또는 놀이터로 활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또한 미취학 아동은 먼 거리를 매일 이동하기 어려우므로 산책을 하는 등 간단한 야외활동이 보육·교육시설의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육·교육시설과 가까운 지역에 오픈스페이스가 있다면 아동의 야외활동이 가능하겠지만 적절한 오픈스페이스가 없다면 아동의 야외활동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11] 일본의 경우 최근 정부가 어린이집을 늘리기 위해 임대건물에도 어린이집을 신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면서 주변 놀이터와 공원 사용을 장려하는 상황 속에서 한 공원에 주변 어린이집 아이들이 한 번에 모여들고 있어 어린이집 양적 확충과 함께 보육환경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12] 즉, 보육·교육시설에서 근접한 거리에 공원 및 녹지의 입지여부도 아동의 야외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에 입지한 공원 녹지 현황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취학 아동의 보육·교육시설들이 도시환경 속에서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주변 유해시설들이 주변에 분포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유형들인지 알아보고, 보육·교육시설 주변에 위치한 도로는 보행에 안전한지 마지막으로 미취학 아동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공원 등 녹지, 오픈스페이스와의 접근성에 대하여 분석해 봄으로써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입지환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

10) JTBC [밀착카메라] 기사, 2017.8.8., http://news.jtbc.joins.com/html/296/NB11505296.html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633여 곳 가운데 주변 도로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건 7%에 불과하며, 경기도의 경우 3600여 곳의 어린이보호구역 중 어린이집 주변은 68곳 밖에 없다.

11) 김희진(2011)의 연구에 따르면 실외놀이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교사의 인식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실외공간과 시설구비(60.0%)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실외활동을 위한 공간이 매우 부족하며 이에 대한 확충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12) KBS 국제뉴스기사, 2017.8.1.,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525754&ref=A

Ⅱ. 연구방법

1. 연구 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서울시 내에 위치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 내 어린이집의 수는 총 4380개이며 유치원은 총 888개로 집계되었다. 유치원은 전수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어린이집의 경우 입지환경의 중요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어린이집을 일부 한정하여 조사하였다. 가정어린이집은 아파트 내에 입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부분 입지환경이 양호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또한 아동정원수의 평균값을 어린이집 유형별로 살펴보면 민간어린이집 18명에 비해 국공립어린이집은 72명으로 상대적으로 시설 당 이용 어린이수가 많음을 알 수 있다[13].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어린이가 집중되어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입지환경을 우선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정원 30명 이상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의 범위를 설정하였고, 이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은 총 861개, 유치원은 총 888개로 최종 집계되었다[14]. 이에 대한 분포는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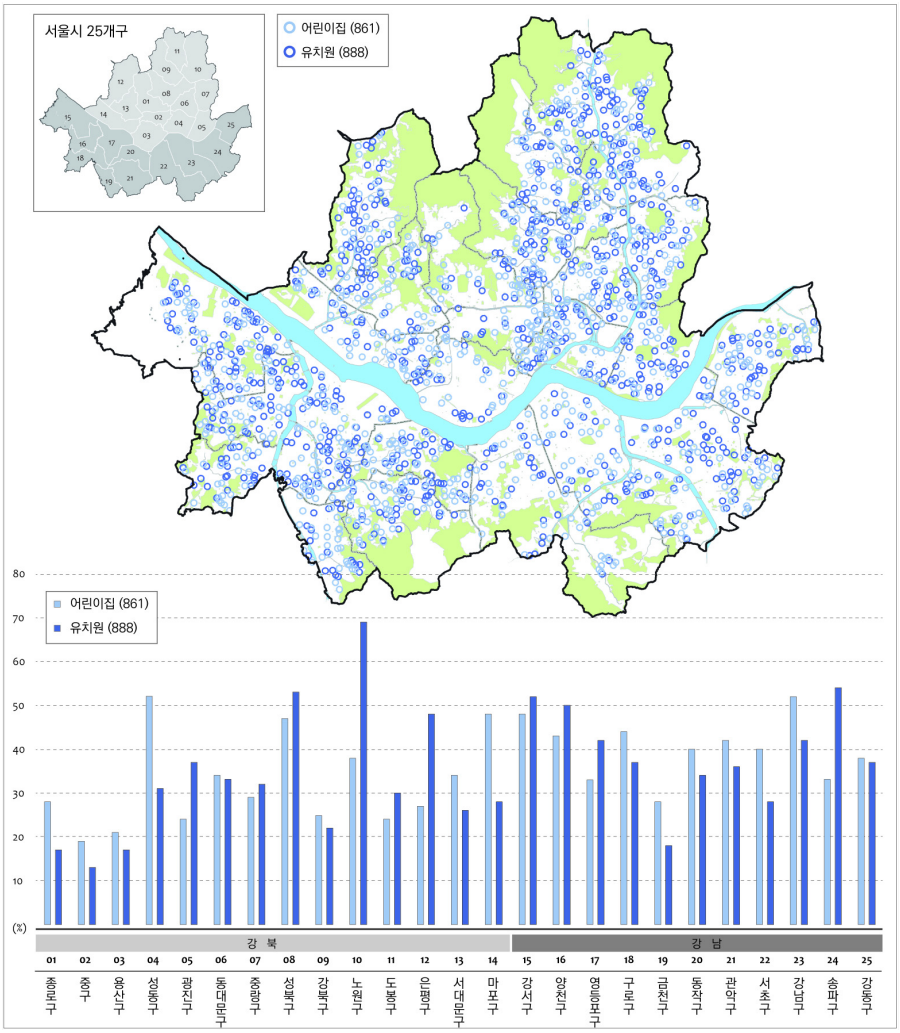
2. 연구 방법

보육시설의 입지환경에 대한 분석을 위해 세 가지 측면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보육시설이 입지한 주변의 건물용도의 종류와 분포, 그리고 용도 중에서도 보육시설에 대해 유해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간주되는 유해시설의 종류, 수, 위치 등을 살펴보았다. 둘째는 보육시설주변의 도로현황, 즉 도로의 폭과 속도제한에 대해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보육시설에서 미취학 아동들이 도보로 접근 가능한 공원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

13) 정보공개청구(open.go.kr)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서 제공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 현황 자료(2015. 4. 1. 기준)

14) 어린이집 및 유치원 현황자료에서 선택적으로 추출한 기관들을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하는 「새주소기본도」의 건물자료와 공간적으로 연계하여 최종적으로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주: 연구자가 자료 3의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하는 「새주소기본도」에서 서울시 행정경계와 건물자료 중 건축물용도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들을 추출하여 자료 1과 자료 2와 공간적으로 연계하여 구별 분포현황을 그림으로 재구성함.

자료: 1) 교육부(2015). 2015년 서울시 유치원 현황. https://www.open.go.kr (정보공개청구 제공일: 2016. 7. 6.)

2) 보건복지부(2016). 2016년 전국 어린이집 현황. https://www.open.go.kr (정보공개청구 제공일: 2016. 7. 4) 중 서울시 자료 추출

3) 국가공간정보포털(2016). http://www.nsdi.go.kr/?menuno=2679 (「새주소기본도」 자료제공일: 2016. 3. 20)

〔그림 2〕 연구의 공간적 범위

가. 보육 및 교육시설 주변 건축물 유형 분석 및 유해시설 분포 분석

먼저 보육 및 교육시설 주변 건축물 분석에 대해서는 GIS 자료[15]를 활용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에 위치한 건축물의 용도를 추출하고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정리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범위인 어린이집 861개, 유치원 888개 반경 200m 이내[16]에 위치한 건축물의 용도를 모두 추출하였다. 이를 다시 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공공시설, 종교시설, 문화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미취학 아동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유해시설을 위락시설, 교통시설, 공장시설, 위험물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기타시설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해시설에 보다 집중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주변에 유해시설이 밀집된 사례를 추출하여 각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입지 현황을 살펴보았다.

나. 보육 및 교육시설 주변 도로 현황 및 안전성 분석

주변 도시계획시설 분석은 도로와 공원녹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주변 도로에 대한 현황은 「새주소기본도」에서의 도로자료과 함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공받은 2015하반기 보호구역 현황(2016.8.1.기준)자료를 활용하였다. 다만 이 자료는 유치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현황만 제공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유치원 주변 도로에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된 유치원 주변의 도로 차선수를 확인할 수 있으나, 보행자들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거리뷰[17]를 활용해 구체적인 도로 현황을 조사하고 일부 사례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

15)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제공하는 「새주소기본도」 GIS 건물자료(2016년 기준)

16) 김진영(2014)에 의하면 집과 어린이집과의 최적거리를 묻는 문항에는 200m이내가 58.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어린이집과 응답자가 살고 있는 집의 거리를 묻는 문항에서도 200m이내가 51.2%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반경 200m 이내의 도시환경을 대상으로 한다.

17) http://map.naver.com/ 네이버 지도 거리뷰

다. 보육 및 교육시설 주변 공원 분포 및 접근성 분석

공원녹지의 경우 「새주소기본도」에서 용도지역 내 자연녹지자료와 공원자료(2016년 기준)를 활용하였다. GIS 자료를 활용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반경 100m 이내[18] 자연녹지와 공원이 위치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자치구별로 분석하였으며, 서울시 통계자료에서 제시된 1인당 공원비율과 비교하여 공원 녹지의 전체적인 총량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의 접근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보육 및 교육시설 주변 건축물 용도 및 유해시설 분석

가. 보육 및 교육시설 주변 건축물 용도 현황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주변 환경을 분석하기 위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중심으로 반경 200m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의 용도 현황을 살펴보았다. 용도는 크게 일반시설과 유해시설로 구분하였고, 일반시설에는 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공공시설, 종교시설, 문화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복지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이 포함되며, 유해시설에는 위락집회시설, 교통시설, 관광숙박시설, 공장시설, 위험물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기타시설이 포함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일반시설의 합계가 98%를 넘어 대부분 주변 건축물은 크게 유해하지 않은 환경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해시설의 비율이 1.65%, 1.68%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우 반경 200m 이내에 여러 가지 유해시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시설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공장, 자동차, 관광숙박의 순이며 그 외 각종 유해시설이 보육·교육시설 주변에 입지하고 있다. 유해시설의 비율이 높지는 않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일부는 각종 유해시설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유해시설의 비율과 종류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실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

18)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공원으로 이동하여 위해서는 일반적인 보행거리보다 훨씬 근접한 거리에 공원이 위치해야 한다. 그러므로 주변 환경 분석을 위한 200m의 절반인 반경 100m의 범위로 설정하였다.

〈표 1〉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인접한 건축물 현황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건축물(개)	비율(%)	건축물(개)	비율(%)
일반시설합계	245,604	98.35	210,829	98.32
주택	179,320	71.81	147,402	68.74
아파트	11,031	4.42	14,878	6.94
근린생활시설	41,938	16.79	34,802	16.23
공공시설	845	0.34	594	0.28
종교시설	2,707	1.08	2,691	1.25
문화집회시설	163	0.07	151	0.07
판매 및 영업시설	1,728	0.69	1,159	0.54
의료시설	575	0.23	508	0.24
교육연구복지시설	5,257	2.11	6,803	3.17
운동시설	201	0.08	172	0.08
업무시설	1,839	0.74	1,669	0.78
유해시설합계	4,117	1.65	3,608	1.68
유해-위락시설	54	0.02	31	0.01
유해-교통시설	166	0.07	104	0.05
유해-관광숙박시설	777	0.31	521	0.24
유해-공장시설	1,783	0.71	1,779	0.83
유해-위험물시설	319	0.13	288	0.13
유해-자동차시설	904	0.36	757	0.35
유해-기타시설	114	0.05	128	0.06
총계	249,721	100.00	214,437	100.00

주: 연구자가 자료 1과 2에서 선택적으로 추출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자료 3의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하는 「새주소기본도」에서 건물자료와 공간적으로 연계하여 반경 이내의 건축물용도 중 유해시설로 분류되는 건물을 분석하여 표로 재구성함

자료: 1) 교육부(2015). 2015년 서울시 유치원 현황. https://www.open.go.kr (정보공개청구 제공일: 2016. 7.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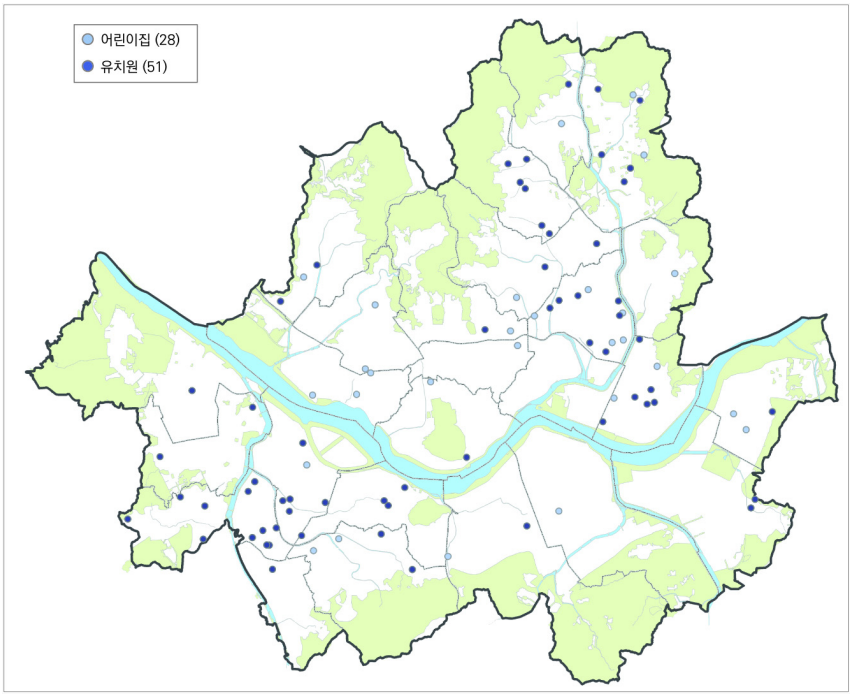
2) 보건복지부(2016). 2016년 전국 어린이집 현황. https://www.open.go.kr (정보공개청구 제공일: 2016. 7. 4) 중 서울시 자료 추출

3) 국가공간정보포털(2016). http://www.nsdi.go.kr/?menuno=2679 (「새주소기본도」 자료제공일: 2016. 3. 20)

나. 보육 및 교육시설 주변 유해시설에 대한 분석

1) 유해시설의 분포 현황

반경 200m 이내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서울시 전체의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3]과 같이 서울의 서남부와 동북부에서 주로 나타난다.



주: 연구자가 자료 1과 2에서 선택적으로 추출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자료 3의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하는 「새주소기본도」에서 건물자료와 공간적으로 연계하여 반경 이내의 건축물용도 중 유해시설로 분류되는 건물을 분석하여 그림으로 재구성함

자료: 1) 교육부(2015). 2015년 서울시 유치원 현황. https://www.open.go.kr (정보공개청구 제공일: 2016. 7. 6.)

2) 보건복지부(2016). 2016년 전국 어린이집 현황. https://www.open.go.kr (정보공개청구 제공일 2016. 7. 4) 중 서울시 자료 추출

3) 국가공간정보포털(2016). http://www.nsdi.go.kr/?menuno=2679 (「새주소기본도」 자료제공일: 2016. 3.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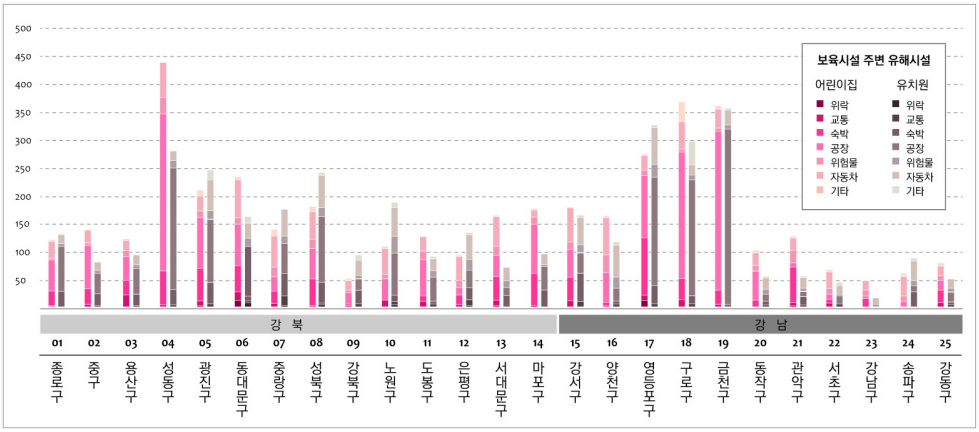
[그림 3] 유해시설이 집중적으로 분포된 어린이집과 유치원 추출

유해시설에 공장시설이 포함되므로 서남부의 경우 준공업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금천구, 구로구에는 공장시설에 인접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다수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동북부의 경우는 창동 준공업지역의 자동차시설이 입지해 있으므로 이러한 점이 반영된 분포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그 외 지역의 경우 일부 공장시설을 포함하여 교통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파악된다.

유해시설에 인접한 보육 및 교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분포는 서울시 유해시설 분포도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분포도만으로는 어떤 유형의 유해시설이 집중되어 있는지는 살펴보기 어려우므로 유형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2) 유해시설의 유형별 분석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에 입지한 유해시설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다시 각 구별로 분석하였다.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만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유치원에 한정해서 공립과 사립으로 다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주: 연구자가 자료 1과 2에서 선택적으로 추출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자료 3의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하는 「새주소기본도」에서 건물자료와 공간적으로 연계하여 반경 이내의 건축물용도 중 유해시설이 다수 근접해 있는 시설들을 그림으로 재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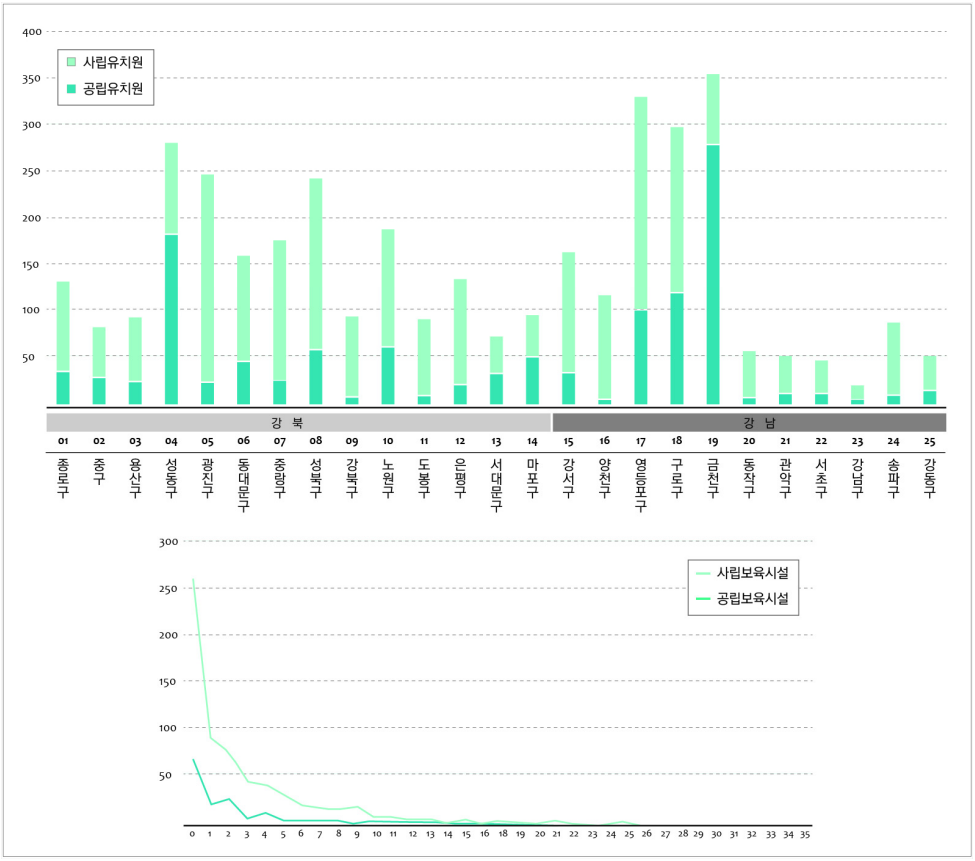
자료: 1) 교육부(2015). 2015년 서울시 유치원 현황. https://www.open.go.kr (정보공개청구 제공일: 2016. 7. 6.)

2) 보건복지부(2016). 2016년 전국 어린이집 현황. https://www.open.go.kr (정보공개청구 제공일 2016. 7. 4) 중 서울시 자료 추출

3) 국가공간정보포털(2016). http://www.nsdi.go.kr/?menuno=2679 (「새주소기본도」 자료제공일: 2016. 3. 20)

〔그림 4〕 서울시 25개 구별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유해시설 분포 현황 분석

먼저 어린이집 주변에 위치한 유해시설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이를 각 구별로 살펴보았다(그림 4 참조). 유해시설이 주변에 입지한 어린이집이 가장 많은 구는 성동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순으로 나타났다. 성동구, 구로구, 금천구는 대체로 유해시설 가운데 공장시설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영등포구는 공장시설과 함께 관광 숙박업소의 비율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주 : 연구자가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하는 「새주소기본도」에서 유치원 반경 이내의 건축물용도 중 유해시설로 분류되는 건물들을 분석하여 그림으로 재구성함.

자료: 1) 교육부(2015). 2015년 서울시 유치원 현황. https://www.open.go.kr (정보공개청구 제공일: 2016. 7. 6).

2) 국가공간정보포털(2016). http://www.nsdi.go.kr/?menuno=2679 (「새주소기본도」 자료제공일: 2016. 3. 20)

〔그림 5〕 서울시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주변 유해시설 비교 분석

유해시설이 입지한 유치원이 가장 많은 구는 금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성동구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린이집 인접 유해시설이 많은 구와도 순위의 차이는 있으나 상위 4개구가 일치함을 보여줬다. 유치원 주변 유해시설이 가장 많은 금천구의 경우 대부분이 공장시설이 많았고, 이는 영등포구, 구로구, 성동구에서도 같은 경향을 보였다.

공립과 사립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공립의 경우 35%, 사립의 경우 38%가 주변에 유해시설이 없는 환경 속에 위치함을 보여주었고 공립유치원 197개 가운데 74.65%가 주변 유해시설 개수가 5개 이하였고, 사립유치원 685개 중 80.15%에 해당하는 유치원이 주변 유해시설의 개수가 5개 이하인 것으로 분석되어 공립유치원에 비해 사립유치원이 조금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5]. 유해시설이 1-2개 이내의 유치원이 대다수를 차지하였지만 20개 이상의 유해시설이 입지한 경우도 공립은 1.4%, 사립은 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부분 공립보다 사립유치원들이 유해시설에 노출이 더 되고 있는 실정이며, 성동, 마포, 금천은 공립의 비율이 높은 편이고 영등포, 구로는 사립유치원 주변 유해시설 비율이 공립보다는 높을 뿐만 아니라 유해시설의 절대적 수가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사립 유치원 설립 시 유해시설과 관련한 입지 환경에 대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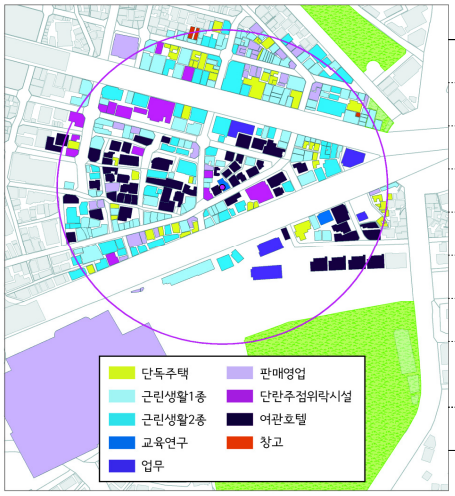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의 유해시설에 대한 분석을 종합해보면 어린이집이 유치원에 비해 더 많은 유해시설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유해시설이 입지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수는 성동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에서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공장이 많이 입지한 자치구의 특성일 수 있으나, 미취학 아동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주변 현황분석 및 입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해시설이 집중된 사례 분석을 통하여 유해시설의 입지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 유해시설이 집중된 사례 분석

유해시설이 집중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주변 환경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위락시설과 공장시설이 집중된 사례를 각각 선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위락시설이 주변에 분포하는 사례로 영등포구 일반상업지역 내 위치한 어린이집의 사례를 선정하였다. 어린이집 주변 건축물의 용도분포를 살펴보면 단란주점, 여관, 호텔 등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이 많이 입지한 곳이다. 어린이집은 그 한가운데 위치해 있어 유해시설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또한 본 사례의 어린이집이 특수보육시설(24시간, 장애통합, 휴일보육, 방과 후 아동)로 운영되며 주로 편모편부의 아이들과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이 함께 장시간 이용한다는 점에서 더욱 안전한 주변 환경이 요구된다.

〈표 2〉 유해시설 중 위락시설이 집중된 사례 분석



용도	건물 수(개)	비율(%)
단독주택	47	13.5
근린1종	127	36.6
근린2종	60	17.3
교육연구	2	0.6
업무	5	1.4
판매영업	33	9.5
여관호텔	55	15.9
단란주점 위락시설	15	4.3
창고	3	0.9
총계	347	100.0

주: 연구자가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하는 「새주소기본도」에서 해당 사례 반경 이내의 건축물용도 중 유해시설로 분류되는 건물들을 분석하여 그림과 표로 작성함.

자료: 국가공간정보포털(2016). http://www.nsdi.go.kr/?menuno=2679
(「새주소기본도」 자료제공일: 2016. 3. 20)

〈표 3〉 유해시설 중 공장시설이 집중된 사례 분석



용도	건물 수(개)	비율(%)
단독주택	20	14.1
공동주택	33	23.2
근린1종	21	14.8
근린2종	7	4.9
학교	2	1.4
업무	4	2.8
문화	1	0.7
쓰레기분뇨시설	6	4.2
공장	35	24.6
창고	13	9.2
총계	142	100.0

주: 연구자가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하는 「새주소기본도」에서 해당 사례 반경 이내의 건축물용도 중 유해시설로 분류되는 건물들을 분석하여 그림과 표로 작성함.

자료: 국가공간정보포털(2016). http://www.nsdi.go.kr/?menuno=2679
(「새주소기본도」 자료제공일: 2016. 3. 20)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등원을 위한 일차선 도로는 각종 입간판들로 점유당해 있으며 숙박시설 주차장으로의 진출입구와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보행 등하원뿐 아니라 차량을 이용한 등하원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업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사례는 구로구 준공업지역 내에 위치한 유치원으로 선정하였다. 준공업지역에 정비사업을 통해 아파트를 조성하면서 함께 설립된 유치원이며, 아파트 입구에 위치하고 있다. 유치원 자체는 아파트 내에 입지하고 있지만 유치원과 바로 마주하고 있는 인근 지역은 공장, 자동차학원, 방치된 건물들이 자리 잡고 있어 유해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또한 공장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분진 등은 유치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파트 주변으로의 보행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보행으로 가능한 야외활동은 대부분 아파트 단지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한계를 보인다.

다. 보육 및 교육시설 주변 건축물 용도 및 유해시설에 대한 분석 결과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중심으로 반경 200m 이내 지역에 유해시설이 입지하고 있는 경우를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유해시설에 노출된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금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성동구에 주로 집중되어 있으며, 유해시설의 유형은 공장시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준공업지역 주변의 경우 공장시설 자동차시설, 위험물시설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일부 지역의 경우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에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공장시설과 숙박 및 위락시설들은 차량 통행이 많아 그에 따른 보행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지속적인 매연과 소음이 간접적으로 보육환경의 질을 열악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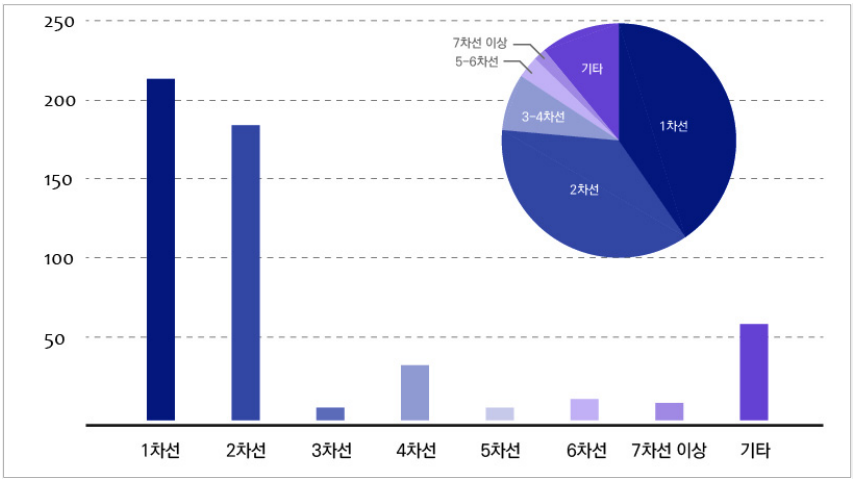
2. 보육 및 교육시설 주변 도로 현황 및 안전성 분석

가. 어린이집 및 유치원 주변 도로에 대한 일반 현황

미취학 아동의 보육·교육시설 주변의 도로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된 유치원에 대해 살펴보았다. 초등학교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이므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의 경우 100%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어 본 자료에서는 제외하였다. 그 외 공립유치원인 단설유치원 18개와 사립유치원 500개에 어린이 보호

구역이 지정되어 있어 전체 888개의 유치원 중 518개의 유치원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된 518개의 유치원과 접한 도로의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1차선 도로이다. 이는 골목길, 이면도로, 일방통행로, 왕복1차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41%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2차선 도로와 접한 유치원이 36%로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된 유치원의 77%가 왕복 2차선 이하의 도로에 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차선과 4차선은 전체의 8%, 5차선과 6차선은 3%, 7차선 이상에 접한 유치원은 5개로 전체의 1%를 차지하고 있다.



주: 연구대상 유치원을 재분류하여 도로 위계별로 분석하여 그림으로 재구성함.
자료: 1) 서울시교육청(2015).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도로 현황.
https://www.open.go.kr (정보공개청구 제공일: 2016. 7. 11)
2) 경찰청(2016) 2015하반기 보호구역 현황. https://www.open.go.kr
(정보공개청구 제공일: 2016. 8. 1)

[그림 6] 서울시 유치원 주변 도로 현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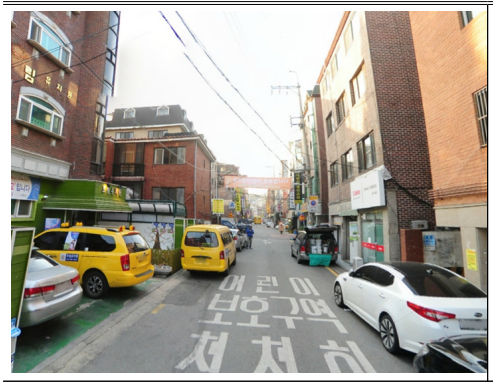
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주변 도로에 대한 안전성 분석

유치원 주변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된 경우 지정 유치원의 77%는 2차선 이하의 도로이고, 33%는 3차선 이상의 도로에 접해 있다. 그리고 최대 11차선에 접한 유치원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는 차선의 폭에 대한 현황이므로 실제 보행자들이 이용하는 경우 안전한지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사례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유치원이 1-2차선에 접한 사례를 살펴보면 도로의 폭이 좁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대부분 시속 30km/h 이하의 속도로 주행하게 된다. 따라서 1-2차로의 경우 제한속도를 더 낮추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2차선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는 대부분 보행로가 별도로 확보되므로 환경이 비교적 양호하지만 전체의 41%를 차지하는 1차로에 접한 경우 보행공간이 별도로 확보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불법 주정차로 인해 보행이 더욱 어려운 상태이다. 이 경우 좁은 폭의 도로로 인해 속도를 낼 수 없는 상황이므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제한은 실효성이 없다. 오히려 보행과 차량이 혼재된 상태에서 사고가 날 확률이 더욱 높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불법 주정차 금지구간을 지정하고 보행자 공간과 승하차 공간을 별도로 확보하는 등 추가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3-4차선에 접한 사례를 살펴보면 유치원 전면으로 별도의 보행자도로가 확보되어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면 이 구간에서 시속 30km 이하 속도저감이 되어야 한다.

〈표 4〉 왕복1-4차로에 접한 유치원 사례 분석





차로수	1차로	보호구역	설정	차로수	4차로	보호구역	설정
폭원	4m	보행자도로	없음	폭원	20m	보행자도로	있음
기능	국지도로	안전펜스	없음	기능	보조간선도로	보행로 폭	1.5m
최저속도	30km/h	승하차공간	있음	최저속도	30km/h	안전펜스	없음
				평균속도	25.2km/h	승하차공간	미확인

주: 연구자가 자료 1에서 해당지역 사진을 캡쳐하여 사용하였으며, 자료 2에서 해당 도로와 관련된 내용을 참조하여 현황 분석과 함께 재구성함.

자료: 1) 네이버 지도 거리뷰 (2017). http://map.naver.com/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 서울시 노원구 노원로 (검색일 2017. 7. 22)

2) 서울특별시(2015a), 2015 서울특별시 차량통행속도 보고서

왕복 4차선 도로부터는 보조간선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속도저감이 충분히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보행자도로에 안전펜스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보행 등하원 시 안전한 보행공간이 확보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여 보행공간을 완전히 분리하여 안전한 보행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5차선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는 비율로는 4% 정도에 그치지만 최대 11차선에 이르는 도로에 접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유치원 인근 도로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더라도 제한속도는 50km/h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조간선도로의 기능으로 인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만으로는 충분한 속도저감과 안전한 공간의 확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유치원 전면 또는 후면에 차량 승하차 장소를 별도로 마련하고 차량과 완전 분리된 보행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관련 안전대책을 수립이 필요하다.

〈표 5〉 왕복6-8차로에 접한 유치원 사례 분석

<table>
<tr><td colspan="4"></td><td colspan="4"></td></tr>
<tr><td>차로수</td><td>6차로</td><td>보호구역</td><td>설정</td><td>차로수</td><td>8차로</td><td>보호구역</td><td>설정</td></tr>
<tr><td>폭원</td><td>30m</td><td>보행자도로</td><td>있음</td><td>폭원</td><td>30m</td><td>보행자도로</td><td>있음</td></tr>
<tr><td>기능</td><td>보조
간선도로</td><td>보행로 폭</td><td>3m</td><td>기능</td><td>간선
도로</td><td>보행로 폭</td><td>1.5m</td></tr>
<tr><td>최저속도</td><td>50km/h</td><td>안전펜스</td><td>있음</td><td>최저속도</td><td>50km/h</td><td>안전펜스</td><td>있음</td></tr>
<tr><td>평균시속</td><td>28.9km/h</td><td>승하차공간</td><td>있음</td><td>평균시속</td><td>21.7km/h</td><td>승하차공간</td><td>미확인</td></tr>
</table>

주: 연구자가 자료 1에서 해당지역 사진을 캡쳐하여 사용하였으며, 자료 2에서 해당 도로와 관련된 내용을 참조하여 현황 분석과 함께 재구성함.

자료: 1) 네이버 지도 거리뷰 (2017) http://map.naver.com/ 서울시 금천구 문성로,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검색일 2017. 7. 22)

2) 서울특별시(2015a), 2015 서울특별시 차량통행속도 보고서

다. 보육 및 교육시설 주변 도로의 현황 및 안전성 대한 분석 결과

주거지역 내에 위치한 왕복 1차선의 경우 보행을 위한 보도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보행자의 경우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불법주차 차량과 이동하는 차량과 자전거, 오토바이 등을 피해 등하원을 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의 경우 충분한 보행공간을 확보하도록 하여 차량과 보행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행과 차량을 구분하는 펜스 등을 설치하여 보다 안전한 보행공간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왕복 6차선 이상인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과 함께 추가적인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유치원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한 유치원이 많아 속도저감에 대한 관리만 잘 된다면 어린이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유치원의 경우만 자료구득이 가능하여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나, 추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3. 보육 및 교육시설 주변 공원에 대한 분포 및 접근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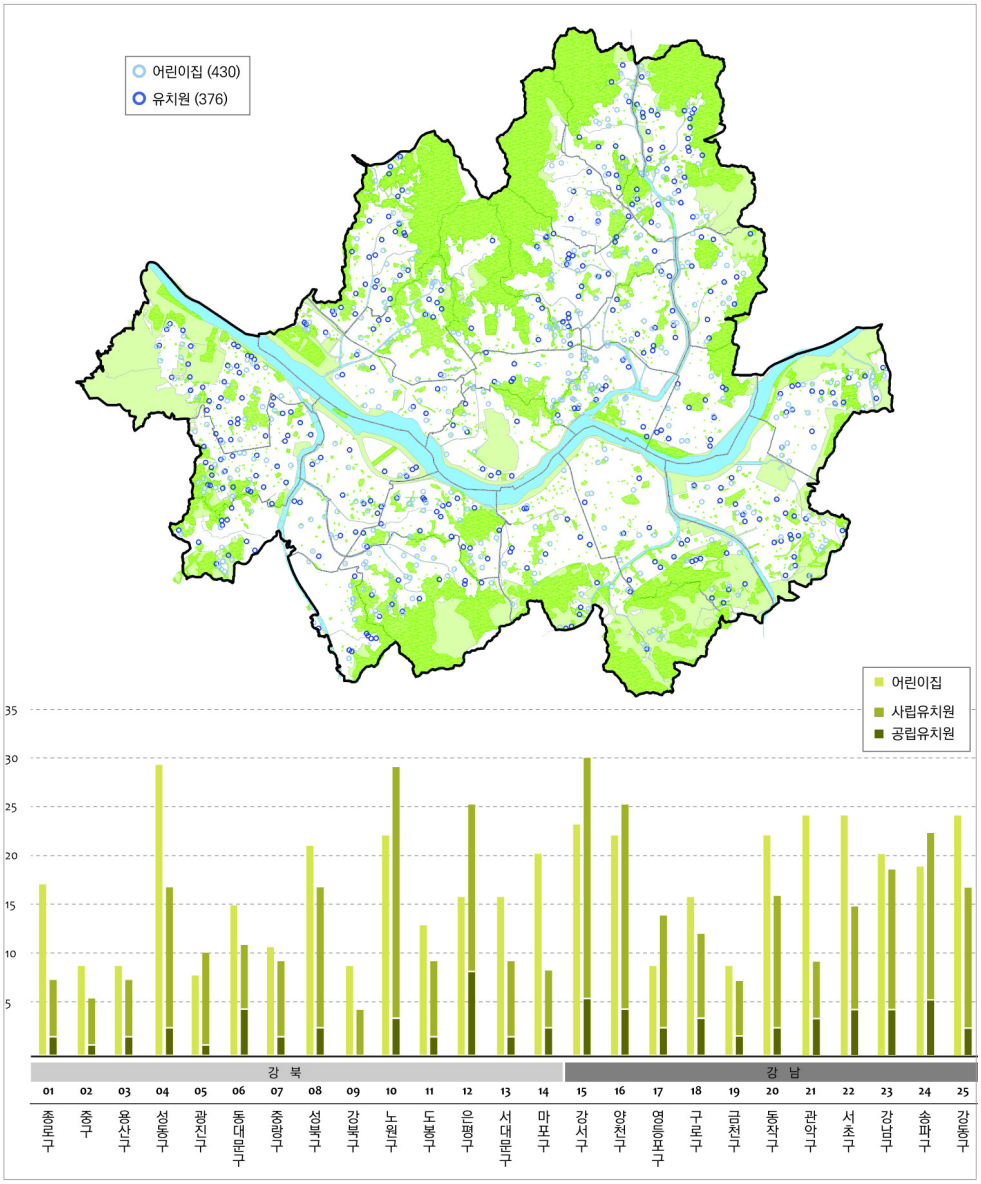
가. 어린이집 및 유치원 주변 공원에 대한 분포 현황

반경 100m 이내에 공원이 위치한 어린이집은 861개 중 430개로 전체의 50.0%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이 공원 인근에 위치하며, 유치원은 888개 중 376개로 42.3%가 공원 인근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의 경우 국공립만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공립과 사립을 구분하지 않았으며, 유치원의 경우 376개 중 공립은 85개, 사립은 291개로 사립의 비율이 월등히 높으나 이는 전체 유치원 중 사립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에 공원이 입지한 경우에 대해 서울시 전반적인 분포를 살펴보면 도시 내부 주거지역 보다는 도시 외곽에 비교적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도시 외곽에 산지형의 근린공원이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되며, 상대적으로 도시 내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구획정리가 되어 저층주거지가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역 내부에 위치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우 공원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주변 공원에 대한 접근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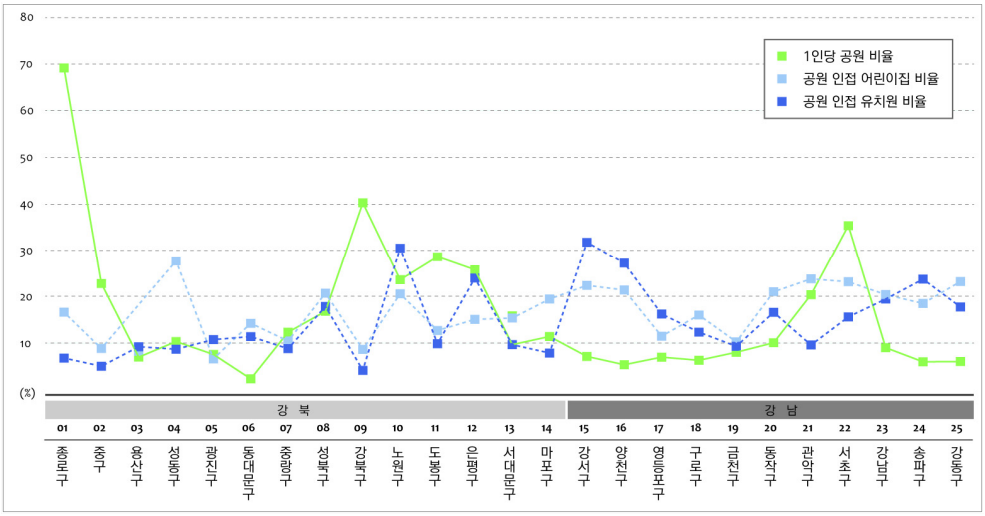
주변 공원에 대한 접근성이 좋은 자치구를 먼저 살펴보면 어린이집의 경우 성동구가 가장 높게 나타나며 강동구, 관악구, 서초구가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주: 연구자가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하는 「새주소기본도」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반경 이내의 녹지 접근성을 분석하여 그림으로 재구성함.

자료: 국가공간정보포털 (2016) http://www.nsdi.go.kr/?menuno=2679 (「새주소기본도」 자료제공일: 2016. 3. 20)

〔그림 7〕 서울시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공원 분석



주: 연구자가 자료 2에서 행정자치부가 제공하는 「새주소기본도」에서 구별 녹지 및 공원 인접 어린이집과 유치원 비율을 수치값으로 추출하여 자료 1과 분석하여 그림으로 재구성함.

자료: 1) 서울특별시(2015c). 서울시 공원(1인당 공원 면적) 통계. http://data.seoul.go.kr/openinf/linkview.jsp?infId=OA-806 (검색일: 2017. 6. 12)
2) 국가공간정보포털(2016). http://www.nsdi.go.kr/?menuno=2679 (「새주소기본도」 자료제공일: 2016. 3. 20)

[그림 8] 서울시 공원비율과 공원인접 어린이집과 유치원 비교 분석

유치원의 경우 강서구가 가장 높게 나타나며 노원구, 은평구, 양천구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접근성이 좋지 않은 자치구를 살펴보면 어린이집의 경우 광진구, 강북구, 금천구, 용산구, 중구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유치원의 경우는 강북구, 중구, 금천구, 용산구, 종로구 순으로 낮게 나타난다. 공통적으로 낮은 자치구는 강북구, 금천구, 용산구로 나타났다.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은평구가 높게 나타나며 강북구가 0개소로 제일 낮게 나타났다. 광진구, 중구가 1개소로 그 뒤를 이었으며, 금천구, 도봉구, 서대문구, 용산구, 종로구, 중랑구도 2개소로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사립 유치원은 노원구와 강서구가 높게 나타나고, 강북구, 중구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금천구, 용산구, 종로구, 마포구, 관악구도 그 뒤를 이어 낮게 나타났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을 구분하여 살펴봤을 때 공원이 인접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많은 자치구는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적은 자치구의 경우 강북구, 중구, 용산구, 금천구, 종로구가 중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1인당 공원비율[19]과 공원인접 어린이집 수, 공원인접 유치원 수를 비교해보면, 종로

구의 경우 공원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종로구의 경우 관광객을 위한 넓은 면적의 공원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공원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 강북구 역시 공원비율이 높음에 비해 공원인접 어린이집 수와 유치원 수는 최저수준임을 알 수 있다. 공원비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공원인접 어린이집 수와 유치원 수가 높은 경우는 송파구, 양천구, 동작구이며, 공원비율도 낮고 인접 어린이집과 유치원 수도 낮은 경우는 광진구, 구로구로 나타났다.

다. 보육 및 교육시설 주변 공원의 분포 및 접근성에 대한 분석 결과

어린이집 및 유치원과 공원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반경 100m 이내 공원이 위치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수를 분석하였으며, 강북구, 중구, 용산구, 금천구, 종로구에서 그 수가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종로구, 강북구는 공원비율이 높음에 비해 공원인접 어린이집 수와 유치원 수는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공원비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공원인접 어린이집 수와 유치원 수가 높은 경우는 송파구, 양천구, 동작구이며, 공원비율도 낮고 인접 어린이집과 유치원 수도 낮은 경우는 광진구, 구로구로 나타났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내 미취학 아동의 보육·교육시설의 입지 환경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초, 중, 고등학교를 설치할 때에는 통학거리 및 환경, 입지하는 주변 요인에 대한 안전 위험성 및 교육적 유해성에 대한 고려를 하는 반면, 환경에 더욱 민감한 미취학 아동의 보육·교육시설 입지환경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다루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보육시설 뿐 아니라 보육시설이 입지하는 도시환경과 주변맥락에 대한 파악과 이해가 현시점에서 시급하다. 이에 대하여 서울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전수 통계자료 및 각각 어린이집과 유치원 현황에 대한 자료를 공간분석과 연계하여 주변에 입지한 건축물의 용도 특히 유해시설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주변 도로와의 관계, 공원으로의 접근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으로 유해시설이 입지하고 있는 경우를 살펴본 결과, 유해

19) 서울시 통계자료, http://stat.seoul.go.kr/

시설에 노출된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금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성동구에 주로 집중되어 있었다. 유해시설의 유형은 공장시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일부 지역의 경우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에 입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치원 주변 도로에 대해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유치원 주변 도로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충분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도로의 현황에 따라 서로 다른 개선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왕복 1차선인 경우 차량과 보행이 혼재되는 양상을 보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의 경우 대부분 보행공간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으나 보도의 폭, 안전펜스 유무 등 도로현황에 따른 안전성 확보방안이 필요하다. 왕복 6차선 이상인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해도 최저속도가 50km/h에 이르므로 안전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에 공원이 입지한 경우를 분석한 결과 강북구, 중구, 용산구, 금천구, 종로구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종로구, 강북구는 공원비율이 높지만 공원 인접 어린이집과 유치원 수가 적고, 송파구, 양천구, 동작구는 공원비율이 낮지만 공원 인접 어린이집과 유치원 수는 많으며, 공원비율도 낮고 공원 인접 어린이집과 유치원 수도 적은 경우는 광진구, 구로구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에 따른 정책적 개선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주변에 유해시설이 입지한 경우 미취학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성장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아동은 노출되는 주거환경에서 자주 이용하거나 시각적 자극이 많은 것을 동네의 이미지 요소로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무의식적으로 노출되는 환경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목화 외, 2003). 미취학 아동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환경에 노출된다면 아동발달에도 유해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미취학 아동이 유해시설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환경까지 검토할 수 있도록 입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입지할 주변 환경에 대한 현황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설립되어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으로는 입지를 제한하는 용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주변 도로 분석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된 보육·교육시설은 많았으나 아동의 보행안전에 대한 실효성을 가지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권순석(2015)의 연구에 의하면 이면도로와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서 사고발생이 많았고 속도제한표시가 잘 보이거나 입체적인 보차분리시설이 있는 경우 사고 발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분석결과에 따라 유치원 주변 도로의 폭과 속도를 고려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

야 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차량과 보행이 혼재되는 1차로에 접한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과 함께 보행공간을 마련하도록 하는 지침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왕복 2차선 이상 보행공간이 별도로 구분되는 경우 보행공간의 안전을 위하여 펜스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지침도 함께 마련하여야 한다. 왕복 6차선 이상의 경우 보행공간을 차량과 완전히 분리시키고 별도의 승하차 공간을 마련하는 등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개별 현황에 적합한 다양한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자치구의 공원비율이 높은 경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인근 공원까지의 보행로 개선을 통해 공원으로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미취학 아동을 위한 시설이 부족한 공원이나 자연녹지의 경우 소규모 놀이터를 조성하거나 숲체험 탐방로를 조성하는 등 관련 시설을 추가하여 미취학 아동의 이용을 확대할 수 있다. 자치구의 공원비율이 낮고 인접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수가 적은 광진구, 구로구의 경우 저층 주거지역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공원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유인창(2014)의 연구에서도 아파트가 아닌 기타 유형 거주지는 외부환경과 보육시설 항목에서 더 높은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저층주거지 내부에 유휴부지를 찾아 소규모 공원을 조성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 및 추후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최근 국외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아동과 관련하여 도시와 근린환경에 초점을 두어 연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보육 및 교육시설 주변 실외환경이나 입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주변 환경 요소 중 유해시설, 도로, 공원 세 가지에 대한 노출 정도를 구별 분석하고, 몇 개 구의 특정 사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조사 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통해 좀 더 실질적인 입지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으며, 향후 관련 기준을 마련하여 「영유아 보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반영한다면 보육·교육시설 설립 단계에서부터 주변 환경을 검토할 수 있어 보육·교육환경의 질적 제고가 가능해질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의 경우 국공립에 한정해 연구를 진행한 점이 한계라고 볼 수 있고, 본 연구에 포함 되지 못한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과 비교하여 또 다른 입지환경을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민간어린이집의 주변 환경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 또한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경찰청(2016) 2015하반기 보호구역 현황. https://www.open.go.kr (정보공개청구 제공일: 2016. 8. 1)

교육부(2015). 2015년 서울시 유치원 현황. https://www.open.go.kr (정보공개청구 제공일: 2016. 7. 6.)

국가공간정보포털(2016). 새주소기본도(도로명주소기본도). http://www.nsdi.go.kr/?menuno=2679 (「새주소기본도」 자료제공일: 2016. 3. 20)

권순석·신민호(2005).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6-14세 어린이들의 보행 중 교통사고에 대한 역학적 조사.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대한예방의학회), 38권2호: 163-169.

김선자(2005). 민간보육시설 서비스수준 향상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진영(2014). GIS를 활용한 천안시 국공립 어린이집 최적지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희진(2011). 유치원과 어린이집 실외놀이의 운영실태 및 교사의 인식,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나종혜(2013). 아동 발달학적으로 본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 발달하는 공간. 건축, 59권 9호.

보건복지부(2016). 2016년 전국 어린이집 현황. https://www.open.go.kr (정보공개청구 제공일 2016. 7. 4)

서울시교육청(2015).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도로 현황. https://www.open.go.kr (정보공개청구 제공일: 2016. 7. 11)

서울특별시(2015a). 2015 서울특별시 차량통행속도 보고서.

서울특별시(2015b). 서울서베이 (가구주) 도시정책지표조사. http://data.seoul.go.kr/openinf/fileview.jsp?infId=OA-13270 (검색일: 2017. 5. 22)

서울특별시(2015c). 서울시 공원(1인당 공원 면적) 통계. http://data.seoul.go.kr/openinf/linkview.jsp?infId=OA-806 (검색일: 2017. 6. 12)

신동주·양연임(2003). 유치원의 실외놀이시설 실태 및 교사와 학부모의 실외놀이 인식에 대한 연구. 육아교육학회집, 7(1).

유인창·강부성·박지연(2014). 미취학 아동 육아환경에 관한 거주유형별 만족도 비교 분석.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30(6): 31-38.

이수범·정도영·김도경(2008). 토지이용 특성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의 교통사고 감소효과 분석. 大韓交通學會誌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대한교통학회), 26권3호: 109-117.

정경숙·이연숙(2008). 주거커뮤니티 내 아동생활 현황과 아동친화적 디자인지침에 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9(6).

천현숙·정희남 외(2012). 저출산 추세에 대응한 주택 및 도시정책 방향 연구(Ⅱ)-총괄보고서, 국토연구원.

최목화·최병숙(2003). 아동이 기억하는 주거환경의 이미지 요소. 대한건축학회논문집 - 계획계 제19권 제9호, 2003.9, 31-40

홍승애·이재연(2011). 아동친화적인 도시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의식. 아동학회지, 32(2).

Handy, SL., Boarnet, MG., and Ewing, R. (2002). How the built environment affects physical activity - Views from urban planning.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23(2): 64-73.

Horelli, L. (2007). Constructing a theoretical frame work for environmental child friendliness. *Children, Youth and Environments* 17(4): 267-292.

Nordstrom, M. (2009). Children's view on child-friendly environments in different geographical culture and social neighbourhoods. *Urban Studies*. 47(3): 514-528.

Olds, A. (2001). *Child Care Design Guide*. MD: McGraw-Hill Companies.

Prescott, Elizabeth and David, Thomas G. (1976). *Concept Paper on the Effect of the Physical Environment on Day Care. Pasadena*, CA:Pacific Oaks College.

·논문접수 8월 9일 / 수정본 접수 9월 6일 / 게재 승인 9월 19일

·교신저자: 최정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박사수료, 이메일 jsun@snu.ac.kr

Abstract

Analyses of the Surrounding Urban Environment of Nursery Facilities and Kindergartens for Preschoolers in Seoul

Soe Won Hwang, Hyo Jin Kim and Jeong Sun Choi

Outdoor childcare environments in urban spaces have tremendous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preschoolers. Nonetheless, most research has focused on the interior amenities of childcare and education facilities since preschoolers spend more time within them. The research analyzes the physical and spatial factors of the urban contexts around childcare centers, regarding types of youth harmful facilities, attributes of bordering roads, and accessibility to open green spaces. These factors are classified into the following aspects: usages of and harmful facilities around the buildings, attributes of bordering roads, and accessibility to open green spaces.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some preschools are exposed to various unsafe and youth-harmful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being adjacent to wide roads with high speed limits and being near factories or adult entertainment facilities. Plans for more dispersed small-scale green spaces may encourage preschoolers to extend activities from indoor institutions. Moreover, it is crucial to consider the surrounding environment when planning for additional extensions and improvement of existing preschools, and to provide policy guidelines which reflect such considerations.

Key words: preschoolers, nursery schools, locational environment, youth-harmful facilities, road and green space attribute

「육아정책연구」 규정

제정 2007. 1. 12.
개정 2009. 1. 19.
2011. 4. 12.
2012. 4. 10.
2014. 12 .15.
2016. 4. 26.
2016. 8. 17.
2017. 8. 2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육아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육아정책연구」(이하 “학술지”라 한다) 발간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학술지 발간목적) 육아정책연구의 발간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 육아정책 발전에 기여
2. 육아정책 관련 지식과 정보 교류
3. 한국 육아정책 발전에 기여할 지적 기반 확보

제3조(발간횟수 및 발간일) 발간 횟수는 연간 3회로 하고 발간일은 매년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2016. 4. 26 개정)

제4조(게재논문 편수) 1회 게재 논문 편수는 최종 심사결과 “게재 가”로 판정된 논문 10편 내외로 한다.

제5조(논문 공모주제) 논문 공모 주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아정책 개발, 분석 및 평가
2. 육아정책 입안의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3. 기타 육아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주제

제2장 편집위원회

제6조(편집위원회 구성) 학술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연구소 내·외부 편집위

원 10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편집위원장은 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나 연구위원 중 소장이 지명한다.(2016. 4. 26 개정)

제7조(편집위원) 위원회를 구성하는 편집위원의 위촉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은 연구소 출판편집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소장이 위촉한다.
2. 편집위원은 자격요건에 있어 전공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또는 전공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관련기관 근무자로 한다.
3. 편집위원은 연구 분야에 있어 유아교육학, 아동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등 육아 관련 전공으로 하며, 영문편집위원 1명을 포함한다.(2016. 4. 26 개정)
4.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2017. 8. 22. 개정)

제8조(편집위원회 활동) 위원회는 다음의 활동을 하며, 그 외의 사항은 연구소 출판편집운영세칙 또는 출판편집위원회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논문 투고규정 및 심사규정 심의
2. 논문 심사
3. 게재 확정 논문 최종 검토

제9조(편집위원회 회의)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편집위원 1/3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온라인 회의도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3장 논문 접수 및 심사

제10조(논문 투고) 1. 투고 논문의 주제는 본 학술지 발간 목적에 맞아야 한다.

2. 투고 논문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육아정책연구」 논문 투고 지침”에 따른다.

제11조(논문 심사절차) 투고 논문의 심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투고논문의 「육아정책연구」 학술지 성격 부합 여부에 따라 심사대상 논문과 심사제외 논문을 결정한다.
2. 위원회는 심사대상 논문으로 선정된 논문에 대하여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단,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 해당 논문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3. 심사위원 선정 시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 심사자는 해당 논문에서 제외

한다.(2016. 8. 17 신설)

4.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육아정책연구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 시스템]에 접속하여 심사의견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5.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게재 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로 구분·판정하며, 2인 이상의 심사위원으로부터 “게재 가”, “수정 후 게재가‘ 받은 논문에 한하여 게재할 수 있다.(2014. 12. 15 개정)
6.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의 경우, 투고자는 [육아정책연구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시스템]에서 논문을 수정·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해당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한다.
7. 재심사는 ‘게재 가’와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8.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의 경우,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으며, 투고자가 수정 후 다시 투고할 경우에는 새로운 논문으로 취급하여 투고 절차를 진행한다.
9. 3인 심사위원의 판정에 기초하여 최종 게재여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2014. 12. 15. 개정)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종합판정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불가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 심사 판정에 대한 기타 추가사항은 편집위원회 결정을 따른다.			

제12조(논문 심사기준) 게재 논문의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2014. 12. 15 개정)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독창성
3. 구성의 논리성
4. 연구방법의 적절성
5. 연구결과의 타당성
6. 연구결과의 기여도
7. 논문작성의 성실성
8. 참고문헌 인용의 정확성
9. 논문초록의 적합성
10. 기타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제4장 출판

제13조(저작권) 『육아정책연구』에 게재 확정된 논문의 저작권은 육아정책연구소로 양도되며, 논문의 저자는 정해진 양식(별첨 3)에 서명하여 제출한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원고를 다른 매체에 출판, 배포, 인쇄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2017. 8. 22. 개정)

제14조(학술지 공개) 출판된 학술지 전문은 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 및 [육아정책연구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 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5장 개인정보 및 투고자 윤리

제15조(개인정보보호)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논문 제출자와 심사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된다.

제16조(투고자 윤리) 육아정책연구는 연구계획, 수행, 심사, 결과보고의 과정에서 위조, 변조, 표절, 중복투고와 중복게재 등을 연구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이 같은 경우 논문철회 및 투고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에 관련된 사항은 「육아정책연구」 윤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기타

제17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소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세칙을 준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세칙은 2009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세칙은 2011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세칙은 2012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세칙은 2014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세칙은 2016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세칙은 2016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세칙은 2017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육아정책연구」 윤리 규정

제정 2009. 12. 1.
개정 2012. 4. 10.
개정 2016. 8. 17.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육아정책연구소 학술지 「육아정책연구」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 일체에 관한 공정하고 체계적인 검증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다.

제2조 범위

이 규정은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한 모든 연구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 연구 윤리

1. 투고자는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 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연구 진실성을 왜곡시키는 모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투고자와 심사위원에게 서로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며 기밀이 유지되어야 한다.
3. 연구윤리 위원회는 연구자의 연구윤리 규정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윤리서약을 의무화한다.
4. 심사위원은 심사한 논문의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지 않는다.
5.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에서 명시한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참조한다.

제4조 연구윤리위원회 설치와 운영

1. 본 학술지의 연구윤리위원회는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윤리 확보에 관한 지침」에 의해 구성된 연구윤리위원회를 활용한다.

2. 육아정책연구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 소집을 요청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요구될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련 연구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4.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판정받은 결과에 대해 연구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재심의 하여야 한다.
5.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6. 기타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윤리 확보에 관한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정의

1.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
   ② 변조: 연구과정(절차)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③ 표절: 타인 저작물에 대한 출처 미표기, 타인 저작물에 대한 번역 후 출처 미표기, 2차 문헌 표절, 활용한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 출처를 밝혔다 하더라도, 직접인용하면서도 인용부호 없이 그대로 사용한 경우,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 표시를 한 경우, 부분적/한정적으로 출처 표시를 한 경우, 출처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이나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 피인용물과 인용물이 주종의 관계에 있는 경우(2016. 8. 17 개정)
   ④ 중복게재: 출처표시를 하지 않고 자신의 이전 저작물 활용, 자신의 이전 저작물 중 일부에만 또는 정확하지 않게 출처를 표시한 경우, 출처표시는 했지만 인용된 내용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
   ⑤ 부당한 저자표시: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저자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한 경우
   ⑥ 기타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

제6조 연구 윤리위반 행위 제보(2016. 8. 17 신설)

1. 연구윤리 위반 행위 제보는 육아정책연구 편집위원회에 직접 또는 전화, 서

면,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하여야 한다.

제7조 연구 윤리위반의 조사(2016. 8. 17 신설)

1. 위원회는 부정행위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육아정책연구 윤리 규정 제4조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에 의뢰하여 조사를 수행한다.
2. 위원회는 이의 제기 또는 소명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 내용과 절차를 확정한다.
3. 연구부정행위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판정한다.
4. 연구윤리 위반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위원의 경우,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으나 관련된 사항의 의결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5.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8조 소명기회와 비밀보장(2016. 8. 17 신설)

1. 연구윤리 지침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연구자는 위반 사실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연구윤리 지침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2.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연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4. 위원회는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된다.

제9조 조사결과에 따른 통지(2016. 8. 17 신설)

1.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3.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연구윤리 지침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

1. 본 학술지에 기 게재된 논문 중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논문을 학술지에서 삭제하며 이를 [육아정책연구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 및 심사 시스템]과 육아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2. 연구윤리에 대한 위반이 확정된 연구자의 논문은 본 학술지에 게재될 수 없으며, 관련기관 통보 및 향후 최소 3년간 본 학술지에 논문투고를 제한한다.(2016. 8. 17 개정)

부 칙

① (시행일) 본 연구윤리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연구윤리규정은 2012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연구윤리규정은 2016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육아정책연구」 논문 투고 지침

제정 2007. 1. 12.
개정 2010. 4. 7.
2011. 10. 10.
2012. 4. 10.
2012. 10. 15.
2014. 8. 1.
2016. 4. 26.
2016. 8. 17.
2017. 8. 22

1. 논문 주제

1) 육아정책 개발, 분석 및 평가
2) 육아정책 입안의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3) 기타 육아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주제

2. 논문 형태

논문 형태는 학술 논문에 요구되는 형식과 체계를 갖추어 작성된 연구 논문이어야 하며,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3. 발간횟수 및 시기

「육아정책연구」의 발간횟수는 연간 3회를 원칙으로 하며, 발간 시기는 매년 1호는 6월 30일, 2호는 9월 30일, 3호는 12월 31일로 한다.(2016. 4. 26 개정)

4. 논문 투고 방법 및 유의점

1) 투고자는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을 통한 논문 제출과 함께 <별첨 2>의 연구윤리 준수 양식과 <별첨 3>의 저작재산권양도확인서를 육아정책연구 편집위원회에 이메일(kcep@kicce.re.kr)로 제출한다.(2016. 8. 17 신설, 2017. 8. 22 개정)
2) 투고자는 [육아정책연구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 및 심사 시스템]에서 연구윤리서약을 한 후에 논문을 제출한다.
3) 논문은 상시 투고할 수 있으며 투고 마감일은 1호 3월 31일, 2호 7월 31

일, 3호 10월 31일로 한다.(2016. 4. 26 개정)

4) 논문 투고는 한 호당 1저자에 한하여 1회로 제한한다. 다만 게재 논문의 저자가 중복될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게재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2011. 10. 10. 신설, 2012. 10. 15. 개정)

5. 논문 작성

1) 논문 작성은 <별첨 1>의 「육아정책연구」 논문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양식에 맞지 않는 논문은 심사하지 않고 반송하여 양식을 갖추어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6. 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

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지원한다.(2012. 4. 10. 개정)

부 칙

① (시행일) 본 지침은 2007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지침은 2010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지침은 2011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지침은 2012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지침은 2012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지침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지침은 2016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지침은 2016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지침은 2017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

□ 논문 작성

○ 투고 논문은 논문제목, 성명, 국문요약, 주제어, 본문내용, 참고문헌, 영문초록 순으로 작성한다.
○ 논문 저자의 성명은 한글로 표시하고, 외국인 저자의 성명은 원어 그대로 쓴다.
○ 공동저자일 경우 제1저자를 먼저 제시한다. 제1저자의 구분이 없는 경우, 논문 투고신청서 <참고사항>에 그 사항을 명기한다.
○ 저자의 소속은 각주 처리한다.
○ 국문초록은 300자 이내로 작성하고, 그 밑에는 5개 이내의 주제어를 국문으로 적는다.
○ 영문초록은 200단어 이내로 작성하고 그 밑에 5개 이내의 주제어(Key words)를 영문으로 적는다.
○ 논문의 문장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의미에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한자로 표기하거나 괄호 안에 원어로 표기한다.
○ 논문 분량: 논문 편집 기준으로 25쪽 이내로 제한한다(영문초록 및 참고문헌 포함).

□ 편집양식

○ 작성도구: 한글 2004 이상

여백주기		바탕글				각주모양		머리말	
		문단모양		글자모양				**홀수쪽만 설정**	
위쪽	**40.0**㎜	왼쪽여백	0	한(자)글	**신명조**	번호모양	1)	글자모양	
아래쪽	**40.0**㎜	오른여백	0	영문	HCI Tulip	구분선길이	5 Cm	한글·영문:	굴림체
왼쪽	**40.0**㎜	들여쓰기	0			구분선위	3 ㎜		
오른쪽	**40.0**㎜	줄간격	**160**	장평	**95**	구분선아래	2 ㎜	글자크기	**9**
머리말	**15.0**㎜	문단위	0	자간	**-4**	각주사이	1 ㎜	장평	**95**
꼬리말	**15.0**㎜	문단아래	0	크기	**10.5**			자간	**-4**
제본	0 ㎜	낱말간격	0					오른여백	**0**
		정렬방식	혼합					정렬방식	**오른쪽**
※ 용지종류 A4, 용지방향 보통으로 할 것									

분류 \ 값		글자크기	글 꼴	줄간격	문단위	문단아래	정렬방식
본문	학술지 본문	**10.5**	신명조	**160**	-	-	**양쪽**
	Ⅰ. (장)	**15**	견명조	**160**	**30pts**	**15pts**	**양쪽**
	1. (절)	**13**	한컴돋움	**160**	**15pts**	**12pts**	**양쪽**
	가. (항)	**12**	한글, 영문: HY그래픽	**160**	**12pts**	**10pts**	**양쪽**
	1)	**12**	한글, 영문: 중고딕	**160**	**10pts**	**5pts**	**양쪽**
	가)	**11**	한글, 영문: 중고딕	**160**	**10pts**	**10pts**	**양쪽**
	(1)	**10.5**	중고딕	**160**	-	-	**양쪽**
	면담인용문	**9.5**	새굴림	**130**	**10**	**10**	**가운데**
표 (그림)	표 제목 / 그림 제목	**10.5**	한글, 영문: 중고딕	**130**	**15pts**	-	**가운데**
	단 위	**10**	중고딕	**130**	-	-	**오른쪽**
	내 용	**9.5**	중고딕	**130 이하**	-	-	**(앞부분은 양쪽정렬)**
	주/자료	**9**	중고딕	**130**	-	**2pts**	**양쪽**
각주	내 용	**9**	신명조	**130**	-	-	**양쪽**
참고문헌	제 목	**15**	한컴돋움	**130**	**30**	**15pts**	**양쪽**
	내 용	**10**	신명조	**140**	-	**5pts**	**양쪽**
교신저자	내용	**10**	새굴림	**140**	-	**4pts**	**양쪽**
영문요약	영문제목	**15**	Times N. R.(진하게)	**160**	-	**50pts**	**가운데**
	영문저자명	**12.5**	신명조				
	영문내용	**11**	Times N. R	**160**	-	-	**혼합**

○ 표와 그림

- 그림과 표에 사용되는 양 괄호는 Ctrl+F10 → 문자코드 3412와 3413인 [,] 및 3414와 3415인 〈,〉 를 사용하고, 서술형 본문에서 설명할 때는 자판기의 < >, [ ]를

사용함.

- 표와 그림은 원본을 그대로 복사·인쇄할 수 있도록 투고자가 완벽하게 그려서 제출한다.
- 표의 선 모양은 맨 윗줄은 이중선, 맨 아랫줄은 가는 실선(0.1mm)으로 하고 좌우 테두리 세로선은 없앤다. 가로 구분선은 최소로 사용하고 꼭 필요한 경우 가는 실선이나 가는 점선을 사용한다.

□ 인용과 참고문헌

<인용>

○ 논문 작성시 인용하는 내용이 짧은 경우에는 본문 속에 기술하고, 긴 경우(3행 이상)에는 본문에서 따로 떼어 기술한다. 따로 떼어 기술하는 경우에는 인용 부분의 아래 위를 본문에서 한줄씩 비우고 좌우 각각 3글자씩 들여 쓴다.

○ 인용하는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발행연도를 표시한다.

<예> 이에 대해 홍길동은(2006)...

○ 인용하는 저자명이 본문에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 말미에 괄호를 치고 그 속에 저자명과 발행연도를 표시한다. 문헌들 사이를 쌍반점(;)으로 가른다.

<예> 한 연구(홍길동, 2006; Anderson, 2005)

○ 저자가 다수일 경우 3인까지는 모두 표시한다. 4인 이상은 세번째 저자까지 표시하고 OOO 외(국내저자), 또는 et al.(국외저자)로 나타낸다.

<참고문헌>

○ 논문 말미에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제시한다. 여러나라 문헌을 참고하는 경우에는 한, 중, 일, 서양서 순으로 열거한다. 아래에 예시한 참고문헌 작성방식은 대체로 APA 양식을 따른다.

- 단행본

홍길동(2006). 육아지원 방안 연구. 서울: OOO

- 정기간행물의 논문

홍길동·김길동(2006). 육아지원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 25(4), 1-28.

- 학위논문

홍길동(2006). 육아지원 방안 연구. 박사학위논문. OO대학교 대학원.

- 인터넷 자료

홍길동(2006). 육아지원 방안 연구. http://www.kicce.re.kr

- 신문기사

OO일보 2006. 1. 1. 육아지원 방안 연구

※ 영문

- 도서명은 이탤릭체로 할 것
- 논문 제목은 첫 자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표기할 것. 단, 정기간행물의 도서명은 각 단어를 대문자로 표기할 것.

<별첨 2> 편집위원회 이메일(kcep@kicce.re.kr)로 제출

「육아정책연구」 연구윤리 준수 양식

OOOO년 O월 OO일

<table>
<tr><td>권/호수</td><td colspan="4">( ) 권 ( ) 호</td></tr>
<tr><td rowspan="2">논문 제목</td><td>국문</td><td colspan="3"></td></tr>
<tr><td>영문</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5">저자</td><td>번호</td><td>성명</td><td colspan="2">소속 및 직위</td></tr>
<tr><td>1</td><td></td><td colspan="2"></td></tr>
<tr><td>2</td><td></td><td colspan="2"></td></tr>
<tr><td>3</td><td></td><td colspan="2"></td></tr>
<tr><td>4</td><td></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교신저자</td><td colspan="2">성명</td><td></td><td>연락처</td><td></td></tr>
<tr><td colspan="2">e-mail</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5">학위논문 여부</td><td colspan="2">학위</td><td colspan="2">박사학위 ( ) / 석사학위 ( )</td><td rowspan="5">학위논문 아님
( )</td></tr>
<tr><td colspan="2">학위수여일자</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학위수여학교</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지도교수</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심사위원</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3">학술대회 발표</td><td colspan="2">학술대회명</td><td colspan="2"></td><td rowspan="3">미발표 논문( )</td></tr>
<tr><td colspan="2">발표일자</td><td colspan="2">년 월 일</td></tr>
<tr><td colspan="2">발표형식</td><td colspan="2">구두( ) / 포스터( )</td></tr>
<tr><td rowspan="2">연구비 지원</td><td colspan="2">지원기관</td><td colspan="2"></td><td rowspan="2">지원받지 않음( )</td></tr>
<tr><td colspan="2">지원년도</td><td colspan="2">_____ 년도</td></tr>
<tr><td rowspan="3">연구윤리 관련</td><td rowspan="2">KCI 유사도 검사(필수)</td><td colspan="4">_____ % (20% 이상 시 아래 '사유란'에 사유를 기재)</td></tr>
<tr><td colspan="4">사유:</td></tr>
<tr><td>IRB 승인(권장)</td><td colspan="4">승인번호: _____</td></tr>
<tr><td>참고사항</td><td colspan="5">※ 기타 참고 사항이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td></tr>
</table>

육아정책연구소 학술지 편집위원장 귀중

<별첨 3> 편집위원회 이메일(kcep@kicce.re.kr)로 제출

저작재산권양도확인서

구분	육아정책연구 제 권 제 호
논문제목	

저자(들)는 본 원고가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육아정책연구』에 게재가 확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하여 동의함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1. 저자(들)는 본 논문이 창의적이며 다른 연구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2. 저자(들)는 본 논문에 실제적이고 지적인 공헌을 하였으며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모든 책임이 있음을 확인 합니다.
3. 본 논문은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으며(연구원 보고서 제외), 현재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목적으로 제출되었거나 제출할 계획이 없습니다.
4. 본 학술지의 발행인은 저자(들)나 본 학술지 발행인의 허락 없이 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배타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5. 『육아정책연구』에 게재된 원고의 저작권은 육아정책연구소에 귀속되며, 원고의 투고로서 원고의 저작권을 육아정책연구소로 양도합니다.
6. 저자(들)는 본 논문이 『육아정책연구』에 게재될 경우, 본 논문의 저작재산권 중 공중송신권(전송권), 출판권, 복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의 행사에 관한 권리 일체의 사항을 육아정책연구소에 양도합니다.

20 년 월 일

저자	성명	소속 및 직위	e-mail	연락처	서명
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1					
공동저자2					
공동저자3					

육아정책연구소장 귀하

제 목

OOO[1] OOO[2]

요 약

국문요약입니다.

주제어: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연구

Ⅰ. 서론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Ⅱ. 연구방법

1. OOOO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표 1〉 OOO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점

sample	sample	sample	sample	sample
	sample	sample	sample	sample
	sample	sample	sample	sample
sample	sample	sample	sample	sample
	sample	sample	sample	sample
	sample	sample	sample	sample

주:

자료:

2.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

문 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가. OOOO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나. OOOO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다. OOOO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Ⅲ. 연구결과

1. OOOO 분석 결과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

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가. OOO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표 2〉 OOO

단위: %

sample	sample	sample	sample	sample
	sample	sample*	sample	sample
	sample	sample	sample**	sample
sample	sample	sample	sample	sample***
	sample	sample	sample	sample
	sample	sample	sample	sample

* $p < .05$, ** $p < .01$, ***$p < .001$

나. OOO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 인용문입니다. 인용문입니다. 인용문입니다. 인용문입니다. 인용문입니다. 인용문입니다. 인용문입니다. 인용문입니다. 인용문입니다. 인용문입니다. 인용문입니다. 인용문입니다. 인용문입니다.

Ⅳ. 논의 및 결론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Ⅴ.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참고문헌

장혜진·이정림·윤은주·김해인(2013).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제고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최은영·조혜주(2012). 유치원운영위원회 추진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최윤경·민정원·김기환·이세원(2013). 미래 육아지원정책 수요 전망 요구. 육아정책연구소.

·교신저자: 이름, 소속 및 직위, 이메일

Abstract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Gildong Hong and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육아정책연구』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이정원(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편 집 위 원

권미경(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권혜진(나사렛대 아동학과 교수)
김동훈(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김영옥(전남대 유아교육과 교수)
김은심(강릉원주대 유아교육과 교수)
김은영(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나 정(동국대 불교아동보육학과 교수)
남은영(서울여대 아동학과 교수)
박혜원(울산대 아동가정복지학과 교수)
서소정(경희대 아동가족학과 교수)
유해미(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이미화(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윤진(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정대련(동덕여대 아동학과 교수)
정미라(가천대 유아교육과 교수) (가나다순)

편 집 간 사

이재복(육아정책연구소 출판홍보팀장)
엄지원(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육아정책연구

제11권 제2호

인 쇄 2017년 9월 29일
발 행 2017년 9월 30일
발행인 우남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층, 4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http://www.kicce.re.kr
인쇄처 경성문화사 02) 786-2999

ISSN 1976-6793